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000.txt

제목: 당뇨엔 ok, 다이어트 글쎄…‘고구마’의 장·단점  
날짜: 201406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62803175  
본문: 30도를 웃도는 덥고 습한 초여름 날씨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고구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다면 뭔가 어울리지 않는 것일까? 보통 ‘고구마’하면 한 겨울 추위를 따뜻이 감싸주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군고구마’의 이미지가 강하긴 하지만 사실 계절과 상관없이 사랑받는 채소다.<br/>길쭉하고 동그란 담홍색 껍질을 벗겨내면 드러나는 하얀 속살은 굽거나 찜을 해주면 먹음직스러운 노란색으로 변하는데 특유의 달콤함과 담백함이 공존하는 그 맛은 전 세계에 어디에서나 각광받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고구마의 인지도는 특히 높은데 삶든 튀기든 굽든 어떻게 요리해도 맛을 잃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감자보다 칼로리가 낮으면서 당질과 비타민C는 높아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br/>이런 고구마가 건강에 좋은 영양분 덩어리라는 것은 의심할 필요가 없지만 정말 몸에 좋은 것만 있을까? 혹시 우리가 몰랐던 부작용이 있지는 않을까? 이와 관련해 미국 과학전문매체 라이브 사이언스닷컴은 ‘고구마’ 속에 숨겨져 있는 영양학적 장점과 단점을 정밀 분석한 칼럼을 지난 31일(현지시간) 소개했다. <br/><br/>미국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에 공인된 고구마의 영양성분과 의학적 장점은 다음과 같다.<br/>1. 심장 보호<br/>고구마 속에 풍부히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B6는 동맥경화를 유발해 심장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물질인 호모시스테인 분해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 또한 고구마에는 칼륨도 많이 들어있는데 이는 혈압을 낮춰주고 심장박동을 알맞게 조절해준다.<br/>2. 혈당 제어<br/>고구마의 달콤함은 높은 당질에서 비롯된다. 그런데 이 달콤함의 원천인 고구마 속 당분은 흔히 우리가 같은 고칼로리의 설탕과는 다른 ‘자연 설탕’성분이다. 이 자연 설탕은 혈류에 무리를 안주면서 천천히 몸에서 자연스럽게 감소되면서 필요한 에너지는 꾸준히 축적되도록 도와준다. 의학 연구결과에 따르면 고구마는 혈당조절에 민감한 2형 당뇨병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한다. 또한 고구마에는 뼈 형성을 돕는 ‘망간’도 풍부한데 이 성분 역시 혈당 수준을 건강히 유지시켜주면서 식욕조절에도 도움이 된다.<br/>3. 스트레스 감소<br/>고구마에 풍부한 마그네슘은 뇌를 진정시켜 휴식에 이르게 해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주며 동맥, 혈액, 뼈, 근육, 신경 조직에도 영향을 미쳐 이를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돕는다. <br/>4. 면역력 증강과 항염증 작용<br/>고구마에 가장 풍부한 3가지 영양소를 꼽으라면 비타민C, 비타민A, 비타민E다. 이들은 체내 면역 시스템을 강력히 지원해 각종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준다. 이들 영양분은 항염증 작용도 해 관절염 같은 염증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br/>5. 피부와 머릿결 보호<br/>고구마 속 비타민A는 태양 자외선으로부터 피부가 손상되는 것을 보호해준다. 이 성분은 콜라겐 성분 생성에도 영향을 미쳐 피부와 머릿결이 촉촉이 유지되도록 도와준다.<br/>6. 소화기관 <br/>고구마에 풍부한 식이섬유는 음식물 소화에 배출이 원활히 되도록 도와줘 건강한 소화기관 유지를 가능하게 한다.<br/>7. 암 예방<br/>미국 국립 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구마를 비롯한 녹황색 채소, 과일, 많이 함유되어 있는 색소군인 ‘베타카로틴’은 여성 난소암, 유방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 실제로 이 성분은 체내 항산화 작용, 유해산소 예방, 피부 건강 유지 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br/>고구마는 적당량을 섭취할 경우, 몸에 전혀 해가되지 않고 도움이 더 되는 건강식품이지만 맛을 잊지 못해 먹는 양이 늘어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br/>먼저 고구마는 생각보다 탄수화물 함량이 높다. 중간 크기 1개 기준으로 탄수화물 23g이 평균적으로 들어있는데 이를 칼로리로 환산하면 약 100칼로리로 같은 다이어트 식품인 브로콜리가 45칼로리인데 반해 그리 적은 양이 아니다. 너무 많이 섭취하면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는 뜻이다.<br/>또한 고구마에 충부한 비타민A는 분명 많은 장점이 있는 영양소이지만 매일 풍부하게 섭취할 경우, 피부를 황색 또는 오렌지색으로 바뀌게 할 수 있다. 이는 고구마 다이어트를 시도하는 주변인들에게서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증상인데 고구마 섭취를 줄이면 곧 정상으로 회복된다.<br/>마지막으로 고구마 과다 섭취는 신장결석을 유발할 수 있다. 신장 결석은 소변 안에 들어 있는 물질들이 돌과 같은 형태로 굳어져 콩팥 안에 침투해 여러 가지 합병증과 고통을 일으키는 질환인데 주원인은 칼슘과 옥살산나트륨이다. 고구마에는 옥살산 성분이 풍부해 결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적당량만 섭취하도록 조심해야한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신장결석을 예방하려면 적어도 하루 10잔 이상, 2∼3ℓ의 물을 마셔주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br/>사진=wikipedia<br/>조우상 기자 wscho@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001.txt

제목: 친구들의 귀신놀이에 기절, 얼마나 무섭길래!  
날짜: 201406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234145882  
본문: 친구들이 연출한 끔찍한 귀신놀이에 놀라 기절하는 남자의 몰래카메라 영상이 화제다.<br/><br/>지난 1일 유튜브의 인기채널 ‘포시튜브’(fouseyTube)에 올라온 ‘귀신놀이에 기절’(DEVIL PRANK ON fouseyTUBE GONE BAD!)이란 영상이 342만여 건의 조회수를 기록 중이다.<br/><br/>이 영상은 최근 친구들에게 호스를 이용, 물 공격을 가한 한 남성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를 준비하는 모습으로 시작한다.<br/><br/>한 남성이 몰래카메라가 설치된 집 안으로 들어온다. 그가 점퍼를 벗으러 방으로 들어가자 밖에서 대기 중이던 친구 한 명이 노크하고 도망친다. 문을 열고 밖을 확인하지만, 아무것도 없다.<br/><br/><br/><br/>잠시 후, 친구로부터 전화 한 통이 걸려온다. 친구는 다짜고짜 밖에 있다며 남성에게 열쇠를 가져다주기를 바란다. 친구가 열쇠를 찾으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귀신처럼 긴 머리를 늘어뜨린 흰옷 차림의 여성이 문 앞에 선다. 그리고 거실은 암전된다.<br/><br/>암전된 상태의 거실. 어둠 속에서 휴대전화를 찾은 남성이 핸드폰을 찾아 플래시를 켠 순간, 귀신처럼 서 있는 여성의 모습에 비명을 지르며 기절하고 만다. 이를 숨어서 지켜보고 있던 친구들이 그의 기절에 놀라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낸다. 예상치 못한 친구의 반응에 친구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br/><br/>결국, 정신을 차린 남성은 흐느껴 울기 시작한다. 친구들이 장난임을 밝히자 안도의 한숨을 쉬며 촬영을 중단하라고 소리친다.<br/><br/>한편 ‘포시튜브’는 ‘누군가 나의 음료수를 뺏어 먹는다면?’, ‘내 휴대폰을 빌려 가서 떨어뜨린다면?’등 황당한 설정의 몰래카메라를 유튜브에 올려 큰 인기를 끌고 있다.<br/><br/>사진·영상= fouseyTUBE/유튜브<br/><br/>손진호 기자 nasturu@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002.txt

제목: “교도소 수감 중 B형간염 진단… 치료 못받아 숨져”  
날짜: 201406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232146202  
본문: 교도소 수감자가 정기 건강검진에서 B형 간염보균 진단을 받고도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해 간암으로 진행돼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br/><br/><br/>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경북 북부 제1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A씨는 2012년 8월 건강검진에서 ‘B형 간염이 있으니 정기적인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간질환 검사를 받지 못했고 그 사이 간염이 암으로 전이돼 49세가 되던 지난해 3월 숨졌다. A씨는 숨을 거두기 보름 전 인권위에 “교도소가 제대로 된 간질환 검사를 해주지 않았다”면서 진정을 제기했다.<br/><br/><br/>인권위는 조사를 거쳐 지난해 12월 “<span class='quot0'>간암 진단이 늦어져 A씨는 다른 치료 방법을 선택하거나 죽음을 준비할 기회를 잃어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span>”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교도소장에게 의료과장을 주의조치할 것과 관리·감독기관인 법무부 장관에게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br/><br/><br/>하지만 교도소와 법무부 측은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도소 측은 A씨가 앓던 낭종, 요도염 등에 대해 약 2년간 700여회 진료를 하는 등 그의 요구를 무시하거나 방치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 A씨가 간질환에 대한 정밀 검사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고 간암 초기 증상이 있다는 사실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 조치가 미흡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br/><br/><br/>인권위 관계자는 “<span class='quot1'>건강검진 결과가 교도소 의료과에도 통보됐기 때문에 ‘A씨의 질환을 미리 알 수 없었다’는 교도소 측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span>”면서 “<span class='quot1'>법무부와 교도소 측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향후 재소자 의료 처우가 적절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기로 했다</span>”고 말했다.<br/><br/><br/>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003.txt

제목: 청바지 덕분에 암 발견한 10대 소녀의 사연  
날짜: 201406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62546827  
본문: 16세 영국 소녀가 자신이 평소 즐겨입던 청바지 덕분에 암을 일찍 발견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해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br/>사우스웨일즈에 사는 에밀리 클락(15)은 평소 자주 입던 청바지가 어느 날 갑자기 꽉 끼인다는 느낌을 받았다. 특히 허리 부분이 유난히 조여서 바지를 입지 못할 정도였다. <br/>단순히 살이 쪘다고 생각할수도 있었지만, 클락은 이를 간과하지 않았다. 심상치 않음을 느낀 소녀는 곧장 병원으로 향했고, 복부에 종양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br/>클락의 병명은 비호지킨림프종(non-Hodgkin lymphoma). 면역체계와 연관이 있는 림프종에 악성 종양이 생기면서 발생하는 암의 일종이다. <br/>그녀는 “유난히 청바지가 타이트해진데다 배가 평소보다 많이 부풀어 올랐다고 느꼈다”면서 “하지만 몸에 전혀 통증이 없었기 때문에 종양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br/>이어 “만약 청바지가 꽉 끼는 것을 느끼지 못했다면 오랫동안 암을 방치할 수도 있었다. 청바지가 내 목숨을 살렸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br/>클락의 엄마 역시 청바지에 ‘고마움’을 느낀다고 전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은 단순히 딸 아이가 청바지가 너무 타이트함을 느끼면서 일어난 것”이라면서 “아무런 증상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할 수 있었다”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br/>이후 그녀는 4개월 간 병원에 머물며 화학요법 치료를 받았고 현재는 건강을 많이 회복한 상태다.<br/>클락은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저 이것(종양)은 쓰레기일 뿐이며, 버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br/>퇴원 이후 이전보다 더 밝은 모습으로 일상을 보내는 그녀는 현재 사람들에게 골수와 혈액 기증 동참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br/>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004.txt

제목: 알고 계신가요? 영양덩어리 ‘수박’의 장·단점  
날짜: 201406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62417119  
본문: 30도를 웃도는 때 이른 여름 날씨가 온 몸을 후끈거리게 하는 요즘, 특히 생각나는 과일이 있다면 ‘수박’이 아닐까? <br/>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초록색 껍질을 칼로 푹 잘라내면 드러나는 빨갛고 달콤한 속살은 상상 만해도 입에 군침을 돌게 한다. 특히 수박은 성분의 92%가 ‘물’ 이기에 더운 날 갈증해소에 그만이며 비타민, 아미노산, 칼륨 등 각종 영양분이 풍부한 건강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다.<br/>그런데 과연 수박은 무조건 섭취해도 몸에 좋기만 한 영양분 덩어리가 맞을까? 우리가 몰랐던 부작용이 있지는 않을까? 미국 과학 전문매체 라이브 사이언스닷컴은 여름철 특히 판매량이 급증하는 수박의 영양학적 장·단점을 분석해 31일(현지시간) 소개했다. <br/><br/>미국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에 공인된 수박의 영양성분과 의학적 장점은 다음과 같다. <br/>1. 심장 건강보호<br/>수박 속에 함유된 아미노산인 시트룰린과 아르기닌 성분은 심장 질환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 특히 아르기닌은 체내 혈액 흐름을 향상시키고 축적 지방을 감소시켜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도와준다. 지난 2012년 한 의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박열매 추출물이 성인 고혈압 수치를 낮춰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br/>2. 항염증 효과<br/>토마토에도 많지만 같은 빨간색 계열인 수박 속에도 풍부한 카로티노이드 색소 ‘리코펜’은 항염증 효과가 탁월해 신체 면역체계를 견고히 만들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리코펜은 체내에 발생하는 다양한 염증 프로세스를 사전에 억제하며 활성 산소를 중화하는 항산화작용을 한다. 이런 영양학적 특성은 관절염 예방에서 큰 효과를 발휘한다.<br/>3. 열사병 예방<br/>수박 성분의 92%가 물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수박에는 풍부한 수분과 전해질이 듬뿍 담겨있어 뜨거운 여름날 찾아오기 쉬운 열사병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br/>4. 소화불량 예방<br/>수박에는 물이 많은 만큼, 섬유질도 풍부하다. 이는 사람들의 소화기관을 건강하게 만들어 음식물 흡수와 배출이 원활하도록 도와준다.<br/>5. 촉촉한 피부와 머릿결 보호<br/>수박 속에 풍부한 영양분 대표적인 것 2가지를 꼽으면 비타민A와 비타민C가 있을 것이다. 비타민A는 체내세포의 성장을 도와줘 촉촉 피부와 머릿결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비슷하게 비타민C도 체내 콜라겐 성장을 촉진해 같은 측면에서 큰 효과를 발휘한다.<br/>6. 근육통 예방<br/>지난 2013년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격렬한 운동 전, 수박을 갈아 만든 주스를 마셔주면 다음 날 근육 통증과 심장 통증을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수박 속에 풍부한 (앞서 언급된) 아미노산 시트룰린과 아르기닌이 혈액 순환을 개선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br/>7. 암 예방<br/>수박 속에도 풍부한 카로티노이드 색소 ‘리코펜’은 항산화작용은 물론 암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 미 국립 암 연구소에 따르면, 이 리코펜은 특히 전립선 암 세포 증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br/><br/>이토록 영양분이 풍부한 수박을 적당한 양으로 섭취할 경우, 큰 문제는 없다. 다만 과유불급(過猶不及)이라는 말처럼, 지나칠 경우 언제나 문제는 발생된다. 항암작용을 하는 리코펜이나 고혈압을 예방하는 칼륨도 매일매일 매끼마다 수박을 섭취해 체내수치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오히려 병이 생긴다는 뜻이다.<br/>영양 전문가들은 매일 리코펜 30㎎을 섭취하는 것이 잠재적으로 구역질, 설사, 소화 불량, 복부 팽만감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수박 섭취에 주의해야할 사람은 체내 칼륨 농도가 정상치인 3.5~ 5.5mmol/L를 초과하는 ‘고칼륨혈증’ 환자들이다. 이들은 수박을 과하게 섭취할 경우 심장 박동 수가 불규칙해지는 부정맥 등의 심혈관질환이나 근육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한다. <br/>자료사진=포토리아<br/>조우상 기자 wscho@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005.txt

제목: “흡연이 남녀 모두의 사망률 높인다”  
날짜: 201406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230457349  
본문: 담배가 한국인을 비롯한 아시아인의 사망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한 연구 결과가 처음으로 나왔다. 결론부터 말하면, 흡연이 성별에 관계없이 사망률을 크게 높였다.<br/><br/><br/><br/><br/><br/><br/><br/>서울대의대 예방의학교실 유근영·강대희·박수경 교수팀은 한국을 비롯해 중국·일본·싱가포르·타이완·인도·방글라데시 등 아시아 7개국 21개 코호트 연구에서 선정된 45세 이상 성인 105만 명을 10년 이상 장기간 추적 관찰한 연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코호트 연구란,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특정 인구집단(코호트)을 대상으로 특정 질병 발생과 연관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특성을 수집한 뒤 경과를 추적·관찰하는 역학적 연구방법이다.<br/><br/>분석 결과, 흡연자의 경우 비흡연자에 비해 남성은 1.44배, 여성은 1.48배나 사망률이 높게 나타났다. 아시아인의 남성 흡연율은 65.1%, 여성 흡연율은 7.1%로 각각 나타났다.<br/><br/>연구팀에 따르면, 추적관찰 기간 중 모두 12만 3975명이 사망했는데, 이 가운데 흡연과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한 비율이 남성은 15.8%, 여성은 3.3%에 이르렀다. 이를 근거로 7개국에서 흡연과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2004년 현재)은 무려 157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연구팀은 “7개국 인구를 모두 합하면 아시아 전체 인구의 71%에 해당하는데, 이를 근거로 산출하면 전체 아시아인 중 약 200만명이 흡연과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br/><br/>세부적으로는, 남성의 경우 심혈관질환 사망자의 11.4%, 암 사망자의 30.5%, 호흡기계 질환 사망자의 19.8%가 흡연과 관련이 있었다. 이에 비해 여성의 경우는 각각 3.7%, 4.6%, 1.7%가 흡연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br/><br/>특히 흡연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질환은 폐암으로 조사됐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폐암 발생률이 3~4배 높았으며, 성별로는 남성 폐암 환자의 60.5%, 여성 폐암 환자의 16.7%가 흡연과 관련 있었다. <br/><br/>유근영 교수는 “<span class='quot0'>2004년 기준으로 아시아에서 45세 이상 성인 약 2백만 명이 흡연과 관련된 질환으로 사망했을만큼 흡연은 아시아인에서 사망 위험을 높이는 매우 중요한 위험요인</span>”이라면서 “<span class='quot0'>금연에 관한 조직적인 관리대책이 따르지 않는다면 향후 수십 년 동안 흡연과 관련된 질병은 계속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span>”이라고 경고했다.<br/><br/>강대희 교수는 “<span class='quot1'>엄밀하게 말 해 흡연자의 의지만으로는 완전한 금연이 어려운 문제인만큼 정부가 실효성있는 금연정책을 제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실행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span>”면서 “<span class='quot1'>흡연자들도 건강한 삶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담배를 끊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span>”고 조언했다.<br/><br/>이번 연구는 2005년 출범한 100만명 규모의 아시아 코호트 컨소시엄(Asia Cohort Consortium)을 활용해 이뤄졌으며, 이번 연구에는 한국에서 2개의 코호트가 참여했다. 연구주제의 발제와 책임연구는 미국 반더빌트대학 웨이 쩽 교수가 주도했다. 이 연구 결과는 세계적 권위의 학술지(PLoS Med) 4월 22일자에 게재됐다.<br/>　심재억 의학전문기자 jeshim@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006.txt

제목: “소식(小食)하면 몸 속 암세포 줄어든다” (美연구)  
날짜: 201406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62300613  
본문: 평소 적은 칼로리를 섭취해주는 식습관이 암세포 성장·확산을 줄여주고 타 장기로의 전이를 막아준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br/>최근 미국 필라델피아 토머스 제퍼슨 대학 방사선종양학과(radiation oncology) 연구진은 소식(小食) 습관이 여성 삼중음성유방암(triple negative breast cancer)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br/>연구진은 암세포를 보유하고 있는 실험용 쥐의 식단을 칼로리를 엄격하게 제한한 ‘소식 식단’으로 바꾼 뒤 암세포 변화 여부를 살폈다. 놀랍게도 쥐의 섭취 칼로리가 줄어들면서 몸 속 암세포의 성장도 더뎌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칼로리가 줄어들면서 생물 유전자 발현을 제어하는 쥐 몸속 마이크로RNA 수치 역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r/>흥미로운 것은 칼로리 섭취가 줄어들면 방사선 치료 효과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실제로 쥐 몸 속 마이크로RNA 수치가 가장 떨어졌을 때는 방사선 치료와 소식이 병행됐을 때였다.<br/>토머스 제퍼슨 대학 방사선종양학과 니콜 시몬 박사는 “<span class='quot0'>칼로리 제한 섭취가 체내 단백질 생산을 증가시켜 암세포 주위 조직을 단단히 만들어 세포의 성장을 저해하면서 타 장기로의 전이·확산을 억제하는 것 같다</span>”고 추정했다.<br/>실제로 과거 의학 연구 결과 중에는 과체중일 경우, 유방암 치료 효과가 감소된다는 것과 치료 기간 중 체중이 증가할 경우 예후 및 경과가 안 좋았다는 기록이 남아있다.<br/>연구진은 “<span class='quot1'>동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인 만큼 아직 일반화시키기에는 이르지만 향후 암 치료에 있어 주목할 만한 결과</span>”라고 설명했다. <br/>한편 이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인 ‘유방암 연구(Breast Cancer Research)’에 발표됐다. <br/>자료사진=포토리아<br/>조우상 기자 wscho@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007.txt

제목: 서울대교수 시국선언 전문 “섣부른 처방보다 면밀한 진단이 먼저”…2차 시국선언  
날짜: 2014053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225457265  
본문: ‘서울대교수 시국선언 전문’<br/><br/>서울대 교수 204명은 30일 오후 ‘세월호 참사, 섣부른 처방보다 면밀한 진단이 먼저다!’는 제목의 2차 시국선언을 발표했다.<br/>다음은 서울대 교수 204명의 시국선언 전문.<br/><br/>세월호 참사, 섣부른 처방보다 면밀한 진단이 먼저다!<br/><br/>우리 현대사 최악의 재난사고인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한 달하고 열흘이 지났다. 그 사이 인명구조를 바라던 유가족들의 희망은 눈물과 고통 속에 절망으로 바뀌었다. 실종자 유가족들은 이제 시신이라도 빠짐없이 수습하여 가족 품으로 돌아오게 하라고 절규하고 있다.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이 장면들을 지켜보는 국민은 함께 통곡하면서 추모와 자원봉사와 자기성찰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분노하고 있다.<br/>외국 언론은 이번 참사를 “문명권 최악의 부도덕한 해난사고”로 규정하였다. 참사를 잉태하고 낳고 키운 부도덕은 암 덩어리처럼 국가와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다. 대형 참사가 되풀이될 때마다 우리는 소름끼칠 정도로 문제를 느끼곤 하였지만, 세월과 함께 곧 잊어버리고 지내왔다. 그것이 마침내 이렇게 ‘세월호 괴물’로 우리에게 되돌아온 것이다. 더할 수 없는 최악의 지경에 이른 이번에도 우리는 또 그러고 말 것인가? 그렇다면 스스로 우리나라를 “문명권” 바깥으로 내치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br/>그 괴물을 낳은 부도덕의 카르텔은 넓고 깊다. 정부당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문명의 규제를 풀어 기업의 이윤추구 자유가 왜곡되어 도를 넘게 만들어버렸다. 연구용역을 맡은 일부 교수들은 전문가의 이름으로 거기에 그럴듯한 명분을 만들어주었다. 문명의 규제를 벗어난 자유는 그 주체가 국가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야만의 자유다. 이번 참사에서 정부는 정부대로, 언론은 언론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선장과 ‘관피아’는 그들대로 야만의 자유를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게다가 대선캠프에서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 각 부처 수장들은 각 분야의 전문성을 조롱하면서 초월적 권한을 행사하되 책임에는 눈감거나 비켜갔다. 4월 16일 오전 8시 48분 마각을 드러낸 괴물 세월호는 그들의 합작품으로 탄생하였다.<br/>그러나 세월호가 전복되기 시작한 바로 그 때 국가의 재난대응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탑승객을 모두 구조하여 인명피해 없는 사고로 끝낼 수 있었다. 10시 31분 완전 침몰하기까지 전원구조가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후의 구난과 구조 과정에서 벌어진 어이없는 정부대응이 배의 전복 사고를 최악의 참사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주요 언론은 정부발표를 그대로 ‘받아쓰기’ 하면서 사태를 악화시켰고, 정부는 ‘받아쓰기’를 강요하였음이 내부자의 고백과 집단 성명으로 드러났다.<br/>유가족과 국민은 청와대가 재난 컨트롤 타워라며 인명구조와 시신수습의 최종책임을 묻고 있다. 기실 박근혜정부는 대선공약에 따라 국민안전을 위한다며 안정행정부를 출범시켜 재난업무에 대한 총괄조정기능을 맡겼다. 그러나 경주 리조트 체육관 참사에 이어 불과 두 달 만에 세월호 참사가 터졌다. 어이없게도 안행부 장관은 구조책임은 해경에 있고 자신은 그 “<span class='quot0'>보고를 받아 종합하고 발표하는 역할</span>”을 할 뿐이라고 발뺌하였다. 사고 직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책임을 회피하였다. 한 달 후 대통령은 5.19담화에서 처음으로 최종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니까 사고 당시에는 구조와 구난의 지휘부가 사실상 아예 없었던 셈이다. 안행부와 해수부, 해경과 해군 사이에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한 협조는 원천적으로 기대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들이 허둥대고 늑장부리고 몸 사리고 윗선 보고에 신경 쓰는 사이 천금같은 1시간 40분이 유가족의 절규와 함께 사라져버렸다.<br/>그리하여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만 믿고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던 학생과 교사와 시민, 서비스직 선원들은 물 속에 잠겨버렸다. 그 절망의 상황에서도 그들이 보인 양보하고 배려하며 나누고 희생하는 정신이야말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자들의 부도덕한 카르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왜 “문명권”에 속하는 나라이며 왜 공화국인지를 고통스럽게 재확인시켜주었다. 학생들에 대한, 가르치는 자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감과 가장 낮은 생존율을 보인 교사들의 희생이 아프게 가슴을 찌른다. 우리가 지금 이 고통을 감내하면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더 이상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진실로 더 이상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br/>유가족들은 대통령의 5.19담화를 지켜본 후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면서 국민에게 호소하였다. 충격요법의 조직개편보다 실종자 수습과 진상규명이 먼저이니 이를 위해 국민이 함께 해달라는 것이다. “<span class='quot1'>치유의 시작은 책임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진정한 자기반성이고 그 완성은 철저한 진상규명입니다.</span>” 이것이 그들의 바람이다. 그동안의 연속된 참사는 진상규명도 그에 따른 엄중한 문책도 없이 탁상에서 마련된 섣부른 대책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웅변한다.<br/>이에 우리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대학과 교수 개개인은 과연 그 본연의 원칙과 책임에 얼마만큼 충실했는지 자문하면서, 유가족의 호소에 호응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br/>1. 이제라도 국가가 적극 나서 유가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첫걸음은 그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5월 16일 대통령이 유가족 대표와 만나서 “유가족 여러분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의견을 주면 꼭 바로잡겠다.”고 한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br/>1. 유가족들의 요청대로, 그 대표가 참여하고 정부로부터 독립된 진상조사기구를 특별법으로 설치하여 배의 전복-침몰-참사의 단계별 경위와 인명구조가 실패한 원인을 한 점 의혹 없이 규명해야 한다. 조사대상인 정부는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협조해야 하며, 국회는 유가족의 의견이 곧 민의임을 직시하고 ‘실종된 정치’를 회복해야 한다.<br/>1. 조사결과에 따라 책임을 엄히 묻는 인적 제도적 쇄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과정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하여 만인이 열람하고 이를 내일의 거울로 삼을 수 있게 해야 한다. 곳곳에 똬리를 튼 ‘세월호 괴물’과의 격투는 이렇게 시작되어야 한다.<br/><br/>2014년 5월 30일<br/><br/>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서울대학교 교수 일동<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008.txt

제목: [함께 성장하는 기업] 아모레퍼시픽  
날짜: 201405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223902966  
본문: 아모레퍼시픽은 화장품 기업답게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로 7년째를 맞는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와 14년째를 맞은 ‘핑크리본캠페인’이 대표적이다. <br/><br/>두 프로그램 모두 암을 예방하고 극복하는 여성들을 격려하고자 마련한 것으로 내·외면의 아름다움을 지켜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견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br/><br/>아름다운재단과 손잡고 운영하는 ‘희망가게’는 저소득 한부모 여성 가장의 창업을 도와 빈곤 탈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음식점, 미장원, 개인택시, 매점, 꽃집 등 다양한 분야의 창업을 지원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모자가정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해 왔다.<br/><br/>2004년 1호점을 개설한 희망가게는 지난해 200호점 개설을 기록했다. 10년간 사업이 번창하는 동안 여성 가장들의 삶은 획기적으로 향상됐다. 희망가게 창업주들의 평균 소득은 창업 전 98만원에서 창업 후 253만원으로 약 2.5배나 증가했고, 정부의 생계비 지원을 받는 일반수급자 비율은 22.6%에서 11.8%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경제적 안정뿐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 개선, 사업을 통한 자신감 획득 등 개인적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도 큰 역할을 했다.<br/><br/>박상숙 기자 alex@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009.txt

제목: “소득 수준 따라 발병하는 ‘암 종류’ 달라”  
날짜: 201405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61947307  
본문: 보통 ‘암’ 질환은 사람의 교육 수준, 소득 수준, 거주 환경 수준과는 관계없이 불특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체내 암세포가 환자의 사회적 배경을 고려해서 발현되거나 그렇지 않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br/>하지만 최근 국제 학술지 암 저널(Journal CANCER)에 발표된 연구결과를 보면, 사회적·경제적 지위에 따라 나타나는 암 질환 유형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br/>미국 뉴욕 주 암 등록 사업국(New York State Cancer Registry)은 지난 2005~2009년 사이 미 전역 16개주(로스앤젤레스 포함)의 종양 보유 환자 300만 명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 환자들의 주거환경과 빈곤 정도를 조사했다. <br/>결과를 보면, 빈곤 정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주로 후두암, 자궁경부암, 간암, 카포시 육종(악성 종양의 한 형태)이 많이 발병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빈곤 정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고환암, 갑상선암, 피부암, 흑색 종이 주로 발병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주거환경과 생활습관의 차이가 발병하는 암 질환 종류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암시한다.<br/>이를 종합해보면 32~39 종류의 암 질환이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환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br/>또한 사회적, 경제적 지위는 암 발생 뿐 아니라 사망 가능성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연구진에 따르면, 빈곤함이 심할수록 암 자체 발병률은 낮지만 한번 발병했을 때 사망률은 높았다. 반면 빈곤함이 감소될수록 암 발병률은 높았지만 오히려 사망률은 줄어들었다. <br/>이와 관련해 연구를 주도한 프랜시스 보스코 박사는 “<span class='quot0'>빈곤함이 심할수록 암 발병 시 치료보다는 사망에 이를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것을 통계수치가 말해준다</span>”고 밝혔다. <br/>자료사진=포토리아　　<br/>조우상 기자 wscho@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010.txt

제목: ‘감자’는 정말 건강식품일까? 오해와 진실  
날짜: 201405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61720432  
본문: 기상 악조건에서도 웬만큼 수확이 가능해 흉년 때 큰 도움이 되는 구황작물이자 각종 영양분이 풍부한 건강식으로 알려진 ‘감자’는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식탁에서 사랑받는 식품이다.<br/>단백질, 비타민C 등 영양소가 듬뿍 들어있고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서부터 해발 5,000m에 달하는 고산지대에서까지 재배가 가능한 만능식품 ‘감자’는 정말 우리 몸에 유익한 영향만 끼치는 작물일까? 이와 관련해 미국 과학전문매체 라이브 사이언스닷컴은 감자의 영양학적 장점과 단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22일(현지시간) 소개했다. <br/><br/>미국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에 공인되어있으며 영양학 전문가들도 입을 모으는 감자의 의학적 장점은 다음과 같다.<br/>1. 혈압 조절<br/>감자에 풍부한 섬유질은 체내 인슐린 수치에 영향을 미쳐 혈당 수준을 알맞게 조절하고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 감자 속 칼륨 성분도 비슷한 작용을 하는데 이는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도록 도와준다. 또한 감자의 쿠코아민(kukoamines) 성분은 그 자체로 혈압강하 작용을 해준다.<br/>2. 뇌 기능 개선<br/>감자 속 비타민B6 성분은 뇌 중추신경에 영향을 미쳐 우울증 개선, 스트레스 해소, 숙면에 도움을 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비타민 B6 세로토닌, 멜라토닌, 에피네프린 등 뇌 신경전달물질 분비촉진에 영향을 끼친다. 또한 감자 속 탄수화물과 칼륨은 혈관을 확장시켜 뇌에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도움을 준다.<br/>3. 괴혈병, 감기 예방<br/>감자 속에 풍부한 비타민C는 체내 콜라겐 합성작용이 원활히 되도록 도와줘 괴혈병은 물론 감기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질환을 예방해준다. <br/>4. 소화 작용, 관절염 예방<br/>감자 삶은 물(그냥 감자 포함)을 마셔주면 비타민C, 칼륨, 비타민 B6가 직접 체내로 유입돼 소화 기관 및 내장 염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 함께 유입되는 칼슘과 마그네슘은 뼈에도 큰 영향을 끼쳐 관절염 등의 류머티즘 질환 예방에도 긍정적 작용을 한다. <br/>5. 심장 건강<br/>감자 속 비타민C, B6 성분은 생체조직을 공격하고 세포를 손상시키는 체내 활성 산소를 감소시켜주고 혈액순환을 도와 심장건강 유지에 큰 영향을 끼친다.<br/>6. 암 예방<br/>감자에 풍부한 항산화물질인 플라보노이드는 암세포 성장을 막아주는 작용을 한다. <br/>7. 피부 개선<br/>감자 속 비타민C, 비타민 B6, 칼륨, 마그네슘 , 아연, 인 성분은 모두 웬만한 화장품 크림보다 피부에 이로운 작용을 한다. 전문가 중 일부는 으깬 감자를 직접 피부에 발라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고 조언하기도 한다.<br/><br/>1. 높은 탄수화물 함량<br/>감자 속에 풍부한 탄수화물 함량은 비만 체형이나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건강한 사람들과 달리 이미 당뇨병을 앓고 있을 경우 감자 속 탄수화물은 혈당을 상승시키고 인슐린 수치에도 좋지 않게 작용할 수 있다. 과체중이나 당뇨를 앓고 있다면 감자 섭취를 줄여주는 게 좋다. <br/>2. 독성<br/>감자의 잎, 뿌리, 싹 부분에는 ‘글리코알칼로이드’라는 독성물질이 들어있다. 이는 감자가 자연 포식자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생성되는데 일반적으로 햇볕을 오래 쬐거나 시간이 계속 경과하면 독성이 증가한다. 이 독성분은 사람에게 충분히 위협이 되는데 보통 심한 두통, 설사, 구토를 유발하며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특히 감자껍질 바로 아래 부분에 독성이 많이 들어있는데, 170°C 고온에서 요리해주면 독성이 대부분 사라지며 처음에 잎, 뿌리, 싹은 제거해주는 것이 좋다. <br/><감자를 건강하게 요리하는 방법&g<br/>감자를 구워주거나 물에 삶아주면 영양분이 가장 덜 손실되면서 독성성분은 사라지기에 이렇게 요리해주는 게 좋다. 이때 야채를 함께 곁들여주면 영양소 공급이 몇 배로 향상되니 함께 알아두면 더 도움이 된다. 어떤 요리 전문가는 감자의 간을 된장으로 해주면 좋다고 한다. 된장 성분이 감자 속 나트륨을 빼주고 동시에 발효되면서 항산화작용이 일어나 건강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한다. <br/>자료사진=포토리아<br/>조우상 기자 wscho@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011.txt

제목: 먼지에 숨은 블랙홀 품은 은하 무리  
날짜: 201405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61711516  
본문: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거대한 블랙홀이 숨어있는 한 은하 무리를 아름답게 가공한 이미지를 22일(현지시간) 공개했다.<br/>남쪽 하늘 별자리인 화로자리 방향으로 약 6000만 광년 거리에 있는 이 은하단에는 각각의 은하 중심에 초거대질량 블랙홀이 숨어 있다. 보라색 헤일로(광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암흑물질을 착색한 것이다.<br/>이런 거대한 블랙홀이 있는 은하 중 일부는 주위의 가스물질을 중력 작용으로 끌어당긴 뒤 거대한 에너지를 방출할 때 밝게 빛나는 ‘활동은하핵’(AGN)을 통해 관측된다.<br/>이런 ‘빛나는 블랙홀’은 먼지에 가려진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한다. 이는 블랙홀 주위를 둘러싼 도넛 구조의 명백한 기울기의 차이 때문이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견해였다.<br/>하지만 NASA의 광역 적외선 탐사위성인 ‘와이즈’(WISE)가 수집한 17만 개가 넘는 활동은하핵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먼지에 가려진 블랙홀을 지닌 은하들은 노출된 블랙홀을 지닌 것들보다 더 밀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r/>이는 이런 블랙홀의 외적인 차이가 도넛 구조의 기울기에 의한 것이라면 분포가 무작위여야 한다는 것과는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결과가 우연이 아니라면 먼지의 유무에 영향을 주는 다른 이유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이번 연구를 시행한 제트추진연구소(JPL)와 미 캘리포니아공과대학 연구진은 설명했다.<br/>또 은하를 둘러싼 암흑물질도 은하가 분포하는 차이에 관여할 수 있다고 한다. 먼지에 숨은 블랙홀을 지닌 은하가 무리 지어 있는 것은 이런 무리를 지은 은하보다 더 큰 암흑물질의 구조가 있다는 것이 된다. <br/>암흑물질 자체가 블랙홀을 숨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 중력이 어떤 작용을 일으키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연구진은 설명했다.<br/>천문학자들은 블랙홀에 대한 설득력있는 새 모델을 구축할 수 있게 되리라 기대하고 있다.<br/>사진=NASA<br/>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012.txt

제목: “소식(小食)하면 ‘암세포 확산·전이’ 막아준다”  
날짜: 201405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61702809  
본문: 평소 적은 칼로리를 섭취해주는 식습관이 암 세포 확산과 타 장기로의 전이를 막아준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br/>최근 미국 필라델피아 토머스 제퍼슨 대학 방사선종양학과(radiation oncology) 연구진은 소식(小食) 습관이 여성 삼중음성유방암(triple negative breast cancer)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br/>연구진은 암세포를 보유하고 있는 실험용 쥐의 식단을 칼로리를 엄격하게 제한한 ‘소식 식단’으로 바꾼 뒤 암세포 변화 여부를 살폈다. 놀랍게도 쥐의 섭취 칼로리가 줄어들면서 몸 속 암세포의 성장도 더뎌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칼로리가 줄어들면서 생물 유전자 발현을 제어하는 쥐 몸속 마이크로RNA 수치 역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r/>흥미로운 것은 칼로리 섭취가 줄어들면 방사선 치료 효과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실제로 쥐 몸 속 마이크로RNA 수치가 가장 떨어졌을 때는 방사선 치료와 소식이 병행됐을 때였다.<br/>토머스 제퍼슨 대학 방사선종양학과 니콜 시몬 박사는 “<span class='quot0'>칼로리 제한 섭취가 체내 단백질 생산을 증가시켜 암세포 주위 조직을 단단히 만들어 세포의 전이와 확산을 억제하는 것 같다</span>”고 추정했다.<br/>실제로 과거 의학 연구 결과 중에는 과체중일 경우, 유방암 치료 효과가 감소된다는 것과 치료 기간 중 체중이 증가할 경우 예후 및 경과가 안 좋았다는 기록이 남아있다.<br/>연구진은 “<span class='quot1'>동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인 만큼 아직 일반화시키기에는 이르지만 향후 암 치료에 있어 주목할 만한 결과</span>”라고 설명했다. <br/>한편 이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인 ‘유방암 연구(Breast Cancer Research)’에 발표됐다. <br/>자료사진=포토리아<br/>조우상 기자 wscho@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013.txt

제목: “사랑스러워” 호랑이와 껴안고 ‘키스’하는 女  
날짜: 201405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61541761  
본문: 맹수중에 맹수, 사나운 호랑이와 껴안는 것도 모자라 키스까지?!<br/>호랑이와 ‘절친한’ 관계를 자랑하는 한 여성의 일상이 공개돼 네티즌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br/>미국 플로리다주 올란도에 사는 자니스 할리(57)라는 여성은 인도 호랑이(벵골 호랑이) 암수 2마리와 ‘동거’ 중이다. <br/>암컷 호랑이의 무게는 182㎏, 수컷은 272㎏에 달하는 거구를 자랑하며, 사나운 성질을 가졌지만 주인이자 가족인 할리에게는 그저 온순하기만 하다. <br/>할리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이들에게 먹이를 주며, 특히 수컷 호랑이는 잠깐 잠을 잘 때에도 할리를 찾을 정도로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br/>그녀는 20년 전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호랑이 조련 훈련을 받았다. 이후 차례로 새끼 호랑이들을 입양했고, 지금은 한 가족처럼 함께 먹고 자며 생활한다. <br/>그녀가 두 호랑이와 포옹하거나 입을 맞추는 모습은 보기만 해도 무시무시하지만, 할리의 표정은 평화롭기만 하다. 먹이를 던져주는 일반 동물원과 달리, 할리는 이들에게 맨손으로 직접 먹이를 먹여주기까지 한다. <br/>이들 호랑이는 사라 뿐 아니라 사라의 또 다른 가족인 작은 강아지에게도 적대감을 보이지 않고 마치 형제처럼 지내 더욱 주위를 놀라게 했다. <br/>할리와 그녀의 남편은 “시간이 날 때마다 호랑이들과 함께 보내고 있다”고 전했고 네티즌들은 “맹수의 순한 모습을 보니 매우 놀랍다”, “호랑이들을 가두고 키우기 보다는 야생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br/>사진=Top photo/Barcroft　　 <br/>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014.txt

제목: 구글글래스 이용해 암 수술과정 최초 생중계 화제  
날짜: 201405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215357840  
본문: 암 수술 과정이 구글이 만든 스마트 안경 ‘구글글래스(Google Glass)’를 이용해 인터넷상으로 실시간 방송되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br/><br/>지난 23일(현지시각) 영국 매체 텔레그라프는 영국 런던왕실병원의 샤피 아흐메드 박사가 세계 최초로 구글글래스를 이용하여 수술 과정을 생중계 했다고 전했다.<br/><br/>이 날 아흐메드 박사는 78세 노인의 간과 장에서 암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진행했고, 114개국의 13000여 명의 학생들이 이를 생중계하는 방송을 시청하였다. 구글글래스에 내장된 카메라가 수술 장면을 촬영해 온라인상으로 전송하면 학생들이 실시간 인터넷 방송 서비스 라이브스트림(livestream)을 통해 수술과정을 지켜보았다.<br/><br/><br/><br/>또한 이 날 수술은 학생들이 질문을 게시판에 올려놓으면 구글 글래스에 바로 동기화 되어, 아흐메드 박사가 이에 대답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학생들은 마치 실제 수업에 참여하는 듯한 생생함을 느낄 수 있었다.<br/><br/>이러한 생생한 생중계는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면서 학교의 수업 커리큘럼에 포함해달라는 건의가 쇄도했다. 샤피 아흐메드 박사는 이 날 현지 언론을 통해 “<span class='quot0'>나는 구글 글래스로 미래의 외과의사들이 될 학생들과 수술현장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기뻤다</span>”라고 만족해 했다.<br/><br/>한편, 이 날 수술 과정 생중계를 통해 구글글래스와 같은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활용성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br/><br/>사진·영상=The Telegraph/유튜브<br/><br/>김형우 인턴기자 hwkim@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015.txt

제목: SNS 모금한 암환자 故서튼 英인디펜던트 행복리스트에  
날짜: 201405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214826174  
본문: 불치의 대장암과 싸우면서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암 환자를 위해 320만 파운드(약 55억 3000만원)를 모금하고 사망해 감동을 일으켰던 스티븐 서튼이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 선정 ‘2014 일요일의 행복 리스트’에 올랐다.<br/><br/><br/><br/>인디펜던트는 24일(현지시간) 자신의 삶보다 타인의 행복에 헌신한 ‘보통 사람’ 100명을 선정, 2014년 ‘일요일의 행복’ 명단을 발표했다. 신문은 대부분의 언론이 부자와 유명인만의 명단과 순위를 만드는 것에 대한 반대의 표시로 매년 이 같은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대부분의 후보는 독자들이 선정한다. 명단에 순위는 매겨지지 않는다. 하지만 신문은 서튼을 소개하며 올해 7회째를 맞고 있는 ‘일요일의 행복’ 명단에 세상을 떠난 이가 올라간 것은 두 번째라고 강조했다. 이번 명단의 마지막을 장식한 서튼은 지난해 2월 자신의 병이 치료될 수 없다는 것을 안 뒤부터 암에 시달리는 10대들을 위해 SNS에서 모금 활동을 벌여 320만 파운드를 모으고 지난 14일 숨졌다. <br/><br/>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016.txt

제목: “위암 절제수술로 당뇨병까지 치료 가능”  
날짜: 201405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213316949  
본문: 당뇨병을 가진 위암 환자가 위를 절제하는 암 수술을 시행하면 당뇨병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임상연구 결과가 나왔다.<br/><br/><br/>고려대병원 위장관외과 박성수 교수는 2008~2010년 사이에 위암 치료를 위해 위 절제술을 받은 당뇨병환자 49명을 조사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23일 밝혔다.<br/><br/><br/>박 교수는 조사 대상자 가운데 위 일부를 절제하고 남은 위와 십이지장을 직접 연결하는 ‘BI’수술을 받은 환자 23명과 십이지장을 건너뛰어 남은 위를 소장에 바로 연결하는 ‘BII’수술을 받은 환자 26명을 2년간 추적 관찰해 당뇨병 치료 상태를 조사했다.<br/><br/><br/>그 결과, BI 수술을 받은 환자의 39.1%와 BII 수술을 받은 환자 50%가 당뇨병이 완치됐으며, BII 그룹은 당뇨병 여부를 측정하는 척도인 당화혈색소의 평균 수치가 기준치보다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br/><br/><br/>박 교수는 “<span class='quot0'>이 연구는 당뇨병을 동반한 위암 환자에게 BⅡ수술법을 통한 위절제술을 시행하면 위암은 물론 당뇨병까지 완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당뇨병 치료를 위해 위 절제 및 우회술이 시행될 수 있는 바탕이 될 것</span>”이라고 기대했다. 이 연구 결과는 외과계 최상위 학술지 중 하나로 꼽히는 미국 대사비만외과학회 학술지에 게재됐다.<br/>심재억 의학전문기자 jeshim@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017.txt

제목: 위암 환자, 항암&#8729;면역 병행치료 강조하는 이유  
날짜: 201405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60842036  
본문: 위암은 한국인에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암으로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도 가능하지만 늦게 발견할수록 치료가 더디게 된다. 특히 잘 먹지 못하는 위암 환자의 경우 면역력이 떨어져 항암치료를 받지 못해 위암이 악화될 수 있다.<br/>이럴 경우 항암치료와 면역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해졌다. 이에 소람한방병원 김성수 한의학 박사는 ‘위암, 먹어야 산다’를 통해 양한방 병행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br/>김 박사에 따르면 실제로 병행치료를 진행하는 위암 환자는 크게 세 분류로 나뉜다. 첫째는 위암 진단을 받고 수술 전 면역치료를 받는 경우가 있다. 수술 전 면역력을 높여 수술 후에도 회복을 도울 수 있고, 암 크기 또한 줄어들 수 있다고 알려졌다.<br/>두 번째는 위암 수술 후 항암치료를 받는 경우다. 이 때는 암 세포를 제거했지만 전이, 재발을 막고, 항암부작용을 완화시키기 위해 면역치료를 진행한다.<br/>세 번째는 위암이 상당 부분 진행 돼 수술이 불가하고 항암치료만 받는 환자들의 경우다. 항암치료는 암세포를 억제시켜주지만 그 과정에서 정상세포까지 손상을 시키기 때문에 항암부작용을 야기하는데, 이 때 면역치료를 병행하면 항암부작용을 완화시킬 수 있다.<br/>김 박사는 “<span class='quot0'>수술, 항암치료, 한방 면역치료도 각각 장단점과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장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병행치료가 답이 될 수 있다</span>”고 전했다.<br/>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018.txt

제목: “평소 성관계 문란하면 ‘발암’ 가능성↑”  
날짜: 201405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60825245  
본문: 성병을 야기하는 편모충 감염이 암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br/>미국 과학전문매체 라이브 사이언스닷컴은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로스앤젤레스 캠퍼스, 이탈리아 사사리 대학 공동 연구진이 성병을 유발하는 세모편모충과 전립선 암 발병 사이의 연관성이 상당하다는 내용을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br/>여성의 질과 요도, 남성의 전립선에 기생하는 트리코모나스속 편모충인 ‘질트리코모나스’는 주로 성관계를 통해 전염되는데 여성에게는 질 점막 출혈, 외음부 염증을 유발하고 남성에게는 전립선염증을 유발시키는 성병 감염체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이 편모충이 남성 전립선 암세포 생성에도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br/>연구진은 실험 결과, 이 편모충이 발생시키는 ‘TvMIF’라는 단백질이 전립선 암 세포 유발과 전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vMIF’는 원래 사람 몸속에 존재하면서 암 면역세포의 이동을 방해해 암 세포 성장을 돕는 ‘HuMIF’ 단백질과 구조가 흡사한 것으로 파악됐다.<br/>전립선암은 남성 암 중 높은 발생 빈도를 보이는 암으로 미국 암학회에 따르면 매년 3만 명이 이 질환으로 사망한다. 또한 질트리코모나스 역시 흔한 성병 매개체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370만 명이 해당 균을 보유하고 있지만 70%이상이 이를 밝히지 않고 있다는 발표를 한 적이 있다.<br/>보통 전립선암의 원인은 유전, 호르몬, 식이습관 등으로 알려져 있고 성생활 정도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으나 이번 연구결과는 잦은 성관계가 암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주목된다. 또한 기존 암과 달리 전립선암은 성병처럼 전염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려준다. <br/>자료사진=포토리아/라이브 사이언스닷컴<br/>조우상 기자 wscho@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019.txt

제목: 먹는 알약보다 효과 높은 ‘전기 약물’ 등장  
날짜: 201405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60728932  
본문: 별도의 전원공급이 없어도 자가 발전해 우리 몸속으로 침투, 전자기 파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첨단 기술이 등장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br/>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은 미국 스탠포드 대학 전기공학 연구진이 기존 화학적 약물요법 체계를 뛰어넘는 극도로 미세한 ‘전기약물 장치(electroceuticals)’ 개발에 성공했다고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br/>쌀 알갱이 보다 작은 크기의 이 전기 장치는 체내에 주입됨과 동시에 자가발전하며 의료적 전자기 파장을 발생시킨다. 무엇보다 별도의 전원공급이 필요 없다는 것이 장점이며 기존 화학 약물이 수행하지 못한 여러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주목된다.<br/>연구진은 해당 장치를 이용해 실험용 토끼 가슴 속에 장착된 인공심장박동장치의 전원을 공급하는데 최근 성공했다. 즉, 따로 전신마취를 한 후 가슴 부분을 개복하지 않더라고 이 장치를 이용하면 체내에 여러 전기 의료장비를 무선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이다.<br/>응용분야는 더욱 다양하다. 이 전기약물 장치는 인간 신경 속 특정 세포를 표적으로 삼아 치료약물을 주입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인슐린 분비를 유도하는 전자기 파장을 발생시키거나 암 세포 표적 치료제로도 사용될 수 있다. 심지어 식욕억제 등의 다이어트 약으로도 발전 될 수 있다. 아울러 알약과 같은 기존 생화학적 치료제와 비교해 월등한 효과를 지닐 것으로 예상된다. <br/>해당 장치를 개발한 스텐포드 대학 전기공학과 에이다 풍 박사는 “전자약물의 기본 원리는 우리 몸속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정도로 미세한 크기여야 하며 동시에 기존 화학 약물보다 효과가 좋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 장치는 해당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 향후 초소형 의료기구 개발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br/>한편 이 연구결과는 미국 ‘국립과학원회보(journal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에 최근 발표됐다. <br/>사진=Stanford University<br/>조우상 기자 wscho@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020.txt

제목: 자궁경부암 조기검진 패러다임이 바뀐다  
날짜: 201405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210148723  
본문: 자궁경부암 조기검진 방식이 기존 세포진검사에서 인유두종바이러스(HPV) DNA 검사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 정확할 뿐 아니라 신속한 실시간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br/><br/><br/>미국식품의약국(FDA)은 최근 HPV DNA 검사 방법 중 처음으로 로슈진단의 ‘코바스(cobas) HPV검사’를 25세 이상 여성의 자궁경부암 1차 선별검사로 단독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FDA의 승인은 미국에서 4만 7000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한 세계 최대 규모의 자궁경부암 임상시험인 ‘아테나(ATHENA) 연구’ 결과를 근거로 이뤄졌다.<br/><br/><br/>자궁경부암은 여성암 중 세계 3위, 한국에서는 7위를 차지할만큼 발병 빈도가 높으며, 환자 99% 이상의 발병 원인이 HPV이다. 특히 발병 위험이 큰 14종의 고위험군 바이러스 중 16번과 18번이 자궁경부암 발생 원인의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br/><br/><br/>HPV는 5명 중 4명의 여성이 일생 동안 한 번은 감염되며, 체내에 10년 동안 별다른 증상 없이 잠복할 수 있다. 이런 자궁경부암은 전암 단계에서는 98% 완치가 가능하지만 일단 암으로 발전하거나 전이단계에 접어들면 5년 생존율이 20%대로 급격하게 낮아지는 특성을 보인다. 이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정기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br/><br/><br/>국내에서는 지금까지 자궁경부암의 1차 검사로 HPV검사 대신 자궁 경부나 질에서 떨어져 나온 세포를 관찰하는 세포진검사 (Pap Smear)가 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아테나연구 결과에 따르면, 세포진검사에서 정상이라고 판명한 10명의 여성 중 1명 꼴로 자궁경부암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고위험군 HPV인 16번과 18번을 가진 여성의 경우 세포진검사에서 정상 판정이더라도 HPV가 없는 여성에 비해 자궁경부암의 전암으로 발전할 확률이 무려 35배나 높게 나타났다.<br/><br/><br/>이에 따라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이런 세포진검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HPV DNA검사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지난달 25일 열린 제29차 한국 부인종양학회 학술대회에서 고려대 구로병원 산부인과 이재관 교수는 ‘자궁경부암 검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했다. 이 교수는 강연에서 “<span class='quot0'>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한 검사 패러다임이 세포진검사에서 HPV DNA 검사법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이는 최근의 미국 FDA 승인을 통해서도 확인되는데, 이런 변화는 당연히 국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span>”고 설명했다.<br/><br/><br/>한편, FDA가 승인한 코바스 HPV검사는 로슈진단의 분자진단 시스템인 ‘cobas 4800’을 통해 검사하는 방법으로, 고위험군인 16번, 18번을 포함한 14종의 빈발하는 HPV를 실시간으로 분석한다. 이 시스템은 2012년 국내에서 신의료기술 평가를 거쳐 보급이 시작돼 현재 강남세브란스병원, 국립암센터, 서울성모병원 등에서 이 검사법을 적용하고 있다.<br/>심재억 의학전문기자 jeshim@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021.txt

제목: “개는 암도 감지한다”…전립선암 감지율 90%  
날짜: 201405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60423715  
본문: 개는 후각이 예리하고 똑똑한 동물이다. 안내견이나 마약 탐지견으로 활약하는 점은 바로 그런 특성에 의한 것이다. 그런 개들이 새로운 분야에서 활약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바로 사람의 소변 냄새를 맡아 전립선암을 감지한다는 것이다.<br/>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버킹엄셔에 있는 자선단체 ‘메디컬 디텍션 도그스’(Medical Detection Dogs)에서 훈련받은 개들은 전립선암을 감지하는 성공률이 90%에 달한다.<br/>현재 전립선암 발견에는 일반적으로 전립선 특이항원(PSA) 검사가 쓰인다.<br/>하지만 이 단체의 클레어 게스트 박사는 이 검사를 통해 나온 ‘양성’ 반응의 약 72%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한다. 이를 고려하면 개에 의한 탐지법이 훨씬 뛰어나다고 볼 수 있다.<br/>게스트 박사는 잘못된 ‘양성’ 판단에 따라 본래 필요 없는 검사를 하는 등 환자의 몸과 마음에 부담되는 것을 지적하면서 “<span class='quot0'>암 탐지견의 활용은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span>”고 말했다.<br/>한편 이 단체는 전립선암 외에도 유방암을 감지하는 훈련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br/>사진=메디컬 디텍션 도그스<br/>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022.txt

제목: [생명의 窓] 현대의학의 난제와 겸허한 건강관리/이레나 이화여대 의대 방사선 종양학과 교수  
날짜: 201405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203255639  
본문: 의학의 역사는 가장 이질적인 것으로부터 가장 동질적인 것을 향해 있다.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와 이질적일수록 더욱 치료하기 쉽다는 뜻이다. 그래서 아무리 무시무시한 기생충이라 할지라도 구충제 한 알로 치료가 가능하고, 미생물에 의한 감염도 항생제가 개발된 이후에는 꽤 다루기 쉬운 질병이 됐다. 이제 현대의학이 남겨 둔 난제들은 가장 동질적인 것이다. 자기 몸의 세포가 돌연변이를 일으켜 발생하는 암, 그리고 시간에 따른 자기 몸의 노화는 현대 의학의 대표적인 숙제다. <br/><br/>삼성 이건희 회장의 병환이 위독하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지난 10일 이 회장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CPR)을 받고 급성 심근경색 진단하에 심장 혈관 확장술을 받고 회복 중이라고 한다. 심정지가 온 이후 재빠른 심폐소생술이 시행돼 뇌손상 등의 장기 손상이 최소화될 수 있었고, 심장 시술도 몇 시간 이내에 이뤄졌기 때문에 천만다행 회복세라고 한다. 심장질환은 한국인의 사망 원인 중 암에 이어 2위를 차지한다. 아무리 의학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심정지 발생 초기의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되면 예후를 향상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및 조속한 병원 후송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다. 이제는 공공장소에서 제세동기를 발견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보다 적극적인 대국민 교육과 보다 신속한 병원 후송 시스템을 위한 지원 및 전략 마련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다.<br/><br/>이 회장은 1999년 폐암 3기 진단을 받고 화학요법 및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한국인 사망 원인 1위인 암, 그중에서도 폐암은 암 사망률 1위를 기록한다. 폐암과 담배와의 연관성이 밝혀진 이후 금연을 시도하는 젊은 남성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특히 간접흡연의 위해성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공공장소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br/><br/>폐암 치료를 위해 많은 약제들이 개발됐지만 아직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다. 암 치료가 어렵고도 힘든 이유는 자기 몸의 세포에서 변이된 암세포는 기생충이나 미생물의 세포와 달리 자기 몸의 세포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암세포만 특이적으로 파괴할 목적으로 개발된 약제라 할지라도 자기 몸의 정상 세포들을 일정 부분 파괴할 수밖에 없다. <br/><br/>유전자 분석 능력이 발전함에 따라 표적 치료들이 개발되고 있다. 그중에는 림프암의 글리벡처럼 탁월한 약제들도 속속 등장해 기대감을 높인다. 하지만 탁월한 약제라 할지라도 자신의 유전자형과 맞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고, 모든 약제가 만족할 만한 효과를 보이는 것도 아니다. 게다가 아직까지는 높은 치료 비용이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 다만 의학은 꾸준히 발전하고 있으므로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의 추세를 보았을 때 앞으로의 암 치료는 개인의 유전자형에 따른 맞춤형 치료로 점점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br/><br/>현대의학이 아무리 발전한다 하더라도 모든 질병을 한 번에 해결하는 기적의 치료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겸허한 마음으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는 적극적인 태도가 질병을 이기게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질병이 생기지 않도록 평소에 건강을 놓치지 않고 잘 관리하는 것이다. 평소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규칙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가장 최선의 의학이다.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023.txt

제목: [커버스토리-세계는 지금 셀피 중독] 나는, 망가질 자유가 있다  
날짜: 201405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203128192  
본문: 셀피와 관련된 이야기는 미담보다 논란이 훨씬 많다. 때와 장소를 잘못 고른 사소한 문제부터 범죄 상황을 담은 셀피까지 수도 없이 많다. 하지만 드물게 셀피와 관련된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나오곤 한다. 셀피와 관련된 가슴 찡한 사연과 별의별 웃지 못할 이야기들을 찾아봤다. <br/><br/># 마지막 셀피 <br/><br/>“마지막이 너무 갑자기 다가온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직접 만나서 그동안 고마웠다고, 잘 있으라고 제대로 인사해야 할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러지 못해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삶이란 건 매우 좋았어요.” 지난달 22일 영국에서 대장암과 싸우며 꾸준히 셀피를 통해 자신의 상태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팔로어들과 공유하던 스티븐 서튼(맨 위·19)은 병상에서 의료장비를 몸에 단 채 엄지손가락을 추켜세우고 찍은 셀피와 함께 이 같은 ‘마지막 글’을 올렸다. 그러나 이것은 마지막이 아니었다. 또 다른 시작이었다. 15세 때부터 암 치료를 받기 시작한 서튼은 2012년 자신의 병을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죽기 전에 꼭 해 보고 싶은 46개의 ‘이상하고 신나는’ 목록을 작성해 SNS에 올렸다. 목록에는 10대 암 환자들을 위해 1만 파운드를 모금하는 것도 포함돼 있었다. 서튼이 마지막 글을 올린 지 한달도 안 돼서 300만 파운드(약 51억 5500만원)의 소아암 기금이 모였다. 신기하게 그의 병세도 빠르게 호전됐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 등 유명인들도 그를 도왔다. 서튼은 목록의 46개 중 34개를 이뤘다. “최악의 상황이 온다면 내 여정을 함께해 준 여러분들께 고마웠다고 말할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여행이었습니다.” 지난 12일 건강이 악화돼 다시 입원하게 된 서튼은 이 같은 글을 남긴 뒤 14일 잠자던 상태 그대로 눈을 감았다. 그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몇 시간 만에 10만 파운드의 성금이 추가로 10대 암 환자 단체에 기부됐다.<br/><br/># 민낯 셀피 <br/><br/>영국에서는 화장하지 않은 얼굴을 찍은 셀피로 암 연구 기금을 모으는 ‘노메이크업셀피’가 유행하고 있다. 여성들이 SNS에 자신의 화장하지 않은 얼굴 셀피를 올리고 ‘#노메이크업셀피’(#nomakeupselfie)라는 해시태그를 함께 올릴 때마다 자선단체들이 일정액을 영국암연구센터에 기부하고 있다. 가디언은 지난 3월 25일까지 6일 만에 800만 파운드(137억 95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됐다고 보도했다.<br/><br/># 황당 셀피<br/><br/>캐나다인 제어드 프랭크(맨 아래·22)는 지난달 페루를 여행하던 중 기찻길 옆에 서서 지나가는 열차를 배경으로 동영상 셀피를 찍으려다 기차에 타고 있던 기관사에게 머리를 발로 차였다. 이 장면은 그대로 촬영됐고 프랭크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유튜브에서 2400만명 이상이 이 동영상을 봤고 프랭크는 광고 수입에 대한 배당금과 TV쇼 출연료 등으로 최대 25만 달러(약 2억 5600만원)를 벌게 됐다. 하지만 그는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br/><br/># 자폭 셀피<br/><br/>미국 경찰이나 연방수사국은 종종 셀피를 이용해 범인을 잡는다. 뉴욕데일리뉴스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포트세인트루시에서 마약을 거래해 오던 테일러 해리슨(21)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셀피 때문에 잠복 수사 중이던 마약수사관에게 체포됐다. 셀피에는 그가 차 안에서 지폐 다발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숨겨둔 마약을 꺼내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마약 거래가 얼마나 쉬운지 설명하기도 했다.<br/><br/>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024.txt

제목: “담뱃잎에서 ‘암 치료 성분’ 발견됐다”  
날짜: 201405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60300144  
본문: 흔히 담배는 ‘암 유발 위험물질’ 1순위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있다. 그런데 정작 담뱃잎 속에 항암작용을 하는 성분이 숨겨져 있었다면 믿을 수 있을까?<br/>미국 과학전문매체 라이브 사이언스닷컴은 호주 라트로브 대학교 연구진이 담배 식물 꽃잎에서 암세포를 파괴하는 특정 단백질을 발견했다고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br/>문제의 성분은 ‘NaD1’이라 불리는 단백질로 본래 곰팡이 등 각종 미생물 감염으로부터 식물을 보호하는 분자다. 그런데 이 단백질이 식물 뿐 아니라 인간을 비롯한 포유동물의 암 세포도 파괴시키는 것으로 실험결과 나타났다. <br/>라트로브 대학 생화학과 연구진은 첨단 영상기술인 엑스레이 결정법(X-ray crystallography)을 통해 NaD1이 효모, 곰팡이 뿐 아니라 인간 체내 특정 세포도 파괴할 수 있는지 동작여부를 테스트했다. 그 표적은 림프종 세포를 비롯한 자궁 경부 및 전립선에 나타나는 암세포였다.<br/>놀랍게도 NaD1 단백질은 식물에 접근하는 미생물을 파괴하는 것처럼 인간 체내 암세포에 대해서도 비슷한 효과를 발휘했다. 이 단백질은 종양 중심으로 접근해 일정 성분을 흡수한 뒤 암세포의 폭발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r/>이 실험 결과는 곰팡이 감염을 저지하는 특정 단백질이 암 세포를 제어하는 새로운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제공한다. 다만 연구진은 해당 단백질이 암 표적 치료제로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연구와 오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하는데 이는 담뱃잎 속 특정 성분 때문에 담배 자체의 유해성이 희석되는 측면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즉, 건강을 위해 담배 농사가 활발해지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br/>한편 이 연구결과는 국제 온라인 과학저널 ‘eLife’에 최근 발표됐다.<br/>사진=wikipedia<br/>조우상 기자 wscho@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025.txt

제목: 아베종양내과, 내달 ‘신 수지상세포 치료’ 결과 발표  
날짜: 201405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202908621  
본문: 인간의 신체는 매우 세밀하고 복합적인 요소에 의해 이뤄지는 탓에 각기 천차만별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체질’이란 단어로 함축돼 표현된다. <br/><br/>따라서 사람의 체질에 따라 같은 약물을 주입했을 때 다른 화학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데, 바로 이 때문에 개인별로 호전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이 의학 관련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 전문가들은 이 점에서 착안, 환자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로 각기 다른 치료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br/><br/>이에 탄생된 치료법이 바로 ‘개별화의료(Personalized medicine)’다. 환자의 질병을 분자 단계에서 개별적으로 진단하고, 치료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까지 고려해 개개인에 적합한 치료를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이 같은 주장은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 <br/><br/>실제로 신 수지상세포를 활용, 암 개별화의료를 실시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아베종양내과는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재발암환자 39명에게 해당치료를 실시, 총 74.4%를 호전시키는 혁혁한 성과를 거뒀으며, 이를 제17회 국제개별화의료학회에서 발표한 바 있다.<br/><br/>국제개별화의료학회 이사장을 겸하고 있는 아베종양내과 아베 이사장은 “<span class='quot0'>암은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 누구라도 걸릴 수 있는 일반적인 질병으로, 더 이상 절망적인 선고가 아니다</span>”라며 “<span class='quot0'>최신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 치료로 진행성 암과 침윤성 암도 치료가 가능한 단계에 돌입했다</span>”고 전했다. <br/><br/>아베 이사장에 따르면, 수지상세포는 ‘면역계의 사령탑’으로 킬러T세포에게 암 정보를 제공, 정상세포를 제외한 암세포만 표적으로 삼아 공격하게 하며, 이 때문에 부작용의 위험이 거의 없다. <br/><br/>이 같은 효율에도 불구, 인체의 1% 미만인 수지상세포를 암 치료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소량채혈로는 불가능하다는 점 탓에 1시간 이상의 성분채혈 과정이 필요했을 뿐 아니라, 해빙 시 세포 손상의 문제가 유발될 수 있는 동결보관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 얼마 전까지 상용화 되지 못했다. <br/><br/>그러나 아베종양내과는 기존에 활용되던 WT1과 MUC1펩타이드 외에 개별 특이적 암항원 등 3~5 종류의 펩타이드를 사용, 이 같은 문제를 극복해냈다. 최근에는 NY-ES01와 GV1001펩타이드를 추가해 치료 선택의 폭을 더욱 넓혔다. 이것을 활용한 치료는 2주에 1번씩 수지상세포의 정보 전달을 하는 암별 해당 림프절에 피하주사로 진행한다. <br/><br/>치료성과의 비결은 면밀한 검사에도 있다. 개인별 유전자검사와 항원검사, 암별 종양마커검사 등을 실시, 기존 치료에서는 확인이 어려웠던 개인별 암세포의 특징이나 항암제에 대한 내성, 암세포 발전의 이유 등을 파악해 보다 효율적인 치료를 실시하며, 재발 및 전이에 대한 대책도 세운다. <br/><br/>아베 이사장은 “<span class='quot0'>소량의 혈액(25ml)에서 수지상세포의 원료가 되는 단구를 분리해 유전자검사와 각종 기능검사를 한 후, 개인별 맞춤형 항원을 추가해 암백신을 제조하는 유일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span>”라고 말했다. <br/><br/>이어 “다음달 14일 삿포로에서 ‘암 면역세포의 오늘과 내일’, ‘암 면역치료의 개발’등을 주제로 제 18회 국제개별화의료학회가 열리는데, 아베종양내과도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 치료’의 결과를 추가로 밝힌다”라며 “많은 기대와 관심을 부탁 드린다”고 덧붙였다. <br/><br/>뉴스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026.txt

제목: [농촌진흥청과 함께하는 식품보감] 토마토  
날짜: 201405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201953556  
본문: “우리 가족을 위해 영양이 많고 안전한 음식을 차리는 게 가장 중요하죠. 맛을 어느 정도 희생하더라도요.”취재 중에 만났던 주부의 말이다. 집밥이 돌아왔다. 웰빙이 각광을 받고, 건강하게 먹는 법이 유행이다. 건강한 밥상의 핵심은 좋은 재료다. 어떤 식품을 재료로 써야 당뇨 수치가 높은 가장에게 좋은 음식인지, 공부에 지친 아이의 잠재력을 일깨워 주는지, 엄마의 혈압을 낮추는지 말이다. 식품에 대해서 최고 전문가인 농촌진흥청의 연구원들이 일주일마다 식품에 대해 말한다. 첫 번째 주제는 토마토. 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의사 얼굴이 파랗게 질리는 이유에 대해 들어보자. <br/><br/>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br/><br/>‘토마토가 빨갛게 익어 가면, 의사의 얼굴은 파랗게 질린다.’<br/><br/>유명한 서양 속담이다. 2002년 미국 주간 타임지도 건강에 좋은 10대 식품을 선정하면서 토마토를 가장 먼저 꼽았다. 토마토가 ‘슈퍼푸드’로 불리는 이유는 리코펜 때문이다. 미국국립암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주 10회 이상 토마토 요리를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보다 전립선암 발병률이 45% 낮아졌다. 토마토가 중년 남자에게 좋은 채소로 알려진 이유다. <br/><br/>리코펜은 암과 심혈관 질환의 발병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리코펜은 우리 몸의 피부, 혈액, 간, 콩팥 등에 있는데 특히 전립선에 많다. 리코펜은 주로 음식을 통해 체내에 흡수된다. 토마토를 통해 섭취되는 경우가 85% 이상이다. 또 리코펜은 저밀도 콜레스테롤을 줄여 성인병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토마토는 익혀 먹을수록 좋은데 리코펜이 가열될수록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리코펜은 기름과 함께 조리했을 때 체내에 잘 흡수된다. 햄버거 등 육류와 토마토의 음식 궁합이 좋은 이유다.<br/><br/>토마토는 시력 강화에도 좋다. 스크린을 많이 보며 자라는 요즘 아이들에게 토마토가 필요한 이유다. 토마토에 들어 있는 루테인은 눈을 구성하는 망막의 구성 성분이다. 시력 감퇴나 실명의 위험을 낮춰준다. 또 루테인은 동물 실험에서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과를 나타냈다. 실제 토마토는 만성 고혈압 환자의 식이요법에 활용되기도 한다. 토마토 100g의 열량은 16㎈로 밥 100g(148㎈)의 9분의1이다. 과식을 억제하고 변비 해소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좋다. <br/><br/>당근이나 김에는 토마토보다 비타민 A가 더 많다. 비타민 C는 참다래나 딸기가 더 많다. 하지만 토마토는 비타민 A·B·C를 고르게 함유하고 있다. 종합비타민 격으로 하루에 2~3개를 먹으면 비타민 필요량이 충족된다. <br/><br/>토마토는 채소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물으면 과일이라고 답하는 경우도 많은데, 실제 토마토는 소송을 통해 과일이 아닌 채소가 됐다. 19세기 말 미국 뉴욕에서는 과일과 채소의 관세가 달랐는데 채소를 수입하려면 19%나 되는 세금을 물어야 했다. 뉴욕 세관이 토마토에도 19%의 세율을 매기자 수입업자들은 소송을 제기했고, 1893년 연방대법원은 토마토를 채소로 판결했다. 과일처럼 후식으로 먹지 않고, 음식과 함께 조리해서 먹는 식사의 중요한 일부분이라는 것이 이유였다.<br/><br/>토마토의 어원(語源)은 ‘tomatl’이다. 멕시코 말로 ‘불룩한 열매’라는 의미다. 토마토의 원산지는 페루, 에콰도르 일대로, 남미 인디언들은 700년쯤부터 토마토를 재배해 먹었다. 16세기 초 대항해시대에 스페인에 전파되면서 ‘tomate’라고 불렸다. 이후 영국에 건너가면서 현재 이름인 ‘tomato’가 됐다.<br/><br/>유럽에 처음으로 상륙한 토마토는 관상용으로 재배됐고, 18세기 이탈리아에서 식용으로 재배하기 시작했다. 토마토를 처음 본 유럽 및 미국인들은 토마토가 독초인 맨드레이크와 닮았다는 이유로 먹기를 꺼렸다. 맨드레이크는 환각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전통적으로 마법의 의식에 사용됐다. ‘사탄의 사과’로 불리기도 했다. 미국 육군의 로버트 존슨 대령이 1820년 뉴저지 주 셀럼 재판소 앞에서 군중을 모아놓고 토마토를 공개 시식하면서 미국에서도 식용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토마토는 이후 미국에 의해 필리핀을 거쳐 말레이시아로 전파됐다. 인도와 인도네시아를 거쳐 일본으로도 건너갔고, 우리나라에는 조선 선조나 광해군 시기에 건너온 것으로 보인다. 이수광의 ‘지봉유설’(芝峰類說·1613)에 토마토를 의미하는 ‘남만시’(南蠻?)가 기록돼 있기 때문이다. 남만시란 ‘1년을 사는 감’이라는 뜻이다.<br/><br/>우리나라에서 토마토의 대중화가 시작된 것은 1990년대 초반이다. 방울토마토가 앙증맞은 모습과 새콤달콤한 맛으로 인기를 얻으면서다. 2002년 이후 토마토가 건강식품이라는 소비자들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토마토 재배면적은 연평균 14%씩 증가했다.<br/><br/>토마토 종자는 금보다 비싸기로 유명하다. 품종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1g에 12만 6000원~24만원 정도다. 1g당 4만 5000원 정도인 순금 가격의 두 배 이상이다. 사실 비싼 종자 가격은 토마토 농가에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농가의 생산비에서 종자 가격은 10% 이상 차지한다.<br/><br/>‘빨간 토마토’가 가장 많이 알려졌지만, 아주 연한 크림색부터 노란색, 주황색, 녹색, 분홍색, 보라색 등 다양한 색깔의 토마토가 있다. 일반종과 야생종을 교배해 원하는 색깔의 토마토를 개발하고 있어서다. 2001년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짙은 보라색을 띠는 ‘블랙 토마토’를 개발한 바 있다.<br/><br/>흔히 토마토의 크기도 일반과 방울토마토의 두 가지로 구분하지만, 콩알만 한 것부터 사람 얼굴만 한 것까지 다양하다. 대과종(200g 이상)은 스테이크용으로 주로 사용되고, 중과종(60∼200g)은 가공용으로 쓰인다. 야생종 중에는 직경 1㎝에 불과한 토마토도 있다. 과실의 모양도 원형, 타원형, 계란형, 사각형, 표주박형, 납작형 등으로 나뉜다.<br/><br/>최학순 농촌진흥청 채소과 연구원(농학박사)<br/><br/>■문의 kdlrudw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027.txt

제목: KT, 서울대와 공동연구 협약 바이오인포매틱스 센터 설립  
날짜: 201405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201941563  
본문: KT는 서울대학교와 산학 협력을 통한 공동 연구·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올 7월까지 서울대 생명공학연구원에 바이오인포매틱스 센터를 공동 설립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센터는 유전체 분석 핵심 솔루션 개발과 유전체 관련 사업 발굴을 본격 추진하는 역할을 한다. KT는 유전체 분석을 위한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역량을 제공하고, 서울대는 연구공간과 전문 연구인력을 지원한다. KT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유전체 분석기술을 활용하면 암 발병을 예측하거나 개인 유전체 특성에 따른 맞춤형 치료가 가능해진다</span>”고 설명했다.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028.txt

제목: 무려 103살…세계서 가장 ‘오래 산’ 야생 범고래 화제  
날짜: 201405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60221077  
본문: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 범고래가 해외 언론을 통해 소개돼 화제가 되고 있다.<br/>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14일(이하 현지시간) 무려 103년 전부터 태평양에서 산 것으로 추정되는 범고래를 소개했다.<br/>타이타닉호가 침몰한 시점보다 1년 전인 1911년부터 살아왔다는 범고래의 이름은 그래니(할머니). 그녀는 ‘남부 거주 범고래’(SRKW) 속하는 한 무리의 리더다.<br/>그래니는 지난 10일 미국과 캐나다 서부 국경에 걸쳐있는 조지아해협에서 목격됐다. 그녀가 이끄는 ‘제이-포드’ 무리는 캘리포니아주 북부 러시안 강에서부터 800마일(약 1287km) 정도를 이동해왔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br/>이 북서부 해협에 되돌아온 그래니(공식 명칭: J2)는 지난 3월 3일 이후 처음 목격됐다고 오션 에코벤처스 웨일 와칭의 사이먼 피드콕 선장은 밝혔다.<br/>그는 그래니 무리의 모습을 망원렌즈를 사용한 카메라로 촬영했다.<br/>피드콕 선장은 사진 속 범고래의 몸에 반달 모양의 상처와 함께 등지느러미에 흰점을 보고 그래니임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br/>그래니 귀환 소식은 태평양 고래관찰협회(PWWA)가 발표했다.<br/>이 협회의 마이클 헤리스 이사는 “<span class='quot0'>제이-포드가 피드콕 선장이 관측하기 8일 전 캘리포니아 연안에서 목격됐었고 거기서 이동해 왔다</span>”고 설명했다.<br/>이는 이 범고래 무리가 단 한 주 만에 800마일(약 1287km) 정도를 이동한 것을 의미한다.<br/>피드콕 선장은 “우리는 그녀를 보고 스릴을 느꼈다”면서 “이 고래가 100살이 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인상적인 것”이라고 말했다.<br/>야생 범고래의 평균 수명은 60~80세이지만 남부 거주 범고래에 속하는 다른 개체들도 그래니와 거의 같이 오랜 기간 살았다고 한다. 그 예로 암컷 ‘오션 선’과 ‘룸미’는 각각 85세와 98세를 기록했다.<br/>또 다른 남부 거주 범고래인 마이애미 해양수족관의 ‘토키테’와 북부 거주 범고래인 시월드 샌디에이고의 ‘코르키’는 포획된 범고래 중 가장 오래 산 범고래들로 나이는 약 50세로 알려졌다.<br/>해양학자들은 1970년대 초부터 거주형 범고래들을 연구하기 시작했다.<br/>당시 과학자들은 J1으로 알려진 ‘러플스’와 ‘그래니’(J2)를 1971년 처음 촬영됐다.<br/>두 고래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촬영 당시 두 고래 모두 완전히 자란 상태였으며 이는 1971년 당시 그들 모두 최소 20세를 넘긴 것을 의미한다.<br/>또한 두 고래의 유대 관계를 통해 러플스가 더 어리며 그래니가 그 암컷 고래의 어미라는 것이 이들 전문가의 주장이다.<br/>러플스가 1971년 당시 최소 20살이었다면 1951년에 태어났으며 이후 그래니는 지금까지 어떤 새끼도 낳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러플스가 마지막 새끼일 것이라고 한다.<br/>암컷 범고래들은 약 40세쯤부터 임신을 멈추므로 그래니는 러플스가 태어난 1951년 당시 이미 40세이므로 출생 연도는 적어도 1911년이라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br/>사진=데일리메일 캡처<br/>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029.txt

제목: 건강검진으로 찾아낸 암환자는 100명 중 1.4명  
날짜: 201405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200345860  
본문: 일상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찾아내는 암은 얼마나 될까. 이런 궁금증에 답이 될 수 있는 통계 자료가 제시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 100명 중 1.4명이 암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br/><br/><br/>분당서울대병원은 2013년 1년 동안 이 병원 건강증진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전체 수진자 1만 879명 중 1.4%인 149명이 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br/><br/><br/>조사 결과,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암 진단율도 함께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남성의 경우 40대는 0.5%로 전체 평균에 못 미쳤으나 50대 1.8%, 60대 3.0%, 70대 이상에서는 무려 5.4%에서 암이 진단되었다. 여성은 40대 1.1%, 50대 1.4%이던 것이 60대 2.3%, 70대 이상에서는 3.1%가 암으로 진단됐다.<br/><br/><br/>건강검진에서 찾아낸 암의 종류로는 갑상선암이 24.2%(36명)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폐암 14.1%(21명), 전립선암 12.1%(18명), 위암 10.7%(16명), 대장암 10.1%(15명), 유방암 6%(9명) 등의 순이었다. 기타 암은 34명이었다.<br/><br/><br/>또 건강검진으로 찾아낸 혈관질환은 81건이었으며, 종류별로는 뇌동맥류 50명, 관상동맥질환 31명(시술을 받은 사람 기준)으로 나타났다.<br/><br/><br/>통계청의 ‘2013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암은 국내 사망원인 중 1위에 올라있다. 종별 사망률은 폐암-간암-위암 순이며, 전체적으로는 대장암과 췌장암, 백혈병 사망률이 전년보다 늘어났다.<br/><br/><br/>생활습관병 중에서도 고혈압, 당뇨병, 동맥경화증 같은 질환은 뇌심혈관 질환의 원인이어서 각별한 경계가 필요하다. 뇌심혈관 질환이 전체 암을 제외한 국내 단일질환의 사망원인 1, 2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만 봐도 심각성을 알 수 있다. <br/><br/><br/>이런 암은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생존률과 완치율이 높지만 아직도 상당 부분이 진행된 후에 발견돼 사망률이 높다. 분당서울대병원 황진혁 건강증진센터장은 “<span class='quot0'>이 때문에 40~50대 중년층부터 연령이 높아질 수록 흔하게 발견되는 암에 대한 정기적인 정밀 건강검진이 중요하다</span>”면서 “<span class='quot0'>검진 주기는 첫 검진 이후에 의사와 상담해 결정하는 것이 좋으며, 질병마다 검진 주기가 다르니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span>”고 조언했다.<br/><br/><br/>황진혁 센터장은 “<span class='quot1'>검진의 중요한 목적은 전체 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의 진찰과 상담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span>”이라면서 “<span class='quot1'>여러 질병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지는 연령대에는 신체의 여러 부위에 대한 종합적인 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진단, 치료함으로써 최상의 건강 상태를 유지·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span>”고 말했다. <br/>심재억 의학전문기자 jeshim@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030.txt

제목: “초콜릿·와인, 장수비결 아니야…효과 없다”  
날짜: 201405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55917638  
본문: 와인과 초콜릿에 함유된 성분이 건강에 유익한데다 더 나아가 수명연장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건강에 그다지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로이터 등 해외언론이 보도했다. <br/>와인에 함유된 포도 속 레스베라트롤 성분과 포도 및 초콜릿 등에 든 폴리페놀 등의 성분은 항산화 효능이 뛰어나며 항암작용을 하고 콜레스테롤을 흡착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br/>와인을 즐겨 마시는 이탈리아이의 노인들은 이 레스베라트롤 덕분에 장수한다고 알려졌지만, 미국 존스홉킨스 의과해학의 리차드 셈바 교수는 사실 레스베라트롤이 염증을 감소시키고 심혈관계 질병 및 암을 줄이는데에 큰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br/>셈바 교수 연구팀은 1998년부터 65세 이상의 이탈리아인 783명의 건강과 식습관 등을 추적 관찰했다. 또 이들의 식단을 꾸준히 살피고 소변검사를 통해 레스베라트롤 수치를 비교 분석했다.<br/>그 결과 3분의 1이 실험을 시작한 지 9년 이내에 사망했다. 또 5%가 암에 걸렸고, 27%는 어떤 질병도 없이 현재까지 생존하고 있다. <br/>연구팀은 실험 기간 중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사람들, 또는 여전히 건강한 사람들과 소변에서 검출한 레스베라트롤의 양에서 큰 연결고리를 찾지 못했다. 특히 심장질환이나 암에 걸리는 확률, 체내 염증 수치 등은 레스베라트롤 수치와 상관없이 개개인마다 모두 달랐다. <br/>연구를 이끈 셈바 교수는 “<span class='quot0'>서양 식단 속 레스베라트롤이 노년층의 염증과 심혈관 질환, 장수와 뚜렷한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전 세계에서 우리는 (와인, 초콜릿이 건강에 유익하다는) ‘모순된 광고’를 접하고 있다</span>”고 지적했다. <br/>미국 보스턴 시몬스대학의 영양학자인 테레사 펑 박사는 “놀라울 것이 없는 연구”라며 “<span class='quot1'>사실 와인을 마시거나 초콜릿을 먹을 때 포도를 적당히 추가하여 먹는다면 건강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실생활에서 섭취하는 레스베라트롤이 건강 전반에 영향을 줄 정도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span>”고 덧붙였다. <br/>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031.txt

제목: “음주로 10초에 1명 사망” -WHO 발표  
날짜: 201405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55829966  
본문: 음주로 세계에서 연간 330만 명이 사망하고 있으며, 그 수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에이즈)이나 결핵, 폭력이 원인인 사망자를 웃돌고 있다고 세계보건기구(WHO)가 12일 발표했다. 이는 알코올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br/>이 새로운 보고서로는 음주 운전이나 음주 폭력과 학대 외에도 다수의 질병과 장해를 포함하면 전 세계 연간 사망자 중에서 20명 중 1명이 알코올로 사망하고 있다.<br/>이 기관의 정신건강 및 약물남용 부문 대표인 세카르 삭세나는 “<span class='quot0'>이는 알코올로 10초에 1명이 사망한 셈</span>”이라고 지적한다.<br/>기존 보고에 따르면 음주 사망자는 2012년에 약 330만 명에 달했으며, 이는 전 세계 사망자의 5.9%(남성 7.6%, 여성 4%)에 해당한다. <br/>반면 에이즈가 원인인 사망자는 2.8%, 결핵은 1.7%, 폭력은 0.9%라고 한다.<br/>또 음주는 간 경변, 암과 같은 질환 200여 종과도 깊은 연관성이 있다. 과음은 결핵이나 에이즈를 일으키는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HIV)와 폐렴과 같은 감염에도 걸리기 쉽게 된다고 한다.<br/>알코올 사망자의 직접적인 사인으로 가장 많은 원인은 심장 질환과 당뇨병으로 전체의 약 3분의 1을 차지했다. 또 교통사고 등 알코올 관련 사고는 두 번째로 많은 사망 원인으로 17.1%를 차지했다.<br/>사진=알코올소비 세계지도(세계보건기구)<br/>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032.txt

제목: 가인 주지훈 열애, 팬카페에 심경 밝혀 ‘데이트 파파라치 보니..’ [전문]  
날짜: 20140513  
기자: 김채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95619135  
본문: 그룹 브라운아이드걸스 멤버 가인이 배우 주지훈과 열애 인정 후 심경을 밝혔다. <br/><br/>가인은 12일 자신의 팬카페에 ‘안녕하세요 가인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재했다. 그는 “우선 많이 놀라셨죠. 데뷔 초부터 저를 지켜봐 준 팬 분 들은 저를 시집보내는 엄마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사실 저를 오랫동안 좋아해 주셨던 팬 분 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이기적일 만큼 저의 사생활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도 제 친구들, 제 가족들만큼 팬 분들도 소중해요”라고 말했다. <br/><br/>이어 “팬 분들도 어떤 면에선 제 사생활 영역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뭐라든 이해받고 싶기도 하고 이해시키고 싶은 욕심도 있어요. 다들 ‘들키지만 마라’라고 해서 절대 들키지 않으려고 했으나, 들켰는데 거짓말하고 싶진 않았어요”라며 열애를 인정하게 된 이유를 전했다. <br/><br/>가인은 “지금까지도 저의 솔직한 모습을 좋아해 주신 분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 신뢰를 잃게 한다면 그건 팬 분들에게 떳떳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거짓말은 습관이 되잖아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했고요. 앞으로도 항상 솔직할 거에요”라고 강조했다. <br/><br/>그는 “제가 선택한 부분이 있고 팬 분들에게 제 선택들이 존중받고 사랑받을 수 있기 위해서 가수로서 더 열심히 하고 좋은 음악으로 보답하도록 전보다 더 많이 노력할게요. 지금 많은 스텝들이 열심히 다음 앨범을 작업하고 있어요”라며 “진심인데요. 사랑해요. 믿어주세요. 팬들에게 제일 잘하는 손가인이 될 거라고 약속해요”라고 팬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br/><br/>한편 주지훈 소속사 키이스트와 에이팝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 9일 “<span class='quot0'>주지훈과 가인이 한 달 전부터 교제하고 있다</span>”며 열애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br/><br/>◇ 다음은 손가인 입장 전문. <br/><br/>안녕하세요 가인입니다.<br/><br/>우선 많이 놀라셨죠. 데뷔 초부터 저를 지켜봐 준 팬분들은 저를 시집보내는 엄마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br/><br/>사실 저를 오랫동안 좋아해 주셨던 팬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이기적일 만큼 저의 사생활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도 제 친구들, 제 가족들만큼 팬분들도 소중해요. 진짜예요. ‘팬’분들도 어떤 면에선 제 사생활 영역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뭐라던 이해받고 싶기도 하고, 이해시키고 싶은 욕심두 있어요. 다들 들키지만 말아라 라고 하셔서 절대 들키지 않으려고 했으나... 들켰는데 거짓말하고 싶진 않았어요.<br/><br/>이 글도 몇 번째 다시 쓰는 것인지 지금까지도 저의 솔직한 모습을 좋아해 주신 분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 신뢰를 잃게 한다면 그건 팬분들에게 떳떳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거짓말은 습관이 되잖아요.<br/><br/>암튼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했고요. 앞으로도 항상 솔직할 거에요. 제가 선택한 부분이 있고 팬분들에게 제 선택들이 존중받고 사랑받을 수 있기 위해서 가수로서 더 열심히 하고 좋은 음악으로 보답하도록 전보다 더 많이 노력할게요.<br/><br/>지금 많은 스텝들이 열심히 다음 앨범을 작업하고 있어요. 다음번엔 저도 팬분들도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좋은 소식을 최대한 빨리 전할게요. 그래도 눈팅해보니 이틀 만에 저를 이해해주시고 수습하시려는 팬분들 보면 어른스럽게 행동하려 애써주시는 거 같아서 미안하고 그래도 아프단 분들도 그만큼 저를 아끼신 거구나 싶어 고맙고, 감사합니다. 더 잘할게요. <br/><br/>그리고 이건 진심인데요. 사랑해요. 믿어주세요. 팬들한테 제일 잘하는 손가인이 될 거란 건 약속해요.<br/><br/>사진 = 스포츠서울닷컴DB <br/><br/>연예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033.txt

제목: 시한부 어머니를 위한 눈물의 졸업식… 슬픈 감동  
날짜: 201405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55747517  
본문: 미국 메릴랜드주(州)의 한 고등학교가 정식 졸업식은 다음 달에 개최하지만, 암의 악화로 인해 시한부 삶을 선고받은 한 학생의 어머니를 위해 미리 특별한 졸업식을 시행해 감동을 주고 있다고 미 현지 언론들이 11일(현지시각) 보도했다.<br/>메릴랜드주의 그렌버니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메건 슈그 양은 졸업식을 앞두고 큰 슬픔에 빠지고 말았다. 졸업식은 다음 달 10일에 개최될 예정이지만 직장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어머니의 상태가 최근에 극도로 악화되었기 때문이다.<br/>슈그의 어머니인 다알린(47)은 3년 반 전에 직장암을 선고받고 투병 생활을 해 왔지만, 최근에 말기 암으로 병세가 급격히 악화하여 얼마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 이에 슈그는 어머니가 자신의 졸업식을 볼 수 없다는 사실에 크게 낙담하고 말았다.<br/>하지만 이러한 사연을 전해 들은 이 학교 교장은 자신도 암으로 투병 중인 어머니가 있다면서 슈그를 위해 직접 개별적인 졸업식 행사를 해주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8일, 슈그의 어머니가 투병 중인 집을 방문한 이 학교 교장은 시한부 어머니의 병상 앞에서 슈그의 졸업장을 낭독하며 이를 전해주는 감동적인 눈물의 졸업식을 거행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br/>이날 시한부 어머니 앞에서 졸업장을 전달받은 슈그는 눈시울을 붉히며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 특별한 행사를 준비해준 학교 측에 감사함을 표시했다. <br/><br/>이날 특별한 졸업식을 개최한 이 학교 교장은 원고 없는 즉석 졸업사를 통해 “<span class='quot0'>따님은 어머님을 늘 자랑스러워했다</span>”며 “<span class='quot0'>슈그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마치고 자기 인생을 찾아 나서는 훌륭한 여성</span>”이라고 말해 주위를 더욱 숙연케 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br/>사진= 시한부 어머니 병상에서 진행된 눈물의 졸업식 (페이스북 캡처)<br/>김원식 미국 통신원 danielkim.ok@gmail.com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034.txt

제목: [꼭 읽어야 할 5월의 신간] 저자 一甲의 책「말기 정신암」  
날짜: 201405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94635907  
본문: 책「말기 정신암」은 인본주의의 전통 속에 본래 생명을 고귀하게 여겨온 우리 사회에서 최근 인육섭취, 유괴사건, 살인사건 등이 다량 발생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는 것 역시 우리의 책임이라고 말하고 있다.<br/><br/>「말기 정신암」의 저자 一甲(일갑)은 심각한 자연파괴나 각종 강력범죄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하는 우리를 ‘말기 정신암’에 걸린 것으로 비유하면서, 책임회피나 책임전가를 일삼는 우리 현대인의 모습을 따끔히 꼬집고 있다.<br/><br/>저자 一甲(일갑)은 “<span class='quot0'>최근 지구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무분별한 자연파괴나 각종 강력범죄들로 인한 피해는 인간이 자행한 결과이기에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 없다</span>”고 말하며 “<span class='quot0'>그 책임 역시 우리 모두의 몫이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를 파괴하는 행위를 멈추어야 할 때</span>”라고 덧붙였다.<br/><br/>「말기 정신암」은 보민출판사에서 출판하여 5월 17일에 출간되며, 이는 반디앤루니스, 교보문고, 영풍문고 등의 오프라인 서점과 도서11번가, 예스 24, 인터파크 도서, 알라딘 등의 인터넷 서점에서 동시에 만나볼 수 있다. 책의 정가는 14,000원이다.<br/><br/>뉴스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035.txt

제목: 카이머,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우승컵,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날짜: 201405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94430049  
본문: 제5의 메이더 대회로 불리는 플레이서스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마르틴 카이머(독일)는 12일 우승 기쁨을 6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돌렸다. 카이머는 “모든 자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사랑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카이머는 전날 골프백에 해바라기를 꼽고 나왔다. 미국의 어머니날인 5월 둘째주 일요일에 맞춰서다.<br/>해바라기는 2008년 어머니날에 돌아가신 카이머의 어머니 리나가 가장 좋아한 꽃이다.<br/>　리나는 6년 전 카이머가 독일에서 열린 유럽프로골투어 BMW 인터내셔널에서 프로 데뷔 뒤 첫 우승을 보지 못하고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br/>이후 카이머는 2010년 메이저대회 PGA 챔피언십을 제패했다. 이듬해 세계랭킹 1위에 올랐다. 그러나 어머니는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했다.<br/>때문에 카이머는 우승 인터뷰에서 어머니를 불렀다. “<span class='quot0'>내 어머니는 우리(형제)에게 언제나 사랑을 주셨지만 돌아가신 뒤에는 그 사랑을 받을 수 없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자식들은 우리가 어머니를 사랑하고 있다는 보여줘야 한다</span>”고.<br/>카이머는 이날 미국 플로리다주 폰테베드라 비치의 소그래스TPC(파72·7215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3개,더블보기 1개를 적어 합계 13언더파 275타로 우승했다.<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036.txt

제목: [이번 주의 건강 강좌]  
날짜: 201405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94132462  
본문: 고혈압·고지혈증 예방법 12일 강의<br/><br/><br/>서울아산병원 심장병원은 12일 오후 2시 병원 동관 6층 대강당에서 ‘고혈압과 고지혈증의 올바른 이해와 치료’를 주제로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고혈압과 고지혈증에 관한 올바른 건강상식과 관리 및 예방법에 관한 강의를 들을 수 있다.<br/><br/><br/>암 부작용·마음 다스리기 15일 강좌 <br/><br/><br/>서울대학교암병원 암건강증진센터는 15일 오후 3시 어린이병원 임상 제2강의실에서 ‘암을 이겨낸 여성, 나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삶’을 주제로 건강강좌를 연다. 주요 암 치료의 부작용, 암 치료 후 마음 다스리기에 대해 강의한다.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037.txt

제목: “콜레스테롤 수치 높으면 ‘암 발병’ 가능성↑”  
날짜: 201405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55553129  
본문: 고등동물 세포 성분으로 분포하는 스테로이드 화합물인 ‘콜레스테롤’이 암세포를 키우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br/>최근 호주 시드니 대학 연구진은 일명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알려진 저밀도 지질단백질 (LDL, low-density lipoprotein)이 체내 암세포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br/>통상적으로 나쁜 콜레스테롤과 좋은 콜레스테롤을 나누는 기준은 ‘단백질 비율’로 나쁜 콜레스테롤은 말 그대로 단백질 밀도가 적기에 이와 같은 명칭이 붙었다. 저밀도 지질단백질의 크기는 반지름이 약 20~25nm(나노미터)로, 바깥쪽은 인지질 단분자층으로 형성되어 있다.<br/>이 나쁜 콜레스테롤은 혈액을 타고 체내 구석구석으로 지방산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시드니 대학 연구진은 이러한 특성이 암 세포의 전이 확산에 상당부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한다.<br/>해당 근거는 연구진이 세포 표면에 존재하며 피브로넥틴, 콜라겐 등 세포외 기질에 세포가 접착될 때 작용하는 수용체 분자이면서 동시에 암세포 전이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 ‘인테그린’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작용된다는 것을 실험으로 밝혀냈기 때문이다. 즉, 암세포가 타 장기로 전이되기 쉽게 도와줄 이동통로가 구축되도록 나쁜 콜레스테롤이 도와준다는 의미다.<br/>이와 관련해, 시드니 대학 토머스 그레웰 교수는 “<span class='quot0'>암이 완치되기 어려운 이유는 신체 내에서 급속히 확산될 때 이를 제어하기 힘들기 때문</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이 연구는 나쁜 콜레스테롤이 암세포 확산에 영향을 주며 동시에 콜레스테롤 수치와 암 발생의 연관성이 상당함을 알려 준다</span>”고 설명했다.<br/>또한 영양학 전문가들은 체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이기 위해서는 평소 아이스크림, 케이크, 사탕, 패스트푸드 등을 덜 먹고 꾸준한 유산소 운동을 통해 정상 체중을 유지해주면서 채소, 과일, 잡곡 등 섬유소가 풍부한 식품을 먹어주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그리고 최소 5년에 한번은 병원을 방문해 정기적으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측정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br/>자료사진=포토리아<br/>조우상 기자 wscho@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038.txt

제목: 의사보다 정확한 ‘피부암 진단 앱’ 개발  
날짜: 201405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55509823  
본문: 스마트폰으로 ‘피부암’을 진단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의료용 ‘앱’이 등장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br/>미국 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 휴스턴 대학교 공업기술학과 연구진이 개발한 피부암 진단 스마트폰 앱인 ‘데모스크린(DermoScreen)’을 지난 8일(현지시간) 소개했다.<br/>지난 2005년부터 개발이 시작된 ‘데모스크린’은 스마트폰 카메라 디바이스 기술을 응용한 프로그램으로 피부를 보다 정밀하게 관찰하게 도와주는 특수 조명이 장착된 확대경과 고해상도 렌즈가 함께 제공된다.<br/>휴스턴 대학교 연구진 측에 따르면, 해당 앱의 피부암 진단 정확도는 85%인데 미국 공인 산업통계에 나와 있는 일반 피부과 의사의 피부암 진단 정확도는 50~70% 정도다. 수치상으로만 비교하면 ‘데모스크린’의 정확도가 더 높다.<br/>연구진은 ‘데모스크린’이 기존 암 검사와 비교해 훨씬 저렴하고 시간도 절약되며 심지어 정확성도 높다고 주장한다. 앱 개발을 주도한 휴스턴 대학교 공업기술학과 조지 주다키스 교수는 ‘데모스크린’이 농촌지역과 저개발국가에 폭넓게 활용돼 수백만의 목숨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br/>한편 ‘데모스크린’은 텍사스 의과대학 앤더슨 암센터에서 정밀 테스트가 진행 중이며 프로젝트가 승인돼 공식 발매될 경우 가격은 각종 부속 장비를 포함해 500달러(약 51만원)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br/>사진=University of Houston<br/>조우상 기자 wscho@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039.txt

제목: 진짜 보약일까? ‘브로콜리’에 대한 오해와 진실  
날짜: 201405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55412336  
본문: ‘꽃양배추’라고도 불리는 ‘브로콜리’는 겨자 과에 속하는 녹색채소로 샐러드, 스프 등 외국음식 조리에 많이 사용되는 재료 중 하나며 다량의 항산화 물질과 칼슘이 함유되어 있어 골다공증, 암, 심장병을 예방하는 ‘보약’으로도 유명하다. <br/>그런데 정말 브로콜리에는 몸에 유익한 성분만 있는 것일까? 미국 과학전문매체 라이브 사이언스닷컴은 영양학 전문가들의 조언이 담긴 ‘브로콜리 섭취 시 몸에 이로운 점과 해로운 점’을 고르게 정리해 지난 7일(현지시간) 소개했다. 한 가지 식품이 몸에 좋다고 유명세를 타면 과도하게 해당식품만을 소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느 쪽이 되었건 ‘양면성’이 존재하고 과도한 편식이 좋지 않다는 점을 이 칼럼은 알려주고 있다.<br/><br/>미국 식품의약국(FDA)에 공인된 브로콜리의 장점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br/>1. 암 예방<br/>‘미국 암 협회’에 따르면, 브로콜리 속 설포라판(Sulforaphane), 인돌(Indole) 화합물은 체내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상당한 항암효과를 내는데 주로 전립선암, 대장암, 방광암, 난소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 또한 여성 에스트로겐 수치에도 영향을 줘 유방암 예방 효과가 있다.<br/>2. 콜레스테롤 감소<br/>브로콜리 속 수용성 식이섬유는 소화기관의 담즙과 결합해 생리적 배설을 원활하게 만들어준다. 따라서 체내 콜레스테롤 감소에도 자연히 도움이 된다. <br/>3. 심장 건강<br/>브로콜리의 설포라판 성분은 건강한 혈관유지에 도움을 줘 뇌졸중, 심장 발작 등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를 발휘한다. <br/>4. 눈 건강<br/>브로콜리 속 카로티노이드 루테인, 제아잔틴 성분은 ‘황반 변성’과 ‘백내장’ 등의 안과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br/><br/>1. 과도한 ‘장’ 자극과 가스 유발<br/>일반적으로 브로콜리는 안전하고 부작용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가장 흔한 부작용은 브로콜리를 다량 복용할 경우, 섬유질이 지나치게 체내에 축적되어 창자 등의 장기가 과도하게 자극돼 복통을 유발하거나 ‘가스’가 심각하게 많이 방출될 수 있다.<br/>2. 약물 치료 방해<br/>브로콜리는 혈액을 타고 체내에 접근하는 약물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다. 특히 호르몬 분비문제로 찾아오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경우, 하루에 브로콜리를 160g(2컵) 이상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br/>3. 요리법<br/>브로콜리는 요리법에 따라 장점이 사라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브로콜리를 지나치게 오래 삶거나 끓일 경우 항암효과가 약화되기 쉽다고 조언한다. 그렇다면 날 것으로 먹는 것이 좋다는 뜻일까? 사실 생 브로콜리는 모든 영양소가 유지되어 있어 좋지만 이 경우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장’을 자극하기 쉽다.<br/>이에 전문가들의 조언하는 요리방식은 ‘가볍게 삶아주는 것’이다. 브로콜리를 세로 혹은 잘게 슬라이스 한 뒤 100 ℃ 이하에서 2~3분간 살짝 삶은 뒤 섭취해주면 영양소는 ‘그대로’ 부작용은 ‘최소화’된 완벽한 상태의 브로콜리를 섭취할 수 있다. <br/>자료사진=포토리아<br/>조우상 기자 wscho@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040.txt

제목: “훅~ 숨만 내쉬면 ‘폐암’ 예방 가능”  
날짜: 201405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54935061  
본문: 간단한 호흡검사로 폐암 징후를 미리 발견해 치료효과를 높여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br/>미국 타임지는 켄터키주(州) 루이빌 대학 메디컬 센터 연구진이 환자의 호흡샘플을 분석해 폐암 유발 가능성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획기적인 검사법을 개발했다고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br/>이 검사법은 특정 질환으로 체내 해부학적 형태 변화가 생기기 전, 생화학적 변화를 먼저 추적해 진단해내는 양전자방출 단층촬영법(Positron Emission Tomography)에서 한층 발전돼 실리콘 마이크로 칩으로 수집된 환자 호흡샘플을 분석하는 방식이다.<br/>연구진은 해당 방식으로 수집한 정상인 88명의 호흡샘플과 폐암 환자 107명의 호흡샘플을 비교분석했고 40개의 폐암 초기 징후와 7가지 폐암 전이 징조를 포착할 수 있었다. 연구진은 해당 검사법으로 ‘카보닐 화합물’ 같은 4가지 폐암 유발 물질을 미리 발견할 수 있었다. 참고로 해당 물질이 3~4가지 이상 폐에서 미리 발견되면 암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95%에 달한다.<br/>특히 해당 호흡법과 양전자방출 단층촬영법의 민감도를 분석해본 결과는 각각 75%와 38.7%로 호흡법 측정의 민감도 약 2배 높았다. 이는 해당 호흡측정법이 복잡하고 많은 비용이 드는 양전자방출 단층촬영법과 컴퓨터 단층 촬영보다 저렴하고 효과도 훨씬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br/>루이빌 대학 심혈관·흉부외과 교수 마이클 보삼라 2세는 “<span class='quot0'>과정도 복잡하고 비싼 기존 진단법보다 훨씬 저렴하면서도 효과는 높기에 폐암 조기발견과 의료비용 감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span>”이라고 설명했다.<br/>한편 이 검사법은 미국흉부외과학회(American Association for Thoracic Surgery) 2014 컨퍼런스에서 소개됐다. <br/>자료사진=포토리아<br/>조우상 기자 wscho@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041.txt

제목: 무정자증 남성 ‘희망의 빛’  
날짜: 201405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83045658  
본문: 염색체 이상으로 정자를 전혀 생산하지 못하는 남성의 피부 세포를 정자로 바꾸는 실험이 성공했다. 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미국 스탠퍼드대학의 연구진이 무정자증 남성 3명의 피부 세포를 줄기세포로 전환시킨 뒤 실험용 쥐의 고환에 이식한 결과, 세 남성의 피부 세포가 모두 초기 단계의 정자 세포로 분화했다. 연구진은 피부 세포로 분화된 세포를 분화 전 세포로 되돌려 줄기세포를 만들었다.<br/><br/><br/>연구진은 이번 실험이 쥐가 아닌 사람의 고환에서 이뤄졌다면 완전한 정자로 발전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가 실험으로 이들의 주장이 입증되면 Y염색체 이상으로 절대로 생식을 할 수 없었던 1%의 남성과 항암치료의 후유증으로 무정자증을 겪고 있는 남성들도 생물학적 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br/><br/><br/>하지만 이 실험을 인체에 적용할 때는 암 발생 위험을 무릅써야 한다. 쥐 실험에서 고환 내 정자를 만드는 부분인 정세관에 정확히 이식된 줄기세포는 초기 정자세포로 분화했지만 다른 세포들은 종양으로 발전했다. 게다가 정자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해서 곧바로 불임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앨런 페이시 셰필드대학교 남성병학과 선임교수는 “<span class='quot0'>줄기세포를 남성의 정세관에 주입한 뒤에도 그것이 불임을 극복할 만큼 충분한 정자가 되려면 수개월에서 몇 년까지 고환 안에서 안전하게 유지돼야 한다</span>”고 설명했다.<br/><br/><br/>영국에서는 인공적으로 생산한 정자를 이용해 아기를 얻는 것이 법으로 금지돼 있다. 하지만 이번에 성공한 기술은 인간의 몸 안에서 세포의 작용으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가디언은 분석했다.<br/><br/><br/>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042.txt

제목: 이집트 피라미드 ‘건축 미스터리’…드디어 해결?  
날짜: 201405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54822312  
본문: 이집트 사막 한복판에 건설된 100m가 훌쩍 넘는 ‘피라미드’는 그 거대한 규모만큼이나 건축방법에 대한 다양한 가설이 제기되어왔다. 특히 최소 2톤, 최대 20톤에 달하는 석회암 덩어리를 고대 시대에 어떻게 운반했는지는 역사학자들이 추적해온 공통 관심사였다. <br/>그런데 이 미스터리가 드디어 해결된 것일까? 미국 과학전문매체 라이브 사이언스닷컴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 물리학 연구진이 피라미드의 기반이 된 석회암 운반 방법에 대한 실마리를 찾아냈다고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br/>기원전 2000년 대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기자(Giza)의 대피라미드(Great Pyramid)는 높이 146m, 밑변 길이 230m로 카이로 인근에서 채취한 무게 2~20톤의 석회암 230만 개로 만들어졌다. 현대 건축학자들은 숙련된 건설기술을 가진 전문 인력 4,000~5,000명이 거의 10년에 걸쳐 피라미드를 쌓아올렸다고 추산하는데 이 중 가장 큰 의문점은 고대 시대에 엄청난 무게의 석회암을 어떻게 운송했는지 여부였다.<br/>암스테르담 대학 연구진은 빅토리아 시대 때 고대 무덤(tomb of Djehutihotep)에서 발견된 이집트 고대 벽화에서 이것에 대한 힌트를 찾을 수 있다. 석회암 덩어리를 거대 썰매에 담아 운반하는 모습이 그림에 묘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 의문은 남아있다. 아무리 썰매로 운송한다 하더라도 수 톤에 달하는 암석무게 때문에 모래 속에 푹 박혀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다시 벽화에서 힌트를 찾는다. 썰매 앞 쪽에 물을 뿌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한 작업자의 모습이 발견됐기 때문이다.<br/>물을 뿌리는 모습은 단순한 의식의 순간이었을까? 연구진은 조금 더 과학적인 원리가 숨겨져 있다고 봤다. 일반적으로 모래는 물이 스며들수록 더욱 강성을 띠고 단단해진다. 만일 석회암을 운반할 때 미리 모래에 물을 충분히 적셔주면 그만큼 땅이 단단해져 한결 운송이 쉬워진다는 것이다.<br/>물리학 연구진은 실제로 모래를 이용해 가상실험을 진행했다. 건조한 모래와 물을 적신 모래 위에서 일정 무게의 금속 조각을 끌어보며 힘과 운반속도의 차이를 측정해본 것이다. 결과는 모래에 물을 적실수록 운반에 필요한 힘이 적게 들었고 훨씬 이동이 수월했다. 이는 수분이 모래에 스며들면서 입자들의 사이 간격을 메꿔주기 때문이다.<br/>연구진의 설명에 따르면,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도 이동에 제약을 줬다. 이들은 모래 부피의 2~5% 정도의 수분함량이 가장 적합하다고 말한다. 연구를 주도한 암스테르담 대학 물리학과 다니엘 본 교수는 “<span class='quot0'>모래에 함유된 수분이 썰매의 지표면의 마찰력을 줄여줘 운송을 쉽게 할 수 있었을 것</span>”이라고 추정했다.<br/>한편, 해당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인 ‘피지컬 리뷰 레터스(Physical Review Letters)’에 지난 29일(현지시간) 발표됐다. <br/>자료사진=포토리아·Daniel Bonn/University of Amsterdam<br/>조우상 기자 wscho@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043.txt

제목: 본지 심재억 의학전문기자, 제17회 범석상 수상  
날짜: 201405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81913062  
본문: 본지 심재억 의학전문기자가 제17회 범석상을 수상했다.<br/>범석학술장학재단은 1일 제17회 범석상 범석언론·정책상에 심재억 기자, 범석논문상에 연세대 신전수 교수, 범석의학상에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범석봉사상에 사랑나눔의사회를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br/>범석상은 을지대와 을지대의료원 등을 포함한 을지재단 설립자인 고 범석 박영하 박사의 뜻을 기리는 상이다.<br/>재단은 심 기자가 의료전문기자로서 체계적인 의료정보를 제공한 공로를 높이 사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심 기자는 10여년간 의학전문기자로 활동 중이며 그 동안 ‘명사들의 건강보감’ ‘한국의 희귀난치병’ ‘암 기획 시리즈’ 등 질병과 의학에 대한 심층보도로 건강에 대한 관심을 크게 높였다. 특히 난해한 의학 용어를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써 의학 저널리즘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한 점이 인정받았다.<br/>신 교수는 세포신호를 원격으로 조절, 항암치료제 개발에 큰 영향을 끼친 점, 의편협은 국내 의학논문의 세계화에 공헌한 점, 사랑나눔의사회는 국내외 소외된 의료사각 계층의 질환 치료에 이바지한 점이 인정돼 수상했다.<br/>시상식은 7일 오후 5시 30분 경기 성남시 을지대 을지관 밀레니엄홀에서 열린다. <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044.txt

제목: 국내 첫 직업성암 연구시설 첫 삽  
날짜: 201405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81612827  
본문: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근로자의 백혈병 논란 등 유해물질과 직업성 암의 연관 관계를 밝히기 위한 ‘만성흡입독성 시험시설’이 문을 연다.<br/><br/><br/>국내에 만성흡입독성 연구와 관련된 시험시설이 조성되는 것은 처음으로, 급성흡입독성 시험시설은 1997년 대덕연구단지에 설립됐다.<br/><br/><br/>총 370억원의 예산을 들여 2015년 11월에 완공되는 이 시설에서는 실험용 쥐를 화학물질에 노출시켜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을 평가하는 시험이 이뤄진다. 주로 전자, 자동차, 타이어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화학물질에 근로자가 저농도로 장기간 노출됐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직업성 암과 만성독성 질환을 예측하고 연구한다.<br/><br/><br/>실험동물에 화학물질을 2년간 노출하는 만성독성 시험, 3개월간 노출하는 아만성독성(亞慢性毒性) 시험, 24시간 이내 단시간 노출하는 급성독성 시험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사업장 내 독성물질과 직업성 암의 연관성이 밝혀진다면 직업성 암의 산재 인정기준이 대폭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br/><br/><br/>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045.txt

제목: “훅~ 숨만 내쉬면 미리 ‘폐암’ 발견 가능”  
날짜: 201404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54557600  
본문: 간단한 호흡검사로 폐암 징후를 미리 발견해 치료효과를 높여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br/>미국 타임지는 켄터키주(州) 루이빌 대학 메디컬 센터 연구진이 환자의 호흡샘플을 분석해 폐암 유발 가능성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획기적인 검사법을 개발했다고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br/>이 검사법은 특정 질환으로 체내 해부학적 형태 변화가 생기기 전, 생화학적 변화를 먼저 추적해 진단해내는 양전자방출 단층촬영법(Positron Emission Tomography)에서 한층 발전돼 실리콘 마이크로 칩으로 수집된 환자 호흡샘플을 분석하는 방식이다.<br/>연구진은 해당 방식으로 수집한 정상인 88명의 호흡샘플과 폐암 환자 107명의 호흡샘플을 비교분석했고 40개의 폐암 초기 징후와 7가지 폐암 전이 징조를 포착할 수 있었다. 연구진은 해당 검사법으로 ‘카보닐 화합물’ 같은 4가지 폐암 유발 물질을 미리 발견할 수 있었다. 참고로 해당 물질이 3~4가지 이상 폐에서 미리 발견되면 암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95%에 달한다.<br/>특히 해당 호흡법과 양전자방출 단층촬영법의 민감도를 분석해본 결과는 각각 75%와 38.7%로 호흡법 측정의 민감도 약 2배 높았다. 이는 해당 호흡측정법이 복잡하고 많은 비용이 드는 양전자방출 단층촬영법과 컴퓨터 단층 촬영보다 저렴하고 효과도 훨씬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br/>루이빌 대학 심혈관·흉부외과 교수 마이클 보삼라 2세는 “<span class='quot0'>과정도 복잡하고 비싼 기존 진단법보다 훨씬 저렴하면서도 효과는 높기에 폐암 조기발견과 의료비용 감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span>”이라고 설명했다.<br/>한편 이 검사법은 미국흉부외과학회(American Association for Thoracic Surgery) 2014 컨퍼런스에서 소개됐다. <br/>자료사진=포토리아<br/>조우상 기자 wscho@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046.txt

제목: 더 다양해진 유방재건수술, 줄기세포 지방이식으로도 가능해진다  
날짜: 20140430  
기자: 이보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81332803  
본문: 유방재건술을 고민하고 있는 이미경(가명)씨 에게 최근 고민이 생겼다. 자가 조직으로 재건을 하자니 선뜻 용기가 나지 않고 보형물을 넣자니 부작용이 생기면 어쩌나 불안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여성의 상징인 가슴을 재건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수술 방법을 찾고 싶어 인터넷을 뒤지며 고민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br/>최근 1년 사이 안젤리나 졸리가 유방재건술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유방재건술이 많은 유방암 환자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다. 물론 유방암 발병 후 암 조직 제거와 동시에 재건수술을 받을 수 있지만 유방암의 병기와 재발의 염려 등으로 절제수술 후 암의 치료를 끝낸 후 유방재건수술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br/>사람의 몸을 치료하는 수술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닌 것처럼, 유방재건수술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 대부분 많이 쓰이는 방법이 있기는 하나, 암을 겪은 환자인 경우 더더욱 자신에게 맞는 수술방법으로 수술을 받아야 이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또한 대학병원이 아닌 대부분의 로컬병원에서는 한 가지 수술 방법으로 재건수술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br/>유방재건수술의 방법은 크게 환자 본인의 피부조직을 이용해 가슴재건을 하는 자가조직 재건술과 보형물을 이용한 재건수술로 나뉘는데, 이 방법 이외에도 브라바라는 음압기구를 이용하여 가슴의 피부조직을 늘려주고 그 안에 지방을 이식해 주는 방법도 있다. <br/>이처럼 지방이식을 이용한 유방재건술이 가능하지만 우리 몸 안에 있는 지방의 특성상 오래 머물지 못하고 금세 빠져버리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한 것이 바로 줄기세포 지방이식이다. 줄기세포란 우리 몸 안의 피와 지방, 골수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세포 공장이라고 할 수 있다. <br/>그 중 지방 안에 분포되어 있는 줄기세포를 추출하여 기존의 지방에 배합하면 지방이식을 했을 때 그 자리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고 쉽게 빠지지 않게 된다. 이 때문에 일반 지방이식을 한 것 보다 생착력(신체부위에 지방이 유지하는 능력)이 높아져 오랫동안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볼륨을 유지할 수 있다. <br/>현재 위와 같은 방법들을 응용한 다양한 재건수술은 흔히 로컬병원에서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압구정 더성형외과에서는 다년간 다양한 수술방법으로 유방재건수술을 집도한 옥재진 박사가 환자에게 딱 맞는 수술 방법을 권하고 있기 때문에 유방재건술을 받은 유방암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다.<br/>또한 더성형외과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과정은 병원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줄기세포만을 따로 분리해 내는 전문 연구원들에게 의뢰하기 때문에 더욱 안전하고 믿을 수 있다.<br/>이에 옥재진 박사는 “사람 체형은 누구나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 방법으로 재건수술을 진행한다면 자칫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한 번의 암을 겪어낸 몸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유방재건술을 결정해야 하며 수술 방법 이외에도 사후관리나 수술 시스템 등을 꼼꼼히 알아보고 유방재건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라고 당부했다.<br/>온라인뉴스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047.txt

제목: ‘마음수련과 행복, 평화, 그리고 공존’ 국제학술대회 열린다  
날짜: 201404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80914366  
본문: 전세계적으로 마음수련을 통한 힐링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인류의 평화와 공존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찾고자 하는 국제학술대회가 열려 주목을 끈다. 전인교육학회(회장 이종범 고려대 명예교수)는 개인과 인류의 행복과 평화, 그리고 공존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제2회 전인교육학회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br/><br/>’마음수련과 행복, 평화 그리고 공존’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오는 5월 3일 미국 UCLA(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인문학관(Humanities)에서 열리며, 전인교육학회가 주최하고 UCLA 한국학 연구소가 후원한다.<br/><br/>이번 국제학술대회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학들과 한국의 젊은 학자들이 참석, 개인과 인류의 행복, 평화, 공존을 위한 토론을 진행한다. 학교심리학의 권위자인 펄롱(Furlong) UCSB(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 교수와 심리학자이자 달라이라마의 부서기관을 역임한 롭상 랍게이(Lobsang Rapgay) 교수, MBA(Mind Body Awareness Project) 상임이사인 샘 히멜스테인(Sam Himelstein) 박사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br/><br/>또한 심리적 정신적 안정과 웰빙을 위한 뛰어난 효과로 세계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마음 빼기’ 방법의 이론과 그 효과에 대한 연구 논문들이 발표된다.<br/><br/>서울대학교 간호학과 윤미라 박사는 ‘유방암 생존자를 위한 마음수련 명상 프로그램이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효과’라는 발표 논문을 통해 마음 빼기가 유방암 생존자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를 밝힌다. 마음 빼기 프로그램이 암 생존자들에게 심리적인 안정을 도모하고 현대인들의 스트레스 해소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소개한다.<br/><br/>동국대 교육학과 신나민 교수는 학교 기반 마음수련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정서 안정과 공격성 감소에 큰 효과가 있음을 밝힌다. 내면적 안정과 행복을 토대로 한 초등학교 인성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br/><br/>학술대회와 연계한 특별 이벤트도 마련해 마음 빼기 방법의 기본 원리를 소개한다. ‘행복 증진을 위한 마음 빼기 프로그램’이라는 주제로 UCLA 마음수련 워크숍이 진행되며 마음 빼기에 관한 강의가 이어진다. 또한 ‘전세계 어린이들이 인류에게 전하는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전세계 35개국 어린이들의 그림을 만나볼 수 있는 전시회도 열린다. 이 그림 전시회는 5월 2일과 3일 이틀간 UCLA 캠퍼스에서 감상할 수 있다.<br/><br/>한편, 전인교육학회는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하는 전인교육의 실천과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 설립됐다. 매해 두 차례 학술대회를 진행하며 지난해는 교육부 후원 하에 ‘행복, 마음에 묻다’라는 주제로 제1회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br/><br/><br/> <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048.txt

제목: 티셔츠에 내장된 스마트폰? 곧 현실화  
날짜: 201404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54435455  
본문: 따로 스마트폰을 들고 다닐 필요없이 입은 옷을 통해 전화를 받거나 문자를 보낼 수 있다면 어떨까? 공상과학영화 속에서나 보던 일을 이제 곧 실생활에서 만나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br/>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은 호주 모나쉬 대학교 연구진이 탄소로만 구성된 초정밀 나노 크기 스페져(SPASER) 개발에 성공했다고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br/>스페져는 9~11㎛ 사이 파장으로 적외선을 발산하는 나노레이저(nanolaser)의 일종으로 표면이 금속 내부 전자들이 동시에 진동하는 물질인 플라즈몬(plasmon)으로 이뤄져 있다. 기존 나노레이저가 공간 내부에 잠식되어있는 전자기적 파동 방출 방식을 취해온 반면 이 스페져는 전자의 자유로운 진동으로 방사선을 자극, 방출해낸다. <br/>강철보다 강하고 고온에서도 쉽게 변하지 않는 그래핀 소재와 탄소 나노튜브로 제작된 스페져는 어떤 환경에서도 적응하고 견딜 수 있으며 어디든 부착될 수가 있다. 즉, 스페져로 휴대전화 마이크로 칩을 인쇄해 셔츠 등에 부착하면 세계에서 가장 가볍고 이동성이 강한 스마트폰이 탄생되는 것이다.<br/><br/><br/><br/>스페져의 응용성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기존 항암제와 달리 건강한 세포에 손상을 주지 않고 오직 암세포만 공격해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치료 효과는 높여주는 암 표적 치료제로도 스페져는 사용될 수 있다. <br/>이와 관련해 모나쉬 대학 전기·컴퓨터공학부 수석 연구원 차나카 루파싱헤는 “<span class='quot0'>현재 과학 기술력은 나노입자를 암세포 근처로 접근시킬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해있다</span>”고 설명했다. <br/><br/>또한 연구진은 스페져를 사용하면 지금보다 10배 더 정밀한 현미경 제작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했다. <br/><br/>자료사진=포토리아/Monash University　　<br/>조우상 기자 wscho@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049.txt

제목: 산양 사냥하는 ‘암살자’ 눈표범 포착  
날짜: 201404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54430829  
본문: 마치 암살자처럼 숨어 산양을 사냥하는 눈표범의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돼 눈길을 끌고 있다.<br/>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최근 사진작가 애덤 라일리가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인도 헤미스 국립공원에서 산양의 일종인 티베트푸른양을 사냥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데 성공했다.<br/>‘히말라야 회색 유령’이나 ‘암살자’라고도 불리는 눈표범(혹은 설표)은 회색과 검은색, 흰색 등이 어우러진 특유의 보호색을 사냥에 효율적으로 이용한다.<br/>따라서 바위로 된 은신처에 숨어있는 눈표범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은 일. 라일리는 작가 특유의 매의 눈으로 그런 눈표범을 발견했고 그 맹수가 사냥하는 극적인 장면도 사진으로 담아냈다.<br/>특히 원본 사진에서는 웬만한 눈설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마치 숨은 그림 찾기처럼 눈표범을 찾기 어렵다. <br/>한편 사진 속 눈표범은 첫 번째 사냥에 한 차례 실패했지만 이어진 도전으로 먹이를 얻는 데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다.<br/>사진=애덤 라일리<br/>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050.txt

제목: 화성에 물이 흘렀던 시기는 최소 20만년 전  
날짜: 201404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54253059  
본문: 화성에서 액체상태의 물이 존재했던 시기는 최소 20만년 전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미국 과학전문 사이언스데일리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br/>스웨덴과 독일, 미국 공동 연구팀은 화성 남반구의 중간 위도 지점에 있는 한 크레이터(충돌구 혹은 운석공)에서 가장 최근 액체상태의 물이 흐른 흔적을 발견했다고 국제 과학저널 이카루스(Icarus)에 발표했다.<br/>화성 남반구에는 협곡이나 암설류의 침전물이 매우 잘 보존돼 있으며, 이런 지형의 지형학적 특성이 지질학적으로 최근 물의 존재에 관한 증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br/>암설류는 경사가 급한 지형에 쌓여있던 암석이나 자갈, 점토와 같은 침전물이 물에 의해 섞인 혼합체가 빠르게 사면을 따라 흘러내리면서 나타나는 것으로, 흐름이 멈춘 지점에는 침전물이 부채 모양으로 퍼진 것 같은 특징적인 표면양상을 나타낸다.<br/>이런 암설류의 흔적을 화성에서도 확인했다고 연구를 이끈 안드레아스 욘슨 박사(스웨덴 예테보리대학)가 밝혔다.<br/>연구팀은 화성의 암석류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북극해 노르웨이령 스발바르 제도에 있는 암설류를 현장 조사하고 그 항공사진을 분석한 끝에 화성에 있는 암석류가 액체상태의 물이 흘렀던 흔적임을 밝혀냈다.<br/>욘슨 박사는 “<span class='quot0'>스발바르 제도의 현장 연구가 화성의 침전물에 대한 설명을 확인시켜줬다</span>”면서 “<span class='quot0'>놀라운 점은 이런 암설류가 형성된 크레이터가 매우 젊다는 것</span>”이라고 말했다.<br/>연구팀은 통계적 분석을 통해 해당 크레이터의 연대가 약 20만 년 전임을 밝혀냈다.<br/>이는 화성의 가장 최근 빙하시대가 약 40만 년 전 끝난 뒤 이 크레이터가 형성될 때까지 오랜 기간 액체상태의 물이 존재했다는 것.<br/>욘슨 박사는 “<span class='quot0'>화성에는 여러 협곡이 있지만 이번 연구에 이용된 크레이터의 연대가 기존보다 훨씬 젊어 가장 최근의 빙하시대와 연관성이 크다</span>”고 설명했다.<br/>이번 연구에 쓰인 크레이터의 명칭은 ‘램파트 이젝타’로 이 주변부는 ‘꽃’처럼 보이는 데 이는 젖어있거나 얼음이 풍부한 땅에 운석 등의 충돌로 생성된 것이라고 천문학자들은 설명한다.<br/>욘슨 박사는 “<span class='quot0'>처음에 난 램파트 이젝타 내에 있는 얼음에서 나온 물로 인해 이런 암설류가 형성됐다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그 내부를 더 상세히 관측했을 때 눈이나 얼음이 녹아 흘러 발생하는 균열이나 단층 같은 어떤 구조도 찾지 못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이는 눈이 형성되기에 유리했던 시기에 쌓였던 눈이 녹아 생긴 물일 가능성이 크다</span>”고 설명했다.<br/>이어 그는 “<span class='quot0'>당시 화성의 궤도 축은 현재보다 더 기울었을 것</span>”이라고 덧붙였다.<br/>사진=NASA<br/>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051.txt

제목: 소람한방병원, 통합암치료 도입 이어 서비스 부분도 도약  
날짜: 201404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54247783  
본문: 소람한방병원이 환자들의 편리한 진료를 위한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br/>소람한방병원은 세계 의학계 흐름으로 굳어진 양한방협진의 시행은 물론, 환자별 전담 진료원장과 간호사를 지정해 개인별 치료 프로그램 수립, 예약 및 내원 관리를 하고 있다. 또한 항암∙방사선 스케줄에 따른 대학병원 진료 스케쥴과 검사 결과를 함께 검토하고 있다.<br/>특히 소람한방병원은 올해 초 한국갤럽을 통해 진행한 내원환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해 면역치료나 병행치료 개념이 익숙하지 않은 초진 환자들을 위해 원내 DID를 설치, 면역치료의 개념과 관련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br/>치료를 시작하는 환자들을 위해선 앞으로 받게 될 치료내용과 그 효과를 미리 볼 수 있도록 영상자료를 탑재한 태블릿도 마련할 계획이다.<br/>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양한방협진면역암치료 병원인 소람한방병원은 우수한 의료진과 진료서비스로 건강사회 가치를 실현하는 미래선도 혁신기업 브랜드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 외에도 암환자를 위한 한방 면역치료와 미슬토, 고주파온열치료 등의 양방치료 시행, 국제논문 발표 등의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br/>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052.txt

제목: 사자로부터 새끼 구하는 엄마 버팔로 화제  
날짜: 201404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74721540  
본문: 사자 먹잇감이 될 뻔한 아기 버팔로를 구하는 엄마 버팔로의 영상이 화제다.<br/><br/>지난 3월 5일 유튜브에 게재된 이 영상은 남아프리카공화국 크루거 국립공원 남쪽에 위치한 말레라인(Mjejane)의 중심도로에서 촬영됐다.<br/><br/>‘게임 리저브’(Game Reserve: 사륜구동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야생동물을 관찰하는 여행)중인 관광객의 카메라에 검은 새끼 버팔로 한 마리가 보인다. 새끼 버팔로는 잃어버린 엄마를 찾는 듯 연신 울어댄다.<br/><br/><br/><br/>사냥감을 찾아 헤매던 암사자 한 마리가 새끼 버팔로의 울음소리를 듣고 다가온다. 이곳저곳을 헤매던 새끼 버팔로가 점점 더 사자와 가까워진다.<br/><br/>암사자가 새끼 버팔로를 덮치려는 순간, 풀숲에서 어미인 듯한 버팔로가 튀어나와 암사자를 내쫓기 시작한다. 자신보다 2, 3배 더 큰 버팔로의 등장에 깜짝 놀란 암사자가 줄행랑을 친다.<br/><br/>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span class='quot0'>동물이나 사람이나 모성애는 똑같은 듯</span>”, “<span class='quot0'>제때에 어미 버팔로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span>” 등 다행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br/><br/>사진·영상=유튜브<br/><br/>손진호 기자 nasturu@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053.txt

제목: 암 말기 소년의 죽기 전 하고 싶은 일 실행 영상 ‘감동’  
날짜: 201404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73914632  
본문: 십대 말기 암 환자 스티븐 서튼(19)의 버킷리스트(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들을 적은 목록) 실행 영상과 그의 사연을 영국 텔레그래프가 23일 보도했다. <br/><br/>보도에 따르면 스티븐 서튼은 자신이 죽기 전에 다른 암 환자들을 위한 후원금 모금을 목표로 버킷리스트를 만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스카이다이빙하기, 군중들 사이에서 파도타기, 사람들과 악수하기와 포옹하기 등 자신이 정한 소망을 하나씩 실현시켰다고 덧붙였다.<br/><br/>서튼은 지난 2012년 그의 병이 완쾌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는 후원금 목표를 10만 파운드(약 1억7400만 원)로 정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br/><br/>그 결과 유명 인사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격려로 당초 목표 모금액을 초과 달성, 오늘까지 273만 파운드(약 47억 7400만 원)가 넘는 금액이 모이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었다.<br/><br/>자선모금활동의 아름다운 의미를 알려준 그는 지난 16일 병세가 악화되면서 다시 병원에 입원했다. 이 소식을 접한 많은 이들은 SNS를 통해 그에게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br/><br/>병원에 입원한 후 잠시 SNS 활동을 중단했던 서튼은 자신의 캠페인 모금액이 당초 목표치를 훌쩍 뛰어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으며,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찍은 사진을 SNS를 통해 공개하기도 했다.<br/><br/>스태퍼드셔 브런트우드 출신의 서튼은 15세 때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br/><br/>그는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 목록을 만들었고 지난 1월 온라인 기부 사이트 저스트기빙(justgiving.com)과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후원금 모금 계획을 알리며 이를 실행에 옮겼다.<br/><br/><br/><br/>서튼은 스카이다이빙, 군중 속에서 파도타기, 악수하기, 포옹하기 등 ‘버킷리스트’를 실행하는 모습을 촬영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하기도 했다.<br/><br/>사진·영상=스티븐 서튼 페이스북, 유튜브<br/><br/>영상팀 seoultv@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054.txt

제목: [지금&여기] 공직 신뢰가 사라진 시대/강국진 정책뉴스부 기자  
날짜: 201404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73501947  
본문: 1997년 경기 화성군청 사회복지과에서 부녀복지계장으로 일하던 여성 공무원이 있었다. 그는 화재에 취약하다며 관내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허가를 반려했다. 그러자 요즘 말로 치면 “암덩어리 규제를 무기로 경제활성화를 가로막는 (종북) 무사안일 공무원”이라며 항의에 시달렸다. 군청 간부들은 “허가를 내주라”고 난리를 쳤다. 아예 깡패들까지 찾아와 협박하는데도 그 계장은 끝내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br/><br/>군청에선 결국 그 계장을 좌천시키고 곧바로 청소년수련시설에 허가를 내줬다. 그리고 1년도 안 돼 그곳에서 화재가 났다. 유치원생 19명을 포함해 23명의 목숨을 화마가 앗아갔다. 온 국민은 이 시설이 콘크리트 1층 건물 위에 컨테이너 수십 개를 얹어 화재에 취약한 가건물 형태였다는 걸 알고 충격에 빠졌다. 화성군청 관계자들이 줄줄이 구속됐다. 그 계장은 동료들을 배신했다는 따가운 시선에 무척이나 힘들어했다고 한다. 결국 이듬해 명예퇴직했다.<br/><br/>‘씨랜드 화재사건’을 계기로 획기적인 제도정비가 이뤄졌다는 얘길 들어본 적이 없다. 우리는 주기적으로 서해훼리호, 대구지하철, 씨랜드, 세월호 악몽에 시달린다. 그때마다 ‘시스템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자기파괴적인 신념을 학습한다. 물론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 계장을 ‘참 공무원’이라며 칭송했던 우리가 언제 그랬느냐는 듯 ‘이장덕’이란 이름 석 자를 금세 잊어버렸던 것도 한 원인이 아닐까.<br/><br/>현장을 잘 아는 공무원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주는 개혁을 했다면, 국민안전을 위한 더 엄격하고 촘촘한 규제를 만들고 정비했다면, 공공성을 내팽개친 공직자를 고발할 수 있는 ‘호루라기’를 쥐어줬다면 어땠을까. 하다 못해 이장덕 계장을 이장덕 과장으로, 국장으로 승진시켰다면, 책임감 있는 공무원은 출세한다는 학습효과라도 줬다면, 세월호 참사로 뼈저리게 깨닫게 된 ‘시스템 붕괴’에 국민이 절망하는 사태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br/><br/>공무원을 조롱하고 비난하기는 쉬운 일이다. 대한민국 대표 공무원인 대통령이 앞장서서 공무원을 심판하겠다고 하는 세상이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우리는 더 많은 이장덕을 발굴하고 키워내지 못하는 것일까’ 하는 성찰이다. 우리 사회는 이장덕 같은 일선 공무원들이 더 많은 권한을 부여받고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고 격려해 줬는가. 현장 공무원은 실권이 없고 고위직들은 현장을 모르는 나라에서 ‘공무원’을 생각한다.<br/><br/>betulo@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055.txt

제목: 충분히 슬퍼하자 떠난 이 잊지 않기 위해  
날짜: 201404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73409198  
본문: 차마 울지 못한 당신을 위하여/안 앙설렝 슈창베르제·에블린 비손 죄프루아 지음/허봉금 옮김/민음인/184쪽/1만 2800원<br/><br/>따스한 햇볕, 바람에 일렁이는 파도마저 서글퍼 보이기 그지없다. 슬픔과 책망이 세상을 온통 무기력하게 만드는, 아득하고 잔인한 봄날이다. 세월호 대참사에 온 국민은 집단 우울증에 잠겼다. 하지만 참담한 현실을 인정할 수가 없기에 차마 울음조차 터뜨리지 못하는 희생자 가족의 상처는 어찌 상상이나 할 수 있으랴.<br/><br/>프랑스의 저명한 심리학자들인 안 앙설렝 슈창베르제와 에블린 비손 죄프루아는 ‘차마 울지 못한 당신을 위하여’에서 “충분히 애도하라.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라는, 냉정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삶의 명제를 전한다. “<span class='quot0'>어머니의 몸에서 떨어져 나오는 바로 그 순간부터 인생은 힘든 이별의 연속이며 애도와 상실, 포기와 버리는 일만 있을 뿐</span>”이라고 이야기한다.<br/><br/>‘애도’가 이 혼란의 시간에 무심코 던진 입에 발린 위로의 말일 뿐일까. 저자들 역시 사랑하는 이의 죽음과 고통의 터널을 지나왔다. 아흔 살이 넘은 안은 17세 때 13세 여동생의 죽음을 목도했고, 에블린은 25세 때 6개월된 둘째 아이를 응급실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세상으로 보내야 했다. ‘순서가 맞지 않는 일’에 두사람 모두 감정을 제대로 추스를 수 없었다. 에블린은 20여년간 우울증을 앓기도 했다. “집으로 돌아와 아이가 입던 옷들과 물건들을 전부 치워버렸다. 간단한 장례식만 치른 뒤 남편은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내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 에블린은 아이의 죽음을 10년 뒤에야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었고, 20년 뒤 가까스로 애도를 시작했다. 이렇게 애도를 생략한 ‘침묵 속의 고통’은 두통, 장염, 궤양 외에 암과 같은 심각한 질병을 불러오기도 한다.<br/><br/>저자들은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상실감을 생애 가장 큰 고통으로 보며, 깊은 슬픔을 느끼는 시기 내내 스스로를 보살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한 고통과 애도의 시간이 우리를 더 강하고 성숙하게 만들 수 있도록 슬픔에 과감히 맞서고 변화를 받아들이라고 조언한다. 문상과 조문, 감사 편지와 탈상 등 전통의례야말로 고통을 덜어주는 가장 큰 묘약이란 사실도 덧붙인다.<br/><br/>이들은 고통을 표현하지 못한 채 살아온 자신들의 경험을 토대로 애도의 단계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기도 한다. 주변인들이 자신을 돌봐줄 수 있도록 후원인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풍선 날리기’, ‘생명의 나무 심기’ 등 자신만의 이별의식을 만들며, 정신적 고통을 몸으로 표현할 것 등이다. 이렇게 어느 정도 슬픔을 덜고 나면 적어도 3~4년간 ‘빗방울 쳐다보기’, ‘시원하게 샤워하기’, ‘향수 뿌리기’ 등 적어도 하루 네 가지의 즐거움을 실천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다양한 상담사례와 심리학 지식이 곁들여진 애도의 방법은 설득력을 더한다. “<span class='quot0'>우리의 마음 속에 살아있는 망자를 죽여야 한다</span>”던 프로이트의 주장과 달리 저자들은 “<span class='quot0'>기억 한가운데 놓아둔 죽은 사람과의 인연의 끈을 적당한 시점에 하나씩 천천히 풀어가자</span>”고 말한다.<br/><br/>사랑하는 사람을 영원히 떠나보내야 하는 살아남은 이들에게 책은 이런 위안의 말을 건넨다. “<span class='quot0'>정성을 다해 애도하면 죽은 사람을 절대로 잊지 않게 된다</span>”고. “<span class='quot0'>우리 삶이 끝날 때까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는 단 한 사람은 바로 자신</span>”이라고.<br/><br/>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056.txt

제목: 이상해 위암 진단 “검사비 미리 내놓고 와도 검사 안받아”  
날짜: 201404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72914883  
본문: 이상해 위암 진단 “검사비 미리 내놓고 와도 검사 안받아”<br/><br/>국악인 김영임이 과거 남편 이상해의 위암진단 소식을 전하며 눈물을 흘렸다.<br/><br/>25일 방송된 KBS 2TV ‘여유만만’에서는 국악인 김영임과 아들 최우성 씨가 출연해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놨다. 김영임은 “남편 이상해가 위암 진단을 받았다. 그런데 남편들이 참 말을 안 듣는다”고 말문을 열었다.<br/><br/>김영임은 “검사를 너무 안 받으러 가길래 종합검진을 받을 수 있게 미리 검사비를 내고 왔다. 어느날은 장 내시경을 받으라고 했는데 남편이 화를 내더라”면서 “그냥 화를 내는게 아니라 정말 불같이 화를 냈다. 얼굴을 쳐다보기도 싫었다”고 토로했다.<br/><br/>김영임은 “2년 후 건강검진을 받았다. 남편 생일 보름 전에 검사를 받았는데 위암 진단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다.<br/><br/>김영임은 “<span class='quot0'>남편에게 평소에 담배 피우지 말고 술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런 걸 해가지고</span>”라며 답답한 마음을 드러냈다. 김영임은 “<span class='quot0'>당시 위암 말기가 아니라 초기여서 레이저로 치료를 하게 됐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어쨌든 우리는 암이라고 하면 기가 막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다</span>”고 설명했다.<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057.txt

제목: 국내 연구진, 홍삼의 대식세포 염증반응 억제 원리 밝혀  
날짜: 201404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71937561  
본문: 홍삼이 체내에서 면역작용을 하는 면역세포(대식세포)의 세포독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염증성 질환에 효과적인 원리가 처음으로 규명됐다. 이번 연구는 홍삼이 염증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기존의 계통적 연구에서 한 걸음 나아가 항염증 작용에 대한 분자적 원리를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br/><br/><br/>성균관대 유전공학과 조재열 교수팀은 홍삼 추출물의 항염증 활성 연구를 통해 면역반응이 과발현되어 비정상적인 염증반응이 나타날 경우 홍삼 추출물이 어떤 경로를 거쳐 염증반응을 개선하는 지를 구체적으로 규명했다고 24일 밝혔다.<br/><br/><br/>연구팀은 홍삼 성분이 대식세포의 활성을 조절해 IRF-3, ATF-2, 및 CREB 등 면역단백질의 핵 내 이동을 억제함으로써 염증 반응이 일어날 때 분비되는 염증 유발인자인 산화질소를 비롯해 활성산소, 종양괴사인자 등의 생성이 억제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br/><br/><br/>또 세포 수준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EtOH/HCl’를 이용해 위염을 유발한 쥐에 홍삼을 투여한 결과, 위염이 효과적으로 억제된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br/><br/><br/>이 연구 결과는 체내 대식세포의 세포독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염증 지표인 산화질소의 생성과 염증 유전자 발현을 강하게 억제한다는 점과, 이런 작용이 염증분자마커인 ‘ATF-2’, ‘CREB’ 및 ‘IRF-3’의 활성 저해에 의해 매개된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보다 안전하고도 효과적인 염증 예방 및 치료의 길을 열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재열 교수는 “<span class='quot0'>홍삼을 꾸준히 섭취하면 부작용 걱정 없이 염증성 질환의 예방 및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이 이번 연구의 핵심 사항</span>”이라고 말했다. <br/><br/><br/>염증반응은 세포 및 조직의 손상이나 감염에 대한 국부적 또는 전신적인 방어활동의 일부로, 주로 면역계를 이루는 체액성 매개체가 직접 반응하거나, 국부적 또는 전신적 작동 시스템을 자극함으로써 일어난다.<br/><br/><br/>그러나 염증반응이 비정상적으로 지속될 경우 위염·염증성 장염 등 소화기질환, 천식·비염 등 호흡기질환, 아토피 피부염 등의 피부질환, 그리고 세균성 폐렴·기관지 폐렴·대엽성 폐렴·레지오렐라 폐렴 및 바이러스성 폐렴 등 폐질환 등의 원인이 된다. 또 이들 염증반응이 장기적으로 과발현될 경우 류마티스 관절염을 비롯해 심장질환, 각종 암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어 평균수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br/><br/><br/>현재 염증성 질환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는 약물은 크게 스테로이드성 및 비스테로이드성 조성물로 구분되는데, 이 중 대부분이 위장장애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수반해 효과는 뛰어나면서도 부작용이 적은 염증성 질환 치료제의 개발이 절실했다. <br/><br/><br/>면역반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식세포는 이물질·세균·바이러스·체내 노폐물 등을 잡아먹는 세포로, 동물 체내의 모든 조직에 분포한다. 또 산화질소·활성산소·종양괴사인자 등을 포함한 염증 매개물질의 분비를 조절하는 기능도 한다.<br/><br/><br/>특히 이 가운데 산화질소는 박테리아를 죽이거나 종양을 제거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산화질소가 지나치게 많으면 염증을 유발할 뿐 아니라 신경 및 조직 손상, 유전자 변이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 연구 결과는 대체의학 분야의 SCI급 저널 중 가장 권위있는 학술지(Journal of Ethnopharmacology) 6월호 게재가 확정됐다.<br/>심재억 의학전문기자 jeshim@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058.txt

제목: 수술 못하는 진행성 간문부담도암 생존기간 2배 ‘↑’  
날짜: 201404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71827476  
본문: 수술을 할 수 없는 진행성 간문부 담도암 환자의 생존기간을 지금보다 2배 이상 연장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법을 국내 의학자가 제시했다. 레이저를 이용한 광역학치료와 항암치료를 병행하는 새로운 치료법으로, 지금까지 의료계가 ‘마(魔)의 벽’으로 여겼던 생존기간 1년의 한계를 넘어서 주목된다.<br/><br/><br/><br/>지금까지 의료계에서는 주위 혈관으로 암이 침범해 수술로 절제할 수 없는 진행성 간문부담도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항암치료 외에 광역학 치료, 스텐트시술 등 다양한 치료법을 적용했지만 어떤 방법으로도 환자의 평균 생존기간이 1년을 넘지 못해 아직까지 이 분야에서 표준치료법이 정립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br/><br/>이런 가운데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박도현 교수팀은 레이저광선으로 암세포만 골라 죽이는 광역학 치료에 항암치료를 더한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성 간문부담도암 환자들을 치료한 결과, 평균 생존기간을 1년 5개월로 연장하는데 성공했다고 24일 밝혔다.<br/><br/>연구는 2009~2012년 사이에 서울아산병원에서 치료받은 진행성 간문부담도암 환자 43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의료진이 ‘광역학 치료’만 받은 환자군과 ‘광역학 치료’에 ‘항암치료’를 병행해 치료 받은 환자군의 생존 기간을 비교한 결과, 두 치료법을 병행해 적용한 환자군의 평균 생존기간이 17개월로 나타났다. 이는 ‘광역학 치료’만 받은 환자군의 8개월의 2배가 넘는 생존 기간이다.<br/><br/>그런가 하면 진행성 간문부담도암 환자의 1년 생존율도 두 치료법을 병행하면 2배 이상 높아졌다. 기존 광역학 치료만 받은 환자군의 생존율은 32%에 불과한데 비해 광역학 치료와 항암치료 병행 환자군의 생존율은 76.2%로 2배를 훨씬 넘었다.<br/><br/>간에서 생성된 담즙을 십이지장으로 보내는 담도의 상부에 생기는 간문부담도암은 수술을 받아야 완치가 가능하지만 진행성의 경우 암이 간문맥이나 동맥 등 주위 혈관으로 침범하면 수술로 절제할 수가 없어 생존기간이 매우 짧았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내시경을 넣어 레이저광선으로 암세포만 파괴하는 광역학 치료가 조직 손상이나 흉터 등 부작용이 없고 장기를 보존할 수 있어 주로 사용됐지만 이 방법 역시 생존기간을 획기적으로 연장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br/><br/>이런 가운데 광역학 치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박도현 교수팀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광역학 치료와 항암치료를 병행하는 치료법을 시도해 진행성 간문부담도암 환자의 생존기간을 2배 이상 연장시킨 것이다. 특히 최근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도 FDA 승인을 받아 광역학 치료와 항암치료를 병행하는 임상연구를 시작하는 등 해외 의학계가 병행 치료법을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임상 결과여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br/><br/>박도현 교수는 “<span class='quot0'>스텐트 시술이나 항암치료, 광역학 치료를 개별적으로 적용할 경우 치료 성적이 좋지 못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이번 임상을 통해 병행치료가 진행성 간문부담도암 환자들의 생존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 의미있는 성과</span>”라고 말했다. 이 연구 결과는 유럽암학회 공식저널(European Journal of Cancer)> 최근호에 게재됐으며, 네이처 리뷰 임상 종양(Nature Reviews Clinical Oncology)지의 리서치 하이라이트로도 소개됐다.<br/>　<br/>　심재억 의학전문기자 jeshim@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059.txt

제목: [부고] 美 흑인 차별 상징 前복서 ‘허리케인 카터’  
날짜: 201404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65411057  
본문: 흑인이라는 이유로 인기 권투선수에서 하루아침에 살인범으로 몰려 19년이나 감옥 생활을 하다가 무죄로 풀려나 전 세계적으로 부당한 인종차별의 상징이 된 루빈 ‘허리케인’ 카터가 76세를 일기로 숨졌다.<br/><br/>카터의 오랜 친구이자 함께 살인범으로 몰려 고초를 겪었던 존 아티스는 20일(현지시간) 카터가 캐나다 토론토 자택에서 잠을 자던 중 숨을 거뒀다고 밝혔다. 카터는 전립선암으로 투병해 왔다.<br/><br/>카터는 태풍이 몰아치듯 주먹을 휘둘러 ‘허리케인’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프로복싱 미들급 세계 1위까지 오르는 등 승승장구했다. 그러던 중 1966년 고향인 미국 뉴저지 한 식당 옆을 아티스와 함께 차를 몰고 지나가다가 백인 남자 3명이 흑인 남자 2명에 의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그들을 죽인 살인범이라는 누명을 쓰게 된다. 그는 아티스와 함께 종신형을 선고받았으며 1976년 다시 열린 재판에서도 유죄 판정을 받았다.<br/><br/>그러나 진실을 밝히려는 카터의 노력과 주변의 석방 운동에 힘입어 1985년 마침내 무죄로 풀려났다. 이 과정에서 카터가 겪은 고난과 인종차별 문제는 미국 포크록의 전설 밥 딜런이 카터를 직접 만나 같이 작사한 뒤 1975년 발표한 ‘허리케인’이라는 곡으로 대중에게 더 알려졌다. 1999년에는 배우 덴절 워싱턴이 주연한 ‘허리케인 카터’라는 제목의 영화로도 만들어졌다.<br/><br/>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060.txt

제목: ‘암 투병’ 형 위해 골수를…3살 동생의 ‘형제애’  
날짜: 201404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53500785  
본문: 암 투병 중인 형의 치료를 위해 골수 기증 의사를 밝힌 기특한 3살짜리 동생의 사연이 네티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의 20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이 남다른 우애의 주인공은 잉글랜드 남서부 브리스톨에 살고 있는 켄지(7)와 체이스 앳킨슨(3) 형제다. <br/>꾸밈없는 순수한 미소에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서로 마음이 통하는 형제는 누구보다도 끈끈한 형제애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 백혈병을 앓고 있는 형을 위해 동생 체이스가 골수 기증 의사를 밝혔기 때문.<br/>4살 때 처음 백혈병이 발병했던 켄지는 이후 뇌수막염까지 함께 앓으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왔다. 어린 나이부터 시작된 항암치료는 소중한 머리카락을 빼앗고 고통스러운 투병기간을 안겨줬지만 남다른 의지의 소유자였던 켄지는 늠름하게 힘든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를 견디며 뇌수막염과 백혈병에 맞서 싸웠다.<br/>한때 경과가 좋아져 백혈병 완치단계까지 도달한 적도 있었지만 작년 11월 정기검사 결과 불행히도 켄지 몸속에서 암세포가 재발견됐다. 이제 남은 치료방법은 켄지의 몸이 필요로 하는 백혈구 생성을 위한 골수를 기증 받는 것뿐이다.<br/>건강한 골수액을 채취해 인산완충액(燐酸緩衝液)을 섞은 링거액에 넣어 여과한 다음 정맥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해당치료는 치료효과가 40~80% 정도로 높지만 조직적합항원(HLA)이 맞는 기증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여기에 아직 3살에 불과한 켄지의 동생 체이스는 형을 위해 기꺼이 골수를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참고로 형제간 조직적합항원(HLA)이 일치할 가능성은 25%로 상당히 높다.<br/>채취 후 기증자의 골수는 빠르게 회복되며 2~3주 후면 정상화되지만 아직 3살이라는 어린 나이이기에 체이스의 선택에 대한 걱정스러운 시선도 많다. 하지만 체이스는 형을 위해서라면 상관없다며 남다른 형제애를 보여주고 있다.<br/>한편, 이번 골수 이식 치료가 효과가 없을 경우 켄지는 ‘빔라이트’라 불리는 감광제 약물치료를 받아야한다. 그러나 해당치료는 미국에서만 받을 수 있어 앳킨스 가족이 부담하기에는 치료비가 비싸다. 이에 앳킨스 가족의 친구들은 골수이식이 실패할 것에 대비해 1만 파운드(약 1,700만원)에 달하는 치료기금 모집에 나서고 있는 중이다. <br/>사진=데일리메일　 <br/>조우상 기자 wscho@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061.txt

제목: “미량 흉막액, 폐암의 새로운 병기판단 기준”  
날짜: 201404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64927736  
본문: 치명적인 사망률에도 불구하고 막상 진단이 되어도 병기 판단이 어려웠던 폐암의 새로운 병기 판단 기준이 국내 의학자에 의해 제시됐다. 흉강 내에 존재하는 ‘미량 흉막액’을 근거로 폐암의 병기를 판단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국내 의학자가 내놓은 것이다. 세게적인 권위의 미국임상암학회지(Journal of Clinical Oncology·영향력지수 18.038)도 이 연구 결과를 최근호에 게재하고 ‘주목할 성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폐암은 국내 암 사망 원인 1위의 질환으로, 이 중에서도 비소세포 폐암이 전체 폐암의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br/><br/><br/><br/>인하대병원 류정선(폐암센터 소장) 교수는 “<span class='quot0'>폐암 환자에게서 미량 흉막액이 발견되면 이미 암이 진행 단계에 접어들어 흉막 전이가 이뤄지고 있음을 나타낸다</span>”고 2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별다른 임상 지침이 제시되지 않아 미량 흉막액이 보일 경우 암일 것으로 추정만 했을 뿐 진단 및 치료 과정에서 이를 중요한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의 해석을 두고 적잖은 혼란을 겪기도 했다.<br/><br/>류정선 교수팀은 인하대병원에서 진단·치료받은 2061명의 비소세포성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흉막액 상태와 나이, 흡연력 등 환자의 개인 특성, 혈액검사 소견과 흉부 CT와 PET-CT 소견 등 진단검사의 특성, 암의 크기와 조직학적 소견, 림프절 침범 여부 등 폐암 관련 특성과 치료 관련 특성 등을 포괄적으로 조사했다. 조사에서는 병기에 따른 흉막액 발생 분포와 환자의 생존 기간도 함께 분석했다.<br/><br/>그 결과, 2061명의 13%에서 미량 흉막액이 관찰되었으며, 미량 흉막액의 90%는 폐암에 의해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미량흉막액은 대혈관 심장질환이나 기관지 폐색 등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폐암 환자의 경우 원인을 폐암이라고 특정할 수 있을 만큼 뚜렷했다는 뜻이다. <br/><br/>또 흉부 CT에서 흉막액이 전혀 없었던 폐암 환자의 경우, 중앙 생존기간이 약 18개월이었던 반면 CT 영상 중 한 컷에서라도 미량 흉막액이 발견된 환자는 중앙 생존기간이 7.7개월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병기별로는 초기인 1병기 환자의 중앙 생존기간이 약 6.5년이었으나 미량 흉막액이 발견된 같은 병기 환자의 중앙 생존기간은 2.3년으로 3병기 환자와 같은 사망 위험도를 보였다.<br/><br/>이와 함께 미량 흉막액의 존재는 암세포가 흉막으로 전이됐음을 나타내는 단서가 된다는 사실도 함께 확인했다. 류정선 교수는 “<span class='quot1'>폐암 말기에 나타나는 악성 흉막액과 폐암 1~4기에서 두루 나타나는 미량 흉막액은 모두 암세포가 흉막액에 근접해 흉막의 투과성을 높임으로써 발생한다</span>”면서 “<span class='quot1'>미량 흉막액의 존재 여부는 CT검사로 쉽게 판별할 수 있다</span>”고 말했다.<br/><br/>폐암 치료는 정확하게 병기를 판단한 후 상황에 따라 국제 표준치료를 적용하는 것이 최선임에도 지금까지는 미량 흉막액을 암의 병기를 판단하는 유력한 근거로 삼지 않았다. 미량 흉막액에 대한 임상 지침이 전무했기 때문이다.<br/><br/>류정선 교수는 “<span class='quot1'>폐암은 정확한 진단을 통해 병기를 세심히 판단하는 것이 치료 방식 결정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정</span>”이라면서 “<span class='quot1'>이번 연구를 통해 그 동안 세계적으로 폐암의 병기를 결정하면서 임상 전문의들을 혼란스럽게 했던 미량 흉막액의 의미가 분명해졌다</span>”고 설명했다. 류 교수는 이어 “<span class='quot1'>미량 흉막액에 대해 세계적으로 처음 이뤄진 이 연구 성과에 따라 폐암 환자들의 정확한 병기를 파악해 필요한 표준치료를 적용하는 중요한 기준이 제시됐다</span>”면서 “<span class='quot1'>향후 세계폐암학회에서 추진할 차기 폐암병기 개정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br/>심재억 의학전문기자 jeshim@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062.txt

제목: [이번 주의 건강 강좌]  
날짜: 201404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64637853  
본문: 21일 부인암·뇌 건강 강연… 토크쇼도<br/><br/><br/>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은 21일 오후 1시 30분 이대목동병원 김옥길홀에서 유방암 등 부인암, 뇌 건강과 기억력 증진 방법 등을 주제로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명사 초청 특강, 토크쇼 등 공연이 함께 열린다. <br/><br/><br/>전립선 비대증·암 강좌 22일 개최 <br/><br/><br/>을지대학교 을지병원은 22일 오후 1시 범석홀에서 전립선암과 비대증을 주제로 건강강좌를 연다. 본 강의 전 웃음치료 및 부부클리닉 등에 대한 전문가 강연이 마련돼 있다.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063.txt

제목: 유방암 유발 ‘특정 유전자’ 발견…新치료법 기대  
날짜: 201404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53412407  
본문: 유방암을 유발시키는 특정 형태의 ‘유전자’가 발견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에 더욱 효과적인 항암치료법이 개발될 것으로 의학계는 기대하고 있다. <br/>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은 런던 암 연구소(The Institute of Cancer Research, London)·킹스 칼리지 런던(King‘s College London) 등 공동 의료연구진이 유방암 형태 중 하나인 ‘소엽암(lobular carcinoma)’을 발생시키는 특정 유전자를 발견했다고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br/>소엽암은 모유의 생산·운반 유선에 발생하는 암으로 매년 발생하는 전체 유방암 중 5~15%를 차지하고 있으며 45~55세 사이 여성층에게 비교적 흔히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연구진은 전 세계 100개 대학 및 연구 기관과 협력해 소엽암을 앓지 않는 여성 35,000명과 소엽암을 앓고 있는 여성 6,500명의 DNA를 하나하나 비교한 끝에 마침내 암 발병 시에만 발현되는 특정 형태의 유전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 소엽암 유발 유전자를 찾아낸 이번 연구는 세계 최초로 시도됐던 것이다.<br/>유방암의 생존율은 0기 일 경우 100%에 가까우나 4기의 경우 20% 미만으로 떨어진다. 즉 조기에 발견할수록 치료 가능성이 높아 정기적 유방 X선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나 소엽암의 경우는 종종 암 덩어리가 형성되지 않아 관찰이 힘들어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br/>따라서 이번 유전자 발견은 초기 DNA 검사를 통해 소엽암 진단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유방 촬영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긍정적 전망을 보여준다. 의료진은 소엽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여성들을 밀접하게 모니터링 해 암으로 발전하는 경우의 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것이다. <br/>해당 연구를 주도한 런던 암 연구소 몬세라트 가르시아-클로사스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번 연구 결과는 미래 유방암 치료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중요한 기점이 될 것</span>”이라고 전했다. <br/>자료사진=포토리아<br/>조우상 기자 wscho@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064.txt

제목: ‘백년 동안의 고독’ 마르케스 잠들다  
날짜: 201404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62937191  
본문: ‘백년 동안의 고독’으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콜롬비아 출신의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가 17일(현지시간) 타계했다. 87세.<br/>멕시코 일간 엑셀시오르와 콜롬비아 일간 엘 에스펙타도르 등에 따르면 마르케스는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 외곽의 코요아칸에 있는 자택에서 숨을 거뒀다고 가족들이 성명을 통해 밝혔다.지난 50여년간 멕시코에서 생활했다.<br/>마르케스는 지난달 말 멕시코 국립의료과학연구소에서 폐렴과 요로 감염증 등의 증세로 입원 치료한 뒤 1주일 여 만에 퇴원했으나 상태가 극도로 나빠졌던 것으로 전해졌다.<br/>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지난 15년간 림프암으로 투병하면서 암세포가 폐 등 장기로 전이된 것으로 현지 언론들은 추정했다.<br/>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span class='quot0'>위대한 콜롬비아 출신 거장의 죽음에 천년의 고독과 슬픔이 느껴진다</span>”며 유족을 위로했다.<br/>‘백년 동안의 고독’으로 1982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마르케스는 17세기 미겔 데 세르반테스 이후 현존하는 남미 문학의 거장으로 손꼽혔다.<br/>이 저서는 세계 35개국 언어로 번역돼 5000만 부가 팔렸다.<br/>마르케스는 라틴아메리카 대륙이 겪은 역사의 리얼리티와 토착신화의 상상력을 결합해 ‘마술적 리얼리즘’이라는 새로운 소설 미학을 창시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br/>콜롬비아의 카리브해연안에 있는 아라카타카라는 마을에서 전신국 직원의 11남매 중 맏이로 태어나 스페인 정착민과 원주민, 흑인 노예들의 삶을 지켜보면서 조부모와 함께 유년시절을 보냈다. 1981년 멕시코에 정치적 망명을 요청했지만 박해를 받았다고 여길만한 요인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br/>마르케스는 암 투병을 하면서도 자신의 연설문집을 모아 발간한다는 소식이 2010년 알려지기도 했다. 하지만 2012년 치매 때문에 모든 집필 활동을 중단한 상태라고 그의 동생이 밝힌 적이 있다. 2002년 엘 에스펙타도르 등 신문사에서 기자로 활동하던 시절을 회고하는 내용의 첫 회고록을 펴냈다.<br/>‘가보’(Gabo)라는 별명을 가진 마르케스는 쿠바 혁명의 아버지로 불리는 피델 카스트로(87) 전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과 절친한 사이다.<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065.txt

제목: 당신이 반드시 먹어야할 ‘흰색채소 5가지’  
날짜: 201404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53125459  
본문: ‘흰색’을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청결함’을 떠올린다. 눅눅하게 찌든 때를 말끔히 씻겨 내주는 세탁세제, 주방용품들의 선전 이미지를 살펴보면 언제나 ‘하얗게’ 변신한 물품들을 보여주며 ‘깔끔함’을 강조한다. <br/>그렇다면 우리가 섭취하는 채소류 중 ‘흰색’인 것들도 이런 ‘정화’ 작용을 해주지 않을까? 이와 관련해 미국 허핑턴 포스트는 영양학 컨설턴트 보니 타웁 딕스가 조언한 ‘인체에 유익한 흰색채소 5가지’를 16일(현지시간) 건강 섹션에 게재했다. 평소 흰색채소가 체내에 미치는 긍정적 작용이 궁금했던 분들을 위해 이를 소개한다. <br/>1. 콜리플라워<br/>동글동글 하얀 외형이 귀여운 유럽 지중해 원산 ‘콜리플라워’는 비타민류가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콜리플라워 100g을 먹으면 비타민C 하루 필요량을 모두 섭취할 수 있다. 비타민B1, 비타민B2도 풍부하며 식이섬유도 양배추, 배추보다 함유량이 많다. 또한 뼈 조직을 강화하고 혈관을 튼튼하게 하며 항암작용까지 하는 황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br/>콜리플라워는 뜨거운 물에 대쳐 마요네즈에 찍어먹어도 맛있지만 요리전문가들은 그라탕, 스튜, 카레 등에 첨가하는 것도 훌륭하다고 조언한다.<br/>2. 버섯<br/>버섯은 고단백·저칼로리 식품으로 무기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체내 면역기능을 향상시키고 혈압 조절 작용도 수행한다. 칼로리는 낮고, 포만감은 높여주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br/>버섯은 독특한 향기와 맛으로도 유명하다. 향기는 렌티오닌(lenthionine), 계피산메틸(methyl cinnamate) 등 때문이며, 맛은 글루타민, 글루탐산, 알라닌 등의 아미노산 때문에 개성을 가진다. 국내에서는 송이, 양송이, 표고, 느타리, 싸리버섯, 팽이버섯 등을 주로 섭취한다.<br/>3. 마늘<br/>마늘은 중앙아시아 원산 백합과 중 가장 매운 맛을 자랑하는 식물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섬유질, 비타민, 알리신 등이 풍부한 영양의 보고로도 명성이 높다. 또한 정력과 원기를 채워주는 강장제로도 유명하며 독감을 예방하고 성장기 여드름을 억제해준다는 연구결과도 있다.<br/>마늘은 양념으로 인기가 높은데 특유의 맵고 강한 향이 생선 비린내를 없애주고 음식 맛을 더욱 좋게 해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마늘의 강한 성분이 피부나 위장에 자극적일 수 있어 과하게 먹는 것은 좋지 않다고 조언한다. 특히 공복상태에서 마늘을 먹으면 위장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한다.<br/>4. 양파<br/>외떡잎식물 백합목 백합과의 두해살이풀인 양파는 활용되지 않는 음식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에게 친숙한 채소다. 비타민, 칼슘이 풍부하며 혈액을 맑게 정화하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특히 양파에 들어있는 ‘케르세틴’은 관절염, 암, 심장 질환, 당뇨병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5. 감자<br/>유럽에서 ‘땅의 사과’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감자는 단백질, 무기질이 풍부해 건강식으로 명성이 높다. 특히 감자에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는데 이는 피로회복은 물론 고혈압, 암 예방에도 큰 도움을 준다. 삶거나 튀기거나 굽거나 어떤 방식으로 조리해도 맛이 좋은 만능 요리재료이기도 하다. <br/>자료사진=포토리아　<br/>조우상 기자 wscho@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066.txt

제목: [열린세상] 한국의료 현주소 ‘풍요 속의 빈곤’/허대석 서울대 의대 내과학교실 교수  
날짜: 201404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61458963  
본문: 갑상샘암에 대한 ‘과잉진단‘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 다르게 해석하면, 갑상샘암을 조기 발견하는 초음파검진기기가 지나치게 많이 보급돼 있다는 것이다. 초음파를 이용한 검사가 선진국들에 비해 저렴하고, 갑상샘암 수술도 의료비의 5%만 본인이 내면 되기 때문에 큰 경제적 부담이 없다. <br/><br/>우리나라에서 유난히 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임종에 임박한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논란 이면에는 연명의료를 할 수 있는 의료장비가 충분히 보급돼 있는 의료 환경이 있다.<br/><br/>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를 보면, 한국인 인구당 CT, MRI와 같은 고가 의료장비 보유 대수는 선진국의 두 배 수준이고,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횟수나 병원에 입원하는 기간도 두 배다. <br/><br/>외국에 체류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낮은 수가로 어느 나라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곳이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자원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던 과거의 한국이 아니고, 과도한 의료기기 공급과 저수가가 수요를 창출하여 오히려 과잉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br/><br/>항암치료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말기 암 환자에게 항암제는 도움을 주기보다 손해를 끼칠 위험이 더 높아 의학적으로 추천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임종직전 한 달간 항암제를 사용하는 비율은 미국(9%)의 3배를 넘어 30%를 초과하고 있다.<br/><br/>그러나 야간 응급실이나 신생아 중환자실과 같은 필수의료서비스조차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지역이 있고, 병원에 갈 형편이 되지 못해 가정 간병에 지친 보호자가 환자와 동반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빈도가 높은 곳도 한국이다. <br/><br/>1년 동안 건강보험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진료비 지원을 받는 사람이 1000명을 넘고, 이 중 22억원의 혜택을 받는 환자도 있지만, 집에서 인공호흡기를 사용해야만 하는 환자는 거의 건강보험 지원을 받지 못해 아버지가 간병 부담 때문에 딸의 인공호흡기 전원을 중단하는 비극이 발생한 적도 있다.<br/><br/>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좋은 계층은 저수가 의료정책 덕분에 과잉에 가까운 혜택을 누리고 있는 반면, 소외된 계층이나 지역에서는 필수의료서비스조차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방치돼 있어 말 그대로 ‘풍요 속의 빈곤’이다. <br/><br/>국내총생산 대비 의료비 총액이 7.2%에 이르러 의료서비스에 100조원에 가까운 재원이 소비되고, 국가가 관리하는 건강보험 규모도 50조원을 넘어섰다. 문제는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어떤 질환에 걸렸는지, 의료서비스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말기 암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 1000만원에 달하는 항암제를 쓰겠다고 하면 5%만 부담하면 되지만 호스피스는 이용조차 어렵다.<br/><br/>암이라는 이름만 붙으면 진료비의 95% 할인 혜택을 받고, 4대 중증 질환이 아니면 아무리 심각한 질환이어도 큰 경제적 부담을 져야 한다. 어떤 질환에서는 거의 무제한에 가까운 의료비지원이 이뤄지는 반면, 다른 질환에서는 최소한의 의료서비스조차도 제공되지 않는 의료자원 분배정책이 결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 <br/><br/>흔히 비급여 고가 약과 시술을 더 많이 급여화해 주는 것이 의료 보장성 강화의 핵심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은 보험료를 매년 올리는 명분만 제공할 뿐 소외계층은 여전히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다.<br/><br/>누구나 자신의 질병치료에 의료비가 아낌없이 투자되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건강보험료를 무한정 올릴 수 없고 재원은 언제나 한정돼 있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한정된 재원이 전 국민에게 골고루 쓰일 수 있도록 넘치는 곳을 막아 부족한 곳을 채워주는 공평하고 효율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067.txt

제목: 새 출발 연세암병원 “암병원의 미래 모델 보여주겠다”  
날짜: 201404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60630778  
본문: 연세암병원이 43개월의 공사를 끝내고 15일 진료를 시작했다. 1969년 국내에서 처음 개설한 연세암센터를 모태로 하는 연세암병원은 높은 의료 수준과 첨단 장비, 차별화된 서비스를 갖춘 ‘차세대 암병원’이라고 병원 측은 설명했다. 이철 의료원장은 “<span class='quot0'>암환자를 위한 특별한 관심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치료, 환자와 가족에게 진심으로 위로를 주는 병원을 만들겠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암 병원의 미래상을 보여주겠다</span>”고 밝혔다.<br/><br/><br/><br/><br/><br/>서울 서대문구 연세로50-1 세브란스병원 부지 안에 신축한 연세암병원은 연면적 10만 5000㎡(3만2000평)에 지상 15층, 지하7층, 510병상 규모로, 일반 기부금 430억원을 포함해 모두 2530여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했다. 위암 수술의 권위자로 꼽히는 외과 노성훈 교수를 암병원장에, 방사선종양학 분야의 권위자인 금기창 교수를 부원장으로 선임하는 등 진용도 탄탄하게 갖췄다. <br/><br/>연세암병원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세계적인 암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관심을 모았다. 병원 측은 “2005년에 연세암병원 설립을 위해 미국 MD앤더슨 홍완기 교수를 위원장으로 에모리대, 일본 긴키대, 홍콩 중문대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제자문위원회가 결성됐으며, 여기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설계와 건축, 병원 운영 체계를 마련했다”고 소개했다.<br/><br/>암병원에는 위암·간암 등 15개 암 전문센터를 비롯해 암예방센터, 암지식정보센터, 완화의료센터 등 특성화 센터를 설치해 암 진단과 치료는 물론 예방과 교육까지 일관시스템으로 이뤄지도록 했으며, 간암 등 8개 센터에는 다학제 진료를 하는 ‘베스트팀’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특히 암 예방센터에서는 ‘생존자 통합관리(cancer survivorship)’ 프로그램을 도입해 완치 암환자를 대상으로 재발·전이암에 대한 감시와 후유증 등을 통합 관리하기로 했다. <br/><br/>첨단 치료장비도 대폭 확충했다. 기존 IMRT나 사이버나이프보다 한 단계 진보한 암 치료장비인 로보틱 IMRT(세기조절 방사선 치료기)가 아시아 최초로 설치됐다. 로보틱 IMRT는 광자선에너지를 6개의 관절로 구성된 로봇에 장착해 암치료 효율을 극대화한 첨단 장비다. 고선량의 방사선을 조사할 수 있어 치료 시간을 기존의 3분의 1로 줄인 ‘라이낙(LINAC)’ 방사선 치료기도 3대를 추가해 모두 6대를 가동하게 된다. 또 영상추적 방사선 치료장치인 ‘콘빔’ CT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종양의 기하학적 변화를 확인, 보정할 수 있게 했다. 기존 토모테라피(3대)와 암 수술에 특화된 다빈치 로봇(3대)도 모두 이곳에 설치해 운용하게 된다. <br/><br/>특히 주목되는 것은 양성자 치료기. 노성훈 암병원장은 “<span class='quot1'>‘꿈의 암치료기라 불리는 양성자치료기도 도입하기로 하고 최근 프로노바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span>”면서 “<span class='quot1'>곧 환자들이 양성자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span>”이라고 밝혔다.<br/><br/>또 입원하지 않고 항암치료를 받을 수 있는 외래 항암약물치료센터를 확충, 어른(90병상)과 어린이(10병상) 구역을 구분해 운영하게 되며, 2~3시간 동안만 항암치료를 받는 환자를 위한 단기항암제 주사실도 따로 마련했다.<br/><br/>환자와 가족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금기창 부병원장은 팀장으로 하는 ‘굿닥터팀’제도 도입했다. 전문의 49명과 코디네이터 17명 등 66명으로 구성된 굿닥터팀은 환자와 가족들이 진료를 시작하기 전부터 치료 후 관리, 교육 등 전 과정에서 환자 서비스를 총괄 담당한다. 또 다른 병원에서 암환자가 옮겨 올 경우 이전에 담당했던 의사와 접촉해 상세한 환자 정보도 확보, 진료에 활용하게 된다.<br/><br/>노성훈 암병원장은 “<span class='quot1'>병원 운영체제와 관련, ‘3저(低) 3고(高)’,즉 통증과 대기시간, 불안감은 낮추고, 전문가 확보, 정확한 설명, 새로운 환자 경험은 더욱 높이겠다</span>”면서 “<span class='quot1'>지금까지 많은 암병원들이 치료에만 집중하느라 정작 환자를 인격체로서 소홀히 대우한 것이 사실</span>”이라면서 “<span class='quot1'>연세암병원은 치료를 잘하는 것은 기본이며, 치료 과정에서의 불안·우울증 등 감정적인 변화까지 고려해 환자의 고통을 최소화하겠다</span>”고 말했다.<br/><br/>한편 연세암병원 개원을 기념해 5월 1~3일 그랜드힐튼서울에서 GAP컨퍼런스-2014가 열린다. GAP컨퍼런스는 미국 MD앤더슨 암센터가 매년 개최하는 국제학술대회로, 2010년부터 미국 이외의 22개국 29개 자매병원에서 개최해오고 있다. 연세암병원은 국내 유일의 MD앤더슨 암센터 자매병원이다.<br/><br/>이철 의료원장은 “<span class='quot0'>연세암병원은 누구나 와서 암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환자에 대한 관심, 의료진의 수고를 아끼지 않을 것이며, 환자와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위로를 주는 곳이 되겠다</span>”고 다짐했다. 노성훈 암병원장은 “<span class='quot1'>100여년 전 이 땅에 새로운 의학을 전파한 전통을 이어 암 치료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겠다</span>”고 다짐했다.<br/>　<br/>심재억 의학전문기자 jeshim@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068.txt

제목: 8일간 병원 앞에서 암수술 받는 주인 기다린 견공 감동  
날짜: 201404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55504195  
본문: 주인을 만나기 위해 일주일 넘게 병원 앞에서 자리를 지키며 기다린 견공이 감동을 주고 있다.<br/><br/>브라질 현지 언론은 최근 리오그란데두술주(州) 파소 푼도의 한 병원에서 자신의 주인 로리 다 코스타를 찾기 위해 8일 동안을 병원 외부에서 기다린 개 ‘세코’에 대해 보도했다.<br/><br/>집없이 노숙생활을 하며 자신의 개 세코와 함께 살고 있던 코스타는 지난달 31일 돌에 부딛혀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후송됐다.<br/><br/>환자를 응급처치하던 의사는 그에게서 흑색종(피부암의 한 종류)을 발견, 그를 병원에 입원시킨다.<br/><br/><br/><br/>병원까지 따라온 세코는 암수술을 위해 입원한 주인의 곁에 있고 싶어했지만 동물의 출입을 금지한 병원의 규정상 자신의 주인과 떨어져 지내야 했다.<br/><br/>평소 자신의 주인만을 따랐던 세코는 주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꼼짝도 하지않은 채 병원 주차장에 서 주인을 기다렸다.<br/><br/>주인을 기다리던 세코의 모습을 주위에서 안타깝게 지켜본 병원 관계자들은 이 충직한 개에게 음식과 물을 제공했다.<br/><br/>드디어 8일 후, 수술에서 회복한 코스타가 퇴원을 앞두고 병원 안뜰에서 세코와 상봉했다. 휠체어에 타고 있는 주인에게 올라타 연신 꼬리를 흔들며 냄새를 맡는 세코의 모습이 행복해보였다.<br/><br/>한편 이 훈훈한 장면은 동물보호단체 컴파타(ComPaTA)에 의해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br/><br/>사진·영상= COM PATA/유튜브<br/><br/>손진호 기자 nasturu@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069.txt

제목: [TV 하이라이트]  
날짜: 201404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54950872  
본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SBS 오후 5시 35분) 악성 뇌종양과 싸우고 있는 15세 소녀 한별이를 소개한다. 2년 전 단순 감기인 줄 알았던 증상이 희귀 악성 종양이란 진단을 받은 한별이는 이후 33차례의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현대의학으로는 아직 원인도 밝혀내지 못한 희귀 암은 한별이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 버렸다. 지방에서 멀리 서울까지 통원치료를 다녀야 하는 고통도 너무 크다.<br/><br/><br/>■청개구리 길들이기(EBS 오전 9시 40분) 네 살 터울 여동생과 눈만 마주치면 싸우는 형준이 때문에 엄마의 잔소리는 늘어만 간다. 그러다 보니 집에선 엄마의 목소리밖에 들리지 않는다. 보통 아이들과는 달리 형준·현서 남매는 아빠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부모의 멘토는 매일 소리치는 엄마와 매사를 회피하는 아빠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짚어본다.<br/><br/><br/>■세상에 남은 호기심 1%(내셔널지오그래픽 밤 7시) 일상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들의 기상천외한 원료들을 소개한다. 우리 일상 속에서 그 원료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색다른 탐구를 하며 과학을 통해 마음껏 상상할 기회를 선사한다. 화장품의 폭발적인 위력을 보여주고, 베니스 해변에서 역도 선수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희한한 상황을 공개한다.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070.txt

제목: 달걀을 먹으면 좋은 이유 5가지  
날짜: 201404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52754102  
본문: 자연이 선사한 완전식품 달걀(계란). 심장 같은 체내 기관 뿐만 아니라 머리카락 같은 체외 모든 부분에도 도움을 주지만 콜레스테롤이 많다고 알려지면서 이를 섭취하길 꺼리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발표되고 있는 여러 연구에 따르면 달걀을 섭취하는 것이 심장질환이나 뇌졸중 발병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점차 다이어트 및 웰빙 식품으로 주목받고 있다.<br/>최근 미국의 인터넷매체 허핑턴포스트는 건강정보 사이트인 유뷰티닷컴을 통해 ‘달걀을 먹으면 좋은 이유 5가지’를 소개해 이목을 끌고 있다.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달걀의 좋은 점을 눈여겨보고 부담 없이 달걀을 섭취하도록 하자.<br/>건강한 아기를 갖도록 한다<br/>달걀은 임신한 여성에게 필수적이다. 이는 달걀에 풍부한 ‘콜린’이 아기의 두뇌 발달에 꼭 필요하기 때문. 비타민 B 복합체인 이 성분을 섭취하는 것은 아기의 정신장애뿐만 아니라 다운증후군, 정신 지체와 같은 질환의 발병률을 현저하게 낮춰준다고 한다.<br/>식욕을 억제한다<br/>달걀을 활용한 고단백 아침 식사는 그날 밤 당신이 느낄 수 있는 야식 욕구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는 달걀에 풍부한 고품질의 단백질이 온종일 포만감을 느끼도록 도와주기 때문. 따라서 다이어트를 하거나 오후 7시 이후 야식에 대한 욕구를 억제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br/>반사신경을 향상시킨다<br/>달걀에 포함된 아미노산의 일종인 타이로신 섭취가 위약을 먹었을 때보다 빠른 반사신경을 갖도록 해준다는 것이 연구로 밝혀졌다. 연구팀은 이는 일상 생활 뿐만 아니라 운전 등의 상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다.<br/>암 발병률을 감소시킨다<br/>달걀 속 항산화물질이 암과 심장질환의 발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심지어 달걀을 조리하면 그 속에 있는 항산화물질이 절반 정도로 감소함에도 불구, 사과에 들어있는 항산화물질의 양과 맞먹는다고 연구팀은 논문에서 설명하고 있다.<br/>혈압을 감소시킨다<br/>달걀 속 단백질은 혈압약의 일종인 앤지오텐신전환효소억제제(ACE inhibitor)와 같은 방식으로 인체에 작용함으로써 혈압 감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한 연구로 밝혀졌다. 고혈압 발병의 감소는 심장질환 발병 감소와도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알려졌다.<br/>사진=포토리아<br/>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071.txt

제목: 실험실서 무럭무럭 자라는 인간의 ‘코·귀·혈관’  
날짜: 201404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52631210  
본문: 한 영국 병원 의료진이 줄기세포를 이용해 실제 코, 귀, 혈관을 성장시키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CBS뉴스는 줄기세포를 이용해 신체장기를 만들고 있는 영국 런던 로열 프리 병원 실험실의 모습을 8일(현지시가) 소개했다.<br/>해당 실험실에서 연구를 주도 중인 사람은 런던대학교(University College London) 교수인 알렉산더 세이펄리언 교수. 그는 지난 2012년 줄기세포를 이용해 인공 폐 기관을 만들어 당시 36세 폐암말기 환자에게 이식하는데 성공했고 작년에는 암 세포로 코를 잃은 한 남성에게 인공 코를 만들어 주기도 한 줄기세포 분야 전문가다.세이펄리언 박사가 줄기 세포를 통해 만들어낸 것은 앞서 언급된 인공 폐와 코는 물론이고 인공 기도, 혈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현재 그의 실험실을 방문해보면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는 코와 귀 등의 인체기관을 만나볼 수 있는데 그 정교함은 무척 인상적이다. 그는 “인체조직을 만드는 것은 빵이나 케이크를 굽는 것과 비슷한 원리”라며 “다만 사용하는 오븐이 신체장기 종류마다 다를 뿐”이라고 설명했다.<br/>세리필리언 박사는 고분자 재료에 소금, 설탕 용액 등을 섞어 인체 질감에 더욱 근접한 인체기관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해당 인공기관의 이식은 당국의 규제로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 작년에 코를 이식한 환자의 경우도 의료진에게 아직 최종 승인이 떨어지지 않은 상황. 또한 일부 의학전문가들은 “<span class='quot0'>줄기세포로 만든 인공기관은 오랫동안 유지되기 어렵다</span>”는 견해를 제기하고 있는 등 곱지 않은 시선도 분명 존재한다.<br/>이와 관련해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 이식 생물학과 수치트라 스미트라-호르게슨 교수는 “<span class='quot1'>곧 인공장기 시장이 활성화 될 것</span>”이라며 2016년까지 인공혈관 이식 보편화에 대한 계획이 있음을 시사했지만 “<span class='quot1'>아직 인공장기 이식이 암을 유발할 수도 있는 등 여러 부작용이 있기에 면밀한 점검과 감시가 병행되어야 할 것</span>”이라고 강조했다. <br/>한편 세리필리언 박사 측은 최근 개발한 인공 귀에 대한 임상실험을 런던과 인도에서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그는 “<span class='quot1'>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줄기세포 장기 제작에 투자된 금액은 거의 100만 파운드(약 174억원)지만 곧 몇 백 파운드에 장기가 거래되는 세상이 올 것</span>”이라고 전했다. <br/>사진=CBS<br/>조우상 기자 wscho@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072.txt

제목: “녹차, 기억력 증가시키고 치매도 예방” (스위스 연구)  
날짜: 201404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52629610  
본문: 건강 음료로 널리 알려진 녹차를 마셔야 할 이유가 또하나 생겼다. <br/>최근 스위스 바젤대학교 연구팀이 녹차가 인지기능에도 영향을 미쳐 기억력을 증가시키고 치매도 예방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br/>그간 녹차의 효능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발표돼 왔다. 대부분의 연구는 녹차에 카테킨과 비타민C 성분이 풍부해 비만과 당뇨, 암을 예방하고 피부미용에도 탁월한 효능을 가진 것으로 분석돼 왔다. 그러나 이번 바젤대학 연구팀의 논문으로 녹차가 머리에도 좋다는 새로운 효능이 입증됐다. <br/>이같은 연구결과는 12명의 피실험자들에게 녹차를 마시게 하고 기억력을 테스트하는 실험을 실시해 얻어졌다. 이 과정에서 연구팀은 MRI 스캔을 통해 녹차를 마시게 되면 뇌의 두정엽과 전두엽의 연결이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했다. <br/>연구를 이끈 스테판 보그와트 교수는 “<span class='quot0'>녹차를 마신 피실험자들이 기억력 테스트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보였다</span>” 면서 “<span class='quot0'>녹차를 마시게 되면 신경세포들이 의사소통을 하는 방식인 시냅스 가소성(Synaptic plasticity)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pan>” 고 설명했다. <br/>이어 “결과적으로 녹차가 뇌의 기억력 손실과 회복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평가돼 치매나 정신질환 환자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br/>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073.txt

제목: 상근이 사망, 클라라 “특별했던 상근이” 추모.. 분향소 모습 보니  
날짜: 20140413  
기자: 이보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53133350  
본문: ‘상근이 사망’<br/><br/>‘국민견’ 상근이(본명 허비)의 사망 소식에 애도가 이어지고 있다.<br/><br/>클라라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말 특별했던 상근이 안녕. ALL DOGS GO TO HEAVEN”라는 글과 함께 상근이와 함께 촬영했던 화보 컷을 공개하며 애도를 표했다.<br/><br/>이날 ‘동물과 사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 국민의 애견 상근이가 암으로 투병 중 11일 오후 1시경 자택에서 죽음을 맞았다”고 상근이 사망 소식을 전했다.<br/><br/>상근이 사망 원인은 ‘괴사성 비만세포종’으로 전해졌으며 현재 이삭애견훈련소의 이웅종 교수와 주변 관계자들은 깊은 슬픔에 잠겨 상근이 곁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br/><br/>12일 상근이 블로그에는 “오늘 상근이 화장한 분향소 모습입니다”라는 글과 함께 분향소 모습이 공개됐다. 사진에는 상근이의 영정사진과 꽃과 간식 등이 놓여 있다.<br/><br/>게시자는 “그동안 상근이를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좋은 곳으로 가게 기원해주세요”라면서 “상근아. 그동안 우리에게 웃음과 사랑 그리고 반려동물 복지와 유기견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좋은 일 많이 해줘서 고마워. 부디 좋은 곳에서 편히 쉬어라. 우리들 마음속엔 항상 널 기억하고 있을게. 사랑해”라고 전했다.<br/><br/>상근이는 사망 다음날인 12일 오전 11시 경기도 김포에 위치한 엔젤스톤에서 화장장을 치렀다.<br/><br/>네티즌들은 “상근이 사망 소식 슬프다”, “상근이 사망, 믿기지 않아”, “<span class='quot0'>상근이 사망, 투병하느라 힘들었겠다</span>”, “<span class='quot0'>상근이 사망, 애도를 표한다</span>” 등의 반응을 보였다.<br/><br/>연예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074.txt

제목: 상근이 사망 소식에 지상렬 ‘대성통곡’…클라라 상근이 애도글은 대체 왜?  
날짜: 201404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53010184  
본문: ‘상근이’<br/>‘국민 애견’ 상근이 사망 소식이 알려진 뒤 네티즌들의 애도물결이 이어지고 있다.<br/>‘동물과사람’은 11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 국민의 애견인 상근이가 암으로 투병 중 오늘 오후 1시쯤 자택에서 죽음을 맞았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라면서 “현재 이웅종 교수와 주변 관계자들은 깊은 슬픔에 잠겨 상근이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고 전했다.<br/>상근이의 사망 소식과 함께 동물과사람 온라인 카페(http://cafe.naver.com/anhco)에는 상근이 추모 게시판이 개설됐고 네티즌들의 애도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br/>네티즌들은 “상근아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어 고맙다.편히 쉬거라 너를 생각하며 우리 딱지(애견)도 더 사랑많이 해줄게 고마워”, “내가 가장좋아햇던 강아지 상근아! 이제 고통없고 아프지말고 다치지말고 병으로 아파하지마”, “하늘에서 나쁜짓하는 사람들 혼내주고 유기견들 살펴주는 수호천사가 되어주렴” 등의 추모글을 올렸다.<br/>상근이의 마지막을 함께 한 이웅종 교수는 “<span class='quot0'>화장장에 약 50명의 시민들이 찾아오셨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상근이의 죽음에 애도의 뜻을 전했고, 마지막 길까지 함께 해주셔 감사하다</span>”고 말했다. <br/>이 교수는 특히깊은 애도를 표하며 대성통곡한 지상렬의 소식을 전했다. 그는 “<span class='quot0'>‘1박2일’에서 상근이와 인연을 맺었던 지상렬이어제 상근이 죽음 소식을 듣고 전화를 줬다</span>”면서 “<span class='quot0'>대성통곡을 하며 매우 슬퍼했고, ‘1박2일’ 작가들로부터도 애도의 뜻을 담은 연락이 왔다</span>”고 덧붙였다. <br/>상근이와 지상렬은 지난 2007년 ‘1박2일’을 통해 인연을 맺었다. 상근이가 ‘1박2일’에 출연했을 당시 지상렬이 이름을 지어줬다. 지상렬은 이후 상근이 아들 상돈이를 키우며남다른 인연을 이어왔다. <br/>한편 방송인 클라라 역시 12일 상근이를 추모하는 글과 사진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br/>클라라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span class='quot1'>정말 특별했던 상근이 안녕…ALL DOGS GO TO HEAVEN</span>”이라는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올렸다.<br/>공개된 사진 속 클라라는 상근이와나란히 마주보며 미소를 짓고 다정한 모습을 하고 있다.<br/>한편 동물과사람 측은 오는 14일 상근이를 애도할 수 있는 장소를 따로 마련해 상근이의 마지막을 함께할 예정이다.<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075.txt

제목: 상근이 사망, 혹이나 부스럼인 줄 알고 있다가..‘괴사성 비만세포종 뭐?’  
날짜: 20140412  
기자: 김채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52934948  
본문: 상근이 사망 소식이 전해졌다. <br/><br/>KBS ‘1박 2일’에 출연해 ‘국민견’으로 불리며 시청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상근이가 괴사성 비만세포종으로 사망했다.<br/><br/>동물과 사람은 11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 국민의 애견 상근이가 암으로 투병 중 11일 오후 1시 경 자택에서 죽음을 맞았다”고 밝혔다.<br/><br/>’상근이의 아버지’로 불리는 이웅종 이삭애견훈련소장에 따르면 상근이는 최근 괴사성 비만세포종(mast cell tumor)이라는 진단을 받고 남몰래 투병생활을 해왔다.<br/><br/>비만세포종은 결합조직에 존재하는 비만세포의 악성증식을 말하며 비만과는 상관이 없고 개나 고양이에게서 발병하는 여드름과 부스럼이 산발성을 띠는 질병이나 처음에 쉽게 발견하기 힘들고 혹이나 부스럼인 줄 알고 있다가 나중에 악성종양이라고 판정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자세히 관찰해야 갑작스러운 죽음을 막을 수 있다.<br/><br/>동물과 사람 측은 “현재 이삭애견훈련소의 이웅종 교수와 주변 관계자들은 깊은 슬픔에 잠겨 상근이 곁을 지키고 있다. 동물과 사람에서는 오는 14일부터 상근이의 애도 장소를 마련하오니 바쁘신 와중에 애도를 부탁 드린다”고 덧붙였다.<br/><br/>상근이 사망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span class='quot0'>상근이 사망..상근이가 암투병 중이였다니</span>”, “상근이 사망..충격이다”, “<span class='quot0'>상근이 사망..좋은 곳으로 가거라</span>”, “<span class='quot0'>상근이 사망..마음이 아프다</span>”, “<span class='quot0'>상근이 사망..왜 암인지 몰랐지?</span>”등 반응을 보였다. <br/><br/>사진 = 서울신문DB (상근이 사망)<br/><br/>연예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076.txt

제목: 상근이 죽음에 지상렬 ‘대성통곡’…클라라 “정말 특별했던 상근이” 왜?  
날짜: 201404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52943476  
본문: ‘상근이’ ‘클라라’ <br/><br/>‘국민 애견’ 상근이의 사망소식이 알려진 뒤 네티즌들의 애도물결이 이어지고 있다.<br/>‘동물과사람’은 11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 국민의 애견인 상근이가 암으로 투병 중 오늘 오후 1시쯤 자택에서 죽음을 맞았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라면서 “현재 이웅종 교수와 주변 관계자들은 깊은 슬픔에 잠겨 상근이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고 전했다.<br/>상근이의 사망 소식과 함께 동물과사람 온라인 카페(http://cafe.naver.com/anhco)에는 상근이 추모 게시판이 개설됐고 네티즌들의 애도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br/>네티즌들은 “상근아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어 고맙다.편히 쉬거라 너를 생각하며 우리 딱지(애견)도 더 사랑많이 해줄게 고마워”, “내가 가장좋아햇던 강아지 상근아! 이제 고통없고 아프지말고 다치지말고 병으로 아파하지마”, “하늘에서 나쁜짓하는 사람들 혼내주고 유기견들 살펴주는 수호천사가 되어주렴” 등의 추모글을 올렸다.<br/>상근이의 마지막을 함께 한 이웅종 교수는 “<span class='quot0'>화장장에 약 50명의 시민들이 찾아오셨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상근이의 죽음에 애도의 뜻을 전했고, 마지막 길까지 함께 해주셔 감사하다</span>”고 말했다. <br/>이 교수는 특히 깊은 애도를 표하며 대성통곡한 지상렬의 소식을 전했다. 그는 “<span class='quot0'>‘1박2일’에서 상근이와 인연을 맺었던 지상렬이 어제 상근이 죽음 소식을 듣고 전화를 줬다</span>”면서 “<span class='quot0'>대성통곡을 하며 매우 슬퍼했고, ‘1박2일’ 작가들로부터도 애도의 뜻을 담은 연락이 왔다</span>”고 덧붙였다. <br/>상근이와 지상렬은 지난 2007년 ‘1박2일’을 통해 인연을 맺었다. 상근이가 ‘1박2일’에 출연했을 당시 지상렬이 이름을 지어줬다. 지상렬은 이후 상근이 아들 상돈이를 키우며 남다른 인연을 이어왔다. <br/>한편 방송인 클라라 역시 12일 상근이를 추모하는 글과 사진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br/>클라라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span class='quot1'>정말 특별했던 상근이 안녕…ALL DOGS GO TO HEAVEN</span>”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올렸다.<br/>공개된 사진 속 클라라는 상근이와 나란히 마주보며 미소를 짓고 다정한 모습을 하고 있다.<br/>한편 동물과사람 측은 오는 14일 상근이를 애도할 수 있는 장소를 따로 마련해 상근이의 마지막을 함께할 예정이다.<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077.txt

제목: 클라라, 상근이 애도 트위터 갑자기 왜? “상근이와 과거에…”  
날짜: 201404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52919897  
본문: ‘상근이’ ‘클라라’ <br/><br/>‘국민 애견’ 상근이의 사망소식이 알려진 뒤 네티즌들의 애도물결이 이어지고 있다.<br/>‘동물과사람’은 11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 국민의 애견인 상근이가 암으로 투병 중 오늘 오후 1시쯤 자택에서 죽음을 맞았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라면서 “현재 이웅종 교수와 주변 관계자들은 깊은 슬픔에 잠겨 상근이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고 전했다.<br/>상근이의 사망 소식과 함께 동물과사람 온라인 카페(http://cafe.naver.com/anhco)에는 상근이 추모 게시판이 개설됐고 네티즌들의 애도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br/>네티즌들은 “상근아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어 고맙다.편히 쉬거라 너를 생각하며 우리 딱지(애견)도 더 사랑많이 해줄게 고마워”, “내가 가장좋아햇던 강아지 상근아! 이제 고통없고 아프지말고 다치지말고 병으로 아파하지마”, “하늘에서 나쁜짓하는 사람들 혼내주고 유기견들 살펴주는 수호천사가 되어주렴” 등의 추모글을 올렸다.<br/>한편 방송인 클라라 역시 12일 상근이를 추모하는 글과 사진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br/>클라라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span class='quot0'>정말 특별했던 상근이 안녕…ALL DOGS GO TO HEAVEN</span>”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올렸다.<br/>공개된 사진 속 클라라는 상근이와 나란히 마주보며 미소를 짓고 다정한 모습을 하고 있다.<br/>한편 동물과사람 측은 오는 14일 상근이를 애도할 수 있는 장소를 따로 마련해 상근이의 마지막을 함께할 예정이다.<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078.txt

제목: 상근이 사망에 클라라까지 ‘애도’…클라라, 왜 상근이 얘기 했나보니  
날짜: 201404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52903709  
본문: ‘상근이’ ‘클라라’<br/><br/>‘국민 애견’ 상근이의 사망소식이 알려진 뒤 네티즌들의 애도물결이 이어지고 있다.<br/>‘동물과사람’은 11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 국민의 애견인 상근이가 암으로 투병 중 오늘 오후 1시쯤 자택에서 죽음을 맞았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라면서 “현재 이웅종 교수와 주변 관계자들은 깊은 슬픔에 잠겨 상근이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고 전했다.<br/>상근이의 사망 소식과 함께 동물과사람 온라인 카페(http://cafe.naver.com/anhco)에는 상근이 추모 게시판이 개설됐고 네티즌들의 애도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br/>네티즌들은 “상근아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어 고맙다.편히 쉬거라 너를 생각하며 우리 딱지(애견)도 더 사랑많이 해줄게 고마워”, “내가 가장좋아햇던 강아지 상근아! 이제 고통없고 아프지말고 다치지말고 병으로 아파하지마”, “하늘에서 나쁜짓하는 사람들 혼내주고 유기견들 살펴주는 수호천사가 되어주렴” 등의 추모글을 올렸다.<br/>한편 방송인 클라라 역시 12일 상근이를 추모하는 글과 사진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br/>클라라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span class='quot0'>정말 특별했던 상근이 안녕…ALL DOGS GO TO HEAVEN</span>”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올렸다.<br/>공개된 사진 속 클라라는 상근이와 나란히 마주보며 미소를 짓고 다정한 모습을 하고 있다.<br/>한편 동물과사람 측은 오는 14일 상근이를 애도할 수 있는 장소를 따로 마련해 상근이의 마지막을 함께할 예정이다.<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079.txt

제목: 상근이 사망, ‘애도 카페’ 어디 만들었나 했더니…클라라도 ‘눈물’  
날짜: 201404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52831493  
본문: ‘국민 애견’ 상근이의 사망소식이 알려진 뒤 네티즌들의 애도물결이 이어지고 있다.<br/>‘동물과사람’은 11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 국민의 애견인 상근이가 암으로 투병 중 오늘 오후 1시쯤 자택에서 죽음을 맞았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라면서 “현재 이웅종 교수와 주변 관계자들은 깊은 슬픔에 잠겨 상근이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고 전했다.<br/>상근이의 사망 소식과 함께 동물과사람 온라인 카페(http://cafe.naver.com/anhco)에는 상근이 추모 게시판이 개설됐고 네티즌들의 애도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br/>네티즌들은 “상근아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어 고맙다.편히 쉬거라 너를 생각하며 우리 딱지(애견)도 더 사랑많이 해줄게 고마워”, “내가 가장좋아햇던 강아지 상근아! 이제 고통없고 아프지말고 다치지말고 병으로 아파하지마”, “하늘에서 나쁜짓하는 사람들 혼내주고 유기견들 살펴주는 수호천사가 되어주렴” 등의 추모글을 올렸다.<br/>한편 방송인 클라라 역시 12일 상근이를 추모하는 글과 사진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br/>클라라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span class='quot0'>정말 특별했던 상근이 안녕…ALL DOGS GO TO HEAVEN</span>”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올렸다.<br/>공개된 사진 속 클라라는 상근이와 나란히 마주보며 미소를 짓고 다정한 모습을 하고 있다.<br/>한편 동물과사람 측은 오는 14일 상근이를 애도할 수 있는 장소를 따로 마련해 상근이의 마지막을 함께할 예정이다.<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080.txt

제목: 상근이 사망 소식에 클라라는 갑자기 왜 애도를?…인연이 있었나  
날짜: 201404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52836692  
본문: ‘국민 애견’ 상근이의 사망소식이 알려진 뒤 네티즌들의 애도물결이 이어지고 있다.<br/>‘동물과사람’은 11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 국민의 애견인 상근이가 암으로 투병 중 오늘 오후 1시쯤 자택에서 죽음을 맞았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라면서 “현재 이웅종 교수와 주변 관계자들은 깊은 슬픔에 잠겨 상근이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고 전했다.<br/>상근이의 사망 소식과 함께 동물과사람 온라인 카페(http://cafe.naver.com/anhco)에는 상근이 추모 게시판이 개설됐고 네티즌들의 애도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br/>네티즌들은 “상근아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어 고맙다.편히 쉬거라 너를 생각하며 우리 딱지(애견)도 더 사랑많이 해줄게 고마워”, “내가 가장좋아햇던 강아지 상근아! 이제 고통없고 아프지말고 다치지말고 병으로 아파하지마”, “하늘에서 나쁜짓하는 사람들 혼내주고 유기견들 살펴주는 수호천사가 되어주렴” 등의 추모글을 올렸다.<br/>한편 방송인 클라라 역시 12일 상근이를 추모하는 글과 사진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br/>클라라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span class='quot0'>정말 특별했던 상근이 안녕…ALL DOGS GO TO HEAVEN</span>”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올렸다.<br/>공개된 사진 속 클라라는 상근이와 나란히 마주보며 미소를 짓고 다정한 모습을 하고 있다.<br/>한편 동물과사람 측은 오는 14일 상근이를 애도할 수 있는 장소를 따로 마련해 상근이의 마지막을 함께할 예정이다.<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081.txt

제목: [독자의 소리] 무분별한 갑상선암 수술은 이제 그만/경기 성남시 분당 주부 강연미  
날짜: 201404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52518469  
본문: 방송과 신문이 갑상선암의 과다 진단과 과잉 진료 문제를 앞다퉈 다루면서 자책감과 후회가 밀려온다. 나는 3년 전 건강검진 도중 갑상선 초음파검사에서 0.6㎝의 종양이 발견돼 전절제 수술을 했다. 이후 급격한 체력 저하와 극심한 불면증, 부정맥, 탈모, 성대통증 등 예상치 못한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이 엉망이 돼버렸다. 당시 담당의사는 한 번도 작은 갑상선암은 수술하지 않고 경과 관찰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br/><br/><br/>수술 후 둘러보니 주위에 친구들을 비롯해 갑상선암 수술환자가 9명이나 됐다. 이들 모두 나처럼 아무 증상이 없었는데 건강검진에서 조그만 혹이 발견돼 의사 권유로 수술하게 됐다고 한다.<br/><br/><br/>국립암센터를 비롯한 여러 대학의 교수들이 갑상선암의 불편한 진실을 폭로하자 이에 맞서 갑상선암도 암이니 초기에 무조건 수술해야 한다고 반박하는 외과의사들이 갑상선암 조기검진의 필요성과 수술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사람마다 서로 주장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료 분야에서만큼은 전문가들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이미 갑상선암 수술을 받은 환자 입장에서 조기진단과 수술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의사들에게 수술을 하기 전에 다른 선택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해 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진정한 명의는 갑상선암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수술한 의사가 아니라 환자 입장에서 진료하고 불필요한 수술을 자제하는 의사라고 생각한다. <br/><br/><br/>경기 성남시 분당 주부 강연미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082.txt

제목: 한방암치료 소람한방병원, 김의신 박사 초청 강연  
날짜: 201404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52520970  
본문: 한방암치료 소람한방병원은 암 환자들을 위해 세계적인 암 권위자로 알려진 김의신 박사의 특별강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br/>김 박사는 미국 텍사스 대학교 MD엔더슨 암센터에서 31년간 종신교수로 재직하고 ‘미국 최고의 의사’로 수 차례 선정되었던 인물로 알려졌다.<br/>김 박사는 이날 약침, 쑥뜸 등의 면역요법을 통해 암환자를 진료하는 소람한방병원을 방문, 암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강연을 성황리에 실시했다. <br/>특히 김 박사는 암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인식 차이, 암 환자들을 위한 음식 관리와 마음가짐 등 양한방 통합 암치료의 중요성에 대해 조언했다.<br/>소람한방병원 성신 병원장은 “<span class='quot0'>미국, 유럽에서는 이미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을 병행하는 통합의학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span>”며 ”국내에서도 치료율 향상, 환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통합적인 시각으로 환자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br/>한편 김 박사는 강연 후 한방암치료 소림한방병원 의료진의 진료 시스템을 둘러 보았다.<br/>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083.txt

제목: [담배소송 흡연자 패소 확정] “흡연은 자유의지” 판단… 폐암 종류따라 인과관계 여부 갈려  
날짜: 201404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50704611  
본문: 오랜 기간 담배를 피우다 암에 걸린 흡연자들이 제조회사인 KT&G(옛 담배인삼공사)와 국가에 배상을 요구한 국내 첫 ‘담배 소송’에서 대법원이 10일 흡연자 측의 패소를 최종 확정했다.<br/><br/>재판부는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 담배 제조·설계·표시상의 결함, KT&G 측이 담배가 해롭지 않다고 광고하거나 유해성을 은폐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등 쟁점이 됐던 사안에 대해 모두 흡연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br/><br/>재판부는 우선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에 대해 “<span class='quot0'>폐암은 흡연과의 관련성이 높은 것부터 관련성에 대한 근거가 없는 것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다</span>”고 전제했다. 이어 “원고들에게 발병한 비소세포암, 세기관지 폐포세포암(모두 폐암)과 흡연 사이에 통계적 관련성을 기초로 한 ‘역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연령, 면역체계 등 개인별 신체 특성까지 고려한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흡연이 아닌 환경오염물질 등 다른 요인에 의한 발병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br/><br/>재판부의 이번 판단은 ‘흡연과 암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상고심에서 판단 대상이 된 원고들에 대해서는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인과관계를 인정받은 4명에 대해서는 법리 판단을 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흡연과 역학적 인과관계가 높다고 알려진 소세포암(3명), 비소세포암 중 편평세포암(1명)에 대해서는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반면 비소세포암, 세기관지 폐포세포암에 걸린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br/><br/>결국 15년 동안 이어진 소송에서 당사자가 앓고 있는 폐암의 종류와 이에 따른 특성 등을 검토해야 인과관계 여부를 따질 수 있다는 결론이 내려진 셈이다. 그러나 당사자의 폐암 종류 등을 판단해 설사 흡연과의 인과관계를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손해배상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br/><br/>재판부가 선고에서 “<span class='quot0'>KT&G가 제조·판매 과정에서 유해성을 은폐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span>”며 불법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데다 “<span class='quot0'>담배 제조·설계·표시상 결함이 있다고 볼 증거도 없다</span>”고 밝혔기 때문이다.<br/><br/>재판부는 담배의 결함 여부에 대해 “흡연이 폐를 포함한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사회 전반에 널리 인식돼 있다. 흡연 여부는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의 문제”라며 “추가적인 설명 등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표시상 결함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제조회사의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도 “KT&G가 제조한 담배가 이전에 소비됐던 담배들에 비해 특별히 위해성이 높다고 볼 수 없다”며 “유해성과 관련해 사회 인식을 넘어선 정보를 은폐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br/><br/>이에 따라 KT&G의 불법행위 등 기존에 제시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제조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이번 판례가 앞으로의 소송에서도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피고 측의 불법 혹은 위법행위가 인정돼야 배상을 받을 수 있다.<br/><br/>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금연운동협의회 등 시민단체와 원고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span class='quot1'>담배회사에 면죄부를 주는 시대에 역행하는 판결</span>”이라면서 “<span class='quot1'>판결에 굴하지 않고 KT&G에 계속 책임을 묻겠다</span>”고 밝혔다. 원고 측 대리인 정미화 변호사는 “<span class='quot2'>재판 과정에서 담배회사에 수차례 자료를 요청했지만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대부분 거절당해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다</span>”며 “<span class='quot2'>담배회사가 어떻게 유해성을 속여왔는지 증거를 모으는 등 앞으로 사법적·입법적 절차를 모두 동원해 문제를 제기하겠다</span>”고 말했다.<br/><br/>반면 피고 측 대리인 박교선 변호사는 “<span class='quot3'>이번 판결로 담배회사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제조에 몰두할 수 있게 됐다</span>”면서 “<span class='quot3'>15년간 끌어왔던 소송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 흡연으로 인한 배상책임 다툼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span>”고 설명했다.<br/><br/>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br/><br/>한재희 기자 jh@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084.txt

제목: 봄에 먹기 좋은 ‘디톡스 푸드’ 10가지  
날짜: 201404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52350417  
본문: 겨우내 우리 몸속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고 남은 봄을 쾌적하게 보내는 것은 어떨까.<br/>최근 해외의 한 인기 건강정보 사이트가 ‘봄을 위한 해독 식품 10가지’를 소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대부분 우리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식품이니 확인하고 자신의 건강을 챙기도록 하자.<br/>1. 비트(Beets)<br/>베타인과 폴리페놀 등 다양한 항산화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음주와 피로에 지친 간을 해독한다. 대부분 영양소가 열에 약하므로 샐러드나 주스로 먹는 것이 좋다.<br/>2. 셀러리<br/>수분 함량이 높으며 세포 기능에 필수적인 전해질 성분도 다량 함유돼 있다. 칼륨과 마그네슘, 칼슘, 철 등의 풍부한 미네랄 성분은 육류와 유제품, 가공식품과 같은 산성식품을 중화하는 알칼리 작용을 하며 나트륨은 디톡스 요법 시 나타날 수 있는 짠 음식에 대한 갈망을 없애준다. 대장암 예방에도 좋으니 주스나 샐러드, 스프 등으로 섭취하자.<br/>3. 고수<br/>수은과 카드뮴, 우라늄, 알루미늄 등의 유해 중금속과 결합해 체외로 배출시킨다. 또 간장과 신장을 해독해주는 기능도 있다. 주스나 샐러드에 추가하면 좋다.<br/>4. 치아 씨앗(Chia Seeds·민트 계통 식물의 씨앗)<br/>세포를 보호하고 독소를 제거해주는 항산화물질이 풍부하다. 또 식이섬유가 풍부해 다이어트와 변비 해소에도 효과적. 이를 이용한 푸딩은 훌륭한 아침식사로도 알려졌다.<br/>5. 감귤류<br/>레몬과 라임, 자몽, 오렌지와 같은 감귤류는 비타민 C는 물론 항산화물질이 풍부하다. 수용성 및 불용성 식이섬유도 풍부해 장을 깨끗하게 해준다.<br/>6. 물냉이<br/>물냉이에는 혈액세포를 청소하는 기능이 있어 암의 위험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br/>7. 새싹(Sprout)<br/>알팔파와 해바라기 등의 새싹은 살모넬라와 대장균과 같은 유해세균으로부터 보호해준다. 녹두와 알팔파, 겨자, 밀, 브로콜리, 해바라기, 대두, 무, 케일, 렌즈콩 등의 씨앗을 발아시키면 페놀화합물이 증가해 항산화력이 향상된다는 연구도 있다. 페놀화합물은 건강에 유해한 (곰팡이가 식품 등에 번식해 생성되는 독소인) 미코톡신의 해독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졌다.<br/>8. 십자화과 채소<br/>브로콜리, 꽃양배추, 양배추 등의 십자화과 채소에는 간 해독 효과가 높은 효소가 들어있다. 또 식이섬유가 풍부해 대장을 청소해주는 기능도 있다고 한다.<br/>9. 사과<br/>사과에 들어 있는 수용성 식이섬유 펙틴은 장내 환경을 정돈하는 기능이 있다. 암이나 생활 습관병의 위험을 줄일 수도 있다.<br/>10. 조류<br/>해조류와 남조류를 포함한 조류는 미네랄 함량이 높으며 알칼리성이 강해 산도(pH)의 건강균형을 회복시키며 남겨진 산성 노폐물을 없애준다. 또한 간 해독에도 도움을 주며 몸속 중금속과 결합해 배출하는 기능도 있다.<br/>사진=바디마인드그린<br/>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085.txt

제목: “냄새가 심한데…” 소변이 알려주는 ‘건강신호 4가지’  
날짜: 201404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52318273  
본문: 체내에 발생한 노폐물이 수용액 형태로 방광에 저장되어 있다 한계를 넘어가면 체외로 배출되는 소변. 흔히 화장실에서 소변을 본 뒤, 냄새 등의 이유로 빨리 물을 내려버리는 경우가 많지만 한번 정도는 시간을 들여 색깔이나 거품 정도를 체크해보는 것이 좋다. 몸에서 배출된 소변인 만큼 체내 건강상태가 그대로 담겨있기 때문이다. <br/>이와 관련해 미국 온라인매체 허핑턴 포스트는 의학 전문가들의 조언을 첨부해 소변이 알려주는 ‘건강신호 4가지’를 9일(현지시간) 소개했다. 아래 게재된 항목을 보고 적어도 내일 아침 화장실 변기 속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도록 하자. 혹시 아는가? 몸 안에 숨어있던 치명적 질환을 미리 발견할 수 있을지. <br/>1. 소변 색이 진한 노란색이다.<br/>소변이 맑은 빛깔이 아닌 평소보다 진한 노란색이라면 몸에 수분이 부족한 것일 수 있다. 체내에 수분이 부족할 경우 우리 몸은 체액을 보존하기 위해 소변 생산량을 줄인다. 따라서 배출되는 소변은 고농축 형태일 수밖에 없다. 체내 수분 부족은 신장 결석 등을 유발할 수 있기에 소변 빛깔이 진하다면 평소보다 물을 많이 마셔 체내 수분을 보충해주도록 하자. <br/>2. 소변 색이 분홍색이다.<br/>가끔 소변이 분홍 빛깔을 띠는 경우가 있다. 빨간 색이 아니라 혈뇨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비뇨기과 전문의들의 설명에 따르면, 분홍 소변 역시 혈뇨 증세로 보는 경우가 많다. 혈뇨는 피로가 누적되거나 운동을 심하게 한 경우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 심각한 질환을 예고하는 것일 수도 있어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br/>혈뇨는 신장에서 외요도구로 이어지는 요로의 한 부분에서 출혈이 있음을 뜻하며 원인은 신장결석, 사구체신염, 심지어 전립선 암 일수도 있다. 분홍색 혹은 붉은색 소변이 관찰되면 병원을 찾아 전문의의 진단을 받은 뒤 소변·혈액검사·신장 초음파·컴퓨터단층촬영 등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br/>3. 소변을 자주 본다.<br/>평소보다 소변을 보는 빈도가 잦아진다면 ‘당뇨병’을 의심하는 것이 좋다. 당뇨병은 인슐린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뤄지지 않는 대사질환으로 혈중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지는 고혈당 증세가 나타난다. 높아진 혈당으로 갈증이 유발돼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 소변 양이 늘어 화장실을 여러 번 가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포도당이 소변으로 배출되기에 냄새에서 달콤함이 느껴지거나 거품이 평균보다 과도하다면 즉시 병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br/>4. 소변냄새가 역하다.<br/>평소보다 소변 냄새가 역하다면 요로 감염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소변이 저장되고 배출되는 기관인 요도, 방광 등에 박테리아(세균)가 침입했을 경우, 소변을 볼 때 개운치 않은 느낌과 함께 암모니아 향이 강해지는 경향이 있다. 그대로 방치하면 박테리아가 신장으로 이동할 수 있어 미리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 <br/>자료사진=포토리아　<br/>조우상 기자 wscho@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086.txt

제목: 비아그라 먹으면 ‘피부암’ 걸린다?…발병위험↑  
날짜: 201404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52238769  
본문: 남성 발기 부전 치료제로 잘 알려져 있는 ‘비아그라’가 피부암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br/>최근 미국 브라운 대학 피부과학부 연구진들은 평균연령 65세 미국, 중국 남성 26,000 명의 암 발병률 데이터를 조사한 결과, 주목할 만한 수치를 얻어냈다. <br/>조사 대상 남성 중 비아그라와 같은 발기 부전 치료제를 꾸준히 복용한 경우, ‘악성 흑색종(malignant melanoma)’ 등의 피부암 질환을 앓을 확률이 84%에 달한다는 것. 연구진은 평균적으로 비아그라를 복용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 피부암 발병 확률이 2배가량 차이가 난다고 덧붙였다.<br/>연구진은 해당 연구에서 악성 흑색종 발병 원인 기준에 가족력, 햇빛 노출 정도와 더불어 비아그라와 같은 발기 부전 치료제 복용량을 더해 분석 데이터를 산출했다. 아직 비아그라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전(機轉)을 통해 흑색종을 유발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연구진은 발기부전 치료제가 피부암 유발과 관련된 특정 유전자에 일부 작용하는 것 같다고 추측했다.<br/>비아그라는 과 복용 시 구역질, 두통, 고혈압, 협심증 등의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해당 연구를 주도한 브라운 대학 피부과학과 아브라르 퀘레시 박사는 “<span class='quot0'>비아그라가 반드시 피부암을 유발시키는 주요원인이라는 뜻은 아니다</span>”라며 “<span class='quot0'>하지만 일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 나타났기에 비아그라를 과용하거나 장기 복용하는 것은 금하는 게 좋을 것</span>”이라고 설명했다. <br/>한편 해당 연구결과는 미국 의학협회 저널 ‘JAMA’에 최근 발표됐다. <br/>자료사진=포토리아　<br/>조우상 기자 wscho@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087.txt

제목: 위험천만 ‘화성 탐사’ 과연 윤리적으로 타당할까?  
날짜: 201404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52206889  
본문: 과연 인간의 화성 탐사가 윤리적으로 타당할까?<br/>지난 몇 년 사이 미 항공우주국 나사(NASA)를 비롯해 민간업체까지 인간을 화성에 보내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에대한 윤리적인 논쟁도 서서히 고개를 들고있다. 최근 미 국립과학의료원(IOM)은 “나사 측이 장시간의 우주 여행으로 야기되는 인간의 건강을 담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br/>IOM 측의 이같은 주장은 인간 배아줄기 복제 등 첨단 과학기술이 등장할 때 마다 일어나는 윤리적인 논쟁과 맥을 같이한다. IOM에 따르면 장시간의 우주여행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이다. 우주 방사선으로 인해 암 발병 확률은 최소 3% 이상 증가하며 DNA 파괴, 시력 감퇴, 골 손실 등 인간의 건강을 해치는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다.<br/>문제는 2025년 내에 화성에 인간을 보내는 프로젝트는 속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들의 건강과 삶을 담보할 어떠한 가이드라인도 없다는 점이다. IOM 위원회 제프리 콴 박사는 “<span class='quot0'>화성으로 떠나는 인간은 그들의 인생과 건강이 거대한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의미한다</span>” 면서 “<span class='quot0'>이들을 보호할 기술의 진보와 더불어 정책 마련도 시급하다</span>”고 밝혔다.<br/>실제로 수년이 걸리는 나사와 각 단체의 화성 프로젝트에 있어 탐사에 나서는 인간에 대한 보호 방법은 구체적으로 발표된 바 없다. 특히 네덜란드의 비영리 화성탐사 업체 ‘마스원’(Mars One)은 돌아오지 못하는 소위 ‘화성행 편도 탐사’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br/>2023년 부터 화성에 인간 정착기지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이 프로젝트는 발표직후 많은 사람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아 전세계 140개국 이상에서 20만명 이상이 화성행에 지원한 바 있다.　 <br/><br/>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088.txt

제목: 빵 굽듯이 ‘코’와 ‘귀’를 만들어낸다?  
날짜: 201404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52126414  
본문: 한 영국 병원 의료진이 줄기세포를 이용해 실제 코, 귀, 혈관을 성장시키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br/>미국 CBS뉴스는 줄기세포를 이용해 신체장기를 만들고 있는 영국 런던 로열 프리 병원 실험실의 모습을 8일(현지시가) 소개했다.<br/>해당 실험실에서 연구를 주도 중인 사람은 런던대학교(University College London) 교수인 알렉산더 세이펄리언 교수. 그는 지난 2012년 줄기세포를 이용해 인공 폐 기관을 만들어 당시 36세 폐암말기 환자에게 이식하는데 성공했고 작년에는 암 세포로 코를 잃은 한 남성에게 인공 코를 만들어 주기도 한 줄기세포 분야 전문가다.<br/>세이펄리언 박사가 줄기 세포를 통해 만들어낸 것은 앞서 언급된 인공 폐와 코는 물론이고 인공 기도, 혈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현재 그의 실험실을 방문해보면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는 코와 귀 등의 인체기관을 만나볼 수 있는데 그 정교함은 무척 인상적이다. 그는 “인체조직을 만드는 것은 빵이나 케이크를 굽는 것과 비슷한 원리”라며 “다만 사용하는 오븐이 신체장기 종류마다 다를 뿐”이라고 설명했다.<br/>세리필리언 박사는 고분자 재료에 소금, 설탕 용액 등을 섞어 인체 질감에 더욱 근접한 인체기관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해당 인공기관의 이식은 당국의 규제로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 작년에 코를 이식한 환자의 경우도 의료진에게 아직 최종 승인이 떨어지지 않은 상황. 또한 일부 의학전문가들은 “<span class='quot0'>줄기세포로 만든 인공기관은 오랫동안 유지되기 어렵다</span>”는 견해를 제기하고 있는 등 곱지 않은 시선도 분명 존재한다.<br/>이와 관련해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 이식 생물학과 수치트라 스미트라-호르게슨 교수는 “<span class='quot1'>곧 인공장기 시장이 활성화 될 것</span>”이라며 2016년까지 인공혈관 이식 보편화에 대한 계획이 있음을 시사했지만 “<span class='quot1'>아직 인공장기 이식이 암을 유발할 수도 있는 등 여러 부작용이 있기에 면밀한 점검과 감시가 병행되어야 할 것</span>”이라고 강조했다. <br/>한편 세리필리언 박사 측은 최근 개발한 인공 귀에 대한 임상실험을 런던과 인도에서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그는 “<span class='quot1'>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줄기세포 장기 제작에 투자된 금액은 거의 100만 파운드(약 174억원)지만 곧 몇 백 파운드에 장기가 거래되는 세상이 올 것</span>”이라고 전했다. <br/>사진=CBS<br/>조우상 기자 wscho@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089.txt

제목: “일부 폐암환자, 기존 항암제가 표적치료제보다 효과적”  
날짜: 201404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44422104  
본문: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EGFR) 돌연변이가 없는 폐암 환자를 치료할 때는 기존 세포독성 항암제가 EGFR 표적항암제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제시됐다. 최신 기술로 개발한 신약일수록 치료 효과도 더 좋을 것이라는 통념을 뒤집는 결과여서 주목된다.<br/><br/><br/>서울대병원 종양내과 김동완 교수팀(공동연구팀 이준구 전문의, 의학연구협력센터 의학통계실 한서경 교수)은 1600여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연구에서 이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9일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권위있는 의학저널인 미국의학협회지(JAMA) 4월 9일자에 게재됐다.<br/><br/><br/>제약업계에서는 최근 들어 암세포만 골라서 공격하는 이른바 ‘표적치료제’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내에는 현재 ‘이레사’(Iressa)와 ‘타세바’(Tarceva)가 폐암 표적치료제로 공급되고 있다.<br/><br/><br/>연구팀은 EGFR 돌연변이가 없는 환자군에서 최선의 치료제가 무엇인지를 규명하기 위해 EGFR 표적항암제와 기존 항암제 치료를 비교한 11개 임상시험과 1605명 환자의 치료 결과를 분석했다.<br/><br/><br/>그 결과, 기존 세포독성 항암제로 EGFR 돌연변이 음성 환자를 치료하면 EGFR 표적 항암제로 치료한 것보다 암의 진행속도가 느리고 종양 크기도 더 많이 감소했다. 하지만 두 치료제군 간에 전체 생존기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임상시험 이후 받은 후속치료로 차이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연구팀은 설명했다.<br/><br/><br/>연구팀은 “이같은 결과를 감안하면 앞으로 EGFR 돌연변이 음성 환자의 경우 EGFR 억제제보다 기존 항암제를 우선 사용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br/><br/><br/>EGFR 돌연변이가 있는 환자군은 국내 비(非)소세포 폐암 환자의 약 40%를 차지하며, 이레사와 타세바 등 표적치료제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EGFR 돌연변이가 없는 60% 가량의 환자에서 이레사와 타세바의 치료 효과를 두고는 그동안 논란이 없지 않았다.<br/>　<br/>　심재억 의학전문기자 jeshim@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090.txt

제목: 봄에 먹기 좋은 ‘디톡스 푸드’ 10가지  
날짜: 201404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52035956  
본문: 겨우내 우리 몸속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고 남은 봄을 쾌적하게 보내는 것은 어떨까.<br/>최근 해외의 한 인기 건강정보 사이트가 ‘봄을 위한 해독 식품 10가지’를 소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대부분 우리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식품이니 확인하고 자신의 건강을 챙기도록 하자.<br/>1. 비트(Beets)<br/>베타인과 폴리페놀 등 다양한 항산화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음주와 피로에 지친 간을 해독한다. 대부분 영양소가 열에 약하므로 샐러드나 주스로 먹는 것이 좋다.<br/>2. 셀러리<br/>수분 함량이 높으며 세포 기능에 필수적인 전해질 성분도 다량 함유돼 있다. 칼륨과 마그네슘, 칼슘, 철 등의 풍부한 미네랄 성분은 육류와 유제품, 가공식품과 같은 산성식품을 중화하는 알칼리 작용을 하며 나트륨은 디톡스 요법 시 나타날 수 있는 짠 음식에 대한 갈망을 없애준다. 대장암 예방에도 좋으니 주스나 샐러드, 스프 등으로 섭취하자.<br/>3. 고수<br/>수은과 카드뮴, 우라늄, 알루미늄 등의 유해 중금속과 결합해 체외로 배출시킨다. 또 간장과 신장을 해독해주는 기능도 있다. 주스나 샐러드에 추가하면 좋다.<br/>4. 치아 씨앗(Chia Seeds·민트 계통 식물의 씨앗)<br/>세포를 보호하고 독소를 제거해주는 항산화물질이 풍부하다. 또 식이섬유가 풍부해 다이어트와 변비 해소에도 효과적. 이를 이용한 푸딩은 훌륭한 아침식사로도 알려졌다.<br/>5. 감귤류<br/>레몬과 라임, 자몽, 오렌지와 같은 감귤류는 비타민 C는 물론 항산화물질이 풍부하다. 수용성 및 불용성 식이섬유도 풍부해 장을 깨끗하게 해준다.<br/>6. 물냉이<br/>물냉이에는 혈액세포를 청소하는 기능이 있어 암의 위험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br/>7. 새싹(Sprout)<br/>알팔파와 해바라기 등의 새싹은 살모넬라와 대장균과 같은 유해세균으로부터 보호해준다. 녹두와 알팔파, 겨자, 밀, 브로콜리, 해바라기, 대두, 무, 케일, 렌즈콩 등의 씨앗을 발아시키면 페놀화합물이 증가해 항산화력이 향상된다는 연구도 있다. 페놀화합물은 건강에 유해한 (곰팡이가 식품 등에 번식해 생성되는 독소인) 미코톡신의 해독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졌다.<br/>8. 십자화과 채소<br/>브로콜리, 꽃양배추, 양배추 등의 십자화과 채소에는 간 해독 효과가 높은 효소가 들어있다. 또 식이섬유가 풍부해 대장을 청소해주는 기능도 있다고 한다.<br/>9. 사과<br/>사과에 들어 있는 수용성 식이섬유 펙틴은 장내 환경을 정돈하는 기능이 있다. 암이나 생활 습관병의 위험을 줄일 수도 있다.<br/>10. 조류<br/>해조류와 남조류를 포함한 조류는 미네랄 함량이 높으며 알칼리성이 강해 산도(pH)의 건강균형을 회복시키며 남겨진 산성 노폐물을 없애준다. 또한 간 해독에도 도움을 주며 몸속 중금속과 결합해 배출하는 기능도 있다.<br/>사진=바디마인드그린<br/>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091.txt

제목: 3000년 전 유골서 ‘현대병’ 동맥경화 발견(英연구)  
날짜: 201404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52002331  
본문: 심장마비와 뇌졸중을 유발하는 주된 원인이자 현대인에게 암과 더불어 가장 치명적인 질병으로 알려진 동맥경화증이 수 천 년전 고대 인류에게서도 발견돼 학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br/>동맥경화증이란 혈관벽에 지방이 축적되어 동맥이 좁아지고 탄력성을 잃게 되는 증상을 뜻한다. <br/>동맥경화증은 잘못된 식습관, 불규칙한 생활습관, 흡연과 과음 등에서 유발한다는 이유로 비만, 당뇨증과 함께 ‘현대병’으로 분류돼 왔다.<br/>영국 더럼대학교의 생물고고학자인 미첼라 빈더 박사 연구팀에 따르면 고대 아프리카인의 유골에서 지방이 쌓여 두꺼워진 동맥의 흔적이 발견됐다. 이 유골의 주인은 생전 심장혈관질환을 앓았을 것으로 추측된다.<br/>나일강 인근의 수단 수도 하르툼에서 발견한 이 유골의 주인은 3000년 전 단순한 농경사회에서 살았으며, 현대병의 원인으로 알려진 기름기 많은 식단과 흡연, 음주 등이 없었던 환경이었다는 점에서 학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br/>남성 유골 3구, 여성 유골 2구 등 총 5구에서 혈액의 흐름이 막혀 혈전증이나 심장혈관 이상증상등을 보인 것으로 추측된다. <br/>이들에게서 동맥경화가 나타난 원인은 아직 불분명한데, 연구팀은 당시 도기류 또는 금속류로 도구를 만들기 위해 가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유독성 연기(Smoke)가 그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br/>이 뿐만 아니라 당시 열악했던 치아(구강)보건 상황에서 치주염이 생겼고, 이것이 심장질환으로 이어졌다는 주장도 있다. <br/>빈더 박사는 “<span class='quot0'>더욱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동맥경화가 단순히 현대인들만의 병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는 근거가 됐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수 천 년 전 조상들도 동맥경화로 사망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찾은 셈</span>”이라고 설명했다. <br/>이어 “고대 선조에게서 아테롬성 동맥경화증이 발견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라며 “이번 발견은 3000년 전 뿐 아니라 현대의 질병을 연구하고 추적하는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br/>이번 연구결과는 국제 원시 병리학 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Palaeopathology)에 실렸다. <br/>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092.txt

제목: 이것이 진짜 우주 ‘암흑물질’…이미지 공개  
날짜: 201404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51924690  
본문: 우주에 널리 분포하는 것으로 추정하지만 그 실체는 한 번도 제대로 규명되지 못해 지난 수십 년간 천체물리학계의 과제로 남아있던 ‘암흑물질’의 실제 형체가 최초로 구현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br/>영국 과학전문매체 뉴사이언티스트는 미국 일리노이 주 국립 페르미 가속기연구소 연구진들이 암흑물질이 유력한 것으로 추정되는 특정 형체를 이미지화하는데 성공했다고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br/>연구진은 최근 NASA(미 항공 우주국) 페르미 우주망원경이 왜소은하(dwarf galaxy) 부근을 촬영해 보내온 우주 사진 데이터를 정밀 분석한 끝에 해당 이미지를 얻을 수 있었다. 이 데이터는 왜소은하 중심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는 감마선들이 어지럽게 서로 충돌하고 있고 촘촘히 푸른색의 입자들이 박혀있는 모습인데 연구진은 이것이 감마선 충돌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인 ‘암흑 물질 입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br/>지난 2009년부터 5년에 걸쳐 암흑 물질 데이터를 연구해온 페르미 연구소 댄 후퍼 교수는 “<span class='quot0'>해당 신호는 현재까지 파악된 암흑물질 후보 중 가장 강력한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정확한 검증을 위해 다른 은하에서 나오는 신호들과 비교해보는 추가 연구를 진행 중</span>”이라고 전했다.<br/>암흑물질은 우주를 구성하는 총 물질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지만 빛과 상호작용하지 않아 육안으로 관찰이 불가능하며 오직 중력을 통해서만 질량을 짐작할 수 있어 천문학계의 미스터리로 남아있었다. 특히 암흑 물질 분포가 현 태양계 형성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이번 발견이 가지는 의미는 상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br/>사진=뉴사이언티스트<br/>조우상 기자 wscho@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093.txt

제목: 혈액 속 암세포 분리기술 개발 성공  
날짜: 201404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42321834  
본문: 혈액 속에 돌아다니는 암세포를 살아 있는 상태로 분리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 국립암센터 조영남 박사 연구팀은 7일 나노기술을 이용해 혈중종양세포를 손상 없이 검출·분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분리한 암세포를 추가 분석하면 환자의 예후를 예측하고 맞춤형 치료 전략을 세울 수 있어 주목된다.<br/><br/><br/>암세포는 다른 장기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원래 발병했던 부위를 벗어나 혈액을 따라 이동하게 되는데, 그 숫자가 매우 적어 기존의 기술로는 검사가 쉽지 않았다.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전기 전도성 고분자를 바탕으로 한 나노기술과 전기 화학반응을 이용해 10억개의 혈구 중 1개의 암세포를 찾아내는 고민감도 검출 방법이다. <br/><br/><br/>조 박사는 “<span class='quot0'>혈중종양세포 외에도 혈액 속에 존재하는 암세포 유래 유전자 및 단백질의 효율적인 검출 및 분리에도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암 관련 진단 및 치료 연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span>”고 말했다. 연구 결과는 화학 분야의 세계적인 국제학술지인 ‘앙게반테 케미’에 게재됐다. <br/><br/><br/>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094.txt

제목: 채식이 육식보다 ‘암’ 위험 더 높다?  
날짜: 201404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51700567  
본문: 일반적으로 채식이 육식 보다 신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삶의 활기를 불어넣어줄 것 같지만 실은 정반대라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br/>미국 CBS 뉴스는 오스트리아 그라츠 의과 대학 연구진이 채식주의자가 육식주의자보다 삶의 질이 떨어지고 각종 질환을 앓을 확률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br/>그라츠 대학 연구진은 오스트리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수집된 국립 질병관리 건강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기존 인식과는 차별화된 수치를 얻게 됐다. 채식주의자들이 육식주의자들보다 각종 신체 알레르기 질환을 앓게 되는 경우가 2배, 심장 마비 등의 심혈관 질환과 각종 암을 앓게 될 확률이 각각 50%가 넘는 것으로 측정됐기 때문이다.<br/>흥미로운 것은 겉으로 보기에 채식주의자들은 육식주의자들보다 신체 활동이 활발하고 담배와 술을 멀리하며 체질량지수(BMI)도 낮았지만 암과 같은 치명적 질환에 노출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왔다는 것이다. 심지어 채식주의자들은 육식주의자들보다 불안장애,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게 되는 경우도 많았다.<br/>채식이 해당 질환 유발 여부와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전(機轉)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동물성 지방을 멀리하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 의학 전문가들의 생각이다.<br/>그라츠 의대 연구진은 “<span class='quot0'>해당 조사 결과는 채식만을 고집할 경우 암, 알레르기, 정신장애를 앓게 돼 삶의 질이 저하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려준다</span>”며 “<span class='quot0'>균형 잡힌 식단을 제시해주는 공중 보건 프로그램을 국가차원에서 장려해야할 것</span>”이라고 전했다.<br/>한편 해당 연구결과는 미국 공공과학도서관학술지인 플로스 원(PLos One)에 최근 발표됐다. <br/>자료사진=포토리아<br/>조우상 기자 wscho@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095.txt

제목: “채식 즐기면 육식보다 ‘암’ 발생 위험↑”  
날짜: 201404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51536452  
본문: 일반적으로 채식이 육식 보다 신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삶의 활기를 불어넣어줄 것 같지만 실은 정반대라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br/>미국 CBS 뉴스는 오스트리아 그라츠 의과 대학 연구진이 채식주의자가 육식주의자보다 삶의 질이 떨어지고 각종 질환을 앓을 확률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br/>그라츠 대학 연구진은 오스트리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수집된 국립 질병관리 건강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기존 인식과는 차별화된 수치를 얻게 됐다. 채식주의자들이 육식주의자들보다 각종 신체 알레르기 질환을 앓게 되는 경우가 2배, 심장 마비 등의 심혈관 질환과 각종 암을 앓게 될 확률이 각각 50%가 넘는 것으로 측정됐기 때문이다.<br/>흥미로운 것은 겉으로 보기에 채식주의자들은 육식주의자들보다 신체 활동이 활발하고 담배와 술을 멀리하며 체질량지수(BMI)도 낮았지만 암과 같은 치명적 질환에 노출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왔다는 것이다. 심지어 채식주의자들은 육식주의자들보다 불안장애,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게 되는 경우도 많았다.<br/>채식이 해당 질환 유발 여부와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전(機轉)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동물성 지방을 멀리하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 의학 전문가들의 생각이다.<br/>그라츠 의대 연구진은 “<span class='quot0'>해당 조사 결과는 채식만을 고집할 경우 암, 알레르기, 정신장애를 앓게 돼 삶의 질이 저하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려준다</span>”며 “<span class='quot0'>균형 잡힌 식단을 제시해주는 공중 보건 프로그램을 국가차원에서 장려해야할 것</span>”이라고 전했다.<br/>한편 해당 연구결과는 미국 공공과학도서관학술지인 플로스 원(PLos One)에 최근 발표됐다. <br/>자료사진=포토리아<br/>조우상 기자 wscho@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096.txt

제목: ‘직장 스트레스’가 건강 좀먹는 ‘5가지 진짜 이유’  
날짜: 201404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51530365  
본문: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 적성과 상관없이 생계 등의 현실적인 이유로 회사 일을 마지못해 하는 직장인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br/>실제로 최근 미국 통계자료를 보면 직장인들 중 본인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전체의 20~40%에 이르고 이들 대부분은 “<span class='quot0'>회사일은 정말 마음에 안 들지만 월급 때문에 할 수 없이 한다</span>”고 호소하고 있다. <br/>하지만 이렇게 마지못해 하는 직장생활은 결국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미국 온라인매체 허핑턴 포스트는 건강 전문가들의 조언이 첨부된 “<span class='quot1'>직장스트레스가 건강을 악화시키는 이유 5가지</span>”를 26일(현지시간) 건강 섹션에 게재했다. 최근 직장 스트레스와 건강 사이에서 고민 중인 분들을 위해 해당 항목을 소개한다.<br/>1. 직장 스트레스는 체중을 증가 시킨다.<br/>하루 종일 상사에게 스트레스 받고 각종 업무에 시달리다 보면 원초적 욕구가 강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식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퇴근 후 저녁식사가 과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야식으로 확장돼 당신의 체중을 급격히 늘어나게 한다는 것. 힘들어도 먹는 것보다는 운동이나 음악 감상 등 조금 더 건전한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 게 현명하다. <br/>2. 직장 스트레스는 몸 면역체계를 약화시킨다.<br/>업무에서 가장 스트레스가 심해지는 경우는 열심히 일한 만큼 인정받지 못하고 역으로 공격을 당하거나 모함을 받을 때가 아닐까? 직장인이라면 한번 쯤 겪는 이런 불상사는 극도로 신경을 민감하게 만들어 우울증을 야기 시키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최근 심리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유발된 우울증이 30일 이상 지속될 경우 몸 면역체계에 이상을 일으켜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게 만든다고 한다. 조금이라도 우울증이 느껴진다 싶으면 정신과를 찾아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다. <br/>3. 직장 스트레스는 대인관계를 축소시킨다.<br/>직장일도 결국 사람과 사람사이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이는 본인 주변의 인간관계로 이어지게 된다. 여기에 스트레스가 개입되면 직장 내에서는 물론 가정생활에까지 악영향을 끼쳐 가장 친밀한 사람들과도 사이가 어색해질 가능성이 높다. 적어도 친밀한 사람들과는 스트레스에 대해 허심탄회 털어놓을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다.<br/>4. 직장 스트레스는 수면을 박탈한다.<br/>인간의 몸은 수면을 취하는 동안 각종 화학작용을 일으키며 하루 동안 쌓인 피로와 독소를 치료한다. 하지만 직장 스트레스가 강하게 남아있다면 뇌신경을 계속 자극해 수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결국 몸도 치료되지 않아 악순환이 반복되게 한다. 아무리 짜증나는 일이 생각나도 잠만은 제대로 잘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br/>5. 직장 스트레스는 질병으로 이어진다.<br/>직장일이 싫어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면 결국 병을 얻게 된다. 최근 미국 의학 연구에 따르면, 업무에 스트레스를 심하게 느낀 간호사들이 후에 암, 당뇨, 심혈관 질환 등을 앓는 경우가 약 2만 건 가량 보고됐다. 이는 마음이 병을 앓기 시작하면 결국 치명적 질환으로 이어진다는 것으로, 수동적이기 보단 능동적 대처가 필요함을 알려준다. 즉, 업무 자체가 맞지 않으면 이직 혹은 부서 이동을 적극 추진하던가, 동료나 직장 상사와 갈등이 심하다면 속에만 쌓아두지 말고 실질적인 대화를 통해 응어리를 푸는 등의 행동이 도움이 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br/>자료사진=포토리아<br/>조우상 기자 wscho@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097.txt

제목: 보건소 현장 출동! 병마를 물리치다  
날짜: 201404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33619899  
본문: 서울 서초구는 2일 ‘2014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 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아파트, 주택 가릴 것 없이 보건소가 직접 현장으로 출동해 건강체험관, 걷기 교실, 대사증후군 전문관리, 금연 아파트, 허약예방운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br/><br/>가장 인기를 끄는 것은 ‘찾아가는 보건소 건강체험관’이다. 간호사, 영양사, 운동 처방사, 약사 등 전문가들이 나서서 현장에서 주민 골밀도, 체성분, 혈액 검사 등을 진행한다. 대사증후군, 암,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치매 등에 대해서도 무료로 상담해준다. 이상이 발견되면 당연히 보건소나 전문기관에다 즉각 알려준다. 1년에 3개월, 6개월 간격으로 운동처방과 영양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br/><br/>금연아파트 사업도 인기 만점이다. 우선 거주세대 50% 이상(20개동 이상 대단위 아파트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70% 이상) 동의를 받아낸 뒤 주민자율단을 구성해 주민 스스로 금연환경을 조성하는 활동에 돌입해야 한다. 동의 과정, 집행 과정에 대한 심사와 평가를 통해 구가 금연아파트 지정 여부를 확정한다. 지정되면 금연구역과 금연표지가 들어서게 되며 금연 캠페인에 필요한 각종 물품 지원은 물론, 금연교육과 이동금연클리닉 등 금연결심을 뒷받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어진다.<br/><br/>건강한 걷기교실도 주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거주 지역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둘레길이나 공원 등을 적극 활용해 올바른 걷기, 파워워킹 방법을 일러줄 뿐 아니라 생활 속 도구를 이용한 근력운동도 가르쳐준다. 허약예방운동 프로그램 역시 악력, 외발서기, 측면기립 등을 통해 노인들의 허약성 여부를 확인하고, 맞춤형 운동·영양·정서처방을 내려준다.<br/><br/>사업의 효과는 놀랍다. 2011~2013년 3년 연속 선정 지역을 조사해봤더니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보유자 비율이 14%에서 많게는 48%까지 줄어들었다. 허약예방운동 프로그램 또한 지난해 기준으로 허약 판정을 받는 노인이 56% 줄어들 정도였다. <br/><br/>진익철 구청장은 “<span class='quot0'>2009년 시행 이후 5000여명 이상이 참가할 정도로 주민 참여와 만족도가 아주 높은 사업</span>”이라면서 “<span class='quot0'>지속적인 검사와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건강한 서초를 만들겠다</span>”고 말했다.<br/><br/>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098.txt

제목: “갑상선암, 수술 전 면역치료가 중요”  
날짜: 201404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51405601  
본문: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는 여전히 암이다. 암 환자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최근 서구화된 식습관이나 고령화, 흡연, 유전적요인 등을 암 발생 요인으로 보고 있다.<br/>2010년 국가 암 등록 자료를 보면 암 발병률 1위가 갑상선암이며 유방암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지난 30년간 국내 갑상선암 발병률이 30배나 높아졌다. 이는 갑상선암 발생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최근 초음파나 검사의 발달로 인한 더 많은 발견과 관련돼 증가하는 의견도 있다. <br/>갑상선암은 악성종양을 말하며 갑상선호르몬을 생산 및 저장했다가 필요한 기관에 내보내는 기능을 한다. 갑상선암이 발병됐을 경우 특별한 증상은 없으며 일부크기 증가나 쉰목소리, 통증, 압박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br/>대부분 갑상선암은 유두암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여포암, 수질암, 미분화암의 순으로 나타난다. 전체 갑상선암중 비교적 덜 위험한 유두암이 전체의 80%를 잡고 있어 비교적 갑상선암 환자 생존률도 높은 편으로 알려졌다.<br/>부산 통합면역암치료 방선휘한의원의 경우 수술 전 면역관리를 받은 환자는 다른 환자들보다 빠른 회복을 보이고 있고, 변비나 소화장애 구토 등의 예상하는 후유증도 작았으며, 검사상 소견도 상당히 좋은 상태로 다양한 호전 사례를 보이고 있다. <br/>방선휘 원장은 “<span class='quot0'>실제 수술로 완치가 가능한 소견의 갑상선암 환자인 김모씨가 본인의 약한 체력과 갑상선 절제로 예상되는 만성피로에 대한 부담감으로 수술을 거부하고 있었으나 면역치료를 받으면서 체력도 좋아지고 심리적인 안정도 되찾아 수술에 대한 용기를 내고 있다</span>”고 설명했다.<br/>이어 “암환자들의 수술로 인한 체력소실, 면역력 저하 공격적 치료에 따른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면역감시체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해주는 면역치료를 받고 전문가의 지도 하에 체계적인 생활관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br/>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099.txt

제목: “아기만은 건강하게...” 항암치료 거부한 엄마 감동의 스토리  
날짜: 201404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51245967  
본문: 남자는 암에 걸린 여자를 살리려고 했고, 여자는 아기를 살렸다. 여자는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지만 남자에겐 아기를 안겨줬다. <br/>흔하지 않은 러브스토리가 언론에 보도돼 감동을 주고 있다. <br/>주인공은 미국의 30대 부부 엘리사벳과 맥스. 두 사람은 2년간 사귀다 결혼에 골인, 부부가 됐다. <br/>사실 엘리사벳은 포기했던 결혼이었다. 충격적인 폐암 진단을 받고 엘리사벳은 치료를 포기하고 그냥 삶을 마감하려 했다. <br/>그런 엘리사벳에게 청혼을 하고 치료를 설득한 건 남편 맥스였다. <br/>청혼한 지 1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린 두 사람은 당장 암치료를 시작했다. 엘리사벳은 수술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았다. <br/>그로부터 3년 뒤 두 사람은 청천병력 같은 말을 들었다. 완치된 줄 알았던 암이 재발했다는 진단이 내려진 것. <br/>하지만 엘리사벳의 몸에선 암세포와 함께 새 생명도 자라고 있었다. 암 재발 판정을 받은 직후 병원은 엘리사벳의 임신을 확인했다. <br/>엘리사벳은 순순히 2차 암수술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다. 엘리사벳은 건강한 태아를 낳겠다며 수술 후 항암치료를 거부했다. 혹시라도 있을 부작용을 걱정해서다. <br/>올해 1월 엘리사벳은 건강한 딸을 낳았다. 그러나 이미 엘리사벳의 몸 전체에 암이 전이된 뒤였다. <br/>엘리사벳은 아기가 태어난 지 2개월 만에 숨을 거뒀다. <br/>사랑하는 여자를 살리기 위해 암 판정 후 청혼을 한 남자, 건강한 아기를 낳기 위해 항암치료를 거부한 여자의 스토리는 외신에 보도되면서 감동을 자아내고 있다. <br/>사진=유튜브 캡처<br/>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100.txt

제목: 완치율 98% ‘착한 암’… 갑상선 과잉 치료 딜레마  
날짜: 201404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32444903  
본문: 최근 급증한 갑상선암 발병률은 의료기술 발달의 영향일까, 과민 반응과 과잉 치료의 결과일까. 갑상선암이 의료계의 큰 관심사로 떠올랐다. KBS 1TV는 2일 밤 10시에 방송하는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착한 암의 두 얼굴, 갑상선’을 조명한다. <br/><br/>목의 앞쪽 중앙, 목젖 아랫부분에 있는 갑상선은 호르몬을 분비하면서 몸의 생존과 성장을 관장한다. 갑상선 세포변이로 생기는 갑상선암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우리나라 갑상선암은 대부분 온순한 ‘유두암’이다. 완치율도 98%에 가깝기 때문에 흔히 갑상선암을 ‘착한 암’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림프절뿐 아니라 폐, 뼈, 뇌 등으로 전이가 잘되고 15%는 난치성암으로 성격이 바뀌기도 한다. 조기에 발견해 적절한 치료법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일본에서는 크기가 1㎝ 이하인 갑상선 유두암에 대해서는 관찰 치료를 권유하기도 한다. <br/><br/>갑상선암은 45세가 넘으면 꼼꼼히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이가 많을수록 예후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방사능은 갑상선암을 유발하기도 한다. 현대인들은 지나친 엑스레이 촬영과 빈번한 비행기 여행 등으로 생활 속 방사능 피폭량이 늘고 있는 추세다. 프로그램에서는 갑상선암의 증세와 예방법, 방사능 과다 노출의 문제점 등을 알아본다. <br/><br/>호르몬 분비량에 따른 기능 이상 문제도 진단한다.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 추위를 많이 타고 만성피로와 의욕 저하가 온다. 반대로 기능이 과해지면 더위를 쉽게 느끼고 흥분을 잘하는 등의 증상을 보인다. 갑상선 기능 이상이 지속되면 갑상선암에 걸리기 쉬운지 등의 궁금증도 풀어본다. <br/><br/>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101.txt

제목: [영화 多樂房] 어거스트:가족의 초상  
날짜: 201404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32353146  
본문: 메릴 스트립, 줄리아 로버츠, 이완 맥그리거, 베네딕트 컴버배치…. 이토록 화려한 캐스팅의 영화를 만나기는 쉽지 않다. 한 가족으로 분한 그들의 열연과 호흡은 경이로울 정도다. 그러나 이렇게 황홀한 각본을 가진 영화를 만나기는 더욱 어렵다. 트레이시 레츠의 유명 희곡 ‘어거스트: 오세이지 카운티’를 원작으로 한 이 작품은 ‘ER’, ‘웨스트 윙’ 등 인기 드라마의 각본을 담당해 왔던 존 웰스 감독을 통해 스크린에 완벽히 재현되었다. <br/><br/>흩어져 살던 세 딸이 아버지가 자살하자 고향인 오세이지 카운티에 모인다. 홀로 남은 어머니 ‘바이올렛’은 암환자에 약물중독자로 경미한 인지장애까지 겪고 있다. 큰딸 ‘바버라’는 별거 중인 남편과 대마초를 즐기는 중학생 딸(진)을 데려오고, 철없는 막내 ‘캐런’은 늙은 호색한을 약혼자라며 대동한다. 유일하게 부모님 근처에 살고 있던 둘째 ‘아이비’는 사실 사촌과 열애 중이며 그와 이 시골을 떠나려 하고 있다. <br/><br/>이 영화의 백미는 장례식이 끝나고 이모의 식구들까지 모두 한 테이블에 둘러앉아 저녁식사를 하는 장면이다. 인물들 각각의 캐릭터가 완성되고 재치 넘치는 입담의 향연이 펼쳐지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좁은 식당을 배경으로 연속해서 벌어지는 몇 개의 상황극을 배우들의 명연기와 촌철살인의 대사만으로 흥미진진하게 끌어간 연출이 훌륭하다. <br/><br/>이 장면에서 바이올렛의 과거는 플래시백 하나 없이 대화 속에 생생히 되살아나는데, 가족들의 상처와 약점을 하나씩 들춰내는 그녀의 독설은 불우했던 어린 시절과 잔인한 어머니에게서 받은 상처에서 기인한 것임이 잘 드러난다. 그리고 이런 바이올렛의 무례를 참지 못해 육탄전까지 벌이는 바버라의 기질은 사실 놀라울 만큼 자신의 어머니와 닮아 있다. 가족의 초상(肖像)이란 이렇듯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벗어날 수 없는 유전의 굴레에 대한 하나의 증표인 것이다. <br/><br/>결국 모든 가족들이 떠나고 홀로 남겨진 바이올렛이 그토록 무시하던 인디언 하녀의 어깨에 기대는 장면은 잉그마르 베르히만의 ‘외침과 속삭임’(1972)의 한 장면을 연상시킨다. 세 자매가 등장하고, 한 가족의 비밀과 소통을 소재로 하며, 주로 집이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사건이 진행된다는 점 등 두 작품의 유사성은 크다. ‘외침과 속삭임’에서도 죽어가는 큰언니를 끝까지 돌보는 것은 자매들이 아닌 하녀이다. <br/><br/>그렇게 두 작품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으로부터 영혼의 안식과 위로를 얻게 된다는 비극적이고도 희망적인 역설을 공유한다. 그러나 가식과 위선으로 욕망과 본성을 포장하던 베르히만의 차가운 세 자매는 진작 사라졌다. 현대에는 자신의 감정과 상황에만 집중하는 이기심과 날선 독설이 가족들을 병들게 하고 외롭게 할 뿐이다.<br/><br/>평범한 가족의 구성원들도 공감할 만한 범인류적 정서가 강하기에 ‘고품격’에 방점을 찍어 추천하고픈 작품이다. 3일 개봉. 15세 이상 관람가.<br/><br/>윤성은 영화평론가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102.txt

제목: “백혈병 환자에 가족 골수 이식한 뒤 자연살해세포 주입 암 재발 절반 줄여”  
날짜: 201404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32237038  
본문: 난치성 백혈병 환자에게 가족의 골수를 이식한 뒤 암세포를 파괴하는 ‘자살특공대 세포’인 자연살해(NK)세포를 주입해 암 재발을 줄이고 생존율을 높이는 가능성을 국내 연구진이 제기했다.<br/><br/><br/>한국생명공학연구원 면역치료제연구센터 최인표 박사팀과 서울아산병원 혈액내과 이규형 교수팀으로 구성된 공동 연구진은 NK세포의 ‘불응성 급성골수성 백혈병’에 대한 임상(2상) 결과 반일치 골수 이식 후 NK세포를 주입했을 때 재발률은 38%로, 투여하지 않은 환자 그룹의 재발률 75%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고 1일 밝혔다. 관련 성과는 골수이식 임상 전문지인 미국골수이식학회지 온라인판에 지난달 게재됐다.<br/><br/><br/>불응성 급성골수성 백혈병이란 백혈병 세포가 항암제에 내성을 나타내 치료 효과가 없는 단계의 백혈병을 말한다. 골수 이식을 해도 치료 효과를 보기 힘든 이 질환을 정복하기 위해 아산병원은 2004년부터 부모-자식 간 골수 이식을 가능하게 하는 백혈구 항원-반일치 골수이식 방법을 개발해 실용화했다. 골수 기증자를 찾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대안으로 주목받은 방식이다.<br/><br/><br/>한편 생명연은 2000년 초부터 백혈구 림프구 속에 존재하며 암세포를 파괴하는 세포인 NK세포를 분화, 증식시키는 핵심 원천 기술을 확보했다. 이 기술을 통해 기존 기술로 얻을 수 있던 양보다 10배 정도 증폭된 NK세포를 얻을 수 있었다.<br/><br/><br/>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103.txt

제목: “두통약 ‘아스피린’, ‘대장암’ 치료에 효과”  
날짜: 201404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51144774  
본문: 두통치료제·해열제·진통제·항류머티즘제 등으로 잘 알려진 아스피린이 대장암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br/>미국 과학매체 라이브 사이언스닷컴은 네덜란드 레이덴 대학 메디컬 센터 연구진이 아스피린 복용 시 체내에서 항암작용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특정 단백질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고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br/>연구진은 2002~2008년 사이 대장암 수술을 받은 환자 999명의 종양 조직을 분석한 결과, 주목할 만한 사실을 알아냈다. 이들 중 평소 정기적으로 아스피린을 복용했던 환자는 총 182명 이었고 그중 2012년 1월 사망자수는 69명이었다. 반면 평소 아스피린을 복용하지 않았던 817명의 환자 중 같은 해 사망자수는 396명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br/>연구진은 아스피린 복용 시 생성되는 단백질 항체인 HLA(human leucocyte antigen, 조직적합항원)가 암 면역체계에 특별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추정했지만 아직 정확한 기전(機轉)은 밝혀지지 않았다.<br/>레이덴 의료센터 게릿 장 리퍼 박사는 “<span class='quot0'>이는 아스피린이 암세포 성장과 전이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span>”라며 “<span class='quot0'>아직 아스피린을 항암제라 정의할 수는 없지만 만일 명확한 작용원리가 증명되면 값비싼 암 치료 비용이 상당부분 절감 될 것</span>”이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span class='quot0'>현재 아스피린을 항암제로 추천하기 위한 심사가 진행되는 중</span>”이라고 덧붙였다. <br/>한편 이에 대해 미국 컬럼비아 대학 종양학자 알프레드 뉴것은 “<span class='quot1'>당장 내 환자에게 아스피린을 추천할 단계는 분명 아니다</span>”라며 “<span class='quot1'>하지만 아스피린이 대장암에 효과를 보인다는 것은 연구해볼만한 가치가 있다</span>”고 설명했다. <br/>자료사진=포토리아　<br/>조우상 기자 wscho@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104.txt

제목: ‘직장 스트레스’가 건강 갉아먹는 ‘진짜 이유 5가지’  
날짜: 2014033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51030308  
본문: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 적성과 상관없이 생계 등의 현실적인 이유로 회사 일을 마지못해 하는 직장인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br/>실제로 최근 미국 통계자료를 보면 직장인들 중 본인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전체의 20~40%에 이르고 이들 대부분은 “<span class='quot0'>회사일은 정말 마음에 안 들지만 월급 때문에 할 수 없이 한다</span>”고 호소하고 있다. <br/>하지만 이렇게 마지못해 하는 직장생활은 결국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미국 온라인매체 허핑턴 포스트는 건강 전문가들의 조언이 첨부된 “<span class='quot1'>직장스트레스가 건강을 악화시키는 이유 5가지</span>”를 26일(현지시간) 건강 섹션에 게재했다. 최근 직장 스트레스와 건강 사이에서 고민 중인 분들을 위해 해당 항목을 소개한다.<br/>1. 직장 스트레스는 체중을 증가 시킨다.<br/>하루 종일 상사에게 스트레스 받고 각종 업무에 시달리다 보면 원초적 욕구가 강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식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퇴근 후 저녁식사가 과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야식으로 확장돼 당신의 체중을 급격히 늘어나게 한다는 것. 힘들어도 먹는 것보다는 운동이나 음악 감상 등 조금 더 건전한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 게 현명하다. <br/>2. 직장 스트레스는 몸 면역체계를 약화시킨다.<br/>업무에서 가장 스트레스가 심해지는 경우는 열심히 일한 만큼 인정받지 못하고 역으로 공격을 당하거나 모함을 받을 때가 아닐까? 직장인이라면 한번 쯤 겪는 이런 불상사는 극도로 신경을 민감하게 만들어 우울증을 야기 시키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최근 심리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유발된 우울증이 30일 이상 지속될 경우 몸 면역체계에 이상을 일으켜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게 만든다고 한다. 조금이라도 우울증이 느껴진다 싶으면 정신과를 찾아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다. <br/>3. 직장 스트레스는 대인관계를 축소시킨다.<br/>직장일도 결국 사람과 사람사이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이는 본인 주변의 인간관계로 이어지게 된다. 여기에 스트레스가 개입되면 직장 내에서는 물론 가정생활에까지 악영향을 끼쳐 가장 친밀한 사람들과도 사이가 어색해질 가능성이 높다. 적어도 친밀한 사람들과는 스트레스에 대해 허심탄회 털어놓을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다.<br/>4. 직장 스트레스는 수면을 박탈한다.<br/>인간의 몸은 수면을 취하는 동안 각종 화학작용을 일으키며 하루 동안 쌓인 피로와 독소를 치료한다. 하지만 직장 스트레스가 강하게 남아있다면 뇌신경을 계속 자극해 수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결국 몸도 치료되지 않아 악순환이 반복되게 한다. 아무리 짜증나는 일이 생각나도 잠만은 제대로 잘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br/>5. 직장 스트레스는 질병으로 이어진다.<br/>직장일이 싫어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면 결국 병을 얻게 된다. 최근 미국 의학 연구에 따르면, 업무에 스트레스를 심하게 느낀 간호사들이 후에 암, 당뇨, 심혈관 질환 등을 앓는 경우가 약 2만 건 가량 보고됐다. 이는 마음이 병을 앓기 시작하면 결국 치명적 질환으로 이어진다는 것으로, 수동적이기 보단 능동적 대처가 필요함을 알려준다. 즉, 업무 자체가 맞지 않으면 이직 혹은 부서 이동을 적극 추진하던가, 동료나 직장 상사와 갈등이 심하다면 속에만 쌓아두지 말고 실질적인 대화를 통해 응어리를 푸는 등의 행동이 도움이 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br/>자료사진=포토리아<br/>조우상 기자 wscho@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105.txt

제목: 암환자 동생 대신 임신…대리모 자청한 언니 감동  
날짜: 2014033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50959059  
본문: 암에 걸려 임신이 어려운 동생을 위해 대리모를 자청한 언니가 있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br/>영국 켄트주에 사는 테리(31)는 지난 2012년 자궁경부암을 선고받았다. 당시 의료진은 테리에게 자궁경부암 치료로 인한 부작용으로 불임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고, 실제로 그녀는 이후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됐다.<br/>테리와 그녀의 남편에게는 이미 두 살 된 딸이 있었지만, 아이를 더 낳고 싶었던 꿈이 무너지자 실망을 금치 못했다.<br/>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난자를 채취해 장기 냉동보관하기로 한 뒤 곧장 치료에 들어갔지만 아이를 더 낳고 싶어하는 테리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다. <br/>낙심하는 그녀를 위해 친언니인 엘리(33)가 나섰다. 동생을 위해 아이를 낳아주기로 결심한 것.<br/>엘리는 두 번의 시도 끝에 대리임신에 성공했고 오는 5월 출산을 앞두고 있다.<br/>테리는 “언니와 나는 다른 가족에 비해 유독 관계가 가까웠다. 그리고 내게 새로운 미래를 가져다주었다”면서 “나는 새로 태어나는 아이를 ‘우리들의 아들’로 생각하고 함께 키우고 싶다”고 희망했다.<br/>이어 “언니 뱃속에 있는 아들이 커서 자라면 이모가 자신을 낳아주셨으며 언제나 특별한 가족이 되어 주리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br/>2013년 완치 선고를 받았고, 신의 선물처럼 언니를 통해 새 아이도 볼 수 있게 된 테리는 “남편과 나는 언니에게 매우 감사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이 매우 행복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br/>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106.txt

제목: 몸에 좋은 당근, 남자에게 더 좋은 이유는?  
날짜: 201403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50853287  
본문: 우리 몸에 좋은 당근이 남성의 전립선암 발병률을 현저히 떨어뜨린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전립선암은 우리나라 남성암 중 증가율이 가장 높아 그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는 질환이다. 유럽영양학저널(European Journal of Nutrition)에 실린 최신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당근을 꾸준히 섭취한 남성은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전립선암 발병률이 18%나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br/><br/>이는 중국 저장대학 연구진이 당근의 항암 효과를 조사한 세계의 서로 다른 연구 자료 10개를 수집해 ‘메타분석’한 것. 이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주제로 실시된 연구논문을 종합해 분석하는 연구 기법이다.<br/><br/>연구진은 다소 엇갈리는 연구 결과를 보인 이들 연구자료들의 데이터를 토대로 암 발병에 관한 전체적인 효과를 분석했다고 밝혔다.<br/><br/>대부분 연구는 1주에 3~5회 정도 당근을 섭취한 남성이 1주에 1회 이하를 섭취한 이들과 비교한 것이다. 연구진은 메타분석을 통해 당근이 전립선암 발병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했다. 심지어 조사대상자들이 비만일 경우 다른 요인 때문에 질병에 대한 발병률이 증가해도 이런 영향은 마찬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br/><br/>또 연구진은 당근이 전립선암의 발병률을 감소시키는 정확한 이유를 밝혀내진 못했지만, 당근에 함유된 카로티노이드 성분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카로티노이드는 카로틴과 유사한 황색 등의 색소군으로 항암 효과가 있으며 정자의 운동성을 활발하게 하는 것으로도 밝혀졌다.<br/><br/>한편 전립선암은 갑상선암과 더불어 생존율이 높아 ‘착한 암’으로 불리고 있지만 그 증가율이 높아 국내 남성암 중에서는 현재 발병률 5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br/><br/>사진=포토리아<br/><br/>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107.txt

제목: “고기 구워먹으려면 흑맥주에 절여라”…발암물질 급감 확인  
날짜: 201403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50749740  
본문: 고기를 맥주에 절인 뒤 구우면 발암물질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미국 사이언스데일리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br/>이 발암물질은 고기를 불에 직접 굽는 등 고온 조리 시 발생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로, 담배연기나 자동차의 배기가스에도 존재한다. 동물 실험을 통해서 암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아직 직접적 인체실험은 실시하지 않았지만 유럽연합(EU)은 위원회규정을 통해 이 물질을 발암과 연관된 주요 지표로 규정하고 있다.<br/>연구팀에 따르면 이전의 여러 관련 연구에서도 고기를 맥주와 와인, 차(茶)에 절이면 발암물질을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맥주의 종류에 따라 발암물질 농도에 차이를 보인 연구결과를 얻기는 이번이 처음이다.<br/>연구팀은 돼지고기 표본에 필스너 맥주(황금색 라거의 일종)와 무알코올 필스너 맥주, 흑맥주(에일 맥주 방식으로 제조된 것)를 4시간 동안 숙성시켜 숯으로 가열하는 그릴에서 ‘완전히 익혀’(웰 던) 분석했다.<br/>그 결과, 흑맥주에 절인 돼지고기에서 검출된 8개의 주요 발암물질(PAH) 수치가 다른 맥주에 절인 고기에서 나온 물질보다 50% 이상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br/>연구에 참여한 포르투갈 포르투대학 이사벨 페레이라 박사는 “<span class='quot0'>결론적으로 고기를 맥주, 그중에서도 흑맥주에 절여 섭취하는 것이 암 발병률을 줄일 수 있는 적절한 전략이 될 것</span>”이라고 말했다.<br/>연구팀은 그릴에 구운 고기의 소비와 대장암의 높은 발병률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br/>이번 연구결과는 미국화학학회(ACS)가 발행하는 ‘농업·식품화학지’(Journal of Agricultural and Food Chemistry) 3월 8일자에 실렸다.<br/>사진=포토리아<br/>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108.txt

제목: 몸에 좋은 당근, 남성에 더 좋은 이유  
날짜: 201403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50711294  
본문: “<span class='quot0'>당근 먹으면 전립선암 발병률 낮춘다</span>”<br/>우리 몸에 좋은 당근이 남성의 전립선암 발병률을 현저히 떨어뜨린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전립선암은 우리나라 남성암 중 증가율이 가장 높아 그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는 질환이다.<br/>유럽영양학저널(European Journal of Nutrition)에 실린 최신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당근을 꾸준히 섭취한 남성은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전립선암 발병률이 18%나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br/>이는 중국 저장대학 연구진이 당근의 항암 효과를 조사한 세계의 서로 다른 연구 자료 10개를 수집해 ‘메타분석’한 것. 이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주제로 실시된 연구논문을 종합해 분석하는 연구 기법이다.<br/>연구진은 다소 엇갈리는 연구 결과를 보인 이들 연구자료들의 데이터를 토대로 암 발병에 관한 전체적인 효과를 분석했다고 밝혔다.<br/>대부분 연구는 1주에 3~5회 정도 당근을 섭취한 남성이 1주에 1회 이하를 섭취한 이들과 비교한 것이다.<br/>연구진은 메타분석을 통해 당근이 전립선암 발병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했다. 심지어 조사대상자들이 비만일 경우 다른 요인 때문에 질병에 대한 발병률이 증가해도 이런 영향은 마찬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br/>또 연구진은 당근이 전립선암의 발병률을 감소시키는 정확한 이유를 밝혀내진 못했지만, 당근에 함유된 카로티노이드 성분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카로티노이드는 카로틴과 유사한 황색 등의 색소군으로 항암 효과가 있으며 정자의 운동성을 활발하게 하는 것으로도 밝혀졌다.<br/>한편 전립선암은 갑상선암과 더불어 생존율이 높아 ‘착한 암’으로 불리고 있지만 그 증가율이 높아 국내 남성암 중에서는 현재 발병률 5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br/>사진=포토리아<br/>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109.txt

제목: “봄날 햇볕 자주 쬐면 ‘심근경색’ 위험↓”  
날짜: 201403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50658556  
본문: 따뜻한 햇볕과 봄바람이 불어 절로 산책 생각이 간절해지는 요즘, 일광욕이 심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br/>최근 이탈리아 이스턴 피에몬테 대학 심장의학과 모니카 베르도이아 박사는 일광욕으로 체내에서 생성되는 비타민D가 심혈관질환 예방에 큰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br/>모니카 박사와 연구진은 성인남녀 1,500명에 대한 혈관 조영 검사(피부를 3mm 정도 절개 한 뒤 2mm 내외 얇은 관을 혈관에 넣고 조영제라는 약물을 주입해 동맥, 정맥을 조사하는 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대상자 70%의 비타민D 수치가 현저히 낮게 나왔고 이들 중 32%는 심혈관계 질환 유발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br/>비타민D 수치가 평균보다 적을 경우 협심증, 심근경색과 같은 관상동맥질환을 앓게 될 확률이 2배 가까이 높아지기에 이번 연구 결과가 가지는 중요성은 상당히 높다. 또한 최근 의학계에서는 비타민D 결핍이 당뇨병, 고혈압, 다발성 경화증, 암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설득력 있는 보고가 자주 등장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한다. <br/>모니카 박사는 “<span class='quot0'>해당 연구 결과는 비타민D 결핍이 심장질환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를 통해 이를 유발시키는지는 아직 추가연구가 필요하다</span>”며 “<span class='quot0'>평소 일광욕, 생선과 계란 섭취, 꾸준한 운동 등을 해주면 분명 심장건강에 좋은 영향을 줄 것</span>”이라고 전했다. <br/>자료사진=포토리아　<br/>조우상 기자 wscho@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110.txt

제목: “노화방지 호르몬 치료, 오히려 수명 단축 시켜”  
날짜: 201403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50650374  
본문: 젊고 건강한 삶을 오랫동안 지속하고 싶은 것은 인간들의 보편적 바람이다. 이에 성장호르몬, 스테로이드 호르몬(DHEA),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IGF-1) 등을 이용한 노화방지치료가 자주 활용되는 요즘 오히려 이런 치료가 역으로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br/>최근 미국 뉴욕 앨버트 아인슈타인 의과대학(Albert Einstein College of Medicine) 연구진들은 성장호르몬을 이용한 ‘항 노화 치료’가 인체의 자연적인 질병 방어력을 약화시켜 장수를 방해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br/>연구진은 성인남녀 184명의 체내 IGF-1(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인슐린과 구조가 비슷한 분자량 7,500 폴리펩티드로 이뤄짐) 혈중 농도변화를 일주일 단위로 11년에 걸쳐 정밀 추적 조사한 결과 특이점을 발견했다. <br/>조사기간 과정에서, 암이 발병한 참가자들 중 IGF-1 수치가 낮은 그룹은 전체의 75%가 여전히 생존했던 반면 IGF-1 수치가 높았던 그룹은 단 25%만 생존했다. 이는 IGF-1 수치가 낮을수록 암 등의 질병에 신체가 강한 저항력을 보였다는 것을 나타낸다. IGF-1 외에 성장호르몬, 스테로이드 호르몬(DHEA) 수치가 높을수록 심혈관 질환, 관절 질환 등이 유발되는 경우가 많았다. <br/>하지만 이 연구결과만으로 성장 촉진제가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고 단정 짓기는 이르다. 올 2월 국내 중앙대 병원 연구진은 앞서 언급한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IGF-1)가 포함된 5가지 성장인자 혼합물이 체내 콜라겐 형성을 촉진해 상처 치유를 보다 활성화시킨다는 것을 세포·동물실험을 통해 밝혀낸 바 있다. <br/>다만 해당 연구가 강조하는 것은 호르몬 치료 자체에 대한 부정이 아닌 ‘자연스러운 노화과정을 약에 의존해 억지로 거스르면 체내 자체 방어능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는 것이다. <br/>연구를 주도한 앨버트 아인슈타인 의과대학 소피아 밀맨 교수는 “<span class='quot0'>노화방지 치료는 일시적으로 젊음을 찾아줄 수는 있지만 영구적인 건강을 보장하지는 않는다</span>”고 전했다.<br/>한편 해당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인 ‘Aging Cell’에 최근 발표됐다. <br/>자료사진=포토리아　<br/>조우상 기자 wscho@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111.txt

제목: [TV 하이라이트]  
날짜: 201403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23629991  
본문: ■매버릭(KBS1 밤 12시 10분) 매버릭은 매력적 외모의 직업 도박사로 낭만적인 모험을 사랑했던 남자다. 그가 도박사로 널리 이름을 날리게 되고 명성도 높아질 무렵 전국 규모의 포커대회 챔피언십이 열린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대회 참가를 결심하고 길을 떠난 매버릭은 애너벨이라는 여류 도박사를 만난다. 매버릭은 그녀에게 계속 골탕을 먹으면서도 동행을 하게 된다. <br/><br/><br/>■사남일녀(MBC 밤 10시) 늦둥이 아들 배우 김우빈이 합류한다. 우빈은 대단한 포부를 품고 고향으로 향한다. 하지만 큰형님의 시기와 구박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차례로 우빈을 맞이하는 형들의 실망 가득한 눈빛에 고개를 숙이고 만다. 과연 늦둥이 우빈의 앞날은 순탄할 수 있을까. 강원도 춘천에서 만난 엄마, 아빠에게 인사를 하며 더욱더 따뜻하고 즐거워진 일상을 따라가 본다.<br/><br/><br/>■응급남녀(tvN 밤 8시 40분) 진희는 창민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결혼반지에 대해 묻는다. 국천수는 창민을 걱정하며 떠난 진희를 보내고 생각 끝에 어딘가 엽서 한 장을 붙인다. 진희와 창민은 암 환자의 치료 방법을 찾고자 함께 밤을 새우고, 국천수는 심지혜의 전화를 받고 환자를 살리고자 응급실로 향한다. 창민은 국천수에게 그동안의 행동들을 사과하지만 국천수는 오히려 창민을 격려한다.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112.txt

제목: [씨줄날줄] 안좌도의 김환기 미술관/서동철 논설위원  
날짜: 201403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22722002  
본문: 운 좋게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반 고흐 미술관을 두 차례 구경할 수 있었다. 처음엔 ‘세계 최대의 반 고흐 컬렉션’이라는 미술관의 명성을 확인하는 즐거움이 컸다. ’펠트 모자를 쓴 자화상’이나 ‘12송이의 해바라기’, ‘폴 고갱의 의자’, ‘아이리스’처럼 그림책에서 흔히 보던 거장의 작품이 망라되어 있었다. 다시 갔을 때는 ‘주요한 소장품이 일본 전시에 나오니 양해를 바란다’는 글귀가 내걸려 있었다. 전시는 수장고에 남아 있던 소박한 자료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작가의 일생을 재구성한 ‘고육지책’의 감동이 걸작으로 가득 찼을 때보다 오히려 컸다.<br/><br/><br/>엊그제 전남 신안의 안좌도를 찾았다. 국민화가로 대접받는 수화 김환기(1913~1974)의 고향이다. 수화가 살던 시절이나 지금이나, 목포여객선터미널에서 뱃길로 1시간 20분 남짓 걸리는 낙도다. 수화가 태어날 당시의 이름은 기좌도였지만, 간척사업으로 이웃 안창도와 이어지면서 한 글자씩 따 안좌도가 됐다고 한다. 이곳에는 1926년 그의 부친이 백두산 적송을 사들여 지었다는 기와집이 남아 있다. 마을 곳곳에 수화의 대표작을 재현해 놓았지만, 생가(生家)는 그의 체취가 남아 있는 유일한 흔적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br/><br/><br/>신안군은 이 섬에 김환기 미술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수화의 생가에서 멀지 않은 신촌리 저수지 옆에 면적이 10만㎡에 육박하는 부지를 사들였고, 공모전을 거쳐 설계도 확정한 상태라고 했다. 실제 미술관 부지는 그림 같은 산봉우리를 배경 삼아 작지만 아름다운 호수가 내려다보이는 명당이다. 미술관을 건립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22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신안군처럼 작은 지방자치단체로는 대단한 결심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짐작한다.<br/><br/><br/>가장 큰 고민은 당연히 ‘미술관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하는 것이다. 수화의 작품 값은 벌써 천장 높은 줄 모르고 뛰어올랐다. 그러니 군청부터 압해도에 자리 잡은 도서지역 기초자치단체 처지에 좋은 작품을 사들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워낙 작품 값이 비싸니 뜻있는 사람들의 기증을 바라기도 쉽지 않다. 신안군이 현재 확보한 수화의 그림은 단 한 점에 불과하다고 한다.<br/><br/><br/>암스테르담에서의 기억이 참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김환기 미술관을 그의 인생과 미술 세계의 형성과정을 보여주는 공간으로 꾸며보자는 것이다. 신안군도 다르지 않은 생각을 하고 있는 듯했다. 수화의 손때가 묻은 유품도 다수 확보해 놓았다고 한다. 안좌도의 김환기 미술관이 명품이 즐비한 서울의 환기 미술관보다 더 큰 감동이 있는 한국 현대미술의 새로운 순례지로 태어나기를 바란다.<br/><br/><br/>서동철 논설위원 dcsuh@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113.txt

제목: 암 친구 응원차 삭발했다 정학당한 소녀 논란  
날짜: 201403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50425030  
본문: 미국의 한 소녀가 암에 걸린 친구를 응원하기 위해 삭발을 했다가 복장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학을 당한 사건이 벌어졌다.<br/>다소 황당한 이번 사건의 주인공은 콜로라도의 특수공립학교인 캡락 아카데미 차터 스쿨에 다니는 올해 9살의 여학생 캄린 렌프로. 소녀는 지난 24일(현지시간) 삭발하고 등교했다가 학교 측으로 부터 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임시정학을 받았다. 특히 캄린은 머리카락이 다 자랄 때까지 학교로 돌아올 수 없다는 통고까지 받았다.<br/>논란은 캄린이 삭발한 사유를 학교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지난 주말 캄린은 오랜시간 소아암인 신경모세포종으로 치료 중인 친구 댈라니 클레멘트(11)를 응원하기 위해 머리카락을 밀었다. <br/>순수한 의도의 삭발로 어른들에게 칭찬받아야 할 행동이었지만 학교 측은 규정을 들먹이며 캄린을 교실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이같은 사실은 화가 난 캄린의 엄마가 페이스북에 전말을 올리면서 알려졌으며 여러 언론들이 보도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br/>결국 학교 측은 사건 다음날 저녁 이사회를 소집해 캄린의 정학을 풀었다. 학교 측은 “복장 규정은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이라면서 “이번 상황은 특수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예외로 두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br/>캄린은 “친구를 위해 삭발한 것은 올바른 행동이었다고 생각한다” 면서 “아픈 친구도 나의 행동에 무척이나 고마워했다”고 밝혔다.　 　 <br/>사진설명=왼쪽은 캄린, 오른쪽은 클레멘트　<br/><br/>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114.txt

제목: 아베 히로유키 이사장 초청세미나, 국내서 개최돼 ‘화제’  
날짜: 201403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22052661  
본문: 암 치료에 대한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해 세계 유수의 의료 학회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아베종양내과 아베 히로유키 이사장 초청세미나가 지난 17일 국내에서 열려 화제다. <br/><br/>26일 관계자에 따르면,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이번 초청세미나는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 치료’를 주제로 진행됐다. 상당수의 암 관련 국내 의료 전문가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강의 후에는 활발한 의견교환과 발전논의가 이뤄졌다는 후문이다.<br/><br/>이 치료법은 기존의 보편화한 방식과는 달리 HLA-항원 검사, 암별 종양마커 검사 등을 활용, 환자별 항암제에 대한 내성 정도와 암세포의 발전 이유와 특성 등을 파악해 맞춤 치료를 하는 것이 특징이다. <br/><br/>신 수지상세포 암 백신 치료의 장점은 뛰어난 호전 효과뿐 아니라, 재발 및 전이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게 한다는 데도 있다. 암의 높은 사망률의 원인이 재발과 전이에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기존 치료법의 한계를 일정 부분 극복했다는 평가다. <br/><br/>이 치료법은 여러 시행착오와 발전을 거쳐 현재의 수준에 이르렀다. 1996년 일본의 아카가와 키요코 박사가 세계 최초로 단구에서 수지상세포를 유도하는 데 성공하면서 태동했다. 이후 세계 여러 학회에서 T세포를 인식할 수 있는 암 항원 발견 보고가 이어졌으며, 2011년에는 미국 록펠러대 의대 교수가 선천성 및 후천성 면역의 연결고리인 수지상세포를 발견해 노벨생리의학상을 수상하면서 본격적인 실용화 논의가 시작됐다.<br/><br/>아베 이사장은 “<span class='quot0'>세계 각지에서의 꾸준한 연구노력을 통해 지금의 단계에 들어설 수 있었다</span>”며 “<span class='quot0'>실제 연구발표를 통해 신 수지상세포 암 백신 치료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span>”고 전했다.<br/><br/>아베 이사장은, 지난해 1~9월 진행성 전이·재발암 환자 39명을 대상으로, 신 수지상세포 암 백신 치료와 복합 면역세포치료를 총 6회 실시한 결과 74.4%의 환자에게서 효과를 거뒀다. 완전 관해 된 환자가 2명, 부분 관해 된 환자 5명, 정지되거나 안정된 환자 22명, 진행된 환자가 10명라고 설명한다.<br/><br/>아베종양내과의 이 같은 성과에는 WT1펩타이드와 MUC1펩타이드의 역할이 컸다. 개인별 유전자검사와 암 항원 검사를 통해 정상 혈액 중 4~8%의 단구에 이 펩타이드들을 추가함으로써, 2~3시간의 성분 채혈과정을 거쳐야 하는 신 수지상세포 암 백신 치료방식을 개선했다. 이는 개인별 암 항원을 찾아 추가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br/><br/>아베 이사장은 “<span class='quot0'>과거에는 WT1 펩타이드 중 일부만 사용했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떨어졌던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WT1펩타이드 전체와 MUC1펩타이드 포함, 평균 3~5개의 펩타이드를 사용해 이 문제점을 극복해 냈다</span>”고 전했다.<br/><br/>이어 “수시상세포를 동결보관 하게 되면 치료율이 급감하게 된다”며 “매번 소량만 채혈해 선도 높은 백신을 제조함으로써 기존 동결방식의 문제점 또한 해결했다”고 덧붙였다.<br/><br/>한편, 아베종양내과의 신 수지상세포 암 백신 치료에 대한 추가 임상연구결과는 오는 6월14일 일본 삿포로에서 개최되는 제18회 국제개별화 의료학회에서 발표될 예정으로 알려졌다.<br/><br/>연예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115.txt

제목: “가장 크지는 않지만 ‘좋은 병원, 강한 병원’ 만들 것”  
날짜: 201403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21855287  
본문: 순천향대병원이 개원 40주년을 맞아 ‘새롭게 태어나는 서울의 중심 병원’을 선언했다. 제2의 탄생을 통해 ‘강한 병원, 좋은 병원’으로 거듭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2년 동안 외래 리모델링을 마무리한데 이어 올해부터는 병동 리노베이션을 시작했다. 진료 편의성을 높여 환자들의 불편을 줄이고, 치료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서유성 병원장은 이런 변화를 “<span class='quot0'>리노베이션을 통한 이노베이션</span>”이라고 설명했다. 서유성 병원장을 만나 순천향병원의 비전을 들었다.<br/><br/>서 병원장은 “<span class='quot0'>우리 병원이 초대형 병원은 아니지만 강점이 많다</span>”고 말문을 열었다. ‘인간사랑’, ‘생명존중’이라는 순천향 정신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병원이라는 것이다. 그는 “설립자께서도 ‘질병은 하늘이 고치는 것이고, 의사는 그 과정을 도울 뿐이다’는 말씀을 남기셨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늘 겸허한 마음으로 진료에 임하라는 가르침이다”면서 “순천향이라는 이름에서 보듯 인정과 배려가 넘쳐 환자들도 ‘의료진과 치료 과정이 기계적이지 않고 인간적이어서 좋다’는 말을 하곤 한다”고 설명했다. <br/><br/>40년 역사를 쌓아오면서 축적한 경험과 다양한 인재를 배출해 품고 있다는 점도 서 병원장이 내세운 자랑거리다. 그는 “우리 병원은 사이버나이프는 물론 최신 방사선 암치료기인 인피니티 등 첨단 장비를 갖춰 인력과 징비 면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했다”면서 “이런 노력 덕분에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서 실시하는 인증 및 평가에서 상위 등급을 획득하는 등 일관되게 우수한 실적을 인정받고 있다. 이는 의료진이 인성은 물론 능력에서도 뛰어나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br/><br/>그간의 경영 성과도 짚었다. “<span class='quot1'>지난 2년 동안 순천향병원은 건실한 경영을 통해 적극적으로 수익 증대를 이뤘으며, 신관 개관에 맞춰 외래검사실, 진료실, 각 센터 등을 리노베이션하는 등 병원 공간의 효율적인 구성과 재배치, 조직문화 활성화를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얻음으로써 새로운 시도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span>”고 설명했다. <br/><br/>이같은 구상의 중심에는 환자가 있다. 그는 “<span class='quot1'>어떻게 하면 환자들이 더 빠르고, 정확하고,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우선 고려했다</span>”면서 “<span class='quot1'>이를 위해 모든 외래 진료가 한 층에서 이뤄지도록 했으며, CT(컴퓨터 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 초음파검사 등 모든 영상의학 검사도 한 곳에서 가능하도록 했다</span>”고 말했다. 그는 “<span class='quot1'>특히, 며칠 후 완공 예정인 응급의료센터가 대폭 확장돼 환자들이 이전보다 훨씬 쾌적한 환경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span>”이라고 기대했다.<br/><br/>서 병원장은 ‘<span class='quot0'>리노베이션을 통한 이노베이션</span>’이 올해의 핵심 과제라고 소개했다. 그는 “<span class='quot1'>이를 위해 ‘경영혁신’ ‘진료환경 혁신’ ‘미래의 먹거리를 위한 혁신’ ‘병원의 위상 혁신’ ‘교직원들의 마음가짐 혁신’을 실천 과제로 제시했다</span>”면서 “<span class='quot1'>이를 위해 클리닉과 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과감하게 선택과 집중 원칙을 적용해 경쟁력을 강화해 가겠다</span>”고 밝혔다. 당일 내원 환자는 당일 진료와 검사를 마무리하는 시스템이나 협력병의원과의 유대 강화, 적극적인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한 국제진료센터 강화 등을 핵심 과제의 실천 방법으로 제시했다. <br/><br/>현재 추진 중인 의료정보화 사업이 내년 초에 완료되고, 통합의료정보 시스템 구축이 마무리되면 진정한 유비쿼터스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서 병원장은 “<span class='quot0'>이를 이루기 위해 직원들이 자율을 향유하되 책임을 다하는 창의적 인식을 가져야 한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이를 위해 나부터 즐겁게 직원과 환자를 대하려고 애쓰고 있으며, SNS를 이용한 소통의 다원화도 꾀하고 있다</span>”고 귀띔했다. <br/><br/>그는 “<span class='quot0'>순천향병원의 비전은 ‘서울 중심의 최고 의료기관’이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이런 비전과 노력이 제대로 정착된다면 10년 후의 순천향병원은 가장 큰 병원은 아닐지라도 ‘좋은 병원, 강한 병원’이 돼있을 것</span>”이라고 자신했다.<br/>　<br/>　심재억 의학전문기자 jeshim@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116.txt

제목: [길섶에서] 갑상선 단상/문소영 논설위원  
날짜: 201403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21635452  
본문: 요즘 갑상선암이 논란이다. 암은 공포스럽지만 갑상선암은 진행속도가 늦고 전이도 거의 되지 않는 ‘거북이 암’으로 착한 암으로 불린다. 한국인은 공격적인 갑상선암이 1% 미만이란다. 그런데 이 암이 한국에서 갑자기 인구 10만명당 81명이나 걸리는 발병률이 높은 암이 됐다. 1986년에는 4.6명 걸리던 암이었으니, 20배나 늘었다. 의료계는 2000년대 초음파 진단기 개발기술이 발전하면서 나타난 과다 진단 현상의 하나라고 설명한다. <br/><br/><br/>갑상선암으로 진단되면 목 좌우에 나비처럼 생긴 갑상선과 부속기관을 수술로 제거할 것을 권유받는다. 이후 평생 호르몬 약을 먹어야 한다. 갑상선은 체온, 소화기능, 피로해소 등 몸의 기능을 적절하게 유지해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인 만큼 약을 먹어도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등 후유증이 우려된다. <br/><br/><br/>따라서 갑상선암이 진단되면 두려워하거나 성급하게 수술을 결정하지 말고, 지켜보면서 결정해야 현명하다. 갑상선 결절도 마찬가지다. 수술을 강권하지 않는 의사와 만나길 기원해야 할 듯하다. <br/><br/><br/>문소영 논설위원 symu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117.txt

제목: [씨줄날줄] ‘액티브X’ 논란/정기홍 논설위원  
날짜: 201403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21631944  
본문: 수년 전 한 모임에서 정보통신부의 간부가 ‘액티브X’의 폐해를 조목조목 말한 적이 있었다. 그는 “국내 인터넷 쇼핑몰이 보안벽으로 외국인이 이용을 못해 손해가 크다”며 열변을 토했다. 인터넷시장이 한창 꽃 피었지만 보안 논쟁도 컸던 때여서 고개를 갸웃했던 기억이다. 그의 지적대로 액티브X가 규제 개혁과 맞물리면서 온라인 상거래를 막는 ‘암적 규제’로 지목돼 다시 다가섰다. 액티브X로 인해 해외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못해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서 전지현이 입었던 ‘천송이 코트’가 중국인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br/><br/><br/>최고의 보안을 자랑하는 액티브X가 왜 ‘인터넷 원흉’이 됐을까. 처음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 것은 아니다. 2000년 초 인터넷뱅킹 서비스가 본격화하면서 보안이 이슈가 됐고 우리만의 방식으로 탄생한 것이다. 공인인증서(온라인 인감도장)를 다운받으려면 어김없이 액티브X를 구동시켜야 한다. 당시에는 MS의 윈도 운영체계(OS)가 보안에 취약해 액티브X는 최첨단의 보안 체계로 대우를 받았다. 하지만 금융거래 등을 할 때마다 액티브X가 허용 버튼을 누를 것을 강요하고, 금융기관의 경우 기관마다 보안시스템을 달리해 놓아 이용자의 불만은 하늘을 찔렀다. 이 방식은 웹 프로그램을 무한하게 허용했지만 연결된 컴퓨터가 바이러스의 소굴이 됐다는 지적도 함께 받는다. 액티브X와 공인인증서가 지금껏 논란의 중심에 선 까닭이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전자서명법 등) 개정에 나섰지만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한 채 무시된 적도 있다.<br/><br/><br/>액티브X가 규제개혁 제1호로 지목돼 생사기로에 섰다. 미래창조과학부는 “<span class='quot0'>모든 브라우저에서 공인인증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액티브X 문제를 해결하겠다</span>”고 밝혔다. 금융당국도 외국인이 공인인증서 없이도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하도록 하겠단다. 외국인에게 먼저 열고, 그다음 내국인에게 허용하기로 방향을 잡은 듯하다. 이렇게 되면 오는 6월부터 외국인이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공인인증서 없이 물건을 살 수 있게 된다.<br/><br/><br/>10여년의 논란치고는 늦은 감이 있다. 인터넷 이용 환경은 많이 변했다. MS의 익스플로러 외에 구글의 크롬, 모질라의 파이어 폭스가 국내에 상륙한 상태다. 스마트폰 시대를 맞아 온라인 쇼핑의 사용 빈도도 폭증하고 있다. 아마존과 이베이의 사이트에선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로 결제가 이뤄진다. 아마존에서 책을 사면 1분이면 족한데 국내 사이트에선 10분이나 걸려서야 되겠는가. 논란의 한편으론 ‘직구’(내국인이 해외사이트서 직접 구입)와 ‘역직구’(외국인의 국내 사이트서 구입)와의 경쟁도 볼만해 졌다.<br/><br/><br/>정기홍 논설위원 hong@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118.txt

제목: ‘암 억제’ 차가버섯… 신이 내린 선물을 캐는 사람들  
날짜: 201403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21453445  
본문: 차가버섯은 16세기 러시아에서 불치병을 치료하는 약재로 여겨졌고, 20세기 들어 구소련에서는 본격적인 약효 연구의 대상으로 주목받았다. 우리나라에서도 암 발병을 억제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약초꾼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br/><br/>26일 오후 10시 45분 방송되는 EBS ‘극한직업’은 차가버섯을 찾아나선 약초꾼들의 고된 여정을 쫓는다.<br/><br/>겨울에서 봄으로 옮겨 가는 시기, 산속에는 예상하지 못한 위험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다. 날씨는 급변하고, 얼었던 땅이 조금씩 녹으면서 발 디디는 곳마다 무너져 내리기 일쑤다.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을 찾아다니는 이들이 바로 약초꾼이다. 그들의 목표는 캐기 어려운 차가버섯. 해발 1000m 이상 고지대에서 자라는 자작나무에서 채취한 것이라야 효험이 있다니, 차가버섯 채취 작업은 험난할 수밖에 없다.<br/><br/>차가버섯 채취는 자작나무 군락을 찾는 것에서 시작한다. 한 발 한 발 힘겨운 발걸음을 이어 가고 산 두 개를 넘어서야 가까스로 자작나무 군락에 다다랐다. 주변을 샅샅이 살핀 뒤 자작나무 밑동에서 차가버섯 포자를 찾아냈고, 3m 높이에 착상한 차가버섯까지 발견했다. 당장 손에 넣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 정도면 향후 채취 가능성은 충분하다. 다음을 기약하고 하산하려는 이들의 발목을 잡는 것은 변덕스러운 날씨. 하늘이 금세 싸라기눈을 쏟아부어 가뜩이나 반나절 산행에 지친 이들의 체력은 급격히 떨어진다. 산은 과연 ‘신이 내린 마지막 선물’ 차가버섯을 찾아 나선 이들에게 품을 내줄까.<br/><br/>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119.txt

제목: 표고버섯 추출물, 자궁경부암 원인균 박멸 - 美 연구팀  
날짜: 201403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50257837  
본문: 표고버섯 추출물이 자궁경부암의 주원인으로 알려진 인유두종바이러스(이하 HPV)를 없애는 데 효과적이라는 새 연구결과가 학계에 보고돼 이목이 쏠리고 있다.<br/>미국 부인종양학회가 올해 주관한 제45회 여성암 연례회의(3월 22~25일)에서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실험 쥐에 표고버섯에서 추출한 활성화 다당류 관련 화합물(이하 AHCC)을 주입한 결과 HPV가 90일 만에 완전히 제거되는 효능을 보였다. 또한 이 추출물은 자궁경부 종양의 성장 속도도 감소시켰다.<br/>연구를 진행한 미국 텍사스대학 건강과학센터 부교수인 주디스 스미스 박사는 “<span class='quot0'>이번 연구결과는 매우 고무적</span>”이라면서 “<span class='quot0'>2008년부터 시작된 이 연구는 AHCC가 HPV 감염을 치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span>”고 설명했다.<br/>AHCC는 흔히 구할 수 있는 식품보조제로 인체가 질병과 싸우는 면역체계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면역물질 중 하나다.<br/>이 추출물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감염 예방과 암 증식 억제에 효과적인 자연살해(NK) 세포와 수지상세포, 사이토카인의 수를 증가시키고 활성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r/>인유두종바이러스인 HPV는 자궁경부암을 가진 사람의 생체검사에서 관련 DNA가 99.7%의 확률로 검출돼 이 암의 주요 발병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br/>이외에 HPV 관련 암으로는 항문암 95%, 인후암 60%, 질암 65%, 외음부암 50%, 음경암 35%의 확률로 연관성을 갖고 있다.<br/>스미스 박사는 “<span class='quot0'>HPV 감염에 관한 치료법을 영양적인 접근으로 지속해서 연구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이전에 HPV를 예방하는 항레트로바이러스 양생법을 입증했었지만 부작용이 없는 치료법이 개발되길 원한다</span>”고 말했다.<br/>이번 연구결과는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등 외신이 보도했다.<br/>사진=포토리아<br/>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120.txt

제목: 새롭게 드러나는 비타민C의 영향력  
날짜: 201403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20851635  
본문: 비타민C의 영향력이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 비타민C 결핍이 알츠하이머 발병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있는가 하면 비타민C가 혈압을 떨어뜨리고, 말기 암환자의 생존 기간을 연장시키며, 노화를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비타민C 무용론과 맞물리는 결과여서 주목된다.<br/>한국식품과학회(회장 이호)가 주최하고 광동제약이 후원해 25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제4회 비타민C 국제심포지엄’에서 미국 밴더빌트대학의 피오나 해리슨 교수는 ‘노화와 알츠하이머 마우스 모델을 통해 본 비타민C의 영향’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span class='quot0'>비타민C가 결핍되면 체내에 아밀로이드가 축적돼 알츠하이머 발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체내 비타민C 수치는 신경근육 및 기억력 결손과 직결되며, 비타민C의 섭취가 인지능력 향상은 물론 노화를 촉진하는 산화 스트레스 해소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span>”고 밝혔다. 그는 이어 “<span class='quot0'>알츠하이머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타민C를 과잉 섭취하기보다 결핍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span>”고 덧붙였다.<br/>일본 지바대학 다카히코 시미즈 교수도 “<span class='quot1'>뼈가 손상된 쥐를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 비타민C 요법이 뼈 손실을 낮추는 것으로 확인됐다</span>”면서 “<span class='quot1'>뿐만 아니라 비타민 요법이 강력한 항산화력을 보여 알츠하이머 발병 감소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span>”고 소개했다.<br/>미국 존스 홉킨스대학 에드가 밀러 3세 교수는 비타민C가 혈압 감소에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그는 22~74세의 혈압 질환자 1407명을 선정, 이들에게 매일 환자에 따라 60~4000㎎의 비타민C를 복용하도록 했다. 그 결과, 혈압이 유의하게 떨어졌으며, 혈관 확장도 확인됐다. 그는 “<span class='quot1'>이같은 효과는 젊은 환자에게서 훨씬 뚜렷했으며, 비타민C 복용이 사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안전성도 함께 확인했다</span>”고 말했다.<br/>서울대의대 이왕재 교수는 비타민C를 세포에 운반하는 수송체 SVCT-2 단백질의 발현이 항암효과와 직접 관련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이 교수는 유방암 세포주를 SVCT-2 비(非)발현군과 다(多)발현군으로 나눈 뒤 이를 농도가 각각 0, 0.5, 1, 1.5mM(몰 농도의 1000분의 1)의 비타민C에 반응시켰다. 그 결과, SVCT-2 비발현군에서는 비타민 농도가 가장 높은 1.5mM에서 50%의 암세포가 사멸한 반면 SVCT-2 다발현군에서는 같은 농도에서 암세포가 100% 사멸했다.<br/>이 교수는 “<span class='quot2'>실험용 쥐에 SVCT-2가 발현하지 않은 암세포주와 많이 발현한 암세포주를 각각 주입한 뒤 비타민C를 피하 주사한 결과, 수송체가 많이 발현한 암세포주에서는 종양이 사라지거나 자라지 못한 반면 수송체가 없는 암세포주를 주사한 쥐와 비타민C를 주사하지 않은 쥐는 죽었다</span>”면서 “<span class='quot2'>임상시험을 통해 이 결과가 확인되면 유방암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것</span>”이라고 기대했다.<br/>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도 나왔다. 최종순 고신대의대 교수는 “<span class='quot3'>134명의 말기암 환자에게 고용량(12g)의 비타민C를 투여한 결과, 이같은 요법을 적용한 81명의 생존 기간이 대조군보다 16배나 연장됐다</span>”면서 “<span class='quot3'>이같은 생존기간 연장 효과는 폐암, 간암, 비호지킨스 림프암, 교모세포종 등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span>”고 전했다.<br/>이어 염창환(대한비타민연구회 회장) 가톨릭대의대 교수는 비타민C가 말기암 환자의 삶의 질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를, 조애리 덕성여대 약학대 교수는 비타민C의 피부 침투성에 대해, 이현규 한양대 교수는 비타민C의 나노캡슐화가 안정성과 세포흡수율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를 각각 발표했다.<br/>이호 식품과학회장은 “<span class='quot4'>비타민C의 효능이 속속 밝혀짐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경제적이면서도 건강에 다양한 이익을 주는 비타민C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span>”고 말했다. 최성원 광동제약 대표는 “<span class='quot5'>앞으로도 산학협동을 통해 비타민C에 대한 공동연구를 계속하는 것은 물론 연구의 성과가 모든 사람들에게 충분히 알려지도록 노력하겠다</span>”고 말했다.<br/>　<br/>심재억 의학전문기자 jeshim@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121.txt

제목: “오진으로 폐암 말기 된 환자에게 위자료 5000만원”  
날짜: 201403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20046138  
본문: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가슴 통증으로 3년여 동안 같은 병원에서 엑스레이 검사를 세 차례나 받았지만, 의사의 오진으로 제때 치료하지 못해 폐암 4기까지 악화된 강모(당시 30대)씨에게 병원 측이 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br/><br/><br/>의사의 잘못이 인정돼 환자가 피해를 본 경우 병원에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가운데 역대 최고의 위자료 금액이다. 강씨는 2008년 가슴이 아파 평택의 모 병원에서 엑스레이 검사를 받았지만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20011년 6월과 8월에도 잦은 기침과 호흡 곤란으로 같은 병원에 갔지만 역시 폐암 진단은 받지 못했다. <br/><br/><br/>소비자원에 따르면 강씨가 2008년에 찍은 첫 엑스레이 사진에서 2㎝ 이하의 폐병변이 발견됐다. 초기 암으로 보여 치료를 받았다면 완치도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br/><br/><br/>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122.txt

제목: 새끼고양이 품에 안는 고릴라 ‘모성애’ 동영상 감동  
날짜: 201403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50157955  
본문: “귀여운 내 아가!” <br/>암컷 고릴라와 새끼 고양이의 모성애와 우정을 담은 동영상이 뒤늦게 네티즌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br/>암컷 고릴라 ‘코코’(Koko, 38)는 운명처럼 만난 새끼 고양이를 마치 자기 새끼처럼 극진히 보살펴 주위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br/>고릴라를 보존하고 교육하는 ‘고릴라 재단’ 측은 30년 가까이 코코를 관찰하고 연구해왔는데, 최근 코코가 일주일 전 태어난 새끼 고양이 2마리를 극진히 아끼는 모습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br/>동영상은 코코가 상자에 든 새끼고양이를 보자마자 직접 상자에서 꺼낸 뒤 심장과 가까운 곳에 새끼고양이를 안는 모습을 담고 있다. <br/><br/><br/>뿐만 아니라 새끼고양이 2마리와 배를 간질이고 머리를 부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 종(種)을 뛰어넘는 모성애와 우정을 엿볼 수 있게 했다. <br/>코코는 새끼고양이들에게 줄 장난감을 직접 고르기도 했는데, 사육사와 전문가들이 올려놓은 다양한 인형을 직접 치우고 마치 새끼고양이에게 주려는 듯 케이크 모형을 건네기도 했다. <br/>고릴라 재단 측은 “<span class='quot0'>코코가 아직 출산을 해본 경험은 없지만, 새끼 고양이들과 오래 함께 머무르고 싶어하는 모습이 역력했다</span>”고 전했다. <br/>한편 새끼고양이를 향한 고릴라의 모성애를 느낄 수 있는 해당 동영상은 유투브에서 50만 건에 달하는 클릭수를 기록하는 등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br/><br/>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123.txt

제목: 새끼고양이 향한 고릴라의 모성애…감동 동영상  
날짜: 201403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50133082  
본문: “귀여운 내 아가!” <br/>암컷 고릴라와 새끼 고양이의 모성애와 우정을 담은 동영상이 뒤늦게 네티즌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br/>암컷 고릴라 ‘코코’(Koko, 38)는 운명처럼 만난 새끼 고양이를 마치 자기 새끼처럼 극진히 보살펴 주위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br/>고릴라를 보존하고 교육하는 ‘고릴라 재단’ 측은 30년 가까이 코코를 관찰하고 연구해왔는데, 최근 코코가 일주일 전 태어난 새끼 고양이 2마리를 극진히 아끼는 모습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br/>동영상은 코코가 상자에 든 새끼고양이를 보자마자 직접 상자에서 꺼낸 뒤 심장과 가까운 곳에 새끼고양이를 안는 모습을 담고 있다. <br/><br/>▶새끼고양이 향한 고릴라의 ‘감동 모성애’ 동영상 보러가기<br/>뿐만 아니라 새끼고양이 2마리와 배를 간질이고 머리를 부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 종(種)을 뛰어넘는 모성애와 우정을 엿볼 수 있게 했다. <br/>코코는 새끼고양이들에게 줄 장난감을 직접 고르기도 했는데, 사육사와 전문가들이 올려놓은 다양한 인형을 직접 치우고 마치 새끼고양이에게 주려는 듯 케이크 모형을 건네기도 했다. <br/>고릴라 재단 측은 “<span class='quot0'>코코가 아직 출산을 해본 경험은 없지만, 새끼 고양이들과 오래 함께 머무르고 싶어하는 모습이 역력했다</span>”고 전했다. <br/>한편 새끼고양이를 향한 고릴라의 모성애를 느낄 수 있는 해당 동영상은 유투브에서 50만 건에 달하는 클릭수를 기록하는 등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br/>▶새끼고양이 향한 고릴라의 ‘감동 모성애’ 동영상 보러가기<br/>http://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324601018 <br/><br/>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124.txt

제목: 추적60분 석고보드, 아파트 17층에서 폐암 발병 위험 ‘라돈’ 측정  
날짜: 201403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15203927  
본문: 추적60분 석고보드, 아파트 17층에서 폐암 발병 위험 ‘라돈’ 측정<br/><br/>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폐암의 원인이 된다는 주장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파장이 확산되면서 라돈 저감장치·측정기도 덩달아 화제다.<br/><br/>22일 방송된 KBS 2TV ‘추적 60분’에서는 ‘문제는 집이다. 암 발병 원인에 대한 가장 새로운 분석’을 통해 라돈이 폐암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br/><br/>미국환경청의 발표에 따르면 4피코큐리(pci/L)의 라돈 농도에서 장기간 거주할 경우, 흡연자는 1000명 중 62명, 비흡연자는 1000명 중 7명이 폐암에 걸린다. 또 라돈은 폐암 발병원인 중 흡연 다음으로 가장 주요한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br/><br/>일반적으로 라돈은 토양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토양에 밀접한 저층 지대일수록 노출되기 쉬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고층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건축자재인 ‘석고보드’ 때문에 아파트 17층에서 저층 지대보다 높은 수치의 라돈이 측정됐다. <br/><br/>추적60분 석고보드 편에서는 충격적인 실태가 드러났다. 석고보드는 아파트를 포함한 대부분의 건축물에 마감재로 사용되고 있는데, 우라늄이 다량 함유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광석의 부산물 ‘인산석고’가 주원료인 것으로 밝혀졌다.<br/><br/>석고보드를 사용해 지어진 집과 건물들에서는 누구도 발암물질 라돈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br/><br/>네티즌들은 “<span class='quot0'>추적60분 석고보드, 라돈 정말 무섭다</span>”, “<span class='quot0'>추적60분 석고보드, 라돈 폐암 원인이라니</span>”, “<span class='quot0'>추적60분 석고보드, 여자는 담배도 안피는데 폐암 발병률이 높은 게 이것 때문이었나</span>”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125.txt

제목: [정병석 경제산책] 송나라의 번영과 규제 혁파  
날짜: 201403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15030779  
본문: 중국의 오랜 역사를 통해 가장 창조적이면서 최고의 번영을 이룬 시대는 송나라, 특히 북송 150년간으로 알려져 있다. 송나라는 기술혁신, 경제성장, 관료 지배구조 등에서 당시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앞선 위대한 ‘창조적 시대’를 구현했다는 것이다. 2010년 상하이 엑스포에서 최고의 인기를 끌었던 ‘청명상하도’는 송의 수도 개봉의 번영과 활기를 생생하게 묘사하여 전 세계 관람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었다. 원작 청명상하도는 송의 장택단이 1120년쯤 두루마리 형태로 그린 풍속화인데 상하이 엑스포를 맞이해 이를 토대로 초대형 디지털 영상물로 제작한 것이다. <br/><br/>중국 역사를 50년 이상 연구한 하버드대 페어뱅크 교수는 유작인 ‘신중국사’에서 송이 가장 창조적이면서도 최전성기를 이룬 배경을 여러 각도에서 제시했다. 전란에 황폐해진 농지의 개간, 양쯔강 이남의 개발, 수리사업, 품종개량과 인구의 증가에 따라 농업생산이 증가하면서 경제가 활성화됐다는 것이다. 수도인 개봉까지 연결된 운하와 강 등 수로(3만 마일 길이)를 통한 물류유통시스템이 원활하게 가동돼 국내 상공업이 발달하고 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한다. 한편 20세기 사학 명저의 하나로 발간된 ‘중국통사’에서는 송나라 초기부터 이뤄진 대대적 규제혁파와 행정기관의 권력분산을 강조하고 있다.<br/><br/>송 건국 당시 시행되던 농업 관련 규제들이 국민들의 활동을 얼마나 촘촘하게 족쇄를 채웠을지 짐작할 수 있다. 포구마다 통행세를 부과하고 과수원, 양어장, 물레방앗간을 운영하는데도 세금, 오리사육, 조개 채취, 땔감 채취, 논에 물대는 일 등에도 온갖 명목의 잡세를 부과했다고 한다. 송 건국자 조광윤은 농업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이런 잡세를 철폐한다. 2대 황제도 강 연안 지역에서 곡식을 운송하는 선박으로부터 걷던 세금을 폐지한다. 3대 황제는 농기구에 부과하던 세금도 폐지한다. 이러한 규제혁파로 농민의 부담이 줄고 경제활동이 자유로워지자 생산이 급증했다는 것이다. 이를 강조하는 것은 역대 황제의 치적으로 역사서에 기록될 만큼 규제철폐는 중요한 정치적 결단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br/><br/>송의 개봉은 당의 수도였던 장안보다 훨씬 규제가 없는 도시였다고 한다. 장안에서는 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과 영업시간에 제한이 있었는데 개봉에서는 이런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그래서 장안이 밤만 되면 활동이 정지된 캄캄한 세상이었던 데 비해 개봉은 밤새도록 사람들이 붐비는 인구 100만명을 헤아리는 세계 최대도시로 변모했다. 청명상하도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활기차고 풍부한 물자유통, 오락 등은 개봉의 이런 모습을 반영한다. 개봉에는 수십 개의 극장이 있었고 여기서 각종 잡극, 만담, 연극 등을 시현했는데 어떤 극장은 수천 명을 수용할 만큼 컸다고 한다. 이런 규제완화가 송을 중국 역사상 가장 창조적이면서 번영한 나라로 만든 것이다.<br/><br/>그러나 송을 뒤이은 명이나 청나라는 규제가 심한 매우 엄격한 사회였다. 명의 초대 황제 주원장은 송·원이 망한 것은 관리들의 부정부패 때문이라고 진단하며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가혹한 처벌제도를 신설하고 관리를 감시·감독하는 금의위(비밀 정보사찰기구), 도찰원(감찰기구) 등의 전담기구를 설치한다. 구체적 범법 사례 1만여개를 모은 사례집을 인쇄해 각 가정에 보급하고 각급 학교에서 이를 필수적으로 교육하게 지도한다. 관리와 민간에게까지 이렇게 엄격하게 법 규제를 강제한 법 만능의 통치와 해외무역을 금지한 결과는 송나라에서 창조적으로 번영했던 경제활동의 위축이었다. <br/><br/>지금 정부는 규제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암덩어리’라는 인식하에 모든 역량을 모아 이를 혁파하겠다는 야무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 역대 정부도 대개 강한 의욕을 보였으나 결과적으로는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문제를 끝장 토론해서 결판낸다고 하니 다시 기대해 볼만하다.<br/><br/>한양대 경제학부 석좌교수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126.txt

제목: 암 막으려면 채소·과일 많이 먹고 적당한 운동을  
날짜: 201403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14930249  
본문: 암 환자는 해마다 증가해 1990년 이후부터 사망원인 1위로 자리잡았다. 국립암센터에 따르면 2011년 신규 암 환자 수는 21만8017명으로 2001년 대비 96% 늘었다. 암 발생 증가 원인은 환경적 요인도 있지만 잘못된 식생활 탓이 크다.<br/><br/>한국건강증진재단이 지난 21일 암 예방의 날을 맞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암 발생 증가는 육류, 지방, 당 섭취 증가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육류섭취는 1998년보다 2012년에 68%, 지방은 16%가 증가했다. 1인 하루 평균 당 섭취량도 2008년 49.9g에서 2010년 61.4g으로 느는 추세다. 나트륨 1일 섭취량은 2012년 기준 4583㎎으로 권장섭취량(2000㎎)의 2배 이상이다. 에너지 섭취의 주요 공급원도 백미, 돼지고기, 라면, 빵, 소주, 우유 순으로 기름지고 짠 음식이 상위권을 차지한다. 이와 달리 채소·과일의 하루 섭취량은 467.3g으로 권장량인 500g보다 적다.<br/><br/>암을 예방하려면 고칼로리 음식 섭취를 줄이고 싱싱한 채소와 과일을 매일 섭취해 균형 잡힌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도정하지 않은 잡곡을 주식으로 고기, 생선, 계란, 두부, 해물과 같은 단백질 반찬을 1~2가지, 알록달록한 색상의 채소 반찬을 1~2가지 정도 준비해 밥상을 차리고 간식으로 저지방 우유와 과일을 섭취하는 게 좋다. 세계암연구재단은 채소와 과일을 하루 5접시(400g) 먹으라고 권고한다. 채소와 과일의 알록달록한 색에는 각기 다른 항암성분이 함유돼 있다. 설탕이 많이 함유된 음료수나 과자류 등의 고열량 간식보다는 오이, 당근, 양배추, 파프리카 같은 채소로 간식을 대체하는 것도 채소 섭취를 늘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br/><br/>채소가 좋다고 육류 섭취를 제한할 필요는 없다. 다만 직화구이처럼 불꽃이 직접 닿아 탄 육류에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와 같은 발암물질이 있기 때문에 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어 직화구이보다는 볶거나 찐 음식이 좋다. 비만도 암 발생 위험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삽겹살, 갈비, 닭껍질 등 지방함량이 많은 부위보다 살코기 위주로 적당한 양을 먹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햄, 소시지, 베이컨 등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질소화합물도 발암물질 생성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가급적 피해야 한다. <br/><br/>운동도 중요하다. 미국 암협회는 걷기, 댄스, 요가 등의 중간 강도 운동을 일주일에 5회 30분씩 하거나 조깅, 수영, 에어로빅, 등을 고강도 운동을 15~20분씩 주 5회 이상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평소 절주와 금연은 기본이다. <br/><br/>보건복지부는 암 관리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효과적인 암 예방 및 치료,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암 예방부터 조기 발견, 암 치료 및 말기암 관리 등 전 단계를 아우르는 ‘국가암관리 종합 개선 대책’을 금년 중 마련할 계획이다. <br/><br/>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br/><br/>■도움말 건국대병원 영양팀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127.txt

제목: “평생 후유증” vs “불안해” 갑상선암 수술 할까 말까  
날짜: 201403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14927409  
본문: 수술하지 않아도 일반인과 생존율이 비슷하고 일상생활에 거의 지장이 없는 갑상선암의 수술 여부를 놓고 의사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핵심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이다. 당장 수술할 필요가 없다는 쪽은 수술 후 갑상선기능저하를 막기 위해 평생 호르몬제를 복용해야 하는 고통과 부작용이 수술 효과를 상회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쪽은 암이 전이될까봐 평생 불안에 시달리느니 차라리 수술하는 쪽이 삶의 질적인 측면에서 더 긍정적이라고 한다. 제대로 된 의학 정보가 없는 환자는 이들 가운데 끼여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상황이다. <br/><br/>직장인 배혜정(35)씨는 만성피로에 시달리다 지난해 서울의 한 병원에서 갑상선암 검사를 받았다. 초음파 검사 결과 1cm 미만의 혹이 발견됐고 암으로 확인돼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전보다 심한 피로가 밀려와 오히려 삶의 질은 떨어졌다. 호르몬을 분비하는 갑상선이 없으니 평생 호르몬제를 복용해야 하는 고통도 생겼다. 배씨는 “<span class='quot0'>내 몸에 암세포가 있다니 불안해 수술을 받았지만, 돌이켜 보면 위험하지 않은 암이라는데 굳이 갑상선을 잘라내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span>”고 말했다. <br/><br/>반면 배씨와 비슷한 케이스로 갑상선암 수술을 받은 주부 김지영(51)씨는 “<span class='quot1'>암 환자 입장에서 전이, 악화에 대한 불안을 안고 사는 것은 힘들다</span>”면서 “<span class='quot1'>수술 전 상황으로 돌아가더라도 같은 선택을 했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br/>갑상선암은 발견 후 수개월에서 수년 사이에 생사가 결정되는 다른 암들에 비해 공격성이 현저히 낮고 진행 속도가 매우 느려 ‘착한 암’ 또는 ‘거북이암’으로 불린다. <br/><br/>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가 2007~2011년에 발생한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을 분석한 결과 암이 처음 발생한 장기에만 국한된 경우 갑상선암 환자의 생존율은 일반인과 차이가 없었다. 암이 주위 장기와 인접한 조직을 침범한 경우도 90%가 넘는 높은 생존율을 보였다. 진행이 빠르고 악성인 갑상선역형성암도 있지만 한국인의 경우 발생빈도가 1% 미만으로 극히 낮다. 한국인에게 발견되는 갑상선암의 95% 이상은 대표적인 ‘거북이암’인 갑상선유두암이다. <br/><br/>자신이 갑상선암 환자라는 사실을 평생 모르고 산다고 해도 괜찮을 만큼 순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아무 증상이 없는 데도 건강검진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해 의사의 권유를 받고 수술하는 경우다. <br/><br/>갑상선은 몸의 기능을 적절하게 유지시켜 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으로, 목 앞부분 후두 바로 아래에 있다.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면 쉽게 피곤해지고 졸리며 두통이 생기고 집중력이 감소한다. 또 추위를 더 많이 느끼고 소화가 잘되지 않아 구역질이나 변비가 생길 수도 있다. 갑상선의 일부만 절제하는 수술도 있지만, 통째로 떼어내는 수술을 하게 되면 호르몬 분비 기관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들은 매일 갑상선호르몬제를 복용한다. <br/><br/>서홍관 국립암센터 의사는 “<span class='quot2'>수술을 받으면 암 환자라는 딱지가 붙게 되고 30~40년간 갑상선기능저하증을 달고 살아야 하는데다 수술 환자의 0.5%는 부작용으로 성대 신경이 마비되기도 한다</span>”면서 “이득 없는 수술”이라고 주장했다. <br/><br/>반면 류준선 국립암센터 갑상선암센터장은 “<span class='quot3'>갑상선에 생긴 대부분의 혹은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그냥 둬도 상관없지만 10%는 공격적 성향이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3'>현재로선 공격적인 10%를 구분해 낼 방법이 없다 보니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수술을 권할 수밖에 없다</span>”고 말했다. <br/><br/>일찍 치료를 해야 수술 합병증도 적게 오고 재발 가능성도 낮기 때문에 과잉치료를 피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류 센터장은 “<span class='quot4'>대부분의 환자들이 갑상선암 진단을 받으면 잠도 못 자고 불안에 시달린다</span>”며 “<span class='quot4'>심리적인 측면도 무시 못한다</span>”고 덧붙였다. 무증상 미세암의 수술을 반대하는 의사들도 갑상선암 환자 입장에서 수술을 미루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 그래서 이들은 보다 근본적 문제인 갑상선암 검진 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br/><br/>국립암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86년 인구 10만명당 남녀 각각 0.76명, 3.9명이던 갑상선암 발병률은 2011년 인구 10만명당 81명으로 30배나 늘었다. 세계 평균의 10배가 넘고 영국보다는 무려 17.5배가 많다. 선진국 가운데 갑상선암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미국도 지난 35년간 3배만 증가했다. 우리와 비교가 안 되는 수치다. 갑상선암이 해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사망률은 변함이 없다. 과잉 검진이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다. 이재호 가톨릭대 의과대학 교수는 “<span class='quot5'>2000년대 이후 초음파 진단기 개발기술이 빠르게 발전한 데다 병원들이 수익을 뽑기 위해 무분별한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span>”고 말했다. <br/><br/>검진으로 악성 종양을 발견했다면 다행이지만, 몰라도 될 병을 알게 된 대다수의 갑상선유두암 환자는 심리적 고통과 수술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게 되는 셈이다. 선택은 환자의 몫이지만 무조건 검진부터 권유하고 보는 병원의 행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br/><br/>갑상선암의 주요 발병 원인은 방사선 노출이다. 치료 때문이든, 환경 재해로 인한 것이든 노출된 방사선의 용량에 비례해 갑상선암의 발병위험도가 증가한다. <br/><br/>핀란드 헬싱키대는 1985년 갑상선암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내놨다. 101건의 부검을 통해 얻은 갑상선을 얇게 잘라 현미경으로 관찰했더니 35.6%에서 갑상선암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이재호 교수는 “<span class='quot6'>초음파 대신 현미경으로 더 세밀하게 암세포를 찾는다면 웬만한 성인들에게 갑상선 암세포가 발견될 수 있다는 얘기</span>”라고 설명했다. <br/><br/>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128.txt

제목: [월북 한의사 김지은의 고려의학 이야기] (6) 항암 효과 입증된 냉이  
날짜: 201403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14940084  
본문: 제철 과일과 제철 나물은 우리 몸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는 최고의 보양식이다. 그중에서도 냉이는 항암효과까지 입증된 대표적인 보양재료다. <br/><br/><br/>냉이의 뿌리는 비장을 실하게 하고 이뇨, 지혈, 해독 등의 효능이 있어 비위허약, 당뇨병, 소변분리(소변이 시원하게 나가지 않는 증상), 토혈, 코피, 월경과다, 산후출혈을 막는 데 다방면으로 쓰임새가 많다. 최근에는 냉이의 항암효과까지 밝혀져 더욱 가치 있는 나물로 여겨지고 있다. 냉이에는 비타민A, 비타민 B1, 비타민 C 등의 함량이 아주 높다. 특히 비타민 A가 많은데，베타카로틴이라는 전구체로 존재한다고 한다．<br/><br/><br/>미국 국립암연구소 그래디스 블록 박사는 19년간 2000명을 관찰해 베티카로틴과 암과의 상관관계를 밝혀냈다. 조사 결과 폐암 환자 가운데 베타카로틴을 적게 섭취한 환자는 그러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률이 훨씬 높았다. 베타카로틴이 많은 냉이를 제철에 지속적으로 섭취한다면 항암치료는 물론 암 예방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br/><br/><br/>몸이 피로하고 나른하며 기분이 우울하고 어떤 일이든 의욕이 떨어지는 춘곤증을 이겨내는 데도 봄나물, 특히 냉이를 먹는 게 도움이 된다. 한의학에서는 냉이씨를 약재로 쓰는데, 이를 ‘제채’ 또는 ‘제재채’라고 한다. 냉이는 성질이 따뜻하고 맛이 달며 독성 또한 없다. 게다가 냉이 속 무기질은 끓여도 파괴되지 않는다. 냉이의 뿌리와 줄기를 달여서 차 마시듯 오래 먹으면 눈이 맑아지고 눈병에도 잘 걸리지 않는다.<br/><br/><br/>명나라 때 쓰여진 중국 최고의 약학서 ‘본초강목’에도 냉이는 오장(간장·심장·비장·폐장·신장)을 이롭게 하며 젊음을 유지시켜 잘 늙지 않게 하는 식물이라고 소개돼 있다. 실제로 냉이는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 노화를 억제한다.<br/><br/><br/>한국에서는 굳이 호미를 들고 시골 들녘으로 나가지 않더라도 가까운 마트나 시장 어디서나 손쉽게 냉이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조리법도 다양하다. 냉이 된장국, 냉이 무침, 냉이전, 냉이튀김을 만들어 입맛을 돋우고 원기도 북돋는 맛있는 밥상을 차릴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귀한 북한에서는 끓여 먹거나 무쳐 먹는 등 단순한 조리법밖에 없다. 여간 부러운 게 아니다. 비싼 보양 재료 없이 냉이만으로도 건강과 활력을 찾을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봄철 보양 진미가 있을까.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129.txt

제목: 라돈 공포…‘추적 60분’ 남원 내기마을 연이은 암 발병 라돈 측정해보니  
날짜: 201403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14214640  
본문: ’라돈 측정’ ‘라돈 예방’<br/><br/>폐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라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br/>22일 KBS ‘추적 60분’에서는 지난해 12월 방송을 통해 라돈(강한 방사선을 내는 비활성 기체 원소)이 폐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논란에 대해 후속 취재를 했다.<br/>방송 직후 일주일 동안 150여통의 전화가 빗발쳤고, 암센터에서 라돈은 환자들의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다.<br/>특히 주민들이 암으로 사망하면서 ‘죽음의 마을’로 알려진 전북 남원 내기마을에서 기준치를 26배나 초과한 라돈이 검출돼 놀라움을 안겼다.<br/>내기마을은 작년 7월 기준 29세대 57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12명이 폐암 식도암 방광암 등을 앓았다.<br/>환경안전건강연구소는 기자회견을 열고, 남원 내기마을에서 채취한 지하수 꼭지수에 대한 라돈 수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br/>연구소가 암 발병으로 사망한 사례가 있는 집 12곳과 마을회관에서 채취한 지하수 꼭지수에 대한 라돈 측정결과 6곳에서 2428.27~7663.71pCi/L(피코큐리)의 라돈이 검출됐다.<br/>라돈은 토양과 암석, 지하수의 우라늄이 방사성 붕괴되면서 발생하는 무색 무취한 기체로, 비흡연자 폐암발생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또 먹는 물에 라돈이 과다하게 들어있으면 위암과 식도암, 방광암 등 각종 암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먹는 물 속 라돈 함량을 리터당 4000 피코큐리로 제한하고 있으며, 미국 EPA는 리터당 300 피코큐리 이하로 제안하고 있다.<br/>내기마을의 먹는 물 속 라돈 수치가 미국 기준치인 4천 피코큐리를 넘긴 곳은 조사대상 13곳 가운데 4곳에 달했다.<br/>연구소 관계자는 “<span class='quot0'>7년 전 귀농한 부부가 같이 발병한 사례도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기준치를 초과한 라돈이 검출된 이상 정밀 역학검사가 시급하다</span>”고 말했다.<br/>연구소는 또 먹는 물 속 라돈과 함께 인근 아스콘 공장과 동양최대 규모의 변전소,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고압 송전탑 등을 위해요인으로 지적했다.<br/>지하수 속 라돈 수치는 내기마을의 문제만이 아니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조사대상 지하수 563개 지점 가운데 라돈이 미국 기준치를 넘은 곳은 92곳으로 전체 16.3%에 달했다.<br/>환경부는 현재 라돈이나 우라늄 함량이 높은 지역에 상수도를 우선 보급하는 등 대책을 시행 중이며, 라돈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하수를 상온에서 4일 가량 놔둔 뒤 마실 것을 권고하고 있다.<br/>강동원 의원(무소속, 전북 남원·순창)은 이날 “<span class='quot1'>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결과 정부 차원의 발암 원인에 대한 정밀역학조사를 추진키로 했다</span>”고 말했다.<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130.txt

제목: [주말 하이라이트]  
날짜: 201403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13406689  
본문: ■추적 60분(KBS2 토요일 밤 10시 15분) 지난해 12월 방송을 통해 라돈(강한 방사선을 내는 비활성 기체 원소)이 폐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방송 직후 일주일 동안 150여통의 전화가 빗발쳤고, 암센터에서 라돈은 환자들의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다. 제작진은 후속 취재를 통해 집과 라돈의 관계에 대해 파헤쳐 보기로 했다. 라돈은 토양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토양에 둘러싸인 저층 지대일수록 라돈에 노출되기 쉽다. 그런데 한 아파트에서는 17층의 라돈 수치가 저층 지대보다 높게 나왔다. 전문가들도 이례적인 결과에 의아함을 표했다. <br/><br/><br/>■무한도전(MBC 토요일 오후 6시 20분) 2014년 새로운 장기 프로젝트 ‘스피드 레이서’의 베일이 벗겨진다. 오는 5월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코리아 스피드 페스티벌’(KSF) 참여를 선언하는 데 이어 드디어 대회 출전을 위한 준비를 시작한다. 첫 주행 연습부터 멤버들의 경계를 받으며 에이스로 떠오른 멤버는 누가 될까. 최강 레이서를 꿈꾸는 일곱 남자의 도전기를 함께한다.<br/><br/><br/>■세계의 눈(EBS 일요일 오후 4시 45분) 영화 ‘야성의 엘자’는 어미 잃은 새끼 사자와 강한 유대감으로 묶인 조지와 조이 애덤슨 부부의 실화를 다룬다. 사자를 사랑하고 사자의 권리를 위해 싸운 이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공개한다. 영화에 출연했던 배우 버지니아 매케나, 조지 애덤슨의 조수였던 조니 백센데일 등을 인터뷰하고, 애덤슨의 자서전을 따라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간다.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131.txt

제목: 자본주의 사회의 자유와 정의 사회주의 있었기에 가능했다  
날짜: 201403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13419386  
본문: 오래된 희망 사회주의/마이클 해링턴 지음/김경락 옮김/메디치/416쪽/2만 1000원<br/><br/>옛 소련과 동구권의 붕괴는 흔히 사회주의의 몰락으로 인식된다. 그럼에도 한편에선 쇠락한 사회주의의 재평가 작업이 활발하다. 사회주의는 그저 공상적 가설에 불과한 것일까.<br/><br/>‘오래된 희망 사회주의’는 사회주의가 퇴색한 이데올로기로 치부되기 일쑤인 지금, 그 과거와 미래를 꼼꼼하게 점검한 역작이다. 저자는 암으로 사망한 미국의 대표적인 사회주의 정치사상가. 암 투병 중 쓴 유작인 이 책은 어렵고 난해하게 인식되던 그의 저작들을 다시 찾아보게 만드는 노작이다. 자유시장경제를 가장 화려하게 꽃피운 나라인 미국에서 일었던 사회주의적 발상과 운동을 들춰낸 점이 신선하다.<br/><br/>책은 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케인스주의 복지국가의 전성기와 그 이후 신자유시대를 촘촘하게 따진다. 세계대전과 복지국가의 몰락이라는 큰 변곡점을 맞아 사상가·운동가들의 성찰과 반성이 많았던 시기를 들춰 체제에 대한 고민과 반성이 많은 지금의 상황과 연결해 내는 흐름이 흥미롭다.<br/><br/>저자는 사회주의의 본질을 민주주의와 공화정의 토대 위에서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을 통해 실천하려 했던 인물이다. 그래서 전통의 보수주의 진영으로부터는 ‘빨갱이’ 낙인을 받았고 교조적 사회주의자들에게는 이단자 취급을 받았다. 그런 그가 꼽은 20세기 사회주의 혼란의 원인은 크게 네 가지로 압축된다. 마르크스부터 시작된 사회주의에 대한 모호한 정의와 단일한 노동계급의 부재, 소련의 일당독재 체제 같은 ‘가짜 사회주의’의 난립, 사회주의로의 이행모델 부재가 그것이다.<br/><br/>심각한 오류와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운동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유와 정의가 그나마 확보됐다는 게 저자의 주장이다. 그래서 자유와 정의가 이 정도에 그친 이유, 다시 말하면 패배의 역사를 통해 사회주의자들이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말한다.<br/><br/>지금이야말로 사회주의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과 정치적 의지를 펼치는 일이 더 큰 의미를 지닌다는 저자는 사회주의의 미래를 이렇게 예측한다. “<span class='quot0'>급진적으로 시스템을 바꾸려는 노력은 실패했지만 그 과정에서 자본주의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왔고 앞으로 펼쳐질 사회주의자들의 운동 또한 지금까지 걸어온 길과 비슷할 것이다.</span>”<br/><br/>김성호 선임기자 kimus@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132.txt

제목: ‘식물’ 반 ‘동물’ 반…진화 비밀 품은 ‘말미잘’  
날짜: 201403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45843081  
본문: 바다 속에서 자라는 아름다운 나무를 연상시키는 말미잘, 그런데 최근 이 말미잘이 반은 ‘식물’, 반은 ‘동물’이라는 흥미로운 연구결과가 나와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br/>미국 과학 매체 라이브 사이언스닷컴은 오스트리아 비엔나 대학 연구진이 말미잘의 유전자 일부가 식물과 유사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br/>연구진은 말미잘의 87개 ‘마이크로 RNA’(동·식물 세포에 들어 있는 물질로 세포 속에서 유전자가 과하거나 부족해지지 않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 마이크로RNA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당뇨, 암 등의 질병을 앓을 수 있다)를 분석한 결과, 해당 구조가 식물 RNA와 매우 흡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br/>특히 주목되는 것은 HYL-1이라는 명칭의 마이크로 RNA가 말미잘에서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해당 RNA는 오직 식물에서만 관찰되어 왔고 동물에서는 추출된 적이 없기에 이번 발견이 가지는 의미는 무척 크다.<br/>기존 연구에서 말미잘의 유전자는 인간, 초파리 등과 유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번에 식물성 RNA까지 발견되면서 말미잘은 동물과 식물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특이한 생명체인 것으로 밝혀졌다. 참고로 자포동물문 산호충강에 속하는 강장동물 ‘말미잘’은 일반적으로 산호류로 분류되지만 군체를 이루지 않고 단독생활을 한다는 특징이 있다. <br/>연구를 종합해보면, 태초의 마이크로 RNA는 동물과 식물의 공통 조상이었지만 이후 진화단계를 거치며 동물성 RNA와 식물성 RNA로 분리돼 현재에 이르렀고 유일하게 말미잘만 두 가지 특성을 아직 모두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br/>연구진은 “<span class='quot0'>말미잘의 RNA 구조는 지구 생명체의 진화단계를 다양하게 추정해볼 수 있는 특이한 사례</span>”라고 설명했다. <br/>한편 해당 연구결과는 국제 학술지인 ‘유전 연구 저널’(journal Genome Research)에 지난 18일(현지시간) 발표됐다. <br/>사진=라이브 사이언스닷컴<br/>조우상 기자 wscho@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133.txt

제목: 반은 ‘식물’ 반은 ‘동물’…‘말미잘’의 두 얼굴  
날짜: 201403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45828356  
본문: 바다 속에서 자라는 아름다운 나무를 연상시키는 말미잘, 그런데 최근 이 말미잘이 반은 ‘식물’, 반은 ‘동물’이라는 흥미로운 연구결과가 나와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br/>미국 과학 매체 라이브 사이언스닷컴은 오스트리아 비엔나 대학 연구진이 말미잘의 유전자 일부가 식물과 유사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br/>연구진은 말미잘의 87개 ‘마이크로 RNA’(동·식물 세포에 들어 있는 물질로 세포 속에서 유전자가 과하거나 부족해지지 않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 마이크로RNA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당뇨, 암 등의 질병을 앓을 수 있다)를 분석한 결과, 해당 구조가 식물 RNA와 매우 흡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br/>특히 주목되는 것은 HYL-1이라는 명칭의 마이크로 RNA가 말미잘에서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해당 RNA는 오직 식물에서만 관찰되어 왔고 동물에서는 추출된 적이 없기에 이번 발견이 가지는 의미는 무척 크다.<br/>기존 연구에서 말미잘의 유전자는 인간, 초파리 등과 유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번에 식물성 RNA까지 발견되면서 말미잘은 동물과 식물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특이한 생명체인 것으로 밝혀졌다. 참고로 자포동물문 산호충강에 속하는 강장동물 ‘말미잘’은 일반적으로 산호류로 분류되지만 군체를 이루지 않고 단독생활을 한다는 특징이 있다. <br/>연구를 종합해보면, 태초의 마이크로 RNA는 동물과 식물의 공통 조상이었지만 이후 진화단계를 거치며 동물성 RNA와 식물성 RNA로 분리돼 현재에 이르렀고 유일하게 말미잘만 두 가지 특성을 아직 모두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br/>연구진은 “<span class='quot0'>말미잘의 RNA 구조는 지구 생명체의 진화단계를 다양하게 추정해볼 수 있는 특이한 사례</span>”라고 설명했다. <br/>한편 해당 연구결과는 국제 학술지인 ‘유전 연구 저널’(journal Genome Research)에 지난 18일(현지시간) 발표됐다. <br/>사진=라이브 사이언스닷컴<br/>조우상 기자 wscho@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134.txt

제목: ‘난치’ 췌장암 97% 찾아내는 신기술 개발 - 스웨덴 연구팀  
날짜: 201403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45808753  
본문: 난치암으로 알려진 췌장암 진단을 현재보다 훨씬 조기에 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다고 스웨덴 예테보리대학 연구팀이 18일 발표했다.<br/>AFP 통신 등에 따르면 연구팀은 이 기술이 췌장암의 발병 증상을 97%의 정확도로 검출할 수 있으므로 낮은 생존율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br/>췌장암은 환자가 모르는 사이에 종양이 성장해 다른 장기까지 퍼진 뒤에야 발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진단 뒤 5년 이상 생존율은 5% 정도밖에 안 된다.<br/>연구팀의 일원인 카롤리나 자바르는 성명을 통해 “이 검사 방법은 췌장암의 치료와 예방을 할 수 있는 단계에서 조기 발견하는 사례를 늘릴 것”이라면서 “우리는 크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br/>또 그는 “이 분석법 덕분에 췌장암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br/>그 방법은 일반 내시경 검사와 마찬가지로 환자의 입에서 위장으로 튜브를 삽입하게 된다.<br/>“<span class='quot0'>차이는 튜브를 넣고 초음파 촬영을 하므로 췌장을 더 자세히 볼 수 있으며 조직 체액의 채취도 가능한 것</span>”이라고 자바르 연구원은 설명했다.<br/>이 검사는 암의 조기 발견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수술을 할 수 있는 위험의 감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 기존의 종양을 약 90%의 정밀도로 검사할 수 있으므로 환자에게 응급 수술이 필요한지 아닌지 판단을 기존보다 쉽게 내릴 수 있게 된다.<br/>사진=포토리아<br/>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135.txt

제목: 환희와 불안의 몸짓, 황홀경에 빠지다  
날짜: 201403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10708439  
본문: 무용과 연극의 경계를 넘나들며 현대무용의 문법을 바꾼 무용계의 혁명가, 피나 바우슈(1940~2009). 2009년 6월 암 선고를 받은 지 닷새 만에 세상을 떠난 그의 작품이 국내 무용 팬들을 찾는다. 오는 28~31일 LG아트센터에 오를 ‘풀 문’(Full Moon)이다. 바우슈가 죽기 3년 전 완성한 ‘풀 문’은 한국 관객들에게 선보이는 그의 일곱 번째 작품이다. 공연마다 대부분 매진을 기록하는 그의 이전 작품들처럼 자연을 무대로 옮겨와 파격미와 황홀경을 안기는 장면들로 채워져 있다. <br/><br/>암흑처럼 검은 배경의 무대 한가운데 거대한 바위 하나가 우뚝 솟아 있다. 파도가 치듯 물줄기가 바위를 줄기차게 때린다. 무대 바닥은 금세 발목까지 차오르는 물바다를 이룬다. 무용수들은 폭우처럼 쏟아지는 물을 온몸으로 맞는가 하면, 발로 첨벙대며 물을 솟구치게 한다. 물웅덩이에 주저없이 몸을 던지며 격정적인 춤사위를 풀어낸다. “<span class='quot0'>피나 바우슈는 인간의 갈등과 감정, 삶을 반영하는 무용의 상상력을 남기고 우리 곁을 떠났다</span>”는 한 안무가의 말처럼 2시간 30여분의 작품 속에는 삶의 환희와 불안, 두려움 등 다양한 감정들이 강렬한 몸짓으로 변주돼 있다. 이는 1973년부터 독일 부퍼탈탄츠테아터를 이끌며 연극의 영역이라 여겨져온 일상과 공포, 고통, 행복 등 인간의 내면과 인간 군상이 빚어내는 관계들을 날것 그대로 벗겨낸 바우슈 춤의 대표적인 특징이기도 하다. <br/><br/>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이 작품을 두고 “<span class='quot1'>생명과 성의 상징이기도 한 물은 바우슈에게는 매혹적인 예술적 소재였다</span>”며 “<span class='quot1'>물은 움직임의 전개를 좌우하면서 위험하고 어둡지만 동시에 눈부시게 아름다운 요소로 거듭난다</span>”고 평했다. 4만~12만원. (02)2000-0114.<br/><br/>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136.txt

제목: ‘희귀암’에 걸린 세쌍둥이의 안타까운 사연  
날짜: 201403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45134108  
본문: 태어나기도 흔치않은 세쌍둥이가 모두 희귀한 눈암을 앓고있는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주고있다. <br/>최근 캐나다 토론토에 위치한 한 병원에 희귀질환을 가진 세쌍둥이가 부모와 함께 치료를 위해 찾아왔다. 세쌍둥이의 이름은 각각 토마스, 메이슨, 로크로 모두 생후 3개월 된 갓난아기다.<br/>의사들이 진단한 이 아이들의 병명은 놀랍게도 눈암이다. 학계에서는 ‘망막아세포종’(retinoblastoma)으로 부르는 이 희귀암은 주로 10세 이전의 어린이들에게 가장 발병 확률이 높다. 특히 이 암은 눈과 눈주변에 생기기 때문에 시력 상실은 물론 심할 경우 뇌에 암세포가 전이돼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br/>아빠 리처드 로는 “쌍둥이가 태어났다는 기쁨도 잠시 아이들의 동공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게됐다” 면서 “병원에서 눈암이라는 청천벽력같은 진단을 받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고 밝혔다.<br/>더 큰 문제는 아이들의 눈암 증상이 각각 차이가 있어 세아이가 다른 방식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중 토마스는 결국 오른쪽 안구를 제거했으며 나머지 아이들도 레이저로 종양을 제거하는 시술을 정기적으로 진행 중이다.<br/>아빠 리처드는 “<span class='quot0'>동공의 성장이 멈추는 2살때 까지 아이들은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한다</span>” 면서 “<span class='quot0'>자식들이 꼭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137.txt

제목: 시한부 3개월 남은 청년의 ‘버킷리스트’ 감동  
날짜: 201403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45124071  
본문: 만약 살 날이 얼마남지 않았다면 ‘버킷리스트’(bucket list·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일을 적은 목록)에 제일 먼저 무엇을 적을까? <br/><br/>불치암으로 생명이 3개월 여 남은 19세 청년이 자신이 써놓은 버킷리스트를 하나하나 실천에 옮기는 사연이 알려졌다. 안타까움과 동시에 감동까지 안기는 사연의 주인공은 미국 오리건주 웨스트 린에 사는 제이크 스톤킹(19).<br/>제이크는 한참 친구들과 뛰어놀 나이인 14살 때 희귀 뇌암 판정을 받고 수술대 위에 누웠다. 골프공 만한 크기의 종양을 떼어내며 암과의 사투를 벌였지만 최근 다시 재발하며 생명이 3개월여 남았다는 시한부 통보까지 받았다.<br/>어린나이에 실의에 빠질 법도 하지만 제이크는 자신이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버킷리스트’를 만들었다. 19살 청년이 과연 죽기 전에 제일먼저 해보고 싶은 일은 무엇이었을까?<br/>그의 1순위 리스트는 바로 스트립바를 방문하는 것이었다. 최근 제이크는 미국 내에서 19세가 출입이 가능한 한 스트립바를 찾아 오랜 ‘갈증’을 풀었다.<br/>스트립바 종업원은 “제이크의 사연을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를 해줬으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기를 바란다”고 밝혔다.<br/>첫번째 숙원을 이룬 제이크는 헬리곱터 타보기, 총 쏴보기, UFC 관람하기 등 19살 나이에 어울리는 소원을 하나하나 이뤄가고 있다.<br/>제이크의 아빠는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낀다” 면서 “아들의 버킷리스트를 모두 완료하기 위해서는 내년의 시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br/>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138.txt

제목: 희귀 ‘눈암’ 가진 세쌍둥이의 안타까운 사연  
날짜: 201403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45058263  
본문: 태어나기도 흔치않은 세쌍둥이가 모두 희귀한 눈암을 앓고있는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주고있다. <br/>최근 캐나다 토론토에 위치한 한 병원에 희귀질환을 가진 세쌍둥이가 부모와 함께 치료를 위해 찾아왔다. 세쌍둥이의 이름은 각각 토마스, 메이슨, 로크로 모두 생후 3개월 된 갓난아기다.<br/>의사들이 진단한 이 아이들의 병명은 놀랍게도 눈암이다. 학계에서는 ‘망막아세포종’(retinoblastoma)으로 부르는 이 희귀암은 주로 10세 이전의 어린이들에게 가장 발병 확률이 높다. 특히 이 암은 눈과 눈주변에 생기기 때문에 시력 상실은 물론 심할 경우 뇌에 암세포가 전이돼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br/>아빠 리처드 로는 “쌍둥이가 태어났다는 기쁨도 잠시 아이들의 동공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게됐다” 면서 “병원에서 눈암이라는 청천벽력같은 진단을 받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고 밝혔다.<br/>더 큰 문제는 아이들의 눈암 증상이 각각 차이가 있어 세아이가 다른 방식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중 토마스는 결국 오른쪽 안구를 제거했으며 나머지 아이들도 레이저로 종양을 제거하는 시술을 정기적으로 진행 중이다.<br/>아빠 리처드는 “<span class='quot0'>동공의 성장이 멈추는 2살때 까지 아이들은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한다</span>” 면서 “<span class='quot0'>자식들이 꼭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139.txt

제목: [사설] 언제까지 시민을 ‘갈취형 사회’에 방치할 텐가  
날짜: 201403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01429619  
본문: 우린 지금 돈과 힘이 만능인 비정한 사회에 살고 있는가. 힘있는 사람들이 약자들을 도와주기는커녕, 가뜩이나 삶이 고달픈 그들을 겁박해 갈취하고 앞날에 대한 희망 대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오늘도 우리 사회의 ‘비열한 거리’ 어디에서는 공권력이 눈을 감고 있는 사이에 강자들이 약자들을 괴롭히는 풍경이 펼쳐지고 있을 게다. 수많은 서민과 약자들은 이 같은 ‘갈취형 사회’에 좌절하면서 “국가와 정부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점에서 엊그제 경찰에 적발된 ‘조폭 상가관리단’과 ‘조폭 택시’ 등은 우리 사회 갈취 실태로 보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br/><br/><br/>서울 동대문의 한 대형 의류상가 관리단의 갈취 행태는 만행 수준이었다. 이들은 상가 부근에서 점포 없이 영업하는 영세상인들에게 보호비, 상가시설 이용료 등 각종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고, 철마다 선물과 휴가비 등을 받아 챙겼다. 불만을 제기하면 경비원 수십 명을 동원해 폭행을 일삼기도 했다. 그들의 위세에 누구하나 끽소리도 못내고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전국 곳곳에서 동료 기사나 시민들을 괴롭히고 있는 ‘조폭 택시’들도 당국이 외면하고 있는 사이에 ‘암덩어리’처럼 몸집을 키워왔다.<br/><br/><br/>경찰은 이번에 서울 강남대로 일대를 장악한 채 폭력을 일삼으며 다른 택시의 영업을 방해하고, 심야 장거리 손님을 상대로 부당요금과 합승을 강요한 조직을 적발했지만 ‘조폭 택시’의 횡포가 어디 강남대로뿐이겠는가. 많은 시민들은 이미 서울시청이나 신촌, 홍대역 등을 비롯해 전국의 공항과 역 부근에서 심야에 택시 잡기를 포기한 지 오래다. 특히 여성들의 ‘택시 공포’는 더욱 심각하다. 하지만 이처럼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도 당국은 뒷짐을 진 채 먼산만 바라봐 온 형국이다.<br/><br/><br/>초·중·고 시절에는 친구들에게 용돈을 갈취당하고, 대학생 때는 피라미드 조직 등에 현혹돼 등록금을 날리는가 하면 성인이 됐는데도 갈취와 위협에 시달린다면 이건 진짜 제대로 된 법치사회가 아니다. 오죽 공정하지 못하면 ‘유리지갑’ 직장인들은 국가에 세금을 갈취당하고 있다는 생각까지 하겠는가. 2017년까지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장밋빛 청사진만으로는 국민들의 행복감을 높일 수 없다. 당장 우리 사회 곳곳에 암처럼 퍼져 있는 갈취 구조를 깨뜨리는 데 모든 공권력을 집중해야 한다. 시민들을 ‘갈취형 사회’에 방치해서는 국민행복시대는 결코 열리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이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도 이 문제만큼은 반드시 바로잡고 넘어가야 한다.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140.txt

제목: [열린세상] 즐거운 노동? ‘사회적 힐링’이 필요/강수돌 고려대 경영학부 교수  
날짜: 201403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01410593  
본문: 최근 한 중요한 연구가 발표됐다. 김인아 연세대 교수의 ‘감정노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다. 그 근거는 2007∼2009년에 실시된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임금 노동자 약 5700여명의 응답 결과다. 핵심은 감정노동을 많이 할수록 우울증이나 자살 충동에 더 많이 노출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감정노동자들은 보통 노동자보다 우울증은 평균 3.7배, 자살 충동은 평균 3.3배 높았다.<br/><br/>도대체 감정노동은 뭔가. 이미 약 30년 전 이 문제에 주목해 ‘관리된 마음’이란 책을 낸 미국 UC버클리 대학의 A 혹스차일드 교수에 따르면, 감정노동이란 직업상 본연의 감정을 숨긴 채 특유의 표정과 몸짓을 드러내는 노동이다. 설사 고객이나 상사가 ‘몹쓸 짓’을 해도 참아야 한다. 상사나 고객에 대해 언제나 ‘을’의 입장을 견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인과 노예’에 비유하자면 감정노동자는 노예 신세다. 기존의 산업사회가 서비스사회로 변하면서 이런 감정노동은 더 널리 퍼진다. 예컨대, 비행기 승무원, 백화점 판매원, 식당 직원, 상담사, 카지노 딜러, 화장품 영업 사원, 철도 승무원, 간호사, 콜센터 직원 등은 대표적인 감정노동 수행자들이다. 심지어 교육자도 고객인 수강생에 대해 일정한 감정노동을 수행한다. 이들은 본연의 느낌이나 감정을 억누른 채 상사의 지시나 고객 요구에 부응해야 하기에 높은 스트레스를 받는다.<br/><br/>이 스트레스는 누적되고 일정한 한계를 넘으면 ‘양-질 전환 법칙’에 의해 우울증이나 암, 또는 자살까지 부른다. 일례로, 어느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던 41세 여성이 한 손님의 거듭된 폭언에 시달리다 심한 우울증에 걸렸고, 서비스 민원 처리를 하던 46세의 한 남성은 일처리와 관련한 소송까지 걸리자 직장 옥상에서 추락 자살했다. 다행히 산재가 인정돼 보상도 받았다. 이런 고통은 생각보다 많다. 한명숙 의원이 2200여명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30%가 고객응대 시 성희롱이나 신체접촉을 당했으며, 무려 81.1%가 욕설 등 폭언을 들었다. 그러나 보상이면 다 된 것인가. 결코 아니다. 중요한 건 몸과 마음의 건강이며 생명 그 자체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즐겁게 일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br/><br/>따지고 보면 서비스 노동자만이 아니라 자본주의에 사는 모든 노동자가 감정노동을 수행한다. 본연의 느낌이나 감정을 숨긴 채 상사나 동료, 고객 등에게 ‘좋은’ 얼굴을 하고 기업이 요구하는 생산적 노동, 즉 이윤 추구에 도움되는 노동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업만이 아니라 최근의 국정원 선거 개입이나 간첩 조작 사건 따위도 일종의 감정노동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높은’ 분의 맘에 들려고 거짓 행위를 하는 것이다.<br/><br/>이 모든 사태의 본질은 서비스라는 영역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문제다. 약자가 강자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현실, 약자가 현실의 잘못된 모습을 정직하게 느끼고 말하고 바꾸기 위한 실천을 할 수 없는 현실, 그래서 살아남으려고 강자의 논리를 내면화하여 강자가 요구하는 대로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현실, 이게 핵심이다. 결국, 문제의 뿌리는 자본주의 사회관계에 있고 그 근본 해결책은 민주주의다.<br/><br/>이제 민주주의는 단순히 선거일에 투표하는 행위로 협소하게 볼 수는 없다. 좋은 사람을 대표로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극히 일부일 뿐이다. 참된 민주사회란 자신의 솔직한 느낌이나 감정, 입장, 철학을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고, 모두의 진실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곳이다. 한마디로 개인들의 다양성과 공동체의 특이성이 모두 살아 숨 쉬는 것이 민주주의다.<br/><br/>이런 민주주의가 가정, 학교, 직장, 노조, 시민단체, 공공기관, 일반사회 등 모든 곳에서 잘 구현돼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사람들은 나름의 개성과 잠재력을 살려내는 공부를 할 수 있고, 그렇게 쌓은 실력에 걸맞은 일자리를 찾아 행복하게 일하며 살 수 있다. 아무 감정을 못 느끼는 불감증도 문제지만, 강자 앞에 살아남으려고 가짜 감정을 표현하는 감정노동도 큰 문제다. 참된 민주주의야말로 모두가 ‘나답게’ 살아갈 필요조건이다. 웰빙이니 힐링이니 하는 교묘한 상품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란 말이다.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민주주의라는 ‘사회적 힐링’이다.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141.txt

제목: “기적 일어나길…” 암 투병 자서전  
날짜: 201403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01148156  
본문: “<span class='quot0'>나의 인생 여행길은 기적과 같은 길이 없다면 곧 끝날 것 같다.</span>”<br/><br/>제17대 국회의원을 지낸 경남 통영 출신 김명주(47) 변호사가 최근 처음이자 마지막 자서전 ‘김명주의 인생 이야기’(부제: 사랑하고 땀 흘리며 기뻐하자)를 발간했다.<br/><br/>김 변호사는 오는 6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유력한 통영시장 후보였지만, 2013년 10월에 ‘간 내 담도암’ 판정을 받은 이후 가족과 고향에서 생애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다. 담도는 간세포 분비물인 담즙이 이동하는 경로이다. 여기에 생긴 암세포가 척추까지 전이돼 수술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는 암 진단 이후 항암치료 등 연명치료를 거부하고 고통을 줄이는 통증치료만 받고 있다. 이후 집에서 명상하거나 가벼운 산책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 평소처럼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고 가족과 여행을 떠나거나 시내 서점에 가는 등 평범한 일상을 즐기고 있다.<br/><br/>이번 자서전은 2010년에 펴낸 교양서적 ‘헌법사 산책’(산수야 펴냄)에 이은 두 번째 책이다. 자서전은 인생에 관한 생각을 모은 ‘인생은 한바탕 여행’, 정치 입문 이후의 이모저모를 담은 ‘정치의 봉사 현장에서’, 가족사와 개인사를 정리한 ‘하늘이 허락한 나의 삶’ 등 세 부분으로 나뉜다. 출판기념회는 15일 오후 6시 통영시 무전동 오복뷔페에서 열린다.<br/><br/>통영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142.txt

제목: ‘참 좋은 시절’ 김지호, 아가씨 아니신지? 착각 부르는 ‘미시 패션’  
날짜: 201403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44929708  
본문: 결혼을 하고 나면 참 많은 것이 달라진다. ‘아가씨’라는 호칭은 사라지고 곧바로 ‘유부녀’가 되고, 왠지 옷도 다르게 입어야 할 것 같다. 결혼 하나 했을 뿐인데, 세상의 시선은 너무나 달라져 있는 것이다.<br/>하지만 드라마에서는 미시도 ‘아가씨’로 되돌아가 있는 모습을 종종 본다. 따뜻한 가족이야기로 안방극장을 훈훈하게 만들고 있는 KBS2 주말드라마 ‘참 좋은 시절’ 속 김지호와 김희선이 그렇다. 특히 김지호는 7세 지능을 가진 비운의 여인으로, 나이에 비해 소녀 감성과 순수함을 그대로 가진 진짜 ‘아가씨’ 역을 열연하고 있다. <br/>이 드라마에는 두 명의 미시가 미혼의 ‘아가씨’로 등장하는데, 김지호와 김희선이다. 억척스러운 대부업 일수를 하고 있는 해원(김희선)과는 다르게 동옥(김지호)은 캐릭터 설정상 순수하고 맑은 소녀 같은 기운을 내뿜는다. <br/>아이처럼 순수한 동옥의 캐릭터는 김지호의 스타일링에서도 엿볼 수 있다. 초반부터 소녀들이 좋아하는 핑크색을 활용한 스타일링이 동옥의 캐릭터에 순수한 느낌을 더해줬다. 실제로는 ‘미시’인 김지호를 순수한 소녀로 ‘착각’하게 만든 아이템들을 활용하면 당신에게도 ‘반전’이 있을지 모른다.<br/>하늘하늘한 원피스는 여성스럽고 순수한 소녀라면 없어서는 안 될 아이템이다. 특히 봄기운을 물씬 느낄 수 있는 ‘마카롱’ 컬러들은 부드러우면서도 로맨틱한 무드를 자아낸다. 또한 올봄 키워드 중 하나는 바로 레이스다. 레이스는 사랑스럽고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풍기기 때문에 순수한 매력을 더욱 상승시켜 준다. 블링블링한 컬러와 레이스를 과하지 않게 잘 활용하면 미시도 소녀로 돌아갈 수 있다. <br/>‘참 좋은 시절’ 5회에서 동옥은 15년 만에 검사가 돼 돌아온 쌍둥이 동생 동석(이서진)에게 목걸이를 선물 받고 뛸 듯이 기뻐했다. 이날 김지호는 도트무늬가 도드라지는 조아맘 차이나 나염 원피스(위 사진 1, 5)에 레이스가 가미 된 라라코 나시 원피스(위 사진 1, 5)를 레이어드해 하늘하늘하고 단아한 이미지를 선보였다.<br/>차이나 나염 원피스처럼 폴리 소재로 제작된 아이템은 지나치게 가볍지 않으면서, 몸에 감기지도 않기 때문에 미시들의 군살을 커버하기 좋은 아이템이다. 주름이 들어간 스커트는 미시들이 특히 활용하기 좋다. 특히 허리 라인 밑으로 볼륨감이 느껴지는 셔링 주름이 잡혀 있으면 복부 군살을 커버할 수 있다. <br/>레이스가 돋보이는 원피스는 사랑스러우면서도 로맨틱한 무드를 자아내기 좋은 아이템이기 때문에 미시들의 활용도가 높다. 김지호처럼 다른 원피스 안에 레이어드해서 입거나 니트에 레이어드해도 좋다. 카디건과 매치하면 연약하고 하늘하늘한 이미지를 자아낸다.<br/>‘참 좋은 시절’ 6회에서는 동석과 해원이 해주(진경) 모녀로부터 도둑 누명을 쓰고 뛰쳐나간 동옥을 찾아 헤매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동옥은 세련된 네이비 컬러에 슬림한 허리라인을 포인트로 준 그레이스 원피스(위 사진 2, 3, 4)로 수난 속에서도 로맨틱하면서도 세련된 이미지를 보여줬다. <br/>미시가 되면 결혼식에 갈 일이 많아진다. 오랜만에 본 친구들에게 “아줌마 다 됐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다면, 이날의 김지호처럼 몸매를 커버해주면서 날씬한 효과를 주는 아이템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짙은 네이비 컬러는 슬림함을 자아내는 대표적인 색상이다. 또한 허리 아래로 길게 퍼지는 주름이 들어간 아이템은 날씬해 보이는 효과를 준다. <br/>하객 패션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레이스는 단아하면서도 섹시함을 함께 가지고 있는 소재이다. 속이 비쳐 보이는 레이스의 특징을 이용해, 겉감과 안감의 길이를 다르게 한 레이스 스커트를 입으면 다리 라인이 살짝 드러나면서 섹시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부각시킬 수 있다. <br/>소녀 같은 순수하고 깨끗한 느낌은 따뜻한 이미지와 일맥상통한다. 스타일링에서 시각적으로 따뜻한 느낌을 주는 요소는 바로 컬러와 소재다. 파스텔 톤은 심리적으로 따뜻하면서도 포근한 느낌을 자아내며, 아크릴, 울 소재의 손뜨개 아이템들은 시각적인 따뜻함뿐만 아니라 몸소 느낄 수 있는 따뜻함까지 가져다준다.<br/>‘참 좋은 시절’ 2회에서는 쌍둥이 남매 동옥과 동석이 15년 만에 재회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김지호는 이날 오랜만에 동생을 만나 부끄러워 도망치는 장면에서 카미에 스냅버튼 니트 핑크 코트(사진 1)로 소녀 감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동심의 캐릭터를 더욱 살렸다. 아크릴과 울, 나일론이 섞인 독특한 소재지만 핑크의 화사한 느낌이 소재의 무거운 느낌을 없애주고 따뜻한 느낌을 증가시켜줬다. <br/>5회에서는 15년 만에 돌아온 동석의 방에 가족사진을 선물로 주려는 동옥의 따뜻한 모습이 등장했다. 이때 김지호는 하늘하늘한 꽃무늬 블라우스에 라핀 롱 니트 조끼(사진 2)를 매치해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동옥의 마음을 전했다. 이러한 조끼는 여유 있는 암 홀 라인과 여유로운 일자 핏이 편안함을 주며, 넉넉한 길이감으로 어떤 룩에든 가볍게 걸쳐주면 스타일리시한 룩이 완성되는 ‘소녀풍 미시’의 필수품이다. <br/>또한 동석의 목걸이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장면에서 김지호는 그레이 컬러의 프로방스 자수 카디건(사진3)을 차이나 나염 원피스에 매치해 포근하면서도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켜 줬다. <br/>카디건은 미시들에게 가장 필요한 아이템 중 하나다. 활동성이 좋을 뿐만 아니라 어디에나 매치하기 쉽기 때문이다. 특히 울 함유량이 높은 소재를 선택하면 보온성도 높일 수 있다. 이때 자수 디테일이 있는 제품을 선택하면 우아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해 준다. <br/>7회 예고편에서도 김지호의 ‘소녀 미시’ 스타일을 엿볼 수 있었다. 이른 봄을 맞아 김지호는 산뜻한 봄 패션을 선보였다. 차이나 셔링 롱 남방 속에 레이스가 돋보이는 원피스를 레이어드 한 후 테리아 니트 조끼(사진 4)로 따뜻함을 더해줬다. 특히 데님컬러 위에 아이보리 컬러가 더해져 자칫 차가워 보일 수 있는 느낌을 따뜻한 이미지로 바꿔줬다. <br/>김지호가 보여주는 미시 패션을 통해 미시들의 아우터웨어로는 조끼와 카디건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미시들의 마음은 아가씨지만, “아가씨 때 입던 옷을 입으면 답답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이런 미시들에게는 오픈된 스타일의 아우터웨어가 조임이 없어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다. 또한 무난한 디자인의 조끼는 어느 곳에나 착용하기 좋으므로 활용성과 보온성을 모두 높여 준다. <br/>사진=조아맘, 참좋은시절 캡처　<br/>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143.txt

제목: [통합암치료칼럼] ② 제4의 암치료, 고주파온열치료(上)  
날짜: 201403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44847075  
본문: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많은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서양의학의 대표적인 3대 암 치료법인 수술, 항암제, 방사선 치료와 더불어 면역치료, 온열치료, 비타민 요법 등 각종 치료방법과 보조적인 치료방법이 쓰이고 있다.<br/>그 중 온열치료는 종양조직에 42°C~43°C까지의 고온의 열을 가하여 암세포를 괴사시키게 하는 치료방법으로서 ‘제4의 암 치료’로 불릴 정도로 치료 효과와 치료 범위도 점점 늘어나며 방사선 치료나 항암제 치료와 함께 병행해 시행할 경우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br/>온열치료의 기본적인 원리는 암 조직과 건강한 조직의 차이를 이용하는 것인데,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암 조직과 건강한 조직은 에너지 대사, 전기적 성질, 그리고 화학적 성질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br/>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단백질이나 핵산과 같은 물질이 과도한 열에 노출되면 암 조직에 있던 건강한 조직에 있던 상관없이 모두 손상을 입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임상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기술을 적절히 이용하여 암 조직에만 특정 온도까지 가열시키면 암 조직에 있는 단백질과 핵산은 과열시켜서 죽이고, 건강한 조직에는 별로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br/>히포크라테스 시대부터 이용된 온열치료는 2000년대 후반, 종양조직에만 선택적으로 열을 가하는 고주파 온열치료기가 도입되면서 임상에서도 활발히 사용하게 됐다. 정상세포에 가해지는 부담이 적고, 강화된 표면제시로 면역원성이 증가되며, 방사선치료와 화학요법 감응도가 상승하는 특징이 있다.<br/>실제 임상에서도 고주파온열암치료의 단독시행보다는 약물치료 또는 방사선 치료와 병행하고 있으며 온열치료와 다른 치료를 병행 할 때 암 조직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며 더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다. <br/>한편 이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한 온열암치료의 단독 치료 효과, 항암•방사선 치료와의 병행 효과, 한방면역치료 등 보완의학적 치료와의 병행 효과는 ‘제4의 암치료, 고주파온열치료 下’ 편에서 다룰 예정이다.<br/>소람한방병원 한재복 원장 <br/>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144.txt

제목: ‘시한부 3개월’ 남은 19살 청년의 ‘버킷리스트’  
날짜: 201403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44726941  
본문: 만약 살 날이 얼마남지 않았다면 ‘버킷리스트’(bucket list·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일을 적은 목록)에 제일 먼저 무엇을 적을까?<br/><br/>불치암으로 생명이 3개월 여 남은 19세 청년이 자신이 써놓은 버킷리스트를 하나하나 실천에 옮기는 사연이 알려졌다. 안타까움과 동시에 감동까지 안기는 사연의 주인공은 미국 오리건주 웨스트 린에 사는 제이크 스톤킹(19).<br/>제이크는 한참 친구들과 뛰어놀 나이인 14살 때 희귀 뇌암 판정을 받고 수술대 위에 누웠다. 골프공 만한 크기의 종양을 떼어내며 암과의 사투를 벌였지만 최근 다시 재발하며 생명이 3개월여 남았다는 시한부 통보까지 받았다.<br/>어린나이에 실의에 빠질 법도 하지만 제이크는 자신이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버킷리스트’를 만들었다. 19살 청년이 과연 죽기 전에 제일먼저 해보고 싶은 일은 무엇이었을까?<br/>그의 1순위 리스트는 바로 스트립바를 방문하는 것이었다. 최근 제이크는 미국 내에서 19세가 출입이 가능한 한 스트립바를 찾아 오랜 ‘갈증’을 풀었다.<br/>스트립바 종업원은 “제이크의 사연을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를 해줬으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기를 바란다”고 밝혔다.<br/>첫번째 숙원을 이룬 제이크는 헬리곱터 타보기, 총 쏴보기, UFC 관람하기 등 19살 나이에 어울리는 소원을 하나하나 이뤄가고 있다.<br/>제이크의 아빠는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낀다” 면서 “아들의 버킷리스트를 모두 완료하기 위해서는 내년의 시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br/>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145.txt

제목: 지방의회들 “건보공단 담배소송 지지”  
날짜: 201403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94715129  
본문: 지난 1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회가 담배제조회사들을 상대로 흡연피해 관련 소송을 제기하기로 방침을 정한 뒤 전국 각 지방의회의 지지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br/><br/><br/>경기 고양시의회는 13일 개회하는 임시회에 ‘흡연피해보전법 법제화 추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한다고 12일 밝혔다.<br/><br/><br/>대표발의자인 이윤승 의원은 “<span class='quot0'>전문연구기관에 의해 흡연과 암 질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연간 7000억원의 순이익을 올리는 담배회사가 그 어떤 경제적 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는 게 부당해 건보공단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해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게 됐다</span>”고 말했다.<br/><br/><br/>시흥시의회는 지난 1월 28일 만장일치로 ‘시흥시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서울 강동구의회·관악구의회·양천구의회·서초구의회, 대전 동구의회, 광주시의회 등이 소송촉구 결의문을 잇따라 채택했다. 경기 의정부시의회와 여주시의회 등 상당수 지방의회도 기고문 게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고 있다.<br/><br/><br/>최정규 서초구의회 의장은 “<span class='quot1'>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흡연자의 암 발생은 비흡연자보다 최대 6.5배 높고 진료비도 매년 1조 7000억원이 추가 지출된다</span>”면서 “<span class='quot1'>이 비용을 절감하면 국민의 한 달치 보험료를 충당할 수 있고,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4대 중증질환을 보장해 줄 수 있어 결의안을 채택했다</span>”고 밝혔다.<br/><br/><br/>이는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주 정부가 나서서 담배회사에 소송을 제기, 거액의 배상합의를 이끌어 낸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49개 주 정부는 필립모리스 등 4개 담배회사에 소송을 제기, 2460억 달러(약 220조원)의 배상액에 합의한 바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는 지난해 5월 담배회사에 500억 달러(약 53조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됐다.<br/><br/><br/>이에 대해 KT&G 관계자는 “<span class='quot2'>건강보험공단의 소송 제기 움직임은 공단의 심각한 재정위기 우려에 대한 책임을 담배회사로 돌리거나 혹은 담배 관련 부담금을 우회적으로 인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span>”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br/><br/><br/>이 관계자는 “<span class='quot3'>공단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과거 법원의 판례 등으로 볼 때 승소 가능성은 매우 낮다</span>”면서 “<span class='quot3'>오히려 소송으로 막대한 비용과 행정력을 낭비해 건보 재정 악화와 혈세 부담만 초래할 것</span>”이라고 주장했다.<br/><br/><br/>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146.txt

제목: 삼성서울병원, 통합진료 가능한 심장뇌혈관병원 출범  
날짜: 201403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93931255  
본문: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 등 뇌혈관 질환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한국형 심장뇌혈관병원이 출범했다. 한국형 중증 질환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착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이지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은 심장질환과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을 한꺼번에 치료할 수 있는 심장뇌혈관병원이 12일 공식 개원해 본격적인 진료를 시작했다고 밝혔다.<br/><br/>삼성서울병원은 이날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심장뇌혈관병원 공식 출범과 관련한 기자간담회에서 심장뇌혈관병원 개원을 공식 선언하고, 이 병원을 통해 심장뇌혈관 질환에 대해서는 모든 과정이 원스톱으로 처리되는 광대역 협진시스템을 가동해 즉시 치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고난도 중증질환자 치료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송재훈 병원장은 “<span class='quot0'>심장뇌혈관병원은 암병원에 이어 개별 진료과 간의 창조적 융복합 산물</span>”이라며 “<span class='quot0'>환자 중심의 통합 진료서비스를 제공해 심장, 뇌졸중, 혈관 분야의 새로운 진료와 연구 성과를 이루는 계기로 만들겠다</span>”고 말했다.<br/><br/>삼성서울병원은 이를 위해 심장내과 분야의 세계적 석학으로 꼽히는 미국 메이요 클리닉 오재건 교수를 초대 병원장으로 선임했다. 현재 메이요클리닉 순환기내과 교수로 재직 중인 오재건 신임 병원장은 심장 분야에서 350여 편의 국제 학술지 논문을 발표했으며, 6개 언어로 번역된 심장초음파의 교과서(The Echo Manual)를 출판하는 등 이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로 꼽힌다. 송 병원장은 “<span class='quot0'>오 병원장은 메이요 클리닉과 삼성서울병원 심장뇌혈관병원의 진료를 함께 맡는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연중 절반을 한국에서 진료하게 될 것</span>”이라고 밝혔다. 오 병원장은 “<span class='quot1'>심장뇌혈관병원 내에 있는 심방세동-뇌졸중 클리닉처럼 환자에게 원스톱 통합 치료 및 예방이란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는 게 특징</span>”이라며 “<span class='quot1'>앞으로 우리나라 심장, 뇌졸중, 혈관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span>”고 말했다.<br/><br/>심장뇌혈관병원은 심장센터와 혈관센터, 뇌졸중센터, 이미징센터, 예방재활센터, 운영지원실 등 5개 센터, 1개 지원실로 구성됐다. 또 내·외과적 치료가 동시에 가능한 하이브리드 치료법도 적용된다. 이를 위해 외과적 수술과 내과적 시술이 한 자리에서 모두 이뤄질 수 있는 하이브리드 수트를 설치해 일반적인 시술은 물론 수술이 어려운 고위험환자 등에게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br/><br/>암에 이어 한국인 사망원인 2·3위인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은 서로 발병 원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고, 이들 질환을 동시에 앓거나 다른 질환이 뒤따라 발병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삼성서울병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혈관질환 클리닉, 경동맥협착 클리닉, 심방세동환자-뇌졸증 클리닉 등 환자 중심의 새로운 통합진료 클리닉도 개설했다.<br/><br/>또 진료과별로 나뉘어져 있는 외래 및 입원공간을 통합해 환자 불편을 줄이고, 21곳이던 진료실에 6곳을 추가해 진료대기 시간을 줄일 계획이다. 치료의 난도가 높은 중증환자와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급성 뇌졸중환자를 위한 전용 병상 등 설비를 확충하고 신경집중치료 전문의 등 전문 인력도 추가하기로 했다. 혈관외과, 심장외과, 응급의학과, 중환자의학과 등 대동맥 질환과 관련된 전문의로 당직체계를 갖춰 언제든지 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24시간 대동맥 전탐팀’도 가동했다. <br/><br/>송재훈 병원장은 “<span class='quot0'>심장뇌혈관병원 출범이 국내에서 통용된 기존 치료 패턴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환자 중심의 통합진료 서비스를 통해 심장뇌혈관 분야의 새로운 진료와 연구 성과를 일구는 모멘텀이 되도록 하겠다</span>”는 포부를 밝혔다.<br/>　<br/>　심재억 의학전문기자 jeshim@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147.txt

제목: 진주 운석 소유권은 누구에게?…땅주인이냐 최초 발견자냐  
날짜: 201403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93531743  
본문: 지난 10일 경남 진주에서 발견된 암석이 운석일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가 나오면서 이 암석의 가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br/>암석이 발견된 진주시 대곡면 단목리의 비닐하우스 현장을 조사한 극지연구소 이종익 박사가 11일 암석 표면에 탄 흔적과 비닐하우스로 낙하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이 암석은 운석일 가능성이 50% 이상이라고 밝혔다.<br/>운석이란 유성체라고 부르는 금속 또는 석질 물질이 지구 대기를 통과하는 동안 완전히 소멸하지 않고 지면에 떨어진 행성간 입자나 덩어리를 말한다. 즉 운석이란 대기 중에 돌입한 별똥별이 타버리지 않고 땅에 떨어진 것을 가리치는 것.<br/>앞으로 1~2주일 정확한 분석 작업을 거쳐야 운석 여부가 최종 판명 나겠지만 운석일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 암석의 가치가 관심사로 떠올랐다.<br/>진주에서 운석으로 추정되는 암석이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 사이에선 ‘진주 운석 가격’, ‘진주 운석 사진 보니 수십억 가겠는데’, ‘진주 운석은 하늘에서 떨어진 로또’ 등의 반응이 잇따랐다.<br/>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운석 가치는 희귀성이나 크기, 성분 등 여러 가지 요소를 따져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br/>진주교육대 부설 한국지질유산연구소장인 김경수 교수는 “<span class='quot0'>진주 암석이 운석으로 판명되면 지난 1943년 전남 고흥군 두원면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낙하지점이 확인된 두 번째 운석이라는 희소성과 학술적 가치가 상당하다</span>”고 말했다.<br/>그는 “<span class='quot0'>우리나라에서 운석이 발견된 것 자체가 굉장히 희귀하다</span>”며 “<span class='quot0'>운석 크기와 종류, 나이, 특징, 어디서 왔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가격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span>”고 밝혔다.<br/>경상대 지구환경과학과 광물물리학 전공인 김영호 교수는 “<span class='quot1'>운석을 잘라서 지구에 없는 암석구조인 ‘콘듈(condul)’이 나오느냐에 따라 운석 가치는 크게 달라진다</span>”고 언급했다.<br/>이어 “운석 성분이 철인지, 암석인지, 철과 암석이 섞여 있는지도 운석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다”며 “대체로 발견되는 운석의 10% 미만인 철운석이 암석 성분의 운석보다는 더 가치 있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br/>실제로 지난달 러시아 소치 올림픽 때 운석으로 만든 금메달 가격이 1ｇ당 236만원으로 순금의 40배에 달해 관심이 쏠렸는데 이 금메달에 포함된 운석이 철운석 성분인 것으로 알려졌다.<br/>하지만 이번에 발견된 진주 암석이 운석으로 판명되면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학술적 가치가 훨씬 크다는 것이 학계의 견해다.<br/>극지연구소 이종익 박사는 “<span class='quot2'>재물적 가치로서는 아직 의미가 없고 이야기하기 부적절하다</span>”며 “<span class='quot2'>대신에 운석 시료가 거의 없는 우리나라에서 이 암석이 운석으로 판명 나면 해방 이후 한반도에서 떨어진 첫 운석이라는 점에서 희귀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지질학계 관심이 높다</span>”고 말했다.<br/>경상대 김영호 교수도 “<span class='quot3'>땅에 도달하는 것 자체가 희귀한 운석은 사고파는 것보다 학술적인 가치가 더 크다</span>”며 “<span class='quot3'>진주 암석에 대한 조사 결과를 차분히 기다려야 한다</span>”고 밝혔다.<br/>한편 운석 소유권은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이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br/>하늘에서 떨어진 주인 없는 물건인데다 문화재로 보기 어려워 떨어진 지점의 부동산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최초 발견자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지질학계는 전했다.<br/>이에 따라 이번 진주 운석 소유권은 최초 발견자인 강씨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br/>진주 운석 가격에 대해 네티즌들은 “<span class='quot4'>진주 운석 가격, 비닐하우스 주인 최초 발견자 대박났네</span>”, “<span class='quot4'>진주 운석 가격, 운석을 줍다니 이게 무슨 횡재야</span>”, “<span class='quot4'>진주 운석 가격, 이건 로또보다 더 대박이다</span>” 등의 반응을 보였다. <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148.txt

제목: [영화 多樂房] ‘우리가 들려줄 이야기’  
날짜: 201403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93240651  
본문: 다큐멘터리 영화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다루고 ‘실존 인물’을 등장시킨다는 점에서 극영화가 갖지 못한 권력을 행사한다. 다큐멘터리가, 리얼리티 쇼가 ‘전혀 가공되지 않은 것’이라는 신화는 깨진 지 오래이건만 최소한 ‘진실과 가까울 것’이라는 믿음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다. 그 믿음은 이야기에 호소력과 감동까지 실어 준다. 사라 폴리 감독의 ‘우리가 들려줄 이야기’가 특별한 것도 이 작품이 그녀 자신의 가족사를 다룬 자기 반영적 다큐멘터리이기 때문이다. 극영화였다면 다소 평범할 수도 있는, 여느 멜로드라마와 유사한 서사를 다큐멘터리라는 형식으로 드라마틱하게 엮어낸 그녀의 영민함은 과연 유수의 영화제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br/><br/>이 영화의 주인공은 사라 폴리 감독의 어머니인 다이앤 폴리다. 이미 20여년 전에 암으로 숨을 거둔 그녀의 이야기가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것은 가족들조차 알지 못했던 그녀의 비밀이 최근에 밝혀진 까닭에 있다. 물론 그보다 앞서, 다이앤의 막내딸이 자라 영화감독이 됐다는 것은 숙명이랄까. 감독은 가족들과 어머니의 지인들을 한 명씩 앉혀 놓고 모든 것을 처음부터 이야기해 달라는 요구로 인터뷰를 시작한다. 얼핏 평범해 보이지만 이것은 한 인물 혹은 동일한 사건을 여러 사람의 시각으로 조명하려는 의도가 잘 반영된 도입부다. 열명이 넘는 인터뷰이(interviewee)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다이앤에 관한 추억들을 끄집어낸다. 기억의 불완전성과 개인의 경험 차로 인해 영화가 진행될수록 ‘진짜’ 다이앤의 모습은 오히려 희미해져 가기도 하지만 영화가 끝날 때쯤에는 다시 환조처럼 입체적으로 조각된 그녀의 과거가 드러난다. 가공된 기억들의 교집합 속에서 출생의 비밀을 풀어 나가는 과정 또한 관객들에게 미스터리 장르처럼 흥미진진한 영화적 경험을 제공한다.<br/><br/>감독은 내용뿐 아니라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진실에 관한 질문을 던진다. 인터뷰 가운데 삽입된 과거 영상들에는 홈비디오 녹화 자료와 슈퍼 8미리 카메라를 통해 재연된 장면이 혼재돼 있다. 재연분이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게 촬영되고 편집된 탓에 관객들은 녹화 자료와의 차이를 별로 느낄 수 없을 정도인데 이는 객관성과 주관성을 넘나드는 다큐멘터리의 본질에 대해 인식하게 만든다. 불현듯 가공된 장면을 발견하면서 느끼게 되는 긴장감과 거리감은 의외로 짜릿하고 상쾌하다. 감독 스스로가 이미 다큐멘터리의 한계, 즉 ‘진실’이라는 허울을 벗기로 결심한 부분이기 때문이다.<br/><br/>여기에 감독의 아버지인 마이클의 내레이션을 들려주고 그 녹음 과정을 보여준 구성은 이 영화에서 가장 뛰어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연극배우였던 마이클의 낭독이 훌륭한 것은 물론이요, 때로 부끄럽고 당황스러운 가족사까지 여과 없이 읽어 가는 동안 그의 목소리에 속속들이 묻어나는 다층적인 감정들이 절절하고 사랑스럽기 때문이다. 결국 감독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혼돈 속에서 발견한 진실은 후회와 그리움 그리고 남겨진 가족에 대한 사랑이 담긴 아버지(!)의 목소리에 있는 것이 아닐까. 13일 개봉. 15세 이상 관람가.<br/><br/>윤성은 영화평론가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149.txt

제목: 아산의학상에 서판길·이경수 교수  
날짜: 201403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93117245  
본문: 아산사회복지재단이 제7회 아산의학상 수상자로 기초의학부문에 서판길(왼쪽) 울산과기대 생명과학부 교수와 임상의학부문에 이경수(오른쪽) 성균관대 의대 교수를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br/><br/>서 교수는 생명현상의 기본원리인 세포 신호전달의 개념과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를 통해 암 성장과 전이 과정의 비밀을 규명한 업적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 교수는 영상장비를 이용해 폐암의 조기 진단과 암의 진행 상태인 병기 결정을 실용화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br/><br/>젊은의학자부문에는 뇌신경 세포들을 연결해 주는 시냅스의 핵심 분자 메커니즘을 밝혀낸 고재원 연세대 생명시스템대 교수와 관상동맥질환에서 약물용출성 그물망 시술 후 항혈소판제의 적절한 사용 기간에 대한 지침을 제시한 박덕우 울산대 의대 교수가 선정됐다. <br/><br/>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150.txt

제목: “몸에서 나는 냄새로 질병 아는 방법 있다” (美 연구)  
날짜: 201403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44433180  
본문: 최근 냄새로 주인의 몸 속 암을 찾아낸 견공의 이야기가 알려져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바 있다. <br/>해외 연구팀은 이처럼 냄새로 병을 알아내는 것은 더 이상 견공의 ‘특별한 능력’이 없이도 가능하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br/>미국 필라델피아 몬넬화학감각센터(Monnell Chemical Sense Center)의 조지 프레티 박사는 최근 연구를 통해 각 병마다 특별한 냄새를 풍긴다는 사실을 알아냈다.<br/>프레티 박사의 주장에 따르면 간에 이상이 있는 경우 호흡할 때 날생선 냄새가 나며, 정신분열증이 있는 사람에게서는 식초 냄새가 난다. 또 방광염 환자에게서는 암모니아로부터 나오는 소변냄새를, 장티푸스 환자의 피부에서는 막 구운 빵 냄새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br/>이밖에도 연주창(림프샘의 결핵성 부종인 갑상선종이 헐어서 터지는 병) 환자에게서는 김빠진 맥주 향이, 황열병 환자의 피부에서는 정육점에서나 맡을 수 있는 냄새가 난다. <br/>이는 정상적인 신진대사 과정이 암세포로 인해 영향을 받으면 몸 내부에서 이전과는 다른 화학반응이 발생하면서 각기 특징적인 냄새가 뿜어져 나오기 때문이다. <br/>이러한 냄새들이 너무 약하게 풍기거나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묘한 경우에는 ‘전자 코’(Electrocin noses) 기술을 이용할 수 있다. <br/>프레티 박사는 최근 몇 주 간의 연구를 통해 ‘전자 코’기기가 냄새를 이용해 유방암을 식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효과는 유방암 여부를 검사하는데 쓰는 유방조영상과 거의 비슷할 정도로 컸다. <br/>의학계는 이 발견이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프레티 박사는 특히 이 기술이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운 난소암을 한시라도 빨리 찾아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br/>그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개 역시 이 기술과 마찬가지로 병을 구분해 낼 수 있다. 실험 결과, 90%가 병을 찾아내는데 성공했다. 다만 개가 이를 사람에게 표현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자 코’ 같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br/>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미국전기전자공학연구소(IEEE)의 학술지인 ‘센서 저널‘(Sensors Journal)에 실렸다. <br/>사진=포토리아　<br/>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151.txt

제목: 진주 운석 가치는…가격·소유권은 어떻게 정해질까  
날짜: 201403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92842729  
본문: 지난 10일 경남 진주에서 발견된 암석이 운석일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가 나오면서 이 암석의 가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br/>암석이 발견된 진주시 대곡면 단목리의 비닐하우스 현장을 조사한 극지연구소 이종익 박사가 11일 암석 표면에 탄 흔적과 비닐하우스로 낙하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이 암석은 운석일 가능성이 50% 이상이라고 밝혔다.<br/>운석이란 유성체라고 부르는 금속 또는 석질 물질이 지구 대기를 통과하는 동안 완전히 소멸하지 않고 지면에 떨어진 행성간 입자나 덩어리를 말한다. 즉 운석이란 대기 중에 돌입한 별똥별이 타버리지 않고 땅에 떨어진 것을 가리치는 것.<br/>앞으로 1~2주일 정확한 분석 작업을 거쳐야 운석 여부가 최종 판명 나겠지만 운석일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 암석의 가치가 관심사로 떠올랐다.<br/>진주에서 운석으로 추정되는 암석이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 사이에선 ‘진주 운석 가격’, ‘진주 운석 사진 보니 수십억 가겠는데’, ‘진주 운석은 하늘에서 떨어진 로또’ 등의 반응이 잇따랐다.<br/>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운석 가치는 희귀성이나 크기, 성분 등 여러 가지 요소를 따져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br/>진주교육대 부설 한국지질유산연구소장인 김경수 교수는 “<span class='quot0'>진주 암석이 운석으로 판명되면 지난 1943년 전남 고흥군 두원면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낙하지점이 확인된 두 번째 운석이라는 희소성과 학술적 가치가 상당하다</span>”고 말했다.<br/>그는 “<span class='quot0'>우리나라에서 운석이 발견된 것 자체가 굉장히 희귀하다</span>”며 “<span class='quot0'>운석 크기와 종류, 나이, 특징, 어디서 왔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가격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span>”고 밝혔다.<br/>경상대 지구환경과학과 광물물리학 전공인 김영호 교수는 “<span class='quot1'>운석을 잘라서 지구에 없는 암석구조인 ‘콘듈(condul)’이 나오느냐에 따라 운석 가치는 크게 달라진다</span>”고 언급했다.<br/>이어 “운석 성분이 철인지, 암석인지, 철과 암석이 섞여 있는지도 운석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다”며 “대체로 발견되는 운석의 10% 미만인 철운석이 암석 성분의 운석보다는 더 가치 있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br/>실제로 지난달 러시아 소치 올림픽 때 운석으로 만든 금메달 가격이 1ｇ당 236만원으로 순금의 40배에 달해 관심이 쏠렸는데 이 금메달에 포함된 운석이 철운석 성분인 것으로 알려졌다.<br/>하지만 이번에 발견된 진주 암석이 운석으로 판명되면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학술적 가치가 훨씬 크다는 것이 학계의 견해다.<br/>극지연구소 이종익 박사는 “<span class='quot2'>재물적 가치로서는 아직 의미가 없고 이야기하기 부적절하다</span>”며 “<span class='quot2'>대신에 운석 시료가 거의 없는 우리나라에서 이 암석이 운석으로 판명 나면 해방 이후 한반도에서 떨어진 첫 운석이라는 점에서 희귀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지질학계 관심이 높다</span>”고 말했다.<br/>경상대 김영호 교수도 “<span class='quot3'>땅에 도달하는 것 자체가 희귀한 운석은 사고파는 것보다 학술적인 가치가 더 크다</span>”며 “<span class='quot3'>진주 암석에 대한 조사 결과를 차분히 기다려야 한다</span>”고 밝혔다.<br/>한편 운석은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이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br/>하늘에서 떨어진 주인 없는 물건인데다 문화재로 보기 어려워 떨어진 지점의 부동산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최초 발견자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지질학계에서는 전했다.<br/>진주 운석 가격에 대해 네티즌들은 “진주 운석 가격, 50억원? 얼마나 될까”, “진주 운석 가격, 진짜 운석이면 비닐하우스 주인은 로또 맞은 셈이네”, “진주 운석 가격, 비닐하우스 주인 안 다친 것도 다행인데 대박까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152.txt

제목: 진주 운석 진짜로 판명되면 가격은…소유권은 누구에게?  
날짜: 201403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92818065  
본문: 지난 10일 경남 진주에서 발견된 암석이 운석일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가 나오면서 이 암석의 가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br/>암석이 발견된 진주시 대곡면 단목리의 비닐하우스 현장을 조사한 극지연구소 이종익 박사가 11일 암석 표면에 탄 흔적과 비닐하우스로 낙하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이 암석은 운석일 가능성이 50% 이상이라고 밝혔다.<br/>운석이란 유성체라고 부르는 금속 또는 석질 물질이 지구 대기를 통과하는 동안 완전히 소멸하지 않고 지면에 떨어진 행성간 입자나 덩어리를 말한다. 즉 운석이란 대기 중에 돌입한 별똥별이 타버리지 않고 땅에 떨어진 것을 가리치는 것.<br/>앞으로 1~2주일 정확한 분석 작업을 거쳐야 운석 여부가 최종 판명 나겠지만 운석일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 암석의 가치가 관심사로 떠올랐다.<br/>진주에서 운석으로 추정되는 암석이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 사이에선 ‘진주 운석 가격’, ‘진주 운석 사진 보니 수십억 가겠는데’, ‘진주 운석은 하늘에서 떨어진 로또’ 등의 반응이 잇따랐다.<br/>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운석 가치는 희귀성이나 크기, 성분 등 여러 가지 요소를 따져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br/>진주교육대 부설 한국지질유산연구소장인 김경수 교수는 “<span class='quot0'>진주 암석이 운석으로 판명되면 지난 1943년 전남 고흥군 두원면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낙하지점이 확인된 두 번째 운석이라는 희소성과 학술적 가치가 상당하다</span>”고 말했다.<br/>그는 “<span class='quot0'>우리나라에서 운석이 발견된 것 자체가 굉장히 희귀하다</span>”며 “<span class='quot0'>운석 크기와 종류, 나이, 특징, 어디서 왔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가격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span>”고 밝혔다.<br/>경상대 지구환경과학과 광물물리학 전공인 김영호 교수는 “<span class='quot1'>운석을 잘라서 지구에 없는 암석구조인 ‘콘듈(condul)’이 나오느냐에 따라 운석 가치는 크게 달라진다</span>”고 언급했다.<br/>이어 “운석 성분이 철인지, 암석인지, 철과 암석이 섞여 있는지도 운석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다”며 “대체로 발견되는 운석의 10% 미만인 철운석이 암석 성분의 운석보다는 더 가치 있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br/>실제로 지난달 러시아 소치 올림픽 때 운석으로 만든 금메달 가격이 1ｇ당 236만원으로 순금의 40배에 달해 관심이 쏠렸는데 이 금메달에 포함된 운석이 철운석 성분인 것으로 알려졌다.<br/>하지만 이번에 발견된 진주 암석이 운석으로 판명되면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학술적 가치가 훨씬 크다는 것이 학계의 견해다.<br/>극지연구소 이종익 박사는 “<span class='quot2'>재물적 가치로서는 아직 의미가 없고 이야기하기 부적절하다</span>”며 “<span class='quot2'>대신에 운석 시료가 거의 없는 우리나라에서 이 암석이 운석으로 판명 나면 해방 이후 한반도에서 떨어진 첫 운석이라는 점에서 희귀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지질학계 관심이 높다</span>”고 말했다.<br/>경상대 김영호 교수도 “<span class='quot3'>땅에 도달하는 것 자체가 희귀한 운석은 사고파는 것보다 학술적인 가치가 더 크다</span>”며 “<span class='quot3'>진주 암석에 대한 조사 결과를 차분히 기다려야 한다</span>”고 밝혔다.<br/>한편 운석은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이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br/>하늘에서 떨어진 주인 없는 물건인데다 문화재로 보기 어려워 떨어진 지점의 부동산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최초 발견자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지질학계에서는 전했다.<br/>진주 운석 가격에 대해 네티즌들은 “<span class='quot4'>진주 운석 가격, 학술적 가치가 대단하다는데 비닐하우스 주인은 진짜 운석으로 판명되면 어떻게 처리하려고 할까</span>”, “<span class='quot4'>진주 운석 가격, 진짜 운석으로 판명되면 가격이 얼마가 될지 궁금하다</span>”, “<span class='quot4'>진주 운석 가격, 대체 어떻게 그 비닐하우스에 별다른 운석공 없이 떨어진 걸까</span>” 등의 반응을 보였다. <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153.txt

제목: 진주 운석 진짜일 경우 가격은…운석이란?  
날짜: 201403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92752490  
본문: 지난 10일 경남 진주에서 발견된 암석이 운석일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가 나오면서 이 암석의 가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br/>암석이 발견된 진주시 대곡면 단목리의 비닐하우스 현장을 조사한 극지연구소 이종익 박사가 11일 암석 표면에 탄 흔적과 비닐하우스로 낙하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이 암석은 운석일 가능성이 50% 이상이라고 밝혔다.<br/> 운석이란 유성체라고 부르는 금속 또는 석질 물질이 지구 대기를 통과하는 동안 완전히 소멸하지 않고 지면에 떨어진 행성간 입자나 덩어리를 말한다. 즉 운석이란 대기 중에 돌입한 별똥별이 타버리지 않고 땅에 떨어진 것을 가리치는 것.<br/>앞으로 1~2주일 정확한 분석 작업을 거쳐야 운석 여부가 최종 판명 나겠지만 운석일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 암석의 가치가 관심사로 떠올랐다.<br/>진주에서 운석으로 추정되는 암석이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 사이에선 ‘진주 운석 가격’, ‘진주 운석 사진 보니 수십억 가겠는데’, ‘진주 운석은 하늘에서 떨어진 로또’ 등의 반응이 잇따랐다.<br/>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운석 가치는 희귀성이나 크기, 성분 등 여러 가지 요소를 따져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br/>진주교육대 부설 한국지질유산연구소장인 김경수 교수는 “<span class='quot0'>진주 암석이 운석으로 판명되면 지난 1943년 전남 고흥군 두원면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낙하지점이 확인된 두 번째 운석이라는 희소성과 학술적 가치가 상당하다</span>”고 말했다.<br/>그는 “<span class='quot0'>우리나라에서 운석이 발견된 것 자체가 굉장히 희귀하다</span>”며 “<span class='quot0'>운석 크기와 종류, 나이, 특징, 어디서 왔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가격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span>”고 밝혔다.<br/>경상대 지구환경과학과 광물물리학 전공인 김영호 교수는 “<span class='quot1'>운석을 잘라서 지구에 없는 암석구조인 ‘콘듈(condul)’이 나오느냐에 따라 운석 가치는 크게 달라진다</span>”고 언급했다.<br/>이어 “운석 성분이 철인지, 암석인지, 철과 암석이 섞여 있는지도 운석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다”며 “대체로 발견되는 운석의 10% 미만인 철운석이 암석 성분의 운석보다는 더 가치 있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br/>실제로 지난달 러시아 소치 올림픽 때 운석으로 만든 금메달 가격이 1ｇ당 236만원으로 순금의 40배에 달해 관심이 쏠렸는데 이 금메달에 포함된 운석이 철운석 성분인 것으로 알려졌다.<br/>하지만 이번에 발견된 진주 암석이 운석으로 판명되면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학술적 가치가 훨씬 크다는 것이 학계의 견해다.<br/>극지연구소 이종익 박사는 “<span class='quot2'>재물적 가치로서는 아직 의미가 없고 이야기하기 부적절하다</span>”며 “<span class='quot2'>대신에 운석 시료가 거의 없는 우리나라에서 이 암석이 운석으로 판명 나면 해방 이후 한반도에서 떨어진 첫 운석이라는 점에서 희귀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지질학계 관심이 높다</span>”고 말했다.<br/>경상대 김영호 교수도 “<span class='quot3'>땅에 도달하는 것 자체가 희귀한 운석은 사고파는 것보다 학술적인 가치가 더 크다</span>”며 “<span class='quot3'>진주 암석에 대한 조사 결과를 차분히 기다려야 한다</span>”고 밝혔다.<br/>한편 운석은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이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br/>하늘에서 떨어진 주인 없는 물건인데다 문화재로 보기 어려워 떨어진 지점의 부동산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최초 발견자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지질학계에서는 전했다.<br/>진주 운석 가격에 대해 네티즌들은 “<span class='quot4'>진주 운석 가격, 진짜로 판명되면 가격이 얼마나 될까</span>”, “<span class='quot4'>진주 운석 가격, 비닐하우스 주인 대박났네</span>”, “<span class='quot4'>진주 운석 가격, 학술적 가치에 대해 비닐하우스 주인이 어떻게 대처할까</span>” 등의 반응을 보였다. <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154.txt

제목: “복강경 위암수술 모든 병기에 유효 확인”  
날짜: 201403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92615613  
본문: 복강경을 이용한 위암수술이 조기 위암은 물론 진행성 등 모든 병기의 위암에서도 종양학적으로 안전하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됐다. 복강경으로 위암을 수술치료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5년 이상 장기 추적한 세계 최초의 연구 결과다.<br/><br/><br/>분당서울대병원 김형호·아주대병원 한상욱 교수팀은 각각 복강경수술과 개복수술을 받은 위암 환자 약 3000명을 장기간 추적조사한 결과, 수술방식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고 11일 밝혔다. 대한복강경위장관연구회(KLASS)가 주관한 이 연구에는 분당서울대병원(김형호), 아주대병원(한상욱), 세브란스병원(형우진), 여의도성모병원(김욱), 서울대병원(이혁준), 부천순천향대병원(조규석), 서울성모병원(송교영), 전남대병원(류성엽), 동아대병원(김민찬), 계명대병원(류승완) 등 전국 10개 대형 의료기관이 참여했다. <br/><br/><br/>연구팀은 1998년 4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위암 치료를 위해 근치적 수술을 받은 환자 2976명(복강경 위 절제술 1477명, 개복수술 1499명)을 대상으로 복강경수술과 개복수술의 장기 성적을 위암 병기별(1A~3C)로 분석했다. 그 결과, 병기에 관계없이 복강경수술과 개복수술이 동일한 생존율을 보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수술합병증 및 사망률도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br/><br/><br/>최근 들어 조기위암 환자에게는 복강경수술을 주로 적용한 반면 진행성 위암인 경우에는 개복을 통한 포괄적인 병변 절제를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치료 관행이었으나 그동안 장기 생존을 분석한 연구는 없었다. 연구팀은 “이 연구는 세계 복강경 위암수술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에서 다수의 의료기관이 참여해 모든 병기의 위암에서 복강경수술이 종양학적으로 안전하다는 점을 밝힌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br/><br/><br/>연구를 주도한 분당서울대병원 외과 김형호 교수는 “<span class='quot0'>세계적으로 많은 의사들이 복강경 위암수술을 시행하고 있지만 장기성적에 대해서는 믿을만한 연구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한국에서 복강경 위암수술의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대규모 다기관 연구를 시작할 때부터 세계 의료계가 관심을 보였고, 결과적으로 장기 생존율에 차이가 없음을 입증함에 따라 복강경 위암수술이 표준수술법으로 정착하는데 중요한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span>”고 밝혔다.<br/><br/><br/>서구권에 비해 위암 발생률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배를 열지 않고도 위암을 치료할 수 있는 복강경수술의 도입은 큰 괌심을 끌었다. 개복 수술에 비해 절개 부위를 최소화할 수 있어 출혈이나 합병증 위험이 적은 데다 미용적 측면에서도 우수하기 때문이다. <br/><br/><br/>그럼에도 불구하고 복강경수술이 위암의 표준수술법인 개복수술의 완벽한 대안으로 인식되지 못했으며, 전문의마다 안전성에 대한 의견도 제각각이었다. 개복수술은 오랜 기간 적용해 안전성이 확인됐지만, 복강경수술은 장기연구 결과가 없었기 때문이다. <br/><br/><br/>이 연구 결과는 임상 암연구 분야의 세계적 권위지인 ‘임상종양학회지(Journal of Clinical Oncology)’를 통해 발표됐으며, 네이처 자매지인 ‘네이처 임상종양 리뷰지(Nat Rev Clin Oncol)’도 ‘리서치 하이라이트’로 이 연구 성과를 조명했다. 미국의 메모리얼 슬로언 케터링 암병원 비비안 스트롱 교수는 임상종양학회지 논설을 통해 “<span class='quot1'>이 연구를 통해 최소침습적 접근인 복강경수술이 종양학적으로 안전하며, 개복수술과 동등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명쾌하게 입증했다</span>”고 평가했다. 아주대 한상욱 교수는 “<span class='quot2'>복강경수술이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장기 성적이 없어 많은 논란을 겪은 게 사실</span>”이라며 “<span class='quot2'>우리 의료진에 의해 복강경 위암수술이 표준치료법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중요한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span>”고 말했다.<br/><br/><br/>한편, 대한복강경위장관연구회는 김형호 교수를 책임연구자로 지명해 복강경 위암 수술에 대한 전향적 다기관 임상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 16개 병원 14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합병증 및 사망률, 비용 대비 효과와 환자의 삶의 질, 면역력과 장기생존율을 비교하기 위한 연구로 오는 2015년에 결과를 제시할 예정이다.<br/>　<br/>　심재억 의학전문기자 jeshim@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155.txt

제목: 제7회 아산의학상 서판길·이경수 교수 수상  
날짜: 201403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92534740  
본문: 아산사회복지재단은 제7회 아산의학상 수상자로 서판길 울산과기대 생명과학부 교수(기초의학 부문)와 이경수 성균관대 의대 교수(임상의학 부문)를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젊은의학자상 수상자로는 뇌 신경세포들을 연결해주는 시냅스의 핵심 분자 메커니즘을 밝혀낸 연세대 생명시스템대 고재원 교수와 관상동맥질환에서 약물용출성 그물망 시술 후 항혈소판제의 적절한 사용기간에 대한 지침을 제시한 울산대의대 박덕우 교수가 각각 선정됐다.<br/><br/>서판길 교수는 생명현상의 기본원리인 세포 신호전달의 개념과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를 통해 암세포의 성장과 전이 과정의 비밀을 규명한 업적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경수 교수는 영상장비를 이용해 폐암의 조기진단과 암의 진행 상태인 병기 결정을 실용화한 공로를 인정받았다.<br/><br/>기초·임상의학 부문 수상자인 서판길·이경수 교수에게는 각각 상금 3억원이, 젊은의학자부문 수상자인 고재원·박덕우 교수에게는 각각 상금 5000만원이 주어진다. 시상식은 오는 21일 열린다.<br/><br/>아산의학상은 아산사회복지재단이 인류의 건강증진을 위해 기초 및 임상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뤄낸 국내 의과학자를 발굴해 격려하기 위해 2007년에 제정했다.<br/>　<br/>　심재억 의학전문기자 jeshim@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156.txt

제목: 아베 히로유키 초청, ‘신수지상세포 암백신치료’ 세미나 열려  
날짜: 201403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92353324  
본문: 한국 ACC바이오가 일본 전이·재발암 치료 전문병원 아베종양내과 아베 히로유키 이사장을 초청해 세미나를 마련했다. <br/><br/>10일 한국 ACC바이오에 따르면, 오는 17일 서울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아베종양내과 아베히로유키 이사장이 새로운 개별화 암 치료법인 ‘신수지상세포 암백신치료’를 주제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는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내 암환자와 가족들에게 고무적인 소식이다. <br/><br/>이날 발표될 ‘신수지상세포 암백신치료’는 지난 2013년 11월 제 17회 국제개별화의료학회에서 전이·재발암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한 결과 74.4%의 효과를 거뒀다고 밝힌 치료방식이다. 9개월 동안 진행성 전이·재발암 환자 39명을 대상으로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치료와 복합면역세포치료를 총 6회 실시한 결과 암세포가 완전 관해된 환자는 2명(5.12%), 부분 관해된 환자는 5명(12.82%), 정지·안정된 환자는 22명(56.41%), 진행된 환자는 10명(25.64%)으로 나타났다. <br/><br/>이 ‘신 수지상 암 백신치료’는 개인별 유전자형 검사와 HLA-항원 검사, 암 별종양마커 기능검사 등을 통해 기존 치료에서는 확인이 어려웠던 개인별 암 세포의 특징이나 항암제에 대한 내성, 암 세포로 발전하게 된 이유 등을 파악해 보다 정확한 치료와 재발 및 전이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br/><br/>아베종양내과 아베 히로유키 이사장은 “<span class='quot0'>인체의 1% 미만인 수지상세포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2~3시간의 성분채혈 과정을 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아베종양내과는 정상 혈액 중 4~8%의 단구(單球)에 개인별 유전자 검사와 암항원 검사를 하여 암치료에 필요한 펩타이드를 추가해 신 수지상세포 백신치료를 마련했다</span>”고 설명했다. <br/><br/>신 수지상세포 암백신치료는 T세포에 공격대상이 되는 암 항원의 정보를 제시해 암세포의 항원 정보를 전달받은 세포상해성 T림프구(Cytotoxic T Lymphocyte, CTL)가 이 표식을 가진 암세포만 표적으로 삼아 집중 공격하는 방식이다. CTL은 정상세포는 공격하지 않기 때문에 부작용이 거의 없다. 따라서 이 항암면역치료는 수술이 어려운 침윤성암이나 발견이 어려운 미세한 암 치료에도 효과적이다. 현재 이 기술력은 전 세계에서 소수의 의료기관에서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br/>아베종양내과는 암항원 인식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WT1’과 ‘MUC1’ 펩타이드를 유전자 검사를 통해 개인별 암 특성에 맞는 것을 찾아 추가했다. 지금까지 WT1 펩타이드 중 일부만을 사용해 치료효과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1번부터 449번까지 있는 WT1 펩타이드는 암세포를 공격하는 킬러T세포를 활성화하고, MUC1 펩타이드는 헬퍼T세포와 B세포를 활성화하여 항암 지속기간을 6~9개월까지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br/><br/>아베 히로유키 이사장은 “<span class='quot0'>신수지상세포 암백신치료는 암항원인 WT1 펩티드 전체와 MUC1 펩티드를 함께 활용해 치료효과가 우수하다</span>”며 “<span class='quot0'>대다수 일본 내 병원들이 동결보관한 수지상세포를 사용하기 때문에 치료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span>”고 말했다.<br/><br/>이어 “아베종양내과에서는 매번 소량만 채혈해 선도 높은 백신을 제조함으로써 기존 동결방식의 문제점도 보완했다”고 강조했다. <br/><br/>한편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는 아베 이사장의 신수지상세포 임상도서 ‘암, 이젠 치료할 수 있다’를 무료로 제공한다. 아울러 아베종양내과는 오는 6월14일 제18회 국제개별화의료학회에서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치료 임상연구결과를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157.txt

제목: [독자의 소리] 흡연피해 어린이 보호대책 세워야/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박숙희  
날짜: 201403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92312430  
본문: 초등학교 근처에서 조그만 가게를 하고 있다. 근처에 전철역이 있어 사람들 왕래가 많은 편이다. 남자 성인 중 열에 셋 이상은 담배를 피우면서 거리를 걷는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학교에 갓 입학한 아이들이 걱정이다. 담배를 들고 내리는 손이 아이들 눈높이로 담뱃불이 얼굴에 닿거나 담배에서 튄 불똥에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간접흡연에 노출된 어린이는 기관지염, 폐렴 발생위험이 2배, 기침증상 발생률이 최고 6배, 중이염 발생위험 1.6배나 각각 높다고 한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 흡연 폐해에 대한 교육과 초등학교 안은 물론 반경 일정거리 이내 금연구역 지정 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br/><br/><br/>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보도를 본 적이 있다. 흡연으로 암 등 35개 질환 진료비가 2011년 기준 연간 1조 7000억원이 추가 지출됨에 따라 연간 수천 억원의 순이익을 내면서 부담을 지지 않는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br/><br/><br/>미성년자들의 흡연피해 조사가 부족한 것이 아쉽다. 공단이 보유한 자료를 활용, 미성년자들의 흡연 피해도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소송을 제기했으면 한다. 소송과 함께 담배회사가 흡연폐해의 사회적 책임을 지고, 피해자들 특히 미성년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수익금 일부로 ‘흡연피해 치료비’ 부담을 강제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으면 한다. 금연운동 확산으로 절감된 건강보험 재정은 흡연 피해로 고통받는 미성년자 치료비와 암 등 중증질환자 보험급여 확대에 지원했으면 한다.<br/><br/><br/>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박숙희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158.txt

제목: 아베 히로유키 초청, ‘신수지상세포 암백신치료’ 세미나 열려  
날짜: 20140310  
기자: 이보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91804511  
본문: 한국 ACC바이오가 일본 전이·재발암 치료 전문병원 아베종양내과 아베 히로유키 이사장을 초청해 세미나를 마련했다. <br/><br/>10일 한국 ACC바이오에 따르면, 오는 17일 서울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아베종양내과 아베히로유키 이사장이 새로운 개별화 암 치료법인 ‘신수지상세포 암백신치료’를 주제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는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내 암환자와 가족들에게 고무적인 소식이다. <br/><br/>이날 발표될 ‘신수지상세포 암백신치료’는 지난 2013년 11월 제 17회 국제개별화의료학회에서 전이·재발암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한 결과 74.4%의 효과를 거뒀다고 밝힌 치료방식이다. 9개월 동안 진행성 전이·재발암 환자 39명을 대상으로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치료와 복합면역세포치료를 총 6회 실시한 결과 암세포가 완전 관해된 환자는 2명(5.12%), 부분 관해된 환자는 5명(12.82%), 정지·안정된 환자는 22명(56.41%), 진행된 환자는 10명(25.64%)으로 나타났다. <br/><br/>이 ‘신 수지상 암 백신치료’는 개인별 유전자형 검사와 HLA-항원 검사, 암 별종양마커 기능검사 등을 통해 기존 치료에서는 확인이 어려웠던 개인별 암 세포의 특징이나 항암제에 대한 내성, 암 세포로 발전하게 된 이유 등을 파악해 보다 정확한 치료와 재발 및 전이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br/><br/>아베종양내과 아베 히로유키 이사장은 “<span class='quot0'>인체의 1% 미만인 수지상세포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2~3시간의 성분채혈 과정을 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아베종양내과는 정상 혈액 중 4~8%의 단구(單球)에 개인별 유전자 검사와 암항원 검사를 하여 암치료에 필요한 펩타이드를 추가해 신 수지상세포 백신치료를 마련했다</span>”고 설명했다. <br/><br/>신 수지상세포 암백신치료는 T세포에 공격대상이 되는 암 항원의 정보를 제시해 암세포의 항원 정보를 전달받은 세포상해성 T림프구(Cytotoxic T Lymphocyte, CTL)가 이 표식을 가진 암세포만 표적으로 삼아 집중 공격하는 방식이다. CTL은 정상세포는 공격하지 않기 때문에 부작용이 거의 없다. 따라서 이 항암면역치료는 수술이 어려운 침윤성암이나 발견이 어려운 미세한 암 치료에도 효과적이다. 현재 이 기술력은 전 세계에서 소수의 의료기관에서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br/>아베종양내과는 암항원 인식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WT1’과 ‘MUC1’ 펩타이드를 유전자 검사를 통해 개인별 암 특성에 맞는 것을 찾아 추가했다. 지금까지 WT1 펩타이드 중 일부만을 사용해 치료효과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1번부터 449번까지 있는 WT1 펩타이드는 암세포를 공격하는 킬러T세포를 활성화하고, MUC1 펩타이드는 헬퍼T세포와 B세포를 활성화하여 항암 지속기간을 6~9개월까지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br/><br/>아베 히로유키 이사장은 “<span class='quot0'>신수지상세포 암백신치료는 암항원인 WT1 펩티드 전체와 MUC1 펩티드를 함께 활용해 치료효과가 우수하다</span>”며 “<span class='quot0'>대다수 일본 내 병원들이 동결보관한 수지상세포를 사용하기 때문에 치료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span>”고 말했다.<br/><br/>이어 “아베종양내과에서는 매번 소량만 채혈해 선도 높은 백신을 제조함으로써 기존 동결방식의 문제점도 보완했다”고 강조했다. <br/><br/>한편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는 아베 이사장의 신수지상세포 임상도서 ‘암, 이젠 치료할 수 있다’를 무료로 제공한다. 아울러 아베종양내과는 오는 6월14일 제18회 국제개별화의료학회에서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치료 임상연구결과를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br/><br/>연예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159.txt

제목: 방배동 미라, 시신을 7년간 집에 두고 생활한 이유? ‘부활믿어..충격’  
날짜: 20140310  
기자: 김채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91245577  
본문: ‘방배동 미라’ 사건이 화제다. <br/><br/>8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는 약사출신의 아내가 암으로 사망한 남편 시신을 집안 거실 한가운데에 7년간 보관해둔 사연이 공개됐다. <br/><br/>2013년 11월 7년간 암으로 투병 중이었던 한 남자가 자취를 감췄다. 생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제보를 받은 제작진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그 집을 찾았다. 주민들은 여자의 집 주변에서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난다며 신고를 했지만 여자는 끝내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br/><br/>2013년 12월 26일,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급받은 뒤에야 집안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집안에는 한 남자의 시신이 거실 한가운데에 놓여있었다. 시신은 7년 동안 완전히 부패하지 않은 미라 상태에 가까웠다. <br/><br/>아내는 그동안 남편의 안부를 묻는 질문에 “잘 지내고 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말해왔다. 주변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아내는 시신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잠을 잤으며, 시신을 씻긴다고 했다. 아내의 직업은 약사다. 이웃들은 “아내의 성격이 명랑하고 활발했다”고 말했다. <br/><br/>집에는 세 자녀와 남자의 친 누나도 시신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남자의 가족들은 시신이 ‘살아있다’고 믿었다고 전했다. <br/><br/>신기하게도 ‘방배동 미라’는 부패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방배동 미라’는 타살 흔적은 없었고,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사인은 불분명했다. <br/><br/>방배동 미라 방송을 본 네티즌들은 “<span class='quot0'>방배동 미라, 도대체 무슨 종교를 믿었길래</span>”, “<span class='quot0'>방배동 미라, 7년을 시신과 함께 살다니..</span>”, “<span class='quot0'>방배동 미라, 시신이 부패하지 않은 이유가 더 궁금해</span>”, “<span class='quot0'>방배동 미라..온 가족이 부활을 믿었다는 게 놀랍다</span>”, “<span class='quot0'>방배동 미라..제목부터 오싹해</span>”등의 반응을 보였다. <br/><br/>사진 = 방송 캡처 (방배동 미라)<br/><br/>연예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160.txt

제목: 여성의 그날, 심한 통증·오락가락 주기 그냥 참지마  
날짜: 201403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91007321  
본문: 회사원 이모(28)씨는 최근 진통제를 먹어도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생리통이 심해져 병원을 찾았다가 자궁내막증 진단을 받았다. ‘남들도 그러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겨 통증을 방치한 게 화근이 됐다. 초음파 검사 결과 이씨의 양측 난소에는 자궁내막증에 의한 커다란 혹이 발견됐다. 불임 가능성도 있다는 의사의 말에 때늦은 후회를 했지만 이미 절제술이 불가피할 정도로 증상이 악화된 상황이었다. <br/><br/>생리통은 초경을 시작한 10대 여학생부터 폐경기의 50대 여성까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여성이면 누구나 경험한다. 그래서 생리가 시작되면 생리통이 오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에 매달 심한 통증으로 고생하더라도 진통제만 먹고 참는 경우가 많다. 질병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심한 생리통을 방치하면 이씨처럼 불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자궁내막증이 올 수도 있다. 무관심이 병을 부르는 셈이다.<br/><br/>자궁내막증은 생리혈에 섞여 매달 배출돼야 할 자궁내막조직이 난관을 타고 자궁 밖으로 역류해 통증과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난소에 주머니 모양의 혹인 낭종을 만들기도 하고 장, 방광 등 다른 장기를 침범해 합병증을 일으킨다.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다른 이유로 수술을 받은 환자의 18%에서 우연히 발견되기도 한다. 따라서 일단 20대 이후 생리통이 갑자기 심해졌거나 성교통 및 만성골반증이 있다면 자궁내막증을 의심해 봐야 한다. <br/><br/>자궁내막증의 원인은 아직도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다. 유전적 요인, 서구식 식생활, 다이옥신 같은 환경호르몬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실제로 진료자 수는 2008년 5만 3000명에서 2012년 8만명으로 크게 급증했다. 연평균 8.5%씩 늘고 있는 것이다. <br/><br/>제일병원 불임생식내분비과 송인옥 교수는 “<span class='quot0'>임신, 출산 및 수유를 통해 무월경 시기를 길게 가져가는 게 자궁내막증의 가장 좋은 치료이지만 최근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면서 자궁내막증이 악화되거나 이로 인한 난임이 증가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 자궁내막증 환자의 10명 중 7명은 30~40대 가임기 여성이며, 난임으로 내원한 환자의 30~70%에서 발견된다고 한다. 생리가 계속되는 한 완치가 어렵기 때문에 재발률도 40~50%로 상당히 높다. <br/><br/>치료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르다. 주로 소염제나 경구피임약을 사용하지만 약물치료로도 호전되지 않으면 수술을 한다. 수술이 필요한 정도의 중증 자궁내막증으로 악화되면 불임 가능성이 커질 수 밖에 없다. 하복부 불쾌감 정도를 넘어 경련이 일어나거나 허리와 골반이 끊어질 듯 생리통이 심한 경우, 진통제도 듣지 않고 구토·요통·전신 쇠약감·전신 피로감·설사·어지럼증·불안 및 초조 등 다른 증상을 동반한다면 예방과 초기 치료를 위해 전문의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생리 불순이 왔을 때도 되도록 병원을 찾아 검진을 받아보는 게 좋다. <br/><br/>정상적인 생리양은 하루에 생리대 3~5장이 필요한 정도지만 2~3시간마다 생리대를 흠뻑 적시는 정도로 양이 많은 경우는 자궁선근증, 자궁내막증식증, 암, 자궁내막 근종 등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생리 출혈량이 80㎖를 넘으면 빈혈이 생긴다. 반대로 지나치게 생리양이 적어도 체내 호르몬에 불균형이 온 것이니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는 안 된다. 자궁의 위축, 난소 기능 저하, 불임증 등이 있을 수도 있다. <br/><br/>2~3달에 한 번 생리를 하거나 한 달에 두 번씩 생리를 한다면 다낭성 난소증후군일 가능성이 높다. 다낭성 난소증후군은 호르몬 균형이 깨져 남성호르몬이 많아지면서 배란이 잘 되지 않는 질환이다. 배란이 매달 규칙적으로 이뤄져야 생리도 주기적으로 하게 되는데, 배란이 잘 되지 않으면 생리 주기도 오락가락하게 된다. 이렇게 만성적으로 배란이 안 되면 난소 안에 배란을 일으킬 만큼 성장하지 못한 작은 난포(난자를 둘러싼 세포막)들이 많아지게 된다. 그래서 다낭성 난소증후군이라고 부른다. <br/><br/>다낭성 난소증후군은 가임기 여성의 약 10%에서 나타나는 흔한 질환으로 주로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발생한다. 인슐린은 우리 몸의 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인데, 이 호르몬이 기능을 잘하지 못하면 체내 인슐린이 증가하게 되고 남성호르몬 분비량도 덩달아 늘게 된다. 이 밖에 유전적 요인, 비만, 스트레스 등과도 연관이 있다. 인슐린 기능 이상이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당뇨나 고지혈증, 고혈압 등의 성인병이 함께 올 수도 있다. 특히 임신 시 유산 가능성, 임신성 당뇨 등의 위험이 크다. 또 남성호르몬 증가로 얼굴이나 몸에 다모증, 여드름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갑자기 살이 찐다든지 하는 증상이 있을 수도 있다. <br/><br/>예방을 위해선 무엇보다 식습관을 개선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비만이라면 체중을 감량하고, 혈당을 많이 올리는 식품이나 패스트푸드 등을 먹지 말고 현미나 야채를 중심으로 식단을 새롭게 꾸리는 게 좋다. 운동은 일주일에 3회 정도 걷기나 달리기가 적당하다. 임신을 원하지 않는 여성들은 생리불순을 방치해 두는 경우가 많은데 생리를 규칙적으로 하는 것은 여성의 건강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치료를 받고 조절하는 게 좋다. 장기간 생리를 하지 않는 무월경은 특히 위험한데, 뇌하수체·난소·부신 종양이 원인인 경우 방치하면 자칫 목숨까지 잃을 수 있다. 또 무월경 환자 중 프로테스테론 분비 없이 에스트로겐만 지속적으로 분비되는 경우 자궁내막암 또는 유방암의 위험이 있고, 반대로 에스트로겐 결핍을 보이는 경우 골다공증에 걸릴 수도 있다. 간질환, 신장질환, 당뇨병 및 갑상선 질환이 원인일 수도 있으니 즉시 치료해야 한다. <br/><br/>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161.txt

제목: 방배동 미라, 남자의 시신이 거실 한가운데에..‘시신과 7년간 생활’  
날짜: 20140309  
기자: 김채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90536609  
본문: ‘방배동 미라’ 사건이 화제다. <br/><br/>8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는 약사출신의 아내가 암으로 사망한 남편 시신을 집안 거실 한가운데에 7년간 보관해둔 사연이 공개됐다. <br/><br/>2013년 11월 7년간 암으로 투병 중이었던 한 남자가 자취를 감췄다. 생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제보를 받은 제작진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그 집을 찾았다. 주민들은 여자의 집 주변에서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난다며 신고를 했지만 여자는 끝내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br/><br/>2013년 12월 26일,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급받은 뒤에야 집안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집안에는 한 남자의 시신이 거실 한가운데에 놓여있었다. 시신은 7년 동안 완전히 부패하지 않은 미라 상태에 가까웠다. <br/><br/>아내는 그동안 남편의 안부를 묻는 질문에 “잘 지내고 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말해왔다. 주변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아내는 시신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잠을 잤으며, 시신을 씻긴다고 했다. 아내의 직업은 약사다. 이웃들은 “아내의 성격이 명랑하고 활발했다”고 말했다. <br/><br/>집에는 세 자녀와 남자의 친 누나도 시신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남자의 가족들은 시신이 ‘살아있다’고 믿었다고 전했다. <br/><br/>신기하게도 ‘방배동 미라’는 부패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방배동 미라’는 타살 흔적은 없었고,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사인은 불분명했다. <br/><br/> 사진 = 방송 캡처 (방배동 미라)<br/><br/>연예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162.txt

제목: 비타민C를 주제로 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날짜: 201403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83552040  
본문: 　최근 들어 의료계에서 비타민C의 효용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비타민C를 주제로 한 국제심포지엄이 서울에서 열린다.<br/>　비타민C는 일각에서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항산화 효과가 주목을 받으면서 사회적인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영양소이다. 이런 관심사를 반영해 국제적인 의학·약학·식품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두고 토론을 벌이는 것.<br/>　한국식품과학회(회장 이호)는 ‘비타민C와 고령화 사회의 웰니스’를 주제한 국제심포지엄을 25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광동제약(대표 최성원)이 지원하는 이번 심포지엄에는 미국 밴더빌트대학교 피오나 해리슨 박사와 존스홉킨스의대 에드거 밀러 3세 교수, 서울대의대 이왕재 교수 등 국내외 의학과 약학 권위자들이 주제발표자로 나서 노화와 비타민C의 기능 등을 두고 다양한 연구 성과와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br/>　심포지엄은 ‘비타민C의 노인성 질환 예방효과’, ‘비타민 C의 암 치료 및 관리효과’, ‘비타민C의 피부노화 억제효과’ 등 3가지 세션으로 진행되며, 행사는 2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프라자호텔 별관 그랜드볼룸에서 열린다. 참가 희망자는 한국식품과학회 홈페이지(www.kosfost.or.kr)에 사전등록하면 된다. 문의 (02)566-9937.<br/>　<br/>　심재억 의학전문기자 jeshim@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163.txt

제목: [부고] ‘석면피해구제’ 앞장 최형식씨  
날짜: 201403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82846424  
본문: 석면 노출로 암에 걸린 피해자들을 위한 ‘석면피해구제법’을 제정하는 데 앞장선 환경운동가 최형식씨가 지난 3일 오전 악성중피종암으로 별세했다. 72세.<br/><br/>고인은 2008년 6월 원발성 악성중피종암을 진단받은 이후 5년 9개월여 동안 병마와 싸우면서 석면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환경운동을 벌였고 2011년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된 뒤 첫 구제 대상자가 됐다. 희귀암인 악성중피종암은 85∼95% 이상이 석면노출 때문에 발생해 ‘석면암’으로도 불린다. 고인은 지난해부터 건강이 악화했지만 병상에서도 “악성중피종암 피해자들을 돌봐줄 모임이 잘되길 바란다”면서 다른 피해자들을 걱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br/><br/>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164.txt

제목: “중년의 ‘고기’ 과다 섭취 , 담배만큼 해롭다”(美 연구)  
날짜: 201403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43641308  
본문: 중년에 과식하는 고기와 치즈는 담배만큼이나 몸에 해롭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br/>미국 남캘리포니아 대학 연구팀은 50세 이상의 남녀 6400명의 건강데이터를 약 20년간 분석한 결과, 중년에 단백질을 과다 섭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사망률이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r/>또 암으로 사망할 확률은 4배에 달했는데, 이는 하루에 담배 20개비를 피웠을 때 암에 걸릴 확률과 비슷한 수치다. <br/>과거 붉은 고기와 암의 연관성을 밝힌 연구가 나온 적은 있지만, 단백질을 규칙적으로 과다섭취 하는 식습관과 암의 연관성이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br/>이미 여러 나라에서 설탕과 소금, 지방 등의 섭취를 줄여야 한다고 권장하지만, 단백질 과다 섭취에 대한 주의 경고는 많지 않다. <br/>몇 해 전 영국에서는 고단백다이어트로 불리는 ‘뒤캉 다이어트’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지만, 연구팀은 이러한 방식이 건강에 매우 해로울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br/>연구를 이끈 발터 롱고 교수는 “<span class='quot0'>만약 동물에서 추출한 단백질로 다이어트를 한다면 이는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span>”고 설명했다. <br/>이어 “고기나 치즈, 달걀 등 동물성 식품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종양을 키우고 몸 속 세포의 노화를 촉진한다면서 “50대와 60대 초반의 중년은 고기나 치즈 속 단백질 대신 생선이나 콩 등에 함유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덧붙였다.<br/>다만 65세 이후에는 몸이 필요로 하는 단백질 양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중년 때보다는 다양한 방식으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br/>일부 전문가들은 “붉은 고기 섭취를 줄이는 것이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식단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br/>이번 연구결과는 ‘the Journal Cell’ 최신호에 게재됐다. <br/>사진=포토리아<br/>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165.txt

제목: 밀렵꾼들에게 코뿔 잘려 비틀거리는 코뿔소 포착 ‘충격’  
날짜: 201403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82116530  
본문: 멸종 위기 동물인 코뿔소를 보호하기 위한 운동이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또 다시 코뿔이 제거된 코뿔소가 포착돼 충격을 주고 있다.<br/><br/>4일(현지시간) 미국 인터넷매체 허핑턴포스트에 따르면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 크루거 국립공원에서 코뿔이 제거된 코뿔소가 포착됐다.<br/><br/>지난달 28일 공원에서 촬영돼 이달 초 유튜브에 게재된 영상에는 코뿔이 잘린 코뿔소가 비틀거리며 도로 위를 걷다가 풀 숲으로 사라지는 장면에 나온다. 밀렵꾼들에 의해 무자비하게 코뿔이 제거된 것으로 추정된다.<br/><br/><br/><br/>현재 코뿔소의 뿔은 암, 당뇨병, 정력강화 등에 효과가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1kg당 6만 달러(한화 6423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로 인해 코뿔소에 대한 밀렵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br/><br/>남아공 국립공원국(SANP)측은 밀렵 억제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남아공에서만 지난해 1004마리, 2014년 2달 동안 146마리의 코뿔소가 밀렵꾼들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전해졌다.<br/><br/>무분별한 밀렵으로 흰코뿔소를 비롯, 인도코뿔소, 자바코뿔소, 검정코뿔소, 수마트라 코뿔소 등 5종의 코뿔소가 멸종위기에 처해 있으며, 동물학자들은 향후 10년 이내에 모든 종류의 코뿔소가 멸종될 것이라고 내다봤다.<br/><br/>한편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전세계 코뿔소의 80%를 보유하고 있다.<br/><br/>사진·영상=유튜브<br/><br/>손진호 기자 nasturu@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166.txt

제목: 70년만에 주인 찾아 나선 ‘2차 세계대전 연애편지’… 화제  
날짜: 201403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43425985  
본문: 1945년 2차 세계대전 당시 쓰인 한 통의 연애편지가 70년 만에 다시 주인에게 전달될 수 있을지 화제를 모으고 있다고 미 현지 언론들이 3일(현지시각) 보도했다.<br/>미국 텍사스주 댈라스에 거주하는 여성인 실러 포크는 지난달 플로리다주에 있는 한 가게에서 고서적을 구매했다. 그런데 포크가 이 고서적을 펼쳐 보는 순간 놀랍게도 ‘1945년 5월 28일 자’ 소인이 찍혀 있는 한 통의 연애편지를 발견했다.<br/>이 편지는 당시 캘리포니아주에 팜스프링스 미군 기지에 근무하던 앨버트 암 중사가 플로리다주에 있던 헬렌 로스멜 여성에게 보낸 것으로 개봉이 되지 않은 채 봉투 그대로 책 속에 보관되어 있었다.<br/>포크는 “<span class='quot0'>이 한 통의 편지가 그녀에게 전달되었다면 그녀의 인생이 바뀌었을지도 모른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보다 더 감동적인 영화 같은 사연이 어디 있겠냐</span>”며 수취인이었던 헬렌에게 꼭 다시 보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br/>포크는 편지에 적혀 있는 해당 주소지로 이 연애편지를 다시 보냈지만, 세 번이나 반송이 되었다며 헬렌 로스멜이나 그 가족들이 이 사연을 본다면 연락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하고 나섰다. 이 사연이 알려지자 관계 기관에서 1차로 조사한 결과, 로스멜은 공교롭게도 당시 댈라스에 주둔하고 있었던 미 여군에 소속되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언론들은 전했다.<br/>수취인에 관한 더욱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이 연애편지를 개봉하자는 일부 의견에 포크는 “<span class='quot0'>당사자나 후손들에게 전달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span>”고 밝혔다. 그녀는 현재 로스멜의 소재를 찾기 위해 미군 관계자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br/>사진= 1945년 소인이 찍힌 미개봉 연애편지 (현지언론 캡처)<br/>다니엘 김 미국 통신원 danielkim.ok@gmail.com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167.txt

제목: 법원 “내일 죽는 사형수도 오늘 죽이면 살인”  
날짜: 201403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75934160  
본문: 말기암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덜기 위해 아들이 아버지를 목졸라 숨지게 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안락사 논란은 물론 말기암 환자의 관리 문제에 대한 논란도 함께 불러일으켰다.<br/><br/><br/>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한정훈)는 3일 아버지 이모(57)씨를 숨지게 한 아들(28)과 딸(32)에게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살해 현장을 지켜본 아내(56)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배심원단은 모두 유죄를 인정하되 사정이 딱하다는 점을 고려해 최저형을 평결했으나, 재판부가 형량을 높여 선고했다. 살인죄에 대한 책임감을 더 엄격히 물은 것이다. 재판부는 “<span class='quot0'>설사 내일 죽는 사람, 사형수라 해도 오늘 죽이면 살인</span>”이라면서 “<span class='quot0'>돌아가신 분의 뜻을 함부로 추정할 수 없을뿐더러 설사 그런 의사 표시가 있었다 해도 병상에서 혼란된 상태로 한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span>”고 밝혔다.<br/><br/><br/>이씨가 말기암으로 인한 시한부 인생 판정을 받은 것은 2012년 12월. 그 뒤 이씨는 동네 병원에서 진통제만 처방받은 채 집에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며 지냈다. 이를 보다 못한 부인과 아들, 큰딸은 가족회의 끝에 아들이 아버지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br/><br/><br/>이 사건은 이씨에 대한 사망 진단이 말기암으로 인한 것이라고 내려지면서 묻힐 뻔했다. 그러나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리던 아들이 전혀 상황을 모르고 있던 작은누나(31)에게 털어놓고 자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진상이 드러났다.<br/><br/><br/>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168.txt

제목: 파나진, 암 유전자 돌연변이 진단제품 중국 시장 진출  
날짜: 201402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43040723  
본문: 파나진의 암 유전자 돌연변이 진단 제품이 중국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br/>파나진(대표 김성기, www.panagene.com)은 중국 현지 전문 공급 업체인 절강 푸촌 메디칼 테크놀로지(Zhejiang Fuchon Medical Technology Co., ltd)와 ‘피엔에이클램프 돌연변이 검출 키트’(PNAClampTMMutation Detection Kit)에 대한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중국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고 28일 밝혔다.<br/>향후 5년간 지속되는 이번 계약에는 해당 제품의 중국 식품의약품안전청(CFDA) 허가등록을 양사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등록완료 후 3년간 총 300만 달러(약 30억 원) 규모의 최소 구매 약정이 포함돼 있다. 허가등록 이전에는 중국 내 연구소 및 제약회사 임상 시험에 연구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br/>파나진의 피엔에이클램프 돌연변이 검출 키트는 암환자로부터 돌연변이 검출 시 0.1% 소량으로 존재하는 암세포의 돌연변이도 3시간 이내에 검출할 수 있는 제품이다. 주로 맞춤형 암 치료를 위한 환자의 조기진단 및 선별 검사에 사용된다.<br/>파나진은 현재 EGFR(폐암), KRAS(폐암, 대장암) 및 BRAF(대장암, 갑상선암, 피부암), PIK3CA(유방암), IDH1(뇌종양) 등 주요 암 관련 유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돌연변이 검출 키트를 출시해 판매하고 있다.<br/>이 제품은 해외규격인증인 ISO 13485 및 CE IVD 마크를 획득해 그 우수성을 인정 받았으며 현재 유럽 및 동남아시아 지역 등 세계 15개국 30여개 기관에서 판매 중이다.<br/>지난 2012년에는 지식경제부로부터 차세대세계일류상품으로 인정 받았고, 2013년에는 대한민국 10대 신기술 선정 및 대한민국 기술대상 은상(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br/>파나진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이번 판매 계약은 세계적으로 가장 큰 시장 중 하나인 중국 분자진단 시장에 본격적인 진출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span>”며 “<span class='quot0'>현재 중국 식품의약품안전청(CFDA) 허가등록 진행중인 HPV진단 칩 및 피엔에이클램프 돌연변이 검출 키트의 허가등록이 완료되고 본격적인 판매가 시작되면 비약적인 매출 증가가 예상된다</span>”고 밝혔다.<br/>사진= 왼쪽부터 성우 인터캠 윤재현 대표이사, 중국 절강 푸촌 메디칼 테크놀로지 마이클 정 대표, 파나진 김성기 대표<br/>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169.txt

제목: “고기 없으면 밥 못 먹는다고? 그럼 대장암은?”  
날짜: 201402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73127409  
본문: 　암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평균 수명인 81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5.53%로 나타났다. 3명 중 1명은 암 환자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런 가운데 국내 대장암 발병율이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다. 유전성도 작용하지만 주로 식습관 등 생활방식이 원인이어서 문제다.<br/>　세계 대장암 발병률 순위를 보면 우리나라는 헝가리와 체코에 이어 3위에 올라있다. 또 국내에서 발생하는 암의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암 종류별로는 남성의 경우 위암에 이어 두 번째인 15.2%(연간 1만 5600명), 여성은 갑상선암, 유방암에 이어 세 번째인 10.6%(연간 1만명)를 기록하고 있다.<br/>　<br/>　가장 주목되는 원인은 고지방식 등 서구식 식습관이다. 육류 소비량과 대장암 발생률이 비례한다는 것은 이미 규명된 사실이다. 그런만큼 식습관의 개선만으로도 대장암 발병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대장은 소장에서 넘어온 음식물에서 수분을 흡수한 뒤 직장과 항문을 통해 대변으로 배설하는 역할을 한다. 영양분의 소화·흡수보다 생리적으로 불필요하거나 독성을 가진 노폐물을 처리하기 때문에 각종 발암 물질 등 유독성 노폐물에 노출돼 암세포가 자라기 쉬운 환경을 갖고 있다. <br/>　대장암은 대장벽에 생긴 비정상적인 악성 종양세포를 말한다. 원인은 크게 환경적인 요인과 유전적인 요인으로 나뉜다. 특히 식사와의 관련성이 많은데, 육류 섭취량에 따라 대장은 암 발병률이 높은 환경에 놓인다. 따라서 대장암 발생 조건을 없애려면 채소류 섭취를 늘려야 한다. <br/>　■붉은색 고기 과다 섭취는 치명적<br/>　우리가 자주 먹는 소고기·돼지고기 등은 모두 붉은색 고기로 구분된다. 닭고기 등 흰색 고기에 비해 지방 함량도 높고, 조리나 섭취 과정에서 지방을 제거하기도 어렵다. 지방의 과다 섭취는 체중 증가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담즙산 분비를 증가시켜 대장 점막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따라서 붉은색 고기의 과다 섭취는 최대한 피해야 한다. 그렇다고 아예 먹지 않으면 인체에 꼭 필요한 단백질·철분 결핍에 빠지기 쉬우므로 붉은색 고기를 흰색 고기나 생선, 두부 등으로 대체하는 게 좋다. 불가피하게 붉은색 고기를 먹어야 한다면 눈에 보이는 기름만이라도 최대한 제거하는 것이 좋다. <br/>　술도 암 발생과 무관하지 않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국가별 수명에 미치는 요인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은 술 때문에 약 11.1개월이나 수명이 단축된다. 과음이 생활화되면 대장 뿐 아니라 식도나 간의 암 발병률도 덩달아 높아진다. 습관적인 음주나 과음은 췌장암과 결장암 발병률을 2배 이상 높이고, 전립선암과 대장암 위험은 80% 이상 높인다. <br/>　■충분한 채소 섭취는 ‘선택’ 아닌 ‘필수’<br/>　채소는 어떤 형태로든 충분한 양을 먹어줘야 한다. 다만 생채소를 먹을 때에는 드레싱이나 쌈장 등 양념이 많지 않아야 하는데, 특히 드레싱은 과열량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나물은 살짝 익혀내면 질감이 부드러워지고, 부피도 줄며, 약간의 기름과 양념으로만 맛을 내기 때문에 칼로리도 낮은 편이다. 하지만 비빔밥 등에 들어가는 나물류의 껍질과 줄기 등 고섬유질 부위는 수분을 흡수하는 섬유질이 많아 부종이나 변비, 장폐색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적당히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다. <br/>　■과일 중에서는 딸기·블루베리 등이 ‘으뜸’<br/>　과일 중에서는 딸기나 블루베리·아사이베리 등 베리류가 대장에 가장 좋다. 블루베리의 식이섬유는 바나나의 2.5배로, 소장에서 당과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하고, 장내 독소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대장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크다. 특히 아사이베리의 경우 유해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지수가 블루베리의 21배, 석류의 23배, 적포도의 55배, 키위의 120배나 되는 것으로 알려져 ‘베리 중의 베리’ ‘슈퍼푸드’로도 불린다. 아사이베리의 탁월한 항산화 기능이 장의 해독 과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밝혀져 이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br/>　■커피가 대장암에 약이라고?<br/>　미국 국립암연구소(NCI)의 연구에 따르면, 커피를 하루 6잔 이상 마시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대장암 위험이 최고 40%까지 낮아졌다. 또 하루 4잔의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15% 가량 발병 확률이 낮았다. 국내에서도 커피에 포함된 페놀릭파이토케이칼 성분이 대장암과 피부노화 억제 효능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커피의 원두는 레드베리의 씨로, 다른 베리류처럼 항산화제가 풍부하다. 이런 황산화제가 활성산소를 억제해 인체의 노화와 발암물질 생성을 억제하는 것. <br/>　<br/>　이대목동병원 위암·대장암협진센터 정순섭 교수는 “<span class='quot0'>대장은 다른 장기와 달리 식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대장암 환자 상당수가 나쁜 식습관으로 병을 얻었음을 알 수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건강한 대장을 가지려면 식습관에 신경을 쓰고, 조금이라도 이상하거나 불편함이 느껴지면 미루지 말고 검진을 받아봐야 한다</span>”고 당부했다.<br/>　<br/>　심재억 의학전문기자 jeshim@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170.txt

제목: 암 수술 후 찾아온 발기부전, 팽창형임플란트로 치료  
날짜: 201402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72023034  
본문: 전 세계적으로 남성암 발병 1위는 전립선암이다. 전립선암은 발병률이 높기는 하지만 5년 생존율이 높은 암이기 때문에 비교적 안심할 수 있는 암에 속한다. 하지만 많은 전립선암 환자들이 수술과 치료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다. 바로 암 치료 후 발생하는 발기부전이다. <br/><br/>암수술을 위해 전립선을 떼어내면 요실금과 발기부전, 사정장애를 겪을 수 있고, 증상이 심한 경우 발기부전 치료제를 복용해도 발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남성으로서의 능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br/><br/>비뇨기과 전문의들은 이러한 전립선암과 대장암, 직장암 등 암수술 후에 발생하는 발기부전치료는 보다 과학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또한 심리적인 요인 외에 당뇨성, 정맥누출성 등 난치성 발기부전 역시 임의로 경구용 약을 투여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조언한다.<br/><br/>세움비뇨기과 박성훈 원장은 “대부분의 비뇨기과가 음경확대와 지방흡입술, 조루, 발기부전 등 모든 남성관련 질환을 치료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난치성 발기부전이나 암수술 후 발병하는 발기부전은 보다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br/><br/>또한 “치료를 결심했다면 무턱대고 병원을 선택할 것이 아니고, 비뇨기과 전문의인지, 발기부전 수술에 대해서 적절한 교육을 받았는지, 자체 수술 기구를 구비하고 있는지, 첨단 수술 장비를 사용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꼼꼼하게 따져보고 철저한 감염관리 시스템과 평생시술 책임제 및 보증서를 발행하는 곳인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br/><br/>박성훈 원장에 따르면 발기부전 치료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팽창형보형물삽입술이다. 음경의 해면체에 임플란트를 이식하는 방법으로, 본인이 원할 때 발기가 가능하고 성적 쾌감이나 감각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br/><br/>한편 coloplast社의 글로벌트레이닝을 받고, 발기부전보형물 디지털교과서 집필에 참여한 세움비뇨기과 박성훈 원장은 발기부전 수술에 필수적인 장비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자체 보유하고 있다. 또 세균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무균조작실을 별도로 운영하며 수술복, 소독포 등은 일회용 제품을 사용해 과학적인 감염방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171.txt

제목: 자도 자도 졸리는 기면증 환자 빠르게 증가  
날짜: 201402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72032772  
본문: 　대입 수험생은 물론 야근과 회식이 반복되는 직장인들은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는 수면 패턴에 길들여져 낮이면 졸음에 빠지기 일쑤다. 최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전국의 초·중·고교생 95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수면시간은 초등학생이 8시간, 중학생 7시간, 고등학생이 5시간 30분이었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평균 수면시간이 6시간 10분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자신의 상태를 기면증일 수도 있다고 여기는 사람도 늘어 관련 카페에서 정보를 얻거나 병원을 찾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br/>■2011년 이후 매년 25% 이상 환자 증가<b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12년 한 해에 기면증으로 진료 받은 사람은 2356명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1480명, 여성 876명이었고, 연령별로는 20대가 770명으로 가장 많았다. 10대(634명)와 30대(507명)가 뒤를 이었다.<br/>환자수는 특히 최근 3년간 급증했다. 2008~2010년에는 1348~1451명으로 큰 변화가 없었지만 2011년에는 전년대비 25.2%, 2012년에는 29.7%가 늘어 큰 변화를 보였다. 한림대성심병원 뇌신경센터 주민경 교수는 “<span class='quot0'>기면증은 전 연령대에서 발생하지만 주요 증상이 대개 10대 중·후반에 처음 나타나기 때문에 20~10대 환자가 많다</span>”며 “<span class='quot0'>성별은 큰 차이가 없고, 유병률은 0.002~0.18% 정도이다</span>”고 말했다. <br/><br/><br/>■‘너무 자는 것도 병’ 수면질환 관심 증가 <br/>환자가 늘어난 것은, 수면 장애를 질환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뚜렷해진 결과이다. 과거에는 잠을 많이 자고, 졸려하는 사람을 ‘게으르다’고 여기고 지나쳤다. 또 ‘가위눌림’이라는 수면마비도 질환이라기 보다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했다. 이런 수면마비는 일반인도 100명 중 20여명 정도가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　<br/>하지만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트렌드와 함께 수면질환에 관심이 커지면서 자신의 잠버릇을 질환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심지어는 잦은 야근과 회식으로 수면시간이 줄어 피곤을 호소하는 직장인들이 기면증으로 오인해 병원을 찾기도 한다. 국내 수면질환 관련 학회에서 불면증·기면증 등의 수면장애가 질환이라는 점을 홍보한 것도 한 요인으로 꼽힌다. <br/>■신종플루와의 상관성도 배제 못해<br/>2009년에 유행해 많은 사상자를 냈던 신종플루와의 연관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H1N1’ 바이러스가 유행한 2010년 이후 기면증 환자가 급증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br/>　실제로 2011년에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스웨덴, 아이슬란드,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에서 H1N1 예방백신 중 하나인 ‘펜뎀릭스‘를 접종한 어린이가 그렇지 않은 아이에 비해 기면증을 경험할 확률이 9배나 높았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 예방백신을 접종한 환자 외에도 신종플루에 걸렸던 이들 중 기면증을 확진받은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예로 들며 원인이 H1N1 바이러스의 특수성에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H1N1 바이러스가 기면증의 원인으로 알려진 하이포크레틴을 파괴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주민경 교수는 “<span class='quot0'>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H1N1 바이러스가 대두된 이후 기면증 환자가 늘었지만 정확한 상관성은 밝혀지지 않았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올해 H1N1 바이러스가 유행한 만큼 앞으로의 환자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기면증을 중추신경 이상 질환 <br/>기면증은 중추신경계에 문제가 생겨 자고 깨야 할 때가 제대로 조절되지 않는 질환이다. 기면증(narcolepsy)이라는 용어는 ‘마비’와 ‘혼수’를 뜻하는 그리스어 ‘narke’와 ‘발작’을 뜻하는 ‘lepsis’의 합성어(Narcolepsie)로, 프랑스 약사 젤리노가 처음 사용했다. 이후 의사들은 1979년 기면증을 수면질환으로 규정, 과다졸림 질환으로 분류했다. 국내에서도 이를 발작성 수면 및 탈력발작(G47.4)으로 등록, 2009년 5월부터 희귀난치성질환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내 기면증 환자는 8만여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br/>　<br/>　지금까지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수면과 각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히포크레틴이 뇌의 시상하부에서 제대로 분비되지 않거나 ‘HLA-DQB1·0602’ 등의 백혈구 항원 형질 유전자가 관여하기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로, 뇌졸중·뇌종양 등 뇌에 이상이 있는 뇌질환자나 자기면역질환자, 두부 외상환자에게도 기면증이 생길 수 있다. <br/>■잠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br/>기면증의 주요 증상은 낮에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잠이 오거나, 졸리지 않을 때도 각성 정도가 심각하다는 것.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졸리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아 환자 대부분이 만성피로를 호소한다. 그렇다고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 낮에 잠이 오는 경우를 기면증으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경우는 자고 일어나면 개운하고 또 제어도 가능하다. <br/>　참을 수 없는 잠은 삶의 질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환자들은 학업이나 업무 효율이 떨어지고, 자신감 결여로 대인관계에도 어려움을 겪는다. 운전 중 잠이 들어 사고가 나거나 사회생활이 어려워 집에만 은둔하는 환자도 있다. 또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라고 자책하다 우울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특히 약으로 인한 부작용이 있을 경우 두통이나 경련, 불면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br/>이 뿐이 아니다. 웃고, 화를 내거나 농담을 주고받는 등 감정 변화가 있을 경우 얼굴이나 무릎, 다리근육, 몸 전체에 힘이 빠져 주저앉는 증상이 수초에서 길게는 30분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소위 ‘탈력발작’으로 기면증 환자 10명 중 6명이 경험하는 증상이다. 꿈을 많이 꾸고, 자다가 팔다리를 꿈틀대거나 기도가 좁아져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꿈꾸는 그대로 신체가 따라하는 렘수면 행동장애도 흔히 나타난다. <br/>■약물치료만으로도 정상생활 가능<br/>그렇다고 기면증 환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기면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 때문에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을 거부하기도 한다. 전문의들은 “<span class='quot1'>기면증은 현 단계에서 완치가 불가능하지만 모다피닐이나 카니틸 성분의 약만 잘 복용하면 일반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증상이 호전된다</span>”면서 “<span class='quot1'>또 유전자 치료나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는 약이 개발 단계에 있다</span>”고 전했다. <br/>진단을 위해서는 수면다윈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검사를 통해 정확한 수면 양태를 파악하며, 수면 패턴과 각성의 양상도 살펴볼 수 있다. 또 주간졸림증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수면잠복기 검사도 시행한다. 주민경 교수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도 기면증 치료에 도움이 된다”면서 “실제로 일부 환자는 스트레스를 줄인 후 졸리거나 각성 증상이 준 경우가 많다. 희귀난치성 질환이지만 에이즈나 암처럼 관리만 잘하면 정상인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만성질환”이라고 말했다. <br/>　 <br/>심재억 의학전문기자 jeshim@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172.txt

제목: “소송보다 중요한 건 가족” 2년여 지루한 공방 종지부  
날짜: 201402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71129542  
본문: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삼성가(家) 유산 소송’이 746일 만에 마무리됐다.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남긴 재산을 둘러싼 이 소송은 1·2심에서 패소한 장남 이맹희(왼쪽·83)씨가 26일 동생 이건희(오른쪽·72)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상고하지 않기로 하면서 종결됐다. 이날 이씨 측은 “<span class='quot0'>재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 간 관계</span>”라면서 “상고를 포기한다”고 말했다.<br/><br/>유산 소송은 2012년 2월 12일 이씨와 이 회장의 누나인 차녀 이숙희씨 등이 “<span class='quot0'>아버지가 유산으로 남긴 차명재산인 4조 849억원 상당의 주식과 배당금을 돌려 달라</span>”며 이 회장을 상대로 주식 인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br/><br/>당시 법원에서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이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이 넘어가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 서창원)는 지난해 2월 “<span class='quot1'>상속재산으로 인정되는 일부 주식은 법률적 권리행사 기간(제척기간)인 10년이 경과돼 청구가 부적법하고, 나머지 주식과 배당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다</span>”면서 이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br/><br/>이씨는 이후 진행된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이 회장 측에 화해의 제스처를 보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은 이번 상속소송에 그룹 승계의 정통성이 달려 있어 조정에 응할 수 없다며 거절의 뜻을 밝혔다. <br/><br/>그럼에도 이씨 측은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원망을 풀고 같이 살자’는 의미의 ‘해원상생’(解寃相生)의 마음으로 묵은 감정을 모두 털어 내 서로 화합하며 아버지 생전의 우애 깊었던 가족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면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건희와 만나 손잡고 마음으로 응어리를 푸는 것”이라고 호소했다.<br/><br/>이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부도 이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6일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 윤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삼성생명 주식 425만 9000여주와 삼성전자 주식 33만 7000여주, 이익 배당금 513억원 등 총 9400억원 규모의 재산을 인도하라’는 이씨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br/><br/>항소심 패소 직후 상고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한 이씨 측이 마음을 바꾼 이유는 거액의 소송 비용과 폐암을 앓고 있는 이씨의 건강 문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2012년 말 폐암으로 인해 폐의 3분의1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지만 최근 암이 다른 기관으로 전이돼 일본에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씨의 아들인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사건을 대법원으로 끌고 가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br/><br/>한재희 기자 jh@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173.txt

제목: 몸 70% 차지했던 암세포…3달 만에 사라져?  
날짜: 201402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42726687  
본문: 몸의 70%를 차지한 종양으로 불과 수주일 밖에 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던 암 환자가 극적으로 회복됐다면 믿을 수 있을까?<br/>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은 올해 47세의 볼튼 출신 엔지니어 이안 브룩스의 기적 같은 사연을 25일(현지시간) 소개했다. <br/>건강한 미소가 인상적인 브룩스는 불과 얼마 전까지 남은 수명이 일주일을 채 넘기지 못할 것이라 여겨졌던 암 환자였다. 그의 병명은 ‘비호지킨 림프종(non-Hodgkin’s lymphoma)‘으로 쉽게 말해 ’임파선 암‘이었다.<br/>이는 몸 면역체계를 형성하는 림프계에 악성종양이 생기는 것으로 항암 화학요법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수개월 내에 사망하는 무서운 질환이다. 특히 브룩스의 림프종은 고 등급 악성으로 이미 그의 몸의 70%가 종양에 잠식된 상태였다.<br/>기존 항암치료는 브룩스에게 큰 효과가 없었고 남은 수명이 일주일도 채 안남은 상황에서 브룩스는 점점 삶의 의지를 잃어갔다. 하지만 브룩스의 치료를 맡고 있던 멘체스터 크리스티 병원 의료진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신종 항암제를 브룩스에게 투여해보기로 결정했다.<br/>항암제의 이름은 ‘Brentuximab Vedotin’로 단일클론항체(Monoclonal antibody) 타입의 약품이다. 이는 동일한 면역세포에서 생성되는 하나의 항원에만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로 오직 브룩스의 체내 암세포에만 폭격을 가하는 ‘유도 미사일’ 방식이라는 특징이 있다.<br/>약품이 투여된 후 일주일 지났을 때 여전히 브룩스는 병실에 누워있었다. 한 달이 지났을 때도 브룩스는 멀쩡했다. 세 달이 경과했을 때는 브룩스의 몸을 잠식했던 암 세포 대부분이 사라졌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br/>크리스티 병원 림프종 연구센터 아담 깁 박사는 브룩스의 빠른 회복속도에 놀라움을 표시했다. 그는 “브룩스의 몸은 약 투입 후 24시간이 지나자 바로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Brentuximab Vedotin <br/>이라는 이 항암제가 비호지킨 림프종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는 점이 증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유독 브룩스에게만 특이 반응을 일으킨 사례이기에 일반화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굉장히 고무적인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br/>현재 브룩스는 건강을 회복했지만 림프종은 50%의 확률로 재발되기에 여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사실 그는 2001년 림프종에 걸렸다가 다시 재발된 케이스이기에 치료에 더욱 신경 쓰고 있다. 브룩스는 “<span class='quot0'>얼마 전까지 나는 일주일 후의 삶을 기약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다르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번 치료는 예전보다 더욱 힘들었지만 그만큼 삶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소중한 계기가 됐다</span>”고 전했다. <br/>사진=Manchester Christie Hospital/데일리메일<br/>조우상 기자 wscho@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174.txt

제목: 어르신 대사질환 고치러… 찾아가는 청진기  
날짜: 201402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70300600  
본문: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강서구 보건소가 주민센터를 찾아간다.<br/><br/><br/>구는 25일 화곡8동을 시작으로 20개 전 주민센터에서 ‘찾아가는 대사증후군 건강상담실’을 운영한다. 대사증후군은 복부비만, 고혈압, 당뇨 등과 같은 대사성 위험 인자를 한꺼번에 갖는 상태다. 특히 고령이거나 비만, 심혈관질환을 지닌 사람에게 발생할 위험이 크고 내버려 둘 경우 심장질환, 뇌졸중, 암 등의 위험을 키운다. 이에 생활습관병인 대사증후군을 조기 발견, 만성질환을 예방하고자 이번 서비스를 마련했다. <br/><br/><br/>혈액 등 간단한 검사를 통해 혈압, 복부둘레, 공복혈당, 고밀도 콜레스테롤, 체성분 수치 등을 측정한다. 측정 결과에 따라 대사증후군 여부가 결정되며 운동지도사와 영양사가 개개인에 맞는 운동관리법과 식이요법을 지도, 건강관리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검진에는 1시간 남짓 걸린다. 희망자는 검진 전날 오후 10시 이후부터 검진 완료 때까지 물과 커피 등 모든 음식물을 먹지 않아야 한다. 단 혈압약은 평소처럼 복용해야 한다.<br/><br/><br/>구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생활습관 개선 교육은 물론 맞춤형 프로그램을 꾸준히 제공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애쓰겠다</span>”고 말했다.<br/><br/><br/>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175.txt

제목: “잇몸 질환과 류마티스 관절염 연관성 있다”  
날짜: 201402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42510429  
본문: 잇몸 질환과 류마티스 관절염이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br/><br/>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켄터키 루이빌 대학 치과대학 연구진들은 잇몸 질환에 영향을 주는 박테리아와 류마티스 관절염의 초기가 관련이 있으며 박테리아가 류마티스 관절염의 진행 속도를 빠르게 할 수도 있다고 발표했다.<br/><br/>이 박테리아는 포르피로모나스 긴기발리스(Porphyromonas gingivalis)로 일부의 단백질 잔여물에 반응을 보이는 효소인 펩티딜아르기닌 데이미나제<br/>(Peptidylarginine deiminase) 를 생산한다. 생산된 효소는 이 단백질 잔여물을 시트룰린(citrulline)이라는 염기성 아미노산으로 변화시킨다.<br/><br/>그리고 인체 내부에서는 이 단백질들을 내부 안의 침입자로 인식하고 면역 공격을 시작한다.<br/><br/>류마티스 관절염의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자신의 인체를 공격하는 현상인 자가면역현상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br/><br/>연구팀의 잰 포템파 박사는 “<span class='quot0'>연구 결과 펩티딜아르기닌 데이미나제가 포르피로모나스 긴기발리스 치주 질환과 류마티스 관절염 사이에 기계론적인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만 확실한 결과를 위한 연구가 아직 필요한 상태</span>”라고 설명했다.<br/><br/>잇몸 질환이 암 뿐만 아니라 치매를 일으킬 확률이 높으며 잇몸 질환으로 인한 치아 수가 적을수록 치매에 걸릴 위험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바 있다.<br/><br/>잇몸 질환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치간칫솔이나 치실을 이용해 치아와 잇몸 경계를 잘 닦아내고 1년에 두번 스케일링을 하는 것이 좋다.<br/><br/>유지해 해외통신원 jihae1525@hotmail.com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176.txt

제목: 기생충·세균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한다  
날짜: 201402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65559061  
본문: 불과 한 세대 전, 전 세계는 기생충과의 전쟁에 큰 비용을 쏟아부었다. 우리만 하더라도 40대 후반을 넘긴 세대라면 그 기생충과의 전쟁에 대한 기억을 또렷하게 갖고 있다. 지금 세상엔 특히 선진국에서, 기생충을 박멸해야 할 심각한 대상으로 여기는 이는 별로 없다. 아무래도 위생·청결에 대한 인식 개선과 다양한 약제의 발달이 주원인일 것이다. 그렇다면 그 개선된 인식과 약의 효용은 인간에게 좋기만 한 것일까. <br/><br/><br/>매일같이 새로운 치료법과 신약 개발에 대한 정보가 쏟아지고 있지만, 최첨단 의학을 동원해도 치료할 수 없는 암이며 자가면역질환 같은 만성질환으로 고통받는 이들은 오히려 늘어만 가는 추세다. 현대문명이 발달할수록 인류가 미처 경험해보지 못한 희귀한 질병이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아무리 청결을 강조하고 의술을 발전시켜도 새록새록 발견되는 이런 질병의 창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br/><br/><br/>‘야생의 몸, 벌거벗은 인간’(롭 던 지음, 김정은 옮김, 열린과학 펴냄)은 그 아이러니를 파고든 흥미로운 책이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생물학과 교수인 저자가 주목한 건, 놀랍게도 기생충이며 세균·공생생물이다. 흔히 인간에게 유해하고 척결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온 그 위험인자들이다. 저자는 바로 그 척결해야 할 것들을 다시 보고 공생하자고 일관되게 주장한다. 우리 인간의 몸은 원래 서로 다른 수백 가지 종들에 의지해 살고 있고, 각각의 종들을 잘 활용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는 게 그 주장의 핵심이다. ‘청결한 세상’은 많은 이득을 주었지만, 인간은 그로 인해 종전엔 경험하지 못한 또 다른 위험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의 착안이다. <br/><br/><br/>책에서 소개되는 다양한 연구와 실험들은 그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냉장고 사용이 최근 10년간 4배 이상 환자가 급증한 염증성 대장질환 크론병과 관련 있다는 실험이 흥미롭다. TV며 자동차, 세탁기도 그런 연결고리의 하나로 부각돼 연구가 진행 중이다. 그런가 하면 같은 크론병 환자의 몸속에 기생충을 주입해 효과를 본 사례도 들어 있다. <br/><br/><br/>물론 이 크론병 환자들과 냉장고며 기생충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 추세는, 저자의 주장이 괜한 것만은 아님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약의 40%를 소비할 만큼 지구상 최대의 의료비 지출국인 미국은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높이는 전통의학의 비중이 높은 유럽, 남미, 중동국가들과 비교하면 치료 수준이 훨씬 낮다. 결국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span class='quot0'>우리가 할 일은 삼림 파괴와 항생제 남용 속에서 살아 남은 종들만 남아 있는 세상이 아닌,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 작용하는 새로운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다.</span>” 1만 5000원. <br/><br/><br/>김성호 선임기자 kimus@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177.txt

제목: ‘배트맨’ 베일, 자기 얼굴에 스스로 낙서…왜?  
날짜: 201402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42145330  
본문: 할리우드 배우 크리스찬 베일이 자신의 얼굴에 낙서를 해 화제가 되고 있다.<br/>미국 인터넷매체 허핑턴포스트는 20일(현지시간) 크리스찬 베일이 자신의 얼굴에 글자를 적어넣은 사연을 지역언론 필리닷컴을 인용해 보도했다.<br/>이는 크리스찬 베일이 암투병 중인 한 일반인 남성을 위해 그의 가족과 친구들이 페이스북을 통해 벌이고 있는 수술비 지원을 위한 캠페인에 대해 우연히 알게 돼 동참한 것.<br/>베일은 종이 대신 자신의 얼굴에 직접 “댄은 우리 가족이다”(Dan’s Our Man)라는 글자를 적은 뒤 인증샷으로 공개했다. 이어 “진짜 슈퍼히어로에게!”라는 메시지를 덧붙였다.<br/>이런 특별한 메시지를 받은 주인공은 펜실베이니아주(州) 스프링필드에 사는 댄 해먼드(21). 그는 9살 때 처음 ‘성상세포종’이라는 암 진단을 받아 인생의 절반 이상을 암과 싸우고 있다.<br/>척수에 암이 발생한 해먼드는 최근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모친인 조디는 자신의 자선블로그(CaringBridge)를 통해 “<span class='quot0'>댄은 아직 약하지만 우리와 있다</span>”면서 수술에서 깨어나 회복 중인 것을 밝혔다.<br/>이에 대해 허핑턴포스트는 “<span class='quot1'>크리스찬 베일이 배트맨에서 은퇴했을 수도 있지만 그는 항상 우리의 영웅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span>”고 평했다.<br/>한편 영화 ‘다크 나이트’ 시리즈를 통해 우리에게 배트맨으로 친숙한 크리스찬 베일은 최근 영화 ‘아메리칸 허슬’에서 희대의 범죄소탕 작전을 위해 FBI요원에게 고용된 천재 사기꾼 어빙 역을 맡았다. <br/>이 영화는 지난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작품상, 여우주연상, 여우조연상 등 3개 트로피를 차지했으며 오는 3월 2일 개최되는 아카데미시상식에서도 10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돼 최다 부문 수상을 기대하게 하고 있다.<br/>사진=페이스북<br/>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178.txt

제목: 김주승 사망원인, 췌장암 뭐길래..’김영애 투병 고백에 재조명’  
날짜: 20140221  
기자: 김채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61741621  
본문: 김주승 사망원인이 화제다. 배우 김주승(46)이 췌장암에 걸려 사망한 사실이 재조명을 받았다. 김영애가 고 김주승과 같은 췌장암에 걸려 투병하고 있다고 고백했기 때문.고 김주승은 1983년 MBC 16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해 드라마 ‘애정의 조건’, ‘형제의 강’ 등에 출연했다.활발히 활동하던 고 김주승은 1997년 췌장암 선고를 받고 잠정적으로 방송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투병생활을 하다가 2007년 건강이 악화돼 사망했다. 췌장암은 췌장에 생긴 암세포로 이루어진 종양덩어리로 발병 원인은 명확하지 않으며, 모든 암 중 가장 예후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김영애 역시 췌장암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이다. 김영애는 라이프스타일 잡지 얼루어 코리아 3월호와 인터뷰에서 MBC 드라마 ‘해를 품은 달’ 촬영 당시 췌장암 진단을 받았으나 이를 숨기고 촬영에 임했다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 김영애는 “<span class='quot0'>쓰러질 때까지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연기자의 자세</span>”라면서 “<span class='quot0'>지금처럼 좋은 환경에서 연기를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참을성이 많이 길러진 것 같다</span>”고 겸손하게 말했다.사진 = 방송 캡처 (김주승 사망원인)연예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179.txt

제목: [통합암치료칼럼] ① 의학, 제3의 물결  
날짜: 201402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41855503  
본문: 폐암• 간암• 위암• 유방암 뇌종양 등은 발병률이나 사망률이 높은 몇몇 암들은 수술• 항암• 방사선 등 병원에서 권하는 치료를 한다 해도 통증이나 부작용, 전이, 재발로 고통 받는 사람이 많다.<br/>이로 인해 전 세계 의료진들이 ‘암을 죽이기 위해선, 꼭 몸을 상하게 할 수 밖에 없을까?’에 대한 의구심을 품고 인간의 존엄성•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br/>이러한 가운데 지난 1월 25일 KBS1 TV ‘의학, 제 3의 물결’이라는 제목의 방송이 나왔다. 앨빈 토플러의 ‘제 3의 물결’을 인용한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 의학에서도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br/>현대 의학은 암을 비롯하여 자가 면역성 질환 등의 난치성 질환 치료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내세워지는 것이 바로 통합의학이다. 이는 대체의학과는 다른 개념이다.<br/>대체의학은 현대 의학에서 치료할 수 없는 분야에서 기존의 의학과는 다른 치료 체계와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의학 분야를 말한다. 반면 통합의학은 기존의 치료방법은 물론, 질병의 치료와 생명 연장,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다른 치료 체계와 방법을 통합하여 치료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br/>필자는 지난해 4월 미국 텍사스 주 휴스턴에 있는 MD. Anderson Cancer Center 통합의학 연수과정에 다녀왔다. 그 곳에서 보고 느낀 것은 우수한 의료 서비스와 의료시설, 막대한 의료 연구 인력과 자본뿐만이 아니었다. 바로 통합의학에 대한 열린 눈이었다.<br/>그 곳에서는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의 치료를 위해 열린 눈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봤다. 한의학적 치료, 명상, 요가, 웃음 치료, 음악 치료 등에 대해 열린 생각으로 협진을 의뢰하고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통합의학적인 치료를 받은 환자의 삶의 질 및 치료율 향상에 있어서 매우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br/>앞서 언급한 KBS 다큐멘터리 ‘의학, 제3의 물결’에서도 통합의학의 국내 사례로 필자가 몸 담은 병원이 소개됐다. 간내담도암 진단을 받은 환자가 현재 같은 암종에 걸린 다른 환자와는 확연히 다르게, 일상 생활을 정상적으로 다 하면서 열심히 치료받고 있는 모습이 포착된 것이다. 이는 한방 면역 치료가 종양의 성장을 억제하고 암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유효하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다.<br/>과거에는 한방으로 암을 치료한다는 것이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유수 의료기관의 동향과 사례를 보면 한의학이 암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이미 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br/>일례로 텍사스 주법 상 혈맥약침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한약제로 조제한 증류한약을 혈맥에 주입하는 혈맥약침 시술이 가능하다. 이는 통합의학적인 측면에서 미국에서는 시도되지 않은 새로운 치료 방법이기에 향후 통합암치료에 대한 한의학적 비전이 주목된다 하겠다.<br/>소람한방병원 이동현 원장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180.txt

제목: “고마워!” 견공 도움 받아 서핑 꿈 이룬 뇌암 소년  
날짜: 201402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55319981  
본문: 뇌암에 걸린 15세 소년이 개의 도움을 받아 ‘서핑 꿈’을 이뤄 진한 감동을 주고 있다. <br/><br/>미국 일간지 뉴욕데일리뉴스는 17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州) 아포카에 사는 15세 소년 갈렙 아코스타가 서핑하는 모습을 영상과 함께 보도했다. 아코스타는 5기 뇌암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br/><br/>지난 12일 캘리포니아 델 마르 해변에서 진행된 ‘갈렙의 꿈 이루기 행사’는 메이크 어 위시(Make-A-Wish: 난치병 어린이들의 소원성취를 지원하는 봉사단체)의 지원으로 진행됐다. <br/><br/><br/><br/>아코스타는 평소 ESPN을 통해 아이들이 유명 서핑견 ‘리코쳇(Ricochet)’과 함께 서핑 하는 모습을 즐겨보면서 서핑의 꿈을 키웠는데, 이번에 드디어 그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br/><br/>영상에서, 척추에 생긴 두 번째 종양 때문에 걷지 못하는 그는 휠체어를 타고 용감하게 바다로 들어간다. 이어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서핑견 리코쳇이 타고 있던 서핑보드로 자리를 옮겨 자세를 잡는다. <br/><br/>곧이어 큰 파도가 일기 시작하고, 갈렙과 리코쳇은 바람을 가르며 멋지게 서핑에 성공한다. 꿈을 이룬 갈렙의 얼굴은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 보인다. <br/><br/><br/><br/>서핑을 마친 갈렙은 “리코쳇과 함께 서핑을 하면서 지금까지 느낄 수 없었던 자유를 만끽할 수 있었다”면서 “내가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도록 (리코쳇이) 균형을 잘 유지시켜줬다”고 말했다. <br/><br/>아들의 서핑 모습을 지켜본 갈렙의 어머니 캐시는 “<span class='quot0'>아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행복하다</span>”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br/><br/>서핑하는 꿈을 이룬 갈렙은 “다음 목표는 다시 걷게 되는 것”이라며 “암을 꼭 이겨내겠다”고 강한 포부를 밝혔다. <br/><br/>사진·영상= surfdogricochet 페이스북/유튜브 <br/><br/>손진호 기자 nasturu@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181.txt

제목: 견공 도움 받아 서핑 꿈 이룬 뇌암 소년  
날짜: 201402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55050209  
본문: 뇌암에 걸린 15세 소년이 개의 도움을 받으면서 서핑을 즐기는 꿈을 이뤄 진한 감동을 주고 있다.<br/><br/>미국 일간지 뉴욕데일리뉴스는 17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州) 아포카에 사는 15세 소년 갈렙 아코스타가 서핑하는 모습을 영상과 함께 보도했다. 아코스타는 5기 뇌암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br/><br/>지난 12일 캘리포니아 델 마르 해변에서 진행된 ‘갈렙의 꿈 이루기 행사’는 메이크 어 위시(Make-A-Wish: 난치병 어린이들의 소원성취를 지원하는 봉사단체)의 지원으로 진행됐다.<br/><br/><br/><br/>아코스타는 평소 ESPN을 통해 아이들이 유명 서핑견 ‘리코쳇(Ricochet)’과 함께 서핑 하는 모습을 즐겨보면서 서핑의 꿈을 키웠는데, 이번에 드디어 그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다.<br/><br/>영상에서, 척추에 생긴 두 번째 종양 때문에 걷지 못하는 그는 휠체어를 타고 용감하게 바다로 들어간다. 이어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서핑견 리코쳇이 타고 있던 서핑보드로 자리를 옮겨 자세를 잡는다.<br/><br/>곧이어 큰 파도가 일기 시작하고, 갈렙과 리코쳇은 바람을 가르며 멋지게 서핑에 성공한다. 꿈을 이룬 갈렙의 얼굴은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 보인다.<br/><br/><br/><br/>서핑을 마친 갈렙은 “리코쳇과 함께 서핑을 하면서 지금까지 느낄 수 없었던 자유를 만끽할 수 있었다”면서 “내가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도록 (리코쳇이) 균형을 잘 유지시켜줬다”고 말했다.<br/><br/>아들의 서핑 모습을 지켜본 갈렙의 어머니 캐시는 “<span class='quot0'>아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행복하다</span>”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br/><br/>서핑하는 꿈을 이룬 갈렙은 “다음 목표는 다시 걷게 되는 것”이라며 “암을 꼭 이겨내겠다”고 강한 포부를 밝혔다.<br/><br/>사진·영상= surfdogricochet 페이스북/유튜브<br/><br/>손진호 기자 nasturu@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182.txt

제목: 진단 어려워 치료 늦은 기스트, 이제 암세포만 콕 찍어 공략한다  
날짜: 201402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54912600  
본문: 기스트(GIST)는 위장관기질종양을 일컫는다. 병명에서 보듯 식도, 위, 소장, 대장 등 소화기관의 근육층과 복막에 나타나는 종양이다. 하지만 내시경 검사로 찾기가 어렵고 뚜렷한 증상도 없어 다른 병으로 병원에 갔다가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참 진행된 뒤에야 치료하게 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기스트는 희귀한 데다 조기 진료가 어려운 종양으로 인식됐지만 표적 치료제의 일종인 ‘이매티닙’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연구가 나와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br/><br/>19일 밤 10시 KBS 1TV ‘생로병사의 비밀’에서는 기스트와 이매티닙의 모든 것을 살펴보는 ‘기스트를 정복하라! 표적 치료’를 방송한다.<br/><br/>기스트는 외부 점막 조직 검사로 확진을 내릴 수 없어 수술과 동시에 진단이 이뤄져야 한다. 일반적인 암이나 궤양에 비해 증상도 크지 않아 병을 키워 병원에 오는 환자가 많다. 간을 포함한 전신으로 전이가 잘돼 수술도 어려운 상황이 된다. 이때 떠올릴 수 있는 치료제가 이매티닙이다. 이매티닙은 문제가 되는 암세포만을 정확히 골라 공격한다. 기존 항암 치료에 비해 평균 생존 기간도 6배 이상 높고 부작용도 적어 치료를 받으면서 일상생활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br/><br/>흔히 암 진단을 받으면 사형선고가 떨어진 듯 절망감을 느낀다. 그러나 암을 찾아내는 의학 기술이 발전하고 개개인에게 맞춘 치료법이 개발되고 있다. 유전자를 분석해 그에 맞는 정확한 표적 치료제를 찾아 치료하거나 기존 항암제와 신생 혈관을 억제하는 표적 치료를 동시에 적용하기도 한다. 기스트와 표적 치료를 통해 암 정복 가능성을 진단한다.<br/><br/>프로그램에서는 또 내 몸에 알맞은 운동 시간도 알아본다. 운동은 건강한 몸과 정신을 위해 꼭 필요하다. 우리나라 국민 2명 중 1명은 생활체육에 시간을 할애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 결과도 있었다. 하지만 자신의 체질과 생활 패턴에 맞지 않는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된다.<br/><br/>바쁜 일상을 보내느라 주말에 10시간 이상 등산을 몰아 했던 박기란(55)씨는 무리한 산행 때문에 2년 전 무릎 연골판 수술을 했다. 체중 감량을 위해 2년째 저녁 운동을 하고 있는 이경주(22)씨는 운동 효과에 반신반의한다. 운동이 생각만큼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거나 오히려 악영향을 미친 것은 운동 시간의 문제가 아닐까. ‘Dr.K의 호기심 클리닉’ 코너에서는 내 몸의 부담을 줄여주고 운동의 효율을 높이는 운동 시간에 대해 살핀다. <br/><br/>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183.txt

제목: “추운 곳에 살수록 비만 확률 높다”  
날짜: 201402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41544034  
본문: 이제 비만한 사람은 자신의 장내세균을 탓하고 더 나아가 선조를 탓해야 할듯하다.<br/>추운 곳에 사는 사람이 더운 곳에 사는 이보다 비만과 관련한 세균을 더 많이 지니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미국 과학전문매체 사이언스 데일리 등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br/>미국 캘리포니아대학 버클리캠퍼스(UC 버클리)와 애리조나대학의 공동 연구팀은 아프리카와 유럽, 북남미, 아시아 등 23개국에 사는 사람들(총 1020명)의 장내 미생물에 관한 연구 정보를 분석했다.<br/>그 결과, 추운 북반구에 사는 사람이 더운 남반구에 사는 이보다 비만과 관련한 세균을 더 많이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를 이끈 다이치 스즈키 연구원은 국제적 생물학회지인 ‘바이올로지 레터스’ 2월 호를 통해 발표했다.<br/>스즈키 연구원은 “<span class='quot0'>사람들은 비만이 나쁜 것으로 생각하지만, 과거에는 음식으로부터 더 많은 지방과 에너지를 얻는 것이 추운 지역에서 살아남기 위해 중요했을 것</span>”이라면서 “<span class='quot0'>오늘날 우리의 장내 미생물은 조상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 것</span>”이라고 말했다.<br/>이어 “이는 우리가 ‘건강에 좋은 미생물군’이라고 부르는 세균이 지리적인 영향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br/>연구에 참여한 마이클 워로베이 애리조나대학 진화생물학 교수는 “<span class='quot1'>이번 실험은 꽤 멋지지만, 위도만이 영향을 준다기에는 무리가 있다</span>”고 덧붙였다.<br/>하지만 워로베이 교수는 이번 결과가 진화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것으로 생각한다.<br/>워로베이 교수는 “<span class='quot2'>장내 세균의 변화가 인간을 포함한 동물의 환경 조건에 큰 영향을 끼쳤을 것</span>”이라고 설명했다.<br/>스즈키 연구원은 UC 버클리로 옮기기 전 워로베이 교수 실험실에 속해 있었다. 그는 당시 1년간 위도에 따라 신체 크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하는 실험을 했다.<br/>장내 미생물 연구는 다양한 종류의 세균과 고(古)세균의 비율에 따라 당뇨병과 비만부터 암까지 다양한 질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학자들 사이에서 열띤 연구 영역이다. 특히 피르미쿠테스(Firmicutes)로 불리는 세균군은 선행 연구들을 통해 비만쥐나 비만인의 장에서 가장 많이 분포하지만 박테로이데트(Bacteriodetes)로 불리는 세균군은 더 날씬한 쥐나 사람의 장에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었다.<br/>스즈키 연구원은 위도가 높은 곳에 사는 인간을 포함한 동물의 체구가 더 크다는 베르그만의 법칙이 아마 그들의 장내 미생물군 비율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론했다. 이후 그는 서로 다른 위도에 사는 설치류의 크기에 관한 연구를 통해 그 법칙과의 연관성을 발견했다.<br/>워로베이 교수는 “스즈키 연구원의 실험은 거의 재미삼아 진행됐다. 그는 피르미쿠테스와 박테로이데트가 비만과 관련 있다면 왜 인간에게서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이지 않는지 생각했다”면서 “그가 그런 결과를 갖고 왔을 때 꽤 놀라웠다”고 말했다.<br/>스즈키는 이번 연구에 선행됐던 연구 정보를 사용했다. 정보는 인간의 장에 서식하는 세균과 고세균의 형태와 수에 관한 필수적 개체수를 조사한 것이라고 한다.<br/>그는 성(性)이나 연령 등 감지 방법에 상관없이, 위도가 올라갈수록 피르미쿠테스의 비율은 증가하고 박테로이데트의 비율은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다.<br/>한 예로 미국에 사는 아프리카인들은 원래부터 열대 지역에서 살아온 같은 인종과 달리 유럽이나 북미인들과 같은 패턴을 보였다.<br/>스즈키 연구원의 고문이자 UC 버클리 척추동물학 박물관장인 마이클 나흐만 통합생물학 교수는 “<span class='quot3'>항온동물의 경우 추운 곳에 살수록 몸의 크기가 크다는 베르그만의 법칙은 좋은 예</span>”라면서 “<span class='quot3'>장내 세균들은 한랭 환경에서 살기 위해 적응한 것으로 추정된다</span>”고 말했다. <br/>사진=포토리아(위), 애리조나대학<br/>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184.txt

제목: 고립 노인 2명 사망… 피해 느는데 동해안 17일부터 사흘간 또 큰 눈  
날짜: 201402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51755450  
본문: 강원 영동 지역에서 폭설로 고립됐던 주민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강원도가 막바지 제설·복구 작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br/><br/>16일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고성 거진읍 고립 마을에서 노인 2명이 숨진 채 발견되는 등 폭설로 인한 인명 피해까지 발생하면서 고립 마을 인명 구조와 제설·복구 작업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br/><br/>지난 15일 고성 거진읍 산북리 외딴 마을에서 함께 살던 최모(66), 김모(71) 할아버지가 방 안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 숨져 있는 것을 혹한기 훈련을 하던 군부대 장병들이 발견했다. 숨진 할아버지들은 지난해 8월부터 서울에서 요양을 하기 위해 내려와 거주하다 변을 당했다. 같은 날 강릉 강동면 외딴집에서는 홀로 9일 동안 고립됐던 환자 이모(55·여)씨가 특수구조단 헬기로 구조됐다. 암과 불안장애 등을 앓는 이씨는 지난 7일부터 폭설에 고립됐고 외부와 연락을 취하며 홀로 일주일을 버티다 이날 구조됐다. 이처럼 인명 피해가 늘고 17일부터 사흘 동안 이 지역에 또다시 큰 눈이 올 것이라는 소식에 각 기관, 단체와 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막바지 제설 작업과 복구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루 5만 1000여명의 인원과 1530여대의 장비가 동원돼 골목길과 마을길을 잇는 제설 작업과 복구 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대책본부는 18일까지 고립 마을을 잇는 시내버스 운행을 완전히 정상화시킬 계획이다. 피해액도 눈덩이처럼 늘어 이날까지 모두 498곳 61억 3800만원으로 집계됐다. <br/><br/>기상청은 17일 밤까지 동해안과 산간에 5∼20㎝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고 이 지역에 대설 예비특보를 발령했다. <br/><br/>강릉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185.txt

제목: 평생 담배 100개비만 피워도 유방암 확률 급증  
날짜: 201402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41422484  
본문: 일생에 단 100개비의 담배만 피워도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30%나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br/>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의 10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미국 시애틀 소재 프레드 허친슨 암 연구 센터(Fred Hutchinson Cancer Research Center)에서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유방암으로 진단받은 20~44세 여성들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실시했다.<br/>그 결과 10년 동안 하루에 담배 한 갑을 피운 20~40세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60% 가량 높았다. 연구진은 일생에 100개비 이하의 담배를 피운 사람만을 비흡연자로 규정했다.<br/>미국국립암연구소(National Cancer Institute)에 따르면 현재 미국 여성 8명 중 1명이 유방암에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젊은 여성은 나이든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방암에 대한 위험이 낮은데, 30대 여성들은 227명 중 1명꼴로 유방암이 발생한다.<br/>하지만 담배를 피우는 젊은 여성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흡연하는 젊은 여성은 비흡연 여성에 비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30% 가량 높았다. 특히 15년 이상 흡연을 한 경우에는 비흡연자보다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50퍼센트 가량 증가했다.<br/>흡연 여성이 유방암에 더 쉽게 걸리는 이유는 담배에서 발견되는 물질 중 일부가 여성 호르몬의 일종인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담배를 피우는 여성들은 유방암의 유형 중에서도 에스트로겐 수용체 양성형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br/>연구를 진행한 크리스토퍼 리(Christoper Li) 박사는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과의 인터뷰에서 “<span class='quot0'>유방암과 흡연이 상관관계가 있다는 증거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span>”고 강조했다. <br/>사진=포토리아<br/>여지선 통신원 nownews@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186.txt

제목: “살아있음에 경탄하라… 순간에 몰입하라”  
날짜: 201402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45832492  
본문: 구본형의 마지막 수업/구본형·박미옥·정재엽 지음/생각정원/444쪽/1만 8000원<br/><br/>지난해 암으로 세상을 떠난 변화경영사상가 구본형의 유작이 출간됐다. 인문학과 자아경영의 접목을 시도했던 그에게 변화경영의 화두를 안겨줬던 동서양 문학과 철학 고전 17편을 소개한다. <br/><br/>갑상선암 투병 중에도 마지막까지 방송했던 EBS FM 라디오 ‘고전읽기’의 83시간 분량 녹취록을 바탕으로 ‘구본형 칼럼’과 ‘마음편지’ 등 1000여편에 담은 고전 내용을 취합해 구본형변화경영연구소 연구원들이 엮었다.<br/><br/>프롤로그에서 저자는 “세상은 무상하다. 그러니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라”는 석가의 마지막 설법을 언급하며 살아있음에 경탄하고 순간에 몰입하라고 주문한다. 또한 고전이야말로 불완전한 인간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사랑의 창이며 아름다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해 주는 보이지 않는 안내자라고 단언한다.<br/><br/>책의 전반부는 자신의 내면을 깨우는 고전들로 구성됐다. 릴케의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와 정약용의 ‘다산문선’, 마크 트웨인의 ‘허클베리핀의 모험’,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 플라톤의 ‘향연’ 등을 통해 도전, 성장, 자유, 정의, 성과 사랑을 논의한다. 후반부는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 에리히 프롬의 ‘사랑의 기술’, 우리 민족의 방대한 신화와 설화를 담은 일연의 ‘삼국유사’,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 등에서 인생의 지혜와 가치를 설명한다.<br/><br/>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고 의지를 실천하며 자기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던 저자는 이 책이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그들의 도전과 모험을 선동하고 그들을 위한 안내자가 되기를 희망했다.<br/><br/>함혜리 선임기자 lotus@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187.txt

제목: 암 치료의 첫걸음, 생각을 바꿔라  
날짜: 201402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41132598  
본문: 국가암정보센터의 통계에 의하면 2011년 한해 동안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선암이다. 다음은 위암, 대장암, 폐암, 간암, 유방암, 전립선암 순이다. 남성의 경우 위암, 대장암, 폐암의 발병률이 높았고 여성은 갑상선암, 유방암, 대장암 순으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br/>암 환자는 매년 평균 3.6%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의료인과 연구진의 노력으로 암 검진과 치료법은 꾸준히 발전하고 있지만, 암 환자와 보호자들이 실제적으로 그 혜택과 정보를 충분히 누리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다.<br/>지금까지 암을 대하는 방식은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로 대표되는 현대의학적 암 치료법 3가지만을 생각하는 것이었다. 물론 이전에도 면역세포치료, 고주파온열암치료, 한방면역요법 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보조적인 수단, 보완요법으로 여겨져 왔던 것이 사실. 하지만 점차 이러한 암치료 방법들이 효과를 나타내고 연구 결과를 쌓아가면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br/>실제 방송과 출판 분야에서는 ‘암치료가 당신을 죽인다’, ‘항암제로 살해당하다’, ‘12주 한방면역요법’ 등의 관련서적이 화제에 올랐으며 SBS 일요특선 ‘암 치료의 새로운 길, 면역’, KBS 특집다큐 ‘의학, 제3의 물결’ 등이 방영되며 이러한 흐름을 발 빠르게 전했다.<br/>이들이 공통적으로 다루는 것이 바로 통합의학이다. 현재 국내의 암 치료 현실이 현대의학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있지만 기존 현대의학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과 자체 면역력 강화로 인해 암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시킨다는 점을 들어 통합적으로 진료, 병행해야 한다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br/>소람한방병원 성신 원장은 “<span class='quot0'>세계 유수의 암센터는 물론 국내에서도 환자의 삶의 질을 고려한 통합의학이 대두되고 있다</span>” 며 “<span class='quot0'>실제 양•한방 통합진료를 받은 환자들도 의료진에 대한 믿음이나 치료 효과에 대한 만족도도 높다</span>”고 말했다. <br/>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188.txt

제목: “병원은 고통스러운 곳? 아니 즐거운 곳”  
날짜: 201402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41802857  
본문: 　병원은 고통을 가진 환자들이 찾는 곳이다. 그래서 마냥 즐거울 수 없는 곳이다. 그런 병원이 ‘즐거운 곳’으로 변신하고 있다. 병원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메디테인먼트(Medi-tainment)를 추구하는 새로운 개념의 병원이다. 가톨릭 인천교구는 오는 17일 인천시 서구 심곡로에 신축·개원하는 ‘국제성모병원’을 이렇게 꾸몄다고 12일 밝혔다.<br/>　<br/>　개원을 앞둔 이 병원이 주목받는 것은 공존하기 어려운 ‘의료’와 ‘즐거움’이 어우러지는 치유 공간을 만들겠다는 시도 때문이다. 국내외의 많은 병원들이 이런 유형의 병원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지만 결과는 시원찮았다. 고정관념이 바뀌지 않았고, 현실이 생각대로 구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제성모병원의 경영을 총괄하고 있는 박문서(예방의학 박사) 신부는 “<span class='quot0'>새 병원은 기본적으로 치유자로서의 그리스도의 뜻을 구현하는 곳이지만 그 목표에 다가서는 방식은 지금처럼 지나치게 엄숙하고, 무겁고, 암울한 곳이 아니라 즐겁고, 밝고, 명랑한 곳이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운영될 것</span>”이라고 강조했다.<br/>　<br/>　박 신부는 “<span class='quot1'>국제성모병원은 개원 초기에 흔히 드러나는 시행착오와 이로 인한 환자들의 불편을 극소화하기 위해 설계와 건축, 의료진 영입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을 두고 철저히 준비해왔다</span>”면서 “<span class='quot1'>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진을 선발해 오래 전부터 팀웍을 다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현하려고 하는 환자중심의 혁신적 시스템이 차질없이 정착될 것</span>”이라고 말했다. 그는 “<span class='quot1'>우리는 이 병원을 통해 의료의 본령인 환자의 고통을 치료할뿐 아니라 의료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실현해 궁극적으로 세계적 수준의 병원으로 도약할 것</span>”이라는 했다.<br/>　<br/>　국제성모병원은 1만 4363㎡(4300평)의 부지에 지하 6층, 지상 11층, 연건평 10만 46563㎡ 규모로 1000개의 병상을 갖추고 있다. 병원 측은 “병원의 모든 진료 메카니즘과 시설이 ‘메디컬 테마파크’ 개념으로 설계되었으며, 환자 보호를 위한 감염 주의구역을 제외한 모든 공간과 시설이 환자는 물론 일반인들에게 100% 공개된다”고 설명했다. 병원 관계자는 이를 메디테인먼트의 기본 컨셉트라고 덧붙였다.<br/>　<br/>　이를 위해 환자와 보호자는 물론 지역 주민들이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는 푸드코트와 국내 최대 규모의 식물공장은 물론 스크린 골프장과 기원, 미용실 등을 갖췄다. 특히 식물공장에서 재배한 각종 채소류는 환자들의 식재료로 공급된다. 병원과 함께 264세대 규모의 시니어타운 ‘마리 스텔라’가 신축돼 입주를 앞두고 있으며, 노천광장은 지역사회에 연중 무료로 개방해 각종 공연과 전시회, 벼룩시장 등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게 된다. 병원을 에워싼 해발 227m의 천마산 능선에는 둘레길도 조성했다. 기선완(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기획조정실장은 “<span class='quot2'>병원 지하에는 각종 편의시설과 문화·오락시설 등이 들어서 시민들은 물론 국내외 환자들에게 휴식과 소통의 공간이 될 것</span>”이라면서 “<span class='quot2'>국제성모병원이 단순한 치료공간에 그치지 않고 환자와 시민들에게 정신적 휴식과 즐거움을 주는 진정한 힐링공간이라는 기획 의도가 충실하게 반영됐다</span>”고 설명했다.<br/>　<br/>　진료시스템도 모두 구축됐다. 1000병상 규모에 25개 진료과목과 36개 진료과, 12개 전문 진료센터를 갖췄다. 천명훈 병원장은 “<span class='quot3'>환자중심의 진료시스템 구현과 세계적 수준의 첨단의료서비스 제공, 혁신적 중개의학 연구 활성화, 통합의학에 기초한 전인치료로 난치성 질환 정복, 다양하고 균형 잡힌 교육 및 역량 있는 의료인 양성 이라는 5가지 목표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span>”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천 병원장은 이어 세 가지 특성화전략도 소개했다. 산업화를 포함한 연구센터의 적극적 육성과 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 개발 및 임상적용, 첨단의료기술 및 의료기기 개발, 신약개발과 환자맞춤형 치료제개발 등을 통해 의료산업화를 선도하겠다는 것이다.<br/>　 <br/>　전이재발암센터의 활성화와 장수의학센터도 병원 경영의 핵심 전략이다. 박문서 신부는 “<span class='quot4'>재발 또는 전이암에 대해 표준항암치료와 정밀 방사선수술, 보완대체의학과 한의학적 치료까지 병행하는 전인적 통합진료를 적용할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4'>국내에서 처음 개설한 장수의학센터에서는 노화에 대한 포괄적 관리와 진료는 물론 대사증후군·내분비 기능·퇴행성 질환·뇌기능 관리는 물론 다양한 항노화 솔루션도 제공하게 될 것</span>”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했다.<br/>　<br/>　이를 위해 ‘꿈의 수술’로 일컬어지는 ‘하이브리드 수술실’을 가동하며, 암치료기 ‘인피니티(Infinity)’와 인간 친화적 MRI로 알려진 ‘마그네톰 스카이라(Magnetom Skyra)’도 갖췄다. 박 신부는 “<span class='quot4'>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과 가깝다는 지리적 장점을 살려 중국·러시아 등지의 중증질환자를 유치하는 등 국제적 수준의 첨단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다 됐다</span>”고 설명했다. 병원 측은 현재 콜센터와 인터넷을 통해 외래환자 예약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17일 개원식과 함께 본격적인 진료를 시작할 계획이다. 앞서 가톨릭 인천교구는 병원 개원을 앞두고 ‘인천가톨릭의료원’을 출범시키고 초대 의료원장에 이학노 몬시뇰 신부, 초대 병원장에 가톨릭대 성모병원 의료원장을 역임한 천명훈 교수를 선임했다.<br/>　<br/>　심재억 의학전문기자 jeshim@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189.txt

제목: [하프타임]  
날짜: 201402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41154816  
본문: 체육공단, 노진규 암치료 지원<br/><br/><br/>국민체육진흥공단이 암 투병중인 쇼트트랙 국가대표 노진규(22·한국체대)의 치료비를 지원한다. 공단은 11일 “<span class='quot0'>체육인 복지사업 운영 규정에 의거해 최대 5000만원 한도에서 노진규의 치료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span>”고 밝혔다. 노진규는 소치동계올림픽 남자 5000ｍ 계주팀 일원으로 뛸 예정이었만 지난달 훈련 도중 뼈암의 일종인 골육종이 발견돼 제거 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 중이다.<br/><br/><br/>SK 3차 연장 끝에 오리온스 제압 <br/><br/><br/>SK가 11일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농구 오리온스와의 5라운드를 3차 연장(역대 여섯 번째)까지 치른 끝에 94-87로 이겨 오리온스를 8연승에서 멈춰 세웠다. 오리온스는 올 시즌 SK와 다섯 차례 대결해 모두 지는 수모를 안았다. SK는 모비스에 0.5경기 앞선 단독 선두로 올라섰다.<br/><br/><br/>흥국생명, 현대건설 완파<br/><br/><br/>흥국생명이 11일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배구 여자부 홈경기에서 현대건설을 3-0(25-22 25-20 25-15)으로 꺾고 10연패 늪에서 탈출했다. 54일 만의 짜릿한 승리. 외국인 주포 바실레바가 22득점했다. 남자부에서는 대한항공이 한국전력에 3-1(20-25 25-21 25-13 25-23)로 역전승했다.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190.txt

제목: 냄새로 주인 몸 속 ‘암’ 찾아낸 견공 화제  
날짜: 201402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40828339  
본문: 냄새로 몸속 ‘악성 종양’을 발견해 주인의 목숨을 구한 기특한 견공의 사연이 네티즌들을 훈훈하게 하고 있다. <br/>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의 10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연의 주인공은 미국 뉴욕에 거주중인 56세 여성 다이앤 파파지안과 이제 4개월 된 그녀의 강아지 ‘트로이(도베르만 견종)’다.<br/>최근 다이앤은 어느 순간부터 트로이가 자꾸 가슴부분을 파고들며 냄새를 맡고 코를 비비려해 곤욕스러움을 느껴왔다. 강아지가 코를 대는 행동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부위가 여성에게 민감한 부분이었던 만큼 다이앤은 당황스러웠다. 하지만 코를 대는 횟수가 반복되자 심상치 않은 조짐을 느꼈고 혹시 몸에 이상이 생긴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br/>결국 다이앤은 병원을 방문해 ‘유방암 검진 X선 촬영’(mammogram)을 했고 놀라운 검사결과를 받았다. 그녀의 가슴 부분에서 3cm 길이 악성종양이 발견됐던 것. 즉시 다이앤은 유방절제술, 항암화학요법을 받았고 다행히 유방암 초기인지라 완치 될 수 있었다.<br/>사연이 알려져지면서 트로이는 유명해졌다. 미국 애견 협회 주관 ‘영웅 견공 콘테스트’에서 1위에 오르기도 했다. 다이앤은 “<span class='quot0'>트로이는 내 목숨을 구해준 소중한 존재</span>”라며 “<span class='quot0'>이보다 더 영특하고 사랑스러운 강아지는 없을 것</span>”이라고 전했다.<br/>한편 개의 후각 능력은 인간보다 약 1만 배 더 민감해 냄새 포착에 있어서 경이적인 능력을 보여준다. 실제로 영국 의학 전문지 ‘GUT’은 지난 2011년 개가 후각만으로 암을 90% 이상 판별할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br/>일본 치바현 ‘세인트 슈거 암 탐지견 육성 센터’ 연구진은 당시 9살이었던 검정색 래브라도 리트리버 견종인 ‘마린’에게 총 5가지 사람 숨결이 담긴 용기를 건넸고 그중 대장암 환자의 숨결이 담긴 용기를 맞추는 실험을 진행했다. 놀랍게도 마린은 총 36회 실험 중 33회 이상 암 환자의 숨결이 담긴 용기를 선택해 화제가 됐다. <br/>사진=Caters News Agency 　<br/>조우상 기자 wscho@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191.txt

제목: 항암치료 온열요법, 의학임상논문정리 다룬 ‘나는 다 나았다’ 출간  
날짜: 201402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40636288  
본문: 건강의 핵심이라 불리는 체온 관리, 온열 요법을 다룬 책 ‘나는 다 나았다’가 출간되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도서출판 자연과 생명은 원적외선 온열요법의 국내외 의학계 임상논문을 총정리한 ‘나는 다 나았다’를 소책자 형태로 지난해 12월1일자 출간해 판매하고 있다.<br/>‘나는 다 나았다’는 암 치료를 위한 온열요법이 왜 종양세포까지 사멸하게 하는지에 관해 전문 의사들의 의학적 임상 견해 및 체험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해 소개한다. 실제로 닥터 콜리는 인체의 체온을 올려서 치료하는 온열치료법으로 1920년 노벨의학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KBS ‘생로병사의 비밀’에서도 47도의 열에도 견디는 일반 세포와 달리 42도의 열에 사망하는 암세포의 원리를 이용해 체온을 42도로 유지하면 암 세포를 사멸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방영하기도 했다.<br/>직장암을 비롯 위암, 대장암, 폐암, 간암, 전립선암, 방광암, 담낭암, 신장암, 췌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난소암 등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든 많은 종류의 암을 치료하는데 있어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심부체온상승에 따른 열활성 단백질 생성에 있고 암세포의 경우 42도 정도의 열에도 사멸하기 때문에 일정시간 체온을 42도로 유지하면 암세포를 사멸할 수 있다는 것이다.<br/>히포크라테스는 “온열치료를 통해 어떠한 질병도 극복해낼 수 있다. 온열요법으로 치료할 수 없는 병은 불치의 병이다”라고 말했으며, 고베의학연구소 나오히사 이시바시 의학박사는 “체온이 떨어지면 적혈구가 굳어지면서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노폐물과 독소가 배설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인간은 각종 질병에 시달리게 된다”고 말한 바 있다.<br/>‘나는 다 나았다’는 체온관리와 온열요법에 관한 의학적 중요 임상논문들의 핵심적 내용만 추려 일반인이 이해하기 좋은 문체로 간략하게 정리했다. 또한 암 환자뿐만 아니라 난치 질환으로 고통을 겪는 환자들에게 왜 상시적 온열요법이 필요하며, 온열요법의 현대 의학적 연구 결과와 임상사례에 대해서도 조명한다.<br/>더불어 원적외선의 빛 에너지에 의한 온열 작용과 일반 열에 의한 온열 작용의 차이점을 구체적이면서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원적외선의 온열 임상효과에 대한 중요 논문을 국내 의학계뿐만 아니라 해외 의학계의 논문까지 망라해 소개하고 있다.<br/>책에 수록된 주요내용은 온열요법의 항암치료, 손상세포 치료, 스트레스 완화효과, 해독효과, 면역기능 향상효과 등 의학적 치료근거와 원리, 효과 등이다. 또한 인체의 체온이 건강과 질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체온을 상승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온열요법 방법과 온열요법시 주의해야 할 내용, 호전반응 등을 포함하고 있다.<br/>‘나는 다 나았다’는 국내 온, 오프라인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소책자로 가격은 5,000원이다. 구입 문의는 자연과 생명(080-760-7575)으로 가능하다.<br/>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192.txt

제목: 동물농장 똘똘이 죽음, 강원래 김송 오열 ‘폐+간+척추까지 전이’  
날짜: 20140209  
기자: 김채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33307042  
본문: 동물농장 똘똘이 죽음<br/><br/>9일 방송된 SBS ‘TV 동물농장’에서는 강원래 김송 부부에게 자식같던 반려견 똘똘이의 마지막이 공개됐다.<br/><br/>똘똘이는 자식이 없는 강원래-김송 부부에게 큰 위로가 돼준 반려견이다. 하지만 2011년 림프암 판정을 받았다. 이에 폐, 간, 비장, 척추까지 암은 전이됐고 똘똘이는 시한부 삶을 판정받았다. 당시 똘똘이는 두 달 밖에 살지 못할 것이라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지만 똘똘이는 2013년까지 목숨을 이어왔다.<br/><br/>그런 똘똘이를 위해 강원래 김송 부부는 똘똘이의 버킷리스트를 만들었다. 마지막을 함께 해주기로 한 것. 가족사진을 찍는가 하면 평소 눈밭을 뛰는 것을 좋아한 똘똘이를 위해 함께 여행을 떠나기도 했다.<br/><br/>여행을 떠나던 중 강원래 김송 부부는 눈밭이 있는 곳에서 잠시 차를 세웠다. 똘똘이를 데리고 자동차에서 내린 김송은 눈밭으로 향했다. 그러던 중 똘똘이는 갑자기 몸이 굳은 듯 바닥에 주저앉았다. 결국 똘똘이는 제 발로 일어서지 못했고 호흡이 가쁜 듯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다. <br/><br/>당황한 김송은 급하게 강원래를 불렀다. 강원래는 놀란 마음에 휠체어를 타고 똘똘이에게 다가왔다. 똘똘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아빠 강원래 무릎 위에서 숨을 거뒀다. 강원래 김송 부부는 가눌 수 없는 슬픔에 눈물을 펑펑 쏟아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br/><br/>이후 강원래는 “내가 가장 힘들 때 온 아이가 똘똘이다.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고 말했으며 김송 역시 “똘똘이가 마지막까지 혼자 가지 않고 우리 앞에 있어줘서 정말 고맙고 다행이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br/><br/>강원래 김송 오열에 네티즌은 “강원래 김송 오열..똘똘이 좋은 곳으로 갔을 거에요”, “강원래 김송 오열..나도 같이 눈물 흘렸다”, “강원래 김송 오열. 강원래 부부에게는 자식같았을 듯”, “강원래 김송 오열..행복을 주고 떠난 똘똘이 하늘나라에서도 행복하길”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br/><br/>사진 = SBS (강원래 김송 오열)<br/><br/>연예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193.txt

제목: [생명의 窓] 의미 있는 고통/김진 가톨릭의대 해부학교실 교수  
날짜: 201402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32243288  
본문: “복 많이 받으세요!”와 함께 새해 인사로 가장 많이 주고받는 덕담은 “건강하세요!”일 것이다. 올 초 발표된 우리나라의 평균 기대수명은 81.4세라고 한다. 안타깝게도 아프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건강수명’은 아직 66세에 멈춰 있다고 하니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각종 성인병, 암, 치매 등으로 인한 고통을 겪으면서 말년의 ‘골골 15년’을 보내야만 한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노년층의 가장 큰 걱정의 하나는 ‘어떻게 하면 고통받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삶을 마감할 수 있을까’가 되었다.<br/><br/>눈에 작은 티끌만 들어가도 아프고 괴로운 게 우리 몸이다. 건강할 때는 아프지 않기를 기대하지만, 만일 우리 몸에 통증을 느끼는 감각이 없다면 상처가 나거나 질병으로 세포가 죽어가는 것을 모르게 돼 상처는 곪아버리고 병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가 느끼는 아픔은 우리 몸의 이상 발생을 곧바로 확인시켜 주는 훌륭한 경고 시스템인 것이다. 하지만 현대 의학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병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은 환자는 물론 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가족에게도 커다란 고통이 아닐 수 없다. <br/><br/>1945년 8월 히로시마 원폭이 투하된 지 며칠 후, 일본의 학도병으로 끌려가셨던 아버지는 원폭 피해 복구를 위해 맨몸으로 동원되었다고 하셨다. 그 때문이었는지 아버지는 젊어서부터 원인 모를 여러 질환으로 고생하셨고, 마침내 심한 천식과 합병증으로 인한 고통을 겪으면서 59세의 이른 나이에 생을 마감하셨다. 의사가 됐지만 곁에서 지켜보는 것 이외에는 해드릴 것이 없다는 무력감으로 인해 아버지를 뵙고 돌아올 때의 발걸음은 늘 무겁기만 했다.<br/><br/>저녁이면 더 숨이 멈출 것 같은 기침과 이로 인한 가슴의 통증으로 깊은 잠에 들지 못하고 깨어 있는 시간이 더 많으셨기에 자연스럽게 아버지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씩 많아졌다. 처음에는 그저 신문과 방송에서 보고 들은 내용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와 나는 가슴 속 깊이 숨겨두었던 이야기를 조금씩 끄집어내기 시작했다. 그렇게 ‘새벽 담화’가 시작된 후 아버지의 고통은 점차 극한으로 치달았고 몇 달 뒤 돌아가시고 말았다.<br/><br/>그런 모습을 바라봐야 하는 자식의 마음은 한없이 안타까웠지만 오랫동안 닫혀 있던 부자간의 마음을 열어 서로에게 보여주지 못했던 사랑을 확인하고 나누게 했던 새벽녘의 그 시간들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 있다. 아버지도 보고 싶던 외아들의 손을 맞잡고 정을 나눴던 그때가 평생을 짊어지고 온 고통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으리라 믿는다.<br/><br/>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법(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누구나 천수를 누리고 고통 없이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어하고, 의학적으로도 가능하면 그렇게 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의미한 연명치료라는 것을 어느 누가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까. 고통은 회피해야만 하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인가. 정채봉 작가와의 대화에서 김수환 추기경은 “사람에게 고통이 없으면 몸만 자라고 마음은 자라지 않겠지요. 고통 속에도 기쁨이 있다고 믿으며 이겨 내는 것이 참 인간의 길입니다”라고 하셨다. 과연 죽음보다 더한 고통 속에서도 기쁨과 위안을 느끼게 하는 힘은 무엇일까. 아버지와 함께했던 아름다운 그 새벽의 시간들이 새삼 떠오른다.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194.txt

제목: 건보공단, 대대적 담배소송 앞두고 흡연 경고문구 보험료 고지서 삽입  
날짜: 201402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31958424  
본문: 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대대적인 ‘담배소송’(흡연피해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이 다음 달부터 보험료 고지서에 흡연 경고 문구를 삽입하는 등 대대적인 금연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br/><br/><br/>건보공단은 매월 발송되는 1030만여건의 보험료 고지서에 ‘담배는 4800여종의 화학물질과 69종의 발암 의심 물질로 구성, 모든 암 발생 원인의 30~40% 차지’, ‘임신부 흡연 시 유산·태아 뇌세포 손상·영아 돌연사 등 위험 증가’, ‘헤로인·코카인보다 높은 니코틴의 중독성’ 등의 강력한 경고 문구를 삽입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밖에도 26만건의 영유아 건강검진 안내문과 3000만건의 일반검진 안내문에 같은 내용의 경고 문구를 담아 이달부터 발송하고 있다고 말했다. <br/><br/><br/>건보공단은 또 건강검진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관공서를 포함한 각 직장의 흡연율을 파악, 일정 규모 이상의 직장에 흡연율을 통보하고 흡연율이 높은 직장을 대상으로 금연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연사업장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br/><br/><br/>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195.txt

제목: 삼성 “논란 종지부…한숨 돌려” CJ “진정한 화해 기대했는데…”  
날짜: 201402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30738967  
본문: 삼성그룹과 CJ그룹은 6일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씨와 삼남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상속소송 항소심에서 이 회장이 승소한 것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다. 그룹과 관계없는 사적인 법정 다툼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도 삼성은 한시름 놨다는 반응인 반면 CJ 측은 씁쓸함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br/><br/><br/>이날 삼성은 “<span class='quot0'>재판 과정에서도 밝혔듯이 사인 간의 소송이므로 그룹 차원의 입장은 없다</span>”고 밝혔다. 그러나 삼성 내부에서는 이 회장이 ‘원칙과 정통성의 문제’라고 강조한 이번 소송에서 1, 2심 모두 완승하자 안도하는 분위기다. 삼성 관계자는 “<span class='quot1'>경영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2년간 끌던 공방이 사실상 끝나 한숨 돌리게 됐다</span>”면서 “<span class='quot1'>법원이 두 차례나 엄중하게 판단한 만큼 상속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본다</span>”고 말했다.<br/><br/><br/>CJ도 이씨 개인의 소송인 만큼 그룹 차원의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CJ 관계자는 “<span class='quot2'>소송 당사자는 아니지만 형제간의 진정한 화해를 기대했는데 안타깝다</span>”면서 “원만한 해결을 바란다”고 말했다.<br/><br/><br/>재계의 관심은 상고 가능성으로 모이고 있다. 이씨와 법률 대리인 화우 측은 2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대법원에 상고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CJ 측은 상고 여부에 대해 “섣불리 예측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 내부에서는 이쯤에서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재벌이 재산을 두고 다투는 듯한 모양새는 여론에도 좋지 않다는 것이다. 삼성 관계자는 “<span class='quot1'>이씨가 상고한다면 공개적으로 화해 의지를 밝힌 것에 진정성이 없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span>”이라고 지적했다.<br/><br/><br/>이씨는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원망을 풀고 같이 살자는 뜻의 ‘해원상생’ 편지를 공개하는 등 이 회장 측에 화해를 제의한 바 있다. 2012년 말 폐암으로 폐의 3분의1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은 이씨는 최근 부신으로 암이 전이돼 치료를 받고 있다.<br/><br/><br/>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br/><br/><br/>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196.txt

제목: “유방암 환자였음 좋겠다” 英 황당한 공익광고 논란  
날짜: 201402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40315121  
본문: “<span class='quot0'>내가 유방암 환자면 좋겠어요</span>”<br/>실제 유방암 환자가 위의 글귀가 적힌 광고를 본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br/>최근 영국에서 황당한 카피의 공익 캠페인이 공개됐다. 췌장암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인데, 캠페인 속 등장인물들은 한결같이 “차라리 다른 암이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한다.<br/>이유인즉 췌장암이 다른 암에 비해 사망률이 높기 때문. 실제로 유방암이나 고환암 등은 5년 생존율이 각각 85%, 97%에 달하는 반면 췌장암은 3%에 불과하다. 그러니 암에 걸릴거라면 차라리 생존율이 높은 유방암이 낫겠다는 ‘부러움’이 섞인 광고 카피인 셈이다.<br/>이런 뜻에서 캠페인에 등장하는 ‘케리’(24)라는 이름의 췌장암 여성 환자는 “내가 유방암이었으면 좋겠다”는 다소 역설적인 희망사항을 이야기 한다.<br/>이를 접한 유방암 환자 협회는 황당함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br/>유방암 퇴치협회의 대표인 크리스 애스큐는 현지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유방암이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유방암 환자를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면서 ‘이러한 광고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br/>하지만 광고를 게재한 췌장암관련협회장이자 본인 역시 과거 췌장암을 앓은 병력이 있는 알리 스턴트는 데일리메일과 한 인터뷰에서 “내가 췌장암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생존율이 매우 낮다는 사실을 알고 더욱 놀란 적이 있다”면서 “당시 차라리 생존율이 높은 다른 암이길 바랐었다”고 말했다.<br/>이어 “다른 암 역시 매우 끔찍한 병이라는 것을 나도 알고는 있지만, 췌장암은 유독 다른 암에 비해 훨씬 더 살아남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br/>스턴트의 주장에 따르면 1년 동안 췌장암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전체 췌장암 환자 중 82%에 달한다. 또한 암 선고를 받은 뒤 평균 수명은 4~6개월에 불과하다.<br/>이 광고가 TV와 지면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노출되는 만큼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br/>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197.txt

제목: ‘림프부종’ 암수술시 림프절 제거가 주원인  
날짜: 201402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24726171  
본문: 암 수술로 고비를 넘긴 환자 중 상당수가 림프부종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는 암 환자의 경우 암세포가 다른 부위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림프절 절제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제 치료 등을 시행함에 따라 림프계의 순환이 손상됐기 때문이다. <br/><br/>림프계 순환장애인 림프부종은 림프액이 순환계로 흐르지 못하고 피부 및 피하지방 안에 비정상적으로 축적되면서 고농도 단백질로 변질되어 팔과 다리가 비정상적으로 크게 붓는 증상이다. 림프부종은 1차성 림프부종과 2차성 림프부종으로 나뉘며 이중 2차성 림프부종은 암 수술 시 전이를 막기 위해 폭넓게 림프절을 제거했거나 방사선 치료, 외상, 감염 등으로 발생한다. <br/><br/>실제로 유방암 수술을 한 환자의 경우 2~27%, 방사선 치료만 한 환자의 경우 9~36%에서 림프부종이 발병됐다. 전문가에 따르면, 암치료 후유증으로 림프부종을 앓고 있는 환자는 북미 지역에만 30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며, 국내에도 3만 명 이상의 림프부종 환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r/><br/>초기 증상은 몸 전체가 붓거나 뻐근하고 피부가 딱딱해지는 느낌이 전해지는 것이다. 외관상으로는 크게 부은 것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이후 증상이 심해지면서 눈으로도 부은 것이 보이기 시작하며 특히 팔과 다리 둘레가 굵어진다. 평소에 입었던 옷이나 신발이 잘 맞지 않는다면 부종을 의심해봐야 한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병원에서 림프신티그램, 초음파검사, MRI, CT 등을 통해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br/><br/>치료방법에는 압박요법, 경구약, 림프흡수마사지, 외과적 수술 등이 있다. 하지만 완치가 어려운 만큼 예방에 신경을 써야 한다. 현재까지 국제적으로 효과를 인정받고 있는 치료법은 1930년대에 개발된 순환계 물리치료로 도수 림프흡수마사지(MLD), 복합부종감소물리치료(CDP, CDT)가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정상 림프절 이식이나 림프관을 이어주는 미세림프수술 및 지방흡입수술, 줄기세포수술 등 다양한 수술치료법이 개발되고 있다. <br/><br/>해당 개발을 진행한 연세에스병원 심영기, 윤진호 원장은 “<span class='quot0'>최근 환자의 상태에 따라 리세림프수술 및 지방흡입수술, 줄기세포 수술을 이용해 하지부종 18건, 상지부종 5건 등 총 23건을 치료한 후 1년간 추적 관찰했다</span>”고 밝혔다. <br/><br/>치료 6개월 후 대부분의 환자에게서 평균 30%이상 림프부종이 감소한 결과를 얻었다. 치료 효과가 좋은 경우에는 약 80%까지 부종이 감소했다. <br/><br/>심영기 원장은 “<span class='quot1'>줄기세포 치료를 하더라도 수술로 림프절을 다 절제했기 때문에 100% 완치는 어렵지만 부종의 증상을 줄여줌으로써 합병증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높이며 미용적으로 개선효과를 봤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span>”고 평가했다. <br/><br/>한편 이번 치료결과는 일본 삿포로에서 열릴 제 18회 국제개별화의료학회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br/><br/>연예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198.txt

제목: [씨줄날줄] ‘은하철도999’와 제3의 만능세포/문소영 논설위원  
날짜: 201402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24716265  
본문: 일본 만화영화 ‘은하철도 999’의 시간적 배경은 먼 미래의 지구. 돈 많은 사람들은 영원한 삶을 살고 있다. 수명이 다한 장기를 값비싼 기계로 교체하는 덕분이다. 그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공짜로 기계 인간을 만들어준다는 안드로메다 행성행 ‘은하철도 999’에 탑승할 승차권을 얻고자 필사적이다. 기계 백작에게 엄마를 잃은 땅꼬마 철이도 마찬가지다. ‘눈보라’라는 뜻의 러시아 이름을 가진 8등신의 미인 메텔의 도움으로 어렵게 은하철도999에 탑승한 철이는 죽지 않는 기계 인간이 돼 기계 백작에게 복수하기 위해 우주 항해를 떠난다. <br/><br/><br/>어린이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만화영화가 ‘유한한 인간의 삶을 영원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철학적 질문을 던지고 있으니, 재미를 좇는 어린 뇌에 과부하가 걸리기도 했다. 1970년대 일본 TV시리즈였던 ‘은하철도 999’는 증기기관에 이어 자동차, 세탁기, 냉장고가 개발되고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를 탐사한 1960년대를 통과하며 기계의 능력에 환호하던 근대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다. 심장박동을 도와주는 제동기를 단 사람들도 있으니 ‘터미네이터’까지는 아니지만 기계로 인간의 몸을 대체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생각도 할 수 있었겠다. <br/><br/><br/>그러나 21세기에 들어 과학 발전은 인간수명을 연장하는 도구로 차가운 기계보다 더 좋은 대체재를 제시하고 있다. 뜨거운 피가 흐르는 인간의 물성을 훼손하지 않는 것들이다. 나중에 조작으로 밝혀졌지만 황우석 박사의 체세포 복제 방식이나 유도만능줄기세포(iPS), 또 최근 발견된 ‘제3의 만능세포(STAP·Stimulus-Triggered Acquisition of Pluripotency:자극야기성 다성능 획득)’ 등이다. 특히 ‘제3의 만능세포’는 초간단 조작으로 만들 수 있다. 일본 고베 소재 이화학연구소 여성 과학자 오보카타 하루코(30) 연구주임이 개발한 ‘STAP 세포’는 쥐의 비장에서 채취한 백혈구의 일종인 림프구를 홍차 정도의 약산성 용액에 30분 정도 담갔다가 배양했다. 수일 후 만들어진 만능세포는 근육, 신경, 피부, 내장 세포 등 어떤 세포로도 변한다는 것이다. 이는 피부세포에 바이러스를 이용해 유전자를 주입하는 유도만능줄기세포에 비해 효율적이다. 짧은 시간에 만들 수 있는 데다 암 발생 우려도 적다. 다만 이 만능세포는 현재 쥐 실험을 통해 입증된 것으로, 인간의 세포도 똑같은 만능세포를 만들 수 있을지는 연구 과제다. 지난 1월 30일 영국의 과학전문지 네이처에 실려 알려진 이 연구논문이 철회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br/><br/><br/>문소영 논설위원 symu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199.txt

제목: ‘경찰국장’ 꿈 이룬 9살 암투병 소년…감동사연  
날짜: 201402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35914035  
본문: 암 투병 중인 9세 소년이 지역 당국의 배려로 평소 꿈이었던 ‘경찰국장’ 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알려져 네티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br/>미국 온라인 매체 허핑턴 포스트의 1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연의 주인공은 디트로이트 주에 거주 중인 초등학생 ‘제이본 펠튼’(9)이다.<br/>작년 4월, 펠튼은 복통 증세로 지역 병원을 찾았었다. 펠튼의 엄마인 아만다 클링크스케일즈는 아들이 그저 ‘위에 문제가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과는 심각했다. 펠튼이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것이다.<br/>’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은 혈액·골수 내 림프구 계통 세포에서 발생하는 혈액암으로 화학치료가 병행되지 않으면 6개월 내 사망할 확률이 매우 높은 무서운 병이다. 특히 한참 꿈을 키워나갈 시기의 9살 소년에게 ‘혈액암’ 진단은 많은 고민을 안겨줄 수밖에 없었다. 평소 정의감이 투철했던 펠튼의 꿈은 다름 아닌 ‘디트로이트 경찰 국장’이었다.<br/>치열하게 병마와 싸워나가던 지난 31일, 펠튼에게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다. 지역 당국의 배려로 평소 꿈이었던 ‘디트로이트 경찰국장’ 직무를 수행할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br/>어린이 사이즈로 맞춰진 경찰제복을 입고 국장 전용 출근차량으로 디트로이트 경찰국에 출근한 페튼은 헬리콥터로 디트로이트 시내를 순찰하는 등 실전 업무를 체험했다. 직무 체험 중 현 디트로이트 경찰국장인 제임스 크레이그는 깍듯한 어조로 펠튼에게 “더 지시하실 것 없습니까?”라고 묻기도 했다. 이에 펠튼은 “오늘 하루 휴가 다녀오세요”라며 여유 있는 농담을 던져 주위 사람들을 박장대소하게 만들었다.<br/>펠튼의 하루업무가 끝날 무렵 디트로이트 경찰국은 작은 파티장소가 됐다. 평소 치료 때문에 학교에 오지 못한 펠튼을 위해 친구들이 피자를 들고 경찰서를 찾아온 것이다. <br/>시종일관 훈훈한 분위기에서 멋진 하루를 보낸 펠튼을 바라보며 엄마는 대견함을 느꼈다. 그녀는 “펠튼은 평소 도시를 지키는 경찰이 얼마나 멋지고 자랑스러운 존재인지 내게 말해왔다”며 “항암치료로 많이 힘든 아들에게 이번 체험이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전했다.<br/>감동을 느낀 것은 경찰 당국도 마찬가지였다. 크레이그 국장은 “<span class='quot0'>하루하루 병마와 힘겹게 싸우고 있는 소년의 강인한 정신이 내게 큰 감명을 줬다</span>”고 전했다. <br/>사진=허핑턴 포스트 캡처　<br/>조우상 기자 wscho@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200.txt

제목: ‘경찰국장’ 꿈 이룬 9살 암투병 소년…감동사연  
날짜: 201402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35850091  
본문: 암 투병 중인 9세 소년이 지역 당국의 배려로 평소 꿈이었던 ‘경찰국장’ 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알려져 네티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br/>미국 온라인 매체 허핑턴 포스트의 1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연의 주인공은 디트로이트 주에 거주 중인 초등학생 ‘제이본 펠튼’(9)이다.<br/>작년 4월, 펠튼은 복통 증세로 지역 병원을 찾았었다. 펠튼의 엄마인 아만다 클링크스케일즈는 아들이 그저 ‘위에 문제가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과는 심각했다. 펠튼이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것이다.<br/>’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은 혈액·골수 내 림프구 계통 세포에서 발생하는 혈액암으로 화학치료가 병행되지 않으면 6개월 내 사망할 확률이 매우 높은 무서운 병이다. 특히 한참 꿈을 키워나갈 시기의 9살 소년에게 ‘혈액암’ 진단은 많은 고민을 안겨줄 수밖에 없었다. 평소 정의감이 투철했던 펠튼의 꿈은 다름 아닌 ‘디트로이트 경찰 국장’이었다.<br/>치열하게 병마와 싸워나가던 지난 31일, 펠튼에게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다. 지역 당국의 배려로 평소 꿈이었던 ‘디트로이트 경찰국장’ 직무를 수행할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br/>어린이 사이즈로 맞춰진 경찰제복을 입고 국장 전용 출근차량으로 디트로이트 경찰국에 출근한 페튼은 헬리콥터로 디트로이트 시내를 순찰하는 등 실전 업무를 체험했다. 직무 체험 중 현 디트로이트 경찰국장인 제임스 크레이그는 깍듯한 어조로 펠튼에게 “더 지시하실 것 없습니까?”라고 묻기도 했다. 이에 펠튼은 “오늘 하루 휴가 다녀오세요”라며 여유 있는 농담을 던져 주위 사람들을 박장대소하게 만들었다.<br/>펠튼의 하루업무가 끝날 무렵 디트로이트 경찰국은 작은 파티장소가 됐다. 평소 치료 때문에 학교에 오지 못한 펠튼을 위해 친구들이 피자를 들고 경찰서를 찾아온 것이다. <br/>시종일관 훈훈한 분위기에서 멋진 하루를 보낸 펠튼을 바라보며 엄마는 대견함을 느꼈다. 그녀는 “펠튼은 평소 도시를 지키는 경찰이 얼마나 멋지고 자랑스러운 존재인지 내게 말해왔다”며 “항암치료로 많이 힘든 아들에게 이번 체험이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전했다.<br/>감동을 느낀 것은 경찰 당국도 마찬가지였다. 크레이그 국장은 “<span class='quot0'>하루하루 병마와 힘겹게 싸우고 있는 소년의 강인한 정신이 내게 큰 감명을 줬다</span>”고 전했다. <br/>사진=허핑턴 포스트 캡처　<br/>조우상 기자 wscho@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201.txt

제목: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날짜: 201402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22511841  
본문: Q. 국가 암검진의 종류와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br/><br/><br/>A.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발병률이 높고 조기진단 및 치료 가능한 5대 암(위암, 유방암, 간암, 자궁경부암, 대장암)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검자는 검진비용의 10%만 부담하면 되고 특히 자궁경부암 검사는 공단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202.txt

제목: [부고] 국내 최초 팝 칼럼니스트 서병후씨  
날짜: 201402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22335223  
본문: 유명 팝 칼럼니스트 서병후씨가 지난 1일 오후 4시쯤 자택에서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72세.<br/><br/>고인은 1967년 국내 최초의 팝 음악 잡지 ‘팝스 코리아’를 창간하고 이후 여러 주간지에서 기자로 활동한 국내 1호 팝 칼럼니스트다. <br/><br/>그는 1981년부터 3년 연속 MBC 대학가요제 심사위원을 하고, 미국 음악 잡지 ‘빌보드’의 한국 특파원을 10여년 이상 맡으면서 현지에 한국 음악을 소개하는 등 국내 가요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br/><br/>고인은 최근까지도 음악으로 젊은 층과 소통을 이어 나갔다. 트위터에서 손자 이름을 딴 ‘조단이 할아버지’라는 계정으로 활동하며 클리프 리처드, 조지 해리슨 등 다양한 음악을 소개하고,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다. 지난달 30일에 쓴 ‘말이 안인(아닌) ’는 그의 마지막 트위트가 됐다. <br/><br/>고인은 아들 타이거JK(40·본명 서정권)가 지난해 발표한 음반 ‘살자’의 표지 글씨를 직접 쓰기도 했다. 타이거JK는 트위터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 그는 삶은 사랑하고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썼다.<br/><br/>빈소는 서울 노원구 공릉동 원자력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3일 오전 9시 30분이다. 유족으로는 그룹 들고양이 출신인 부인 김성애씨, 아들 서정권씨, 며느리 윤미래씨 등이 있다. (02)970-1288.<br/><br/><br/><br/>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203.txt

제목: 고용률 50% → 70%로 경기 침체 탈출 이끌어  
날짜: 201402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22234155  
본문: 네덜란드의 파트타임(시간제)근로의 확대는 바세나르(Wassenaar)협약에서 시작됐다. 1982년 집권한 루드 루버스 총리는 같은해 11월 24일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임금 인상 자제 ▲노동시간 단축 등 78개 사항의 바세나르 협약 체결에 성공했다.<br/><br/><br/>경기침체와 높은 실업률로 네덜란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로 노동계와 재계가 각자 입장을 양보해 타협안을 도출한 것이다. 노조는 임금 인상 억제를, 고용주 측은 근로시간 단축을 약속했다. 일자리 나누기, 조기은퇴, 파트타임 확대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br/><br/><br/>모두 입장 차가 팽팽했던 주제였지만 극심한 경제위기 등으로 타협을 미룰 수 없었다. 1981~1982년 네덜란드 제조업체의 4%가 도산했고, 3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매달 1만명의 실업자가 새로 생겨났고, 이로 인해 노조 조합원이 17% 줄었다.<br/><br/><br/>그럼에도 노조와 고용주 측의 강조점은 달랐다. 노조가 계속해서 근로시간 단축을 들고 나왔고 이에 고용주들은 파트타임이 더 나은 해결책이자 청년과 여성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대대적인 여론전에 나섰다. <br/><br/><br/>결과적으로 고용주 측의 전망이 더 정확했다. 파트타임 확대 때문에 고용률이 가파르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1983~1996년 네덜란드에서 늘어난 일자리 100만개 중 80만개가 파트타임 일자리다. 또 파트타임 증가로 1980년대 50%대였던 고용률이 1990년대 70%까지 높아졌다.<br/><br/><br/>이 같은 파트타임 일자리 증가와 근로시간 단축으로 예상치 못한 부수효과도 상당했다. 사람들이 여유 시간이 늘어나자, 상점 등의 개점 시간 및 일수가 늘었고, 이로 인해 추가적인 고용이 창출된 것이다.<br/><br/><br/>또 한가지 주목할 점은 바세나르 협약 직전 정권이 파트타임 일자리 확대에 더 적극적이었지만 큰 효과를 못 냈다는 점이다. 1977~1981년 기업에는 풀타임을 파트타임 두 자리로 전환하면 정부보조금을 지원했고, 풀타임을 파트타임으로 바꾼 근로자에게는 임금을 일정 정도 보전해줬다. 하지만 이 정책은 별다른 효과도 못 내고 1982년 폐지됐다. 바세나르 협약 이후 파트타임 확대에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나서 큰 효과를 냈던 것과 대조적이다.<br/><br/><br/>1990년대 들어 네덜란드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법과 정책으로 파트타임 확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993년 신노선(New Course) 협약으로 파트타임 근로자에게 세금 감면으로 임금을 어느 정도 바로잡아 주고 보육시설 확대와 보육비 보조도 지원하고 있다.<br/><br/><br/>또 1996년 11월엔 풀타임과 파트타임 간 근로조건이나 계약연장 등에서의 차별을 금하는 법(WVOA)이 제정됐다. 2000년 6월엔 노동시간조정법(WAA)을 제정해 노동자들이 현재보다 더 많은 노동시간이나 더 적은 노동시간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했다.<br/><br/><br/>암스테르담 김양진 기자<br/><br/><br/>ky0295@seoul.co.kr<br/><br/><br/>■도움말 클라라 분스트라(Klara Boonstra) 자유대학 법대 교수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204.txt

제목: 서병후 별세, 암투병 중 별세 ‘타이거JK 부친+팝 칼럼니스트 1호’  
날짜: 20140202  
기자: 김채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22022383  
본문: ‘서병후 별세’ <br/><br/>가수 타이거JK 아버지이자 윤미래의 시아버지 서병후 씨가 1일 별세했다.<br/><br/>타이거JK(서정권)의 부친이자 국내 1호 팝 칼럼니스트로 알려진 서병후(72)씨가 1일 오후 4시 암투병 중 별세했다.<br/><br/>이날 타이거JK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span class='quot0'>아버지가 떠나셨다, 아버지는 ‘삶이란 사랑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My father left, he said life is loving and thank you all)</span>”고 적으며 부친의 임종 사실을 알렸다.<br/><br/>고 서병후씨는 그동안 암으로 투병 생활을 이어왔으나 이날 의정부 자택에서 임종했다. 이에 소속사 필굿뮤직 관계자는 “<span class='quot1'>타이거JK와 윤미래는 조문객을 맞을 준비 중</span>”이라고 덧붙였다.<br/><br/>고인은 국내 1호 팝 칼럼리스트로 미국 빌보드에 한국 음악을 처음 소개한 주인공으로 통한다. 중앙일보 기자로 활동했으며, 1981년부터 3년 연속 MBC 대학가요제 심사위원을 맡고 빌보드 한국 특파원으로 활약한 바 있다. <br/><br/>한편 빈소는 서울 공릉동 원자력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3일 오전. 장지는 미정이다.<br/><br/>사진 = 서병후 트위터 (서병후 별세)<br/><br/>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205.txt

제목: [대한민국은 성형 중] ‘성형은 미용’ 편견·비싼 재건 수술비에 중증환자들 한숨  
날짜: 201401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20342703  
본문: 주부 김모(53)씨는 외출 전 잊지 않고 왼쪽 브래지어 속에 휴지를 가득 채운다. 9년 전 유방암 2기 진단을 받고 왼 가슴을 완전히 절제한 까닭에 균형을 맞추려고 택한 궁여지책이다. 여름에는 더 고역이다. 땀에 젖은 휴지에 쓸려 상처가 덧나기 일쑤다. 절제된 가슴에 실리콘을 채워 넣는 재건수술을 받으려 했지만 1500만~2000만원 하는 수술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포기했다.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로 분류돼 건강보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탓이다. 김씨는 “<span class='quot0'>유방재건수술이란 단순히 가슴 모양을 예쁘게 고친 게 아니라 치료 목적으로 하는 수술인데 건강보험 적용을 못 받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span>”고 하소연했다.<br/><br/><br/><br/><br/><br/>‘성형은 미용 목적’이라는 보건당국과 사회적 편견 탓에 김씨처럼 중증 질환 치료를 위해 성형수술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환자들의 한숨이 끊이지 않고 있다.<br/><br/>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유방암 환자 수는 2009년 8만 8155건에서 지난해 12만 3197건으로 4년 새 40% 늘었다. 의료계에서는 이 중 30%가량이 유방 절제 뒤 재건수술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유방재건수술은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여성의 가슴 절제는 팔, 다리를 절제한 것과는 달리 신체 기능의 손상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span class='quot1'>건강보험 재정 여력 탓에 유방재건수술 등은 보험 적용 우선순위에서 밀렸다</span>”는 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br/><br/>곽점순 유방암환우총연합회장은 “많은 유방암 환자가 재건수술을 받지 못해 다른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병원을 반복적으로 찾게 돼 결과적으로는 건강보험 재정이 더 낭비된다”고 지적했다. 정근주 서울 제일병원 유방암환우회장도 “유방은 여성의 상징이기 때문에 한쪽 가슴이 없으면 주변에서 불편한 시선으로 쳐다본다.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어 유방암 수술 이후 2차 피해가 발생한다”고 말했다.<br/><br/>우울증을 겪는 환자들도 많다. 대중목욕탕, 수영장 등에서 사람들이 절제된 가슴을 힐긋힐긋 쳐다보는데 이런 시선을 반복적으로 느끼면 우울증이나 대인기피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 회장은 “<span class='quot2'>강박이 생기면 두툼한 옷을 입어도 사람들이 가슴만 쳐다보는 것처럼 느껴 의기소침해진다</span>”고 말했다. 6년 전 암으로 유방을 절제한 한 40대 환자는 “부담감에 부부 관계를 거부하게 돼 오해가 쌓이고 관계가 멀어졌다”면서 “유방 절제 수술을 한 환자 중 이혼한 여성을 주위에서 심심치 않게 본다”고 전했다.<br/><br/>화상이나 안면 기형 환자도 성형수술이 필요하지만 보험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김현지(16·가명)양은 4살 때 끓는 물에 데여 전신 화상을 입어 얼굴에 흉터가 남았다. 하지만 수술 때 건강보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다. 안면 화상 환자는 호흡기가 망가져 숨 쉴 수 없거나 음식을 씹어 삼킬 수 없는 정도가 아니면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2009년 건강보험 보장이 확대돼 화상으로 생긴 흉터 제거 수술도 1회에 한해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게 됐지만 소급 적용이 안 된 탓에 김양은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아동 화상 환자 대부분은 성장기에 화상 상처 부위의 살들이 늘어나지 않아 뼈가 휘거나 살이 찢겨 보통 2~3년마다 700만~800만원을 들여 재수술을 해야 한다. 이 때문에 수술할 때 한 차례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br/><br/>화상 아동 지원 기관인 비전호프의 안현주 대표는 “<span class='quot3'>신체 기능상 문제가 없는 화상 환자들도 일반인처럼 사회생활을 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화상으로 인한 상처 성형수술도 재건수술로 분류해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br/><br/>선진국에서는 유방재건수술이나 화상 치료는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 호주 등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는 유방재건수술이나 인공유방 등을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치료의 한 부분으로 인정하고 지원한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건강보험(메디케이드)은 21세 미만 어린이의 화상 치료 비용에 대해 상한선 없이 제공한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4'>4대 중증질환 의료비의 지원 강화 차원에서 유방재건수술 때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br/><br/>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br/><br/>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206.txt

제목: “잠 충분히 못자면 면역력↓·암 크기↑” (美연구)  
날짜: 201401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35544823  
본문: 잠을 충분히 못자면 암이 좀더 공격적으로 변해 진행속도가 더욱 빨라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br/>최근 미국 시카고 대학 아동병원 연구팀은 수면과 암의 상관관계를 동물실험으로 분석한 연구결과를 암 관련 학회지( Cancer Research)에 발표했다.　　<br/>연구팀의 이같은 결과는 인위적으로 종양을 투입한 쥐들을 두 팀으로 나눈 후 수면이 주는 영향을 분석해 얻어졌다. 연구팀은 먼저 A팀의 쥐들은 정기적으로 깨워 잠을 제대로 못자게 했으며 B팀은 충분히 잠을 이룰 수 있게 했다.<br/>4주 간의 짧은 실험기간이었지만 그 결과는 놀라웠다. 잠을 제대로 못 잔 쥐의 종양이 충분한 수면을 취한 쥐보다 두배나 커진 것. <br/>연구를 이끈 데이비드 고잘 박사는 “<span class='quot0'>잠 자체가 종양의 침입이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동물실험으로 입증된 것</span>” 이라면서 “<span class='quot0'>우리의 생체 매커니즘 자체가 치료에 효과가 있다</span>”고 설명했다.<br/>특히 연구팀은 이번 연구의 초점이 종양 자체가 아니라 면역시스템에 있다고 입을 모았다.<br/>고잘 박사는 “<span class='quot0'>우리 신체의 면역 시스템은 초기 암세포를 근절하거나 성장을 억제하는 주요한 기능을 한다</span>” 면서 “<span class='quot0'>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면역시스템 기능이 저하돼 암과 같은 세포를 더욱 키우게 되는 셈</span>”이라고 밝혔다. 　　 　　 <br/>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207.txt

제목: 갑상선암 환자 증가…새해 건강계획, 갑상선검사 등 검진부터  
날짜: 201401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35539554  
본문: 갑오년, 민족의 명절 설 연휴가 시작된다. 새해에는 새해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다짐하는 이들이 많은데 주로 금연, 금주, 운동, 그리고 다이어트 등 건강관 관련된 내용들이 매년 꼽힌다. <br/>하지만 이렇듯 많은 사람들의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지만 각종 질환은 오히려 늘어가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새해 건강목표를 세우기 전 건강검진을 받은 후 전문의의 조언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목표를 정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있다.<br/>건강검진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분야 중 하나는 암으로 과거 불치병을 암시했던 것과 달리 오늘날 암은 죽음에 대한 공포는 많이 약화됐지만 암 사망자수는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암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br/>실제 2009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통계연보에 따르면 전체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중 암 검진을 받는 사람은 50%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br/>특히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갑상선암이다. 2011년에 발표된 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총 192,561건의 암 중 갑상선암은 남녀를 합쳐서 연 평균 31,977건 발생했다. 이는 전체 암 발생 비율의 16.6%로 1위를 차지는 수치다. <br/>갑상선암은 단순한 결절이 아닌 악성종양을 말하며 전체 갑상선혹이나 결절 중에서 5%를 차지한다. 전체 갑상선암 중에서 80%정도는 위험도가 떨어지는 유두암이며, 20%는 비교적 예후가 양호한 여포암이나 수질암, 또 전체 갑상선암 중에서 1%미만이 예후가 불량한 역형성암에 해당한다. <br/>갑상선혹은 보통 초음파검사를 통해 발견되며, 이 혹이 갑상선암인지 구별하기 위해 세침흡인검사(조직검사의 일종)를 실시한다. <br/>암으로 판명된 경우 갑상선절제술을 우선 고려하기도 하지만, 갑상선 전체를 제거하는 경우 수술 후 일반적으로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받게 되는데, 이로 인한 방사능 물질의 흡수는 오히려 소화관의 암이나 백혈병 등의 다른 암의 발생 위험을 일으키기도 한다.<br/>갑상선암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착한암’이라고 불릴 정도로 진행속도가 느린 유두암이나, 1cm 이하의 작은암의 경우, 시간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수술하지 않고도 일생동안 다른 장기로 전이되지 않고서 정상 생활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br/>이에 한의학에서는 갑상선암 치료에 면역세포의 일종인 NK(Natural Killer)세포를 활성화 시키는 한방치료를 진행하고 있다. NK세포는 다양한 면역세포 중에서 특히 암세포를 발견하고 죽이는 능력이 탁월한 백혈구의 일종이다. <br/>천연물인 한약재에는 NK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유효성분이 포함된 약재들이 많은데 체질과 병세에 따라 최적화된 면역체질처방과 침과 부항, 약침, 식이요법, 영양요법 등 다양한 치료법을 사용하여 NK세포를 포함한 면역체계를 강화시켜서 암세포의 성장과 전이를 억제시킨다.<br/>행복찾기한의원 차용석 원장은 “<span class='quot0'>갑상선암은 여성들에게 흔한 자궁근종처럼 주기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통해 추적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미 의료선진국인 미국에서는 1cm이하인 경우 수술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추적관찰하는 것이 최근의 경향</span>”이라고 전했다.<br/>차 원장은 이어 “<span class='quot1'>갑상선을 전절제하는 경우에는 방사능요오드 치료와 수술 후 동반되는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일생 동안 고단위의 갑상선호르몬제를 복용해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1'>또한 목소리의 변화, 수술자국 등의 후유증도 진지하게 고려한 후 수술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span>”고 덧붙였다.<br/>행복찾기한의원은 ‘2013 대한민국 소비자신뢰 대표브랜드’ 갑상선 부문’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br/>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208.txt

제목: 갑상선암 환자 증가…새해 건강계획, 갑상선검사 등 검진부터  
날짜: 201401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35430693  
본문: 갑오년, 민족의 명절 설 연휴가 시작된다. 새해에는 새해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다짐하는 이들이 많은데 주로 금연, 금주, 운동, 그리고 다이어트 등 건강과 관련된 내용들이 매년 꼽힌다. <br/>하지만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지만 각종 질환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새해 건강목표를 세우기 전 건강검진을 받은 후 전문의의 조언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목표를 정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있다.<br/>건강검진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분야 중 하나는 암으로, 과거 불치병을 암시했던 것과 달리 오늘날 암은 죽음에 대한 공포는 많이 약화됐다. 하지만 암 사망자수는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암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br/>실제 2009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통계연보에 따르면 전체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중 암 검진을 받는 사람은 50%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br/>특히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암은 갑상선암이다. 2011년에 발표된 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총 192,561건의 암 중 갑상선암은 남녀를 합쳐서 연 평균 31,977건 발생했다. 이는 전체 암 발생 비율의 16.6%로 1위를 차지는 수치다. <br/>갑상선암은 단순한 결절이 아닌 악성종양을 말하며 전체 갑상선혹이나 결절 중에서 5%를 차지한다. 전체 갑상선암 중에서 80%정도는 위험도가 떨어지는 유두암이며, 20%는 비교적 예후가 양호한 여포암이나 수질암, 또 전체 갑상선암 중에서 1%미만이 예후가 불량한 역형성암에 해당한다. <br/>갑상선혹은 보통 초음파검사를 통해 발견되며, 이 혹이 갑상선암인지 구별하기 위해 세침흡인검사(조직검사의 일종)를 실시한다. <br/>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209.txt

제목: 판 커지는 담배소송… 갈 길 첩첩산중  
날짜: 201401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12323337  
본문: 건강보험공단이 24일 ‘담배 소송’을 의결함에 따라 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흡연 피해 소송이 본격화됐지만 최종 판결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br/><br/><br/>국내에서 제기된 담배 소송은 모두 4건으로 이 가운데 2건이 현재 대법원에, 1건이 고등법원에 계류돼 있다. 나머지 1건은 항소 포기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지금까지 원고 측이 승소한 사례는 1, 2심을 통틀어 단 한 건도 없다. 원인은 정보 부족이었다.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법원도 일부 인정했지만 니코틴 함량 조작과 같은 담배회사의 불법 행위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담배 소송을 주로 맡아 온 법무법인 남산의 정미화 변호사는 “<span class='quot0'>정부와 담배회사가 관련 자료를 내주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위해성을 입증해 승소하기는 사실상 어려웠다</span>”고 말했다. <br/><br/><br/>건보공단은 개인의 담배 소송과 공공기관의 담배 소송 결과는 다를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김종대 이사장은 이날 “<span class='quot1'>공단은 담배 소송을 위해 오랜 기간 연구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담배 폐해의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 왔다</span>”면서 “<span class='quot1'>사회적 정의와 절차적 정당성에 맞도록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소송을) 준비했다</span>”고 밝혔다.<br/><br/><br/>건보공단은 그동안 건강보험료, 건강검진, 진료 내역 등 1조 3000억건의 방대한 자료를 기반으로 전 국민 건강 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했다. 또 빅데이터와 국립암센터의 암 환자 등록 자료 등을 연계해 진료비 손해 산출을 구체적으로 검토 중이다. 실무 작업이 끝나면 소송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br/><br/><br/>건보공단은 일단 시범 소송으로 2010년 소세포 폐암 공단 부담금 438억원과 편평세포 후두암 부담금 162억원 등 600억원에 대한 환수 소송을 벌인 뒤 단계적으로 1조 7000억원까지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공단은 흡연 피해로 매년 1조 7000억원의 진료비가 지출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br/><br/><br/>건보공단 관계자는 “<span class='quot2'>승소하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배상금의 사용처를 결정하겠다</span>”면서 “<span class='quot2'>미국의 경우 담배 소송 배상금을 흡연으로 인한 질병 치료 기금으로 쓰거나 금연운동 확산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br/><br/><br/>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의 반대 및 담배회사의 저항도 넘어야 할 벽이다. 복지부는 담배 소송 안건을 건보공단 이사회에 ‘의결 사안’이 아닌 ‘보고 사안’으로 보고하라고 지시하는 등 반대 입장을 보여 갈등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span class='quot3'>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할 주무 부서인 복지부의 지금 같은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span>”면서 “<span class='quot3'>정부와 건보공단은 긴밀히 공조해 국민 건강권 수호라는 본분에 충실하라</span>”고 주문했다.<br/><br/><br/>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210.txt

제목: 비만과 장내 세균의 관련성 연구 시작된다  
날짜: 201401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11908958  
본문: 비만과 장내 세균의 상관성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가 시작된다. 대한비만학회(이사장 우정택)는 유아식 전문업체인 일동후디스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장내 세균과 비만 및 각종 대사질환의 상관성을 살펴보는 ‘비만과 장내세균총 관련 중개연구’에 나서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br/>　<br/> 양측은 ▲대사증후군의 임상연구 및 관리에 관한 정책 개발 ▲각종 워크숍 및 학술회의 공동개최 ▲연구 성과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추가연구 과제 및 제품개발 등에 서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또 ‘일동후디스 학술상’을 제정해 매년 학술대회에서 우수한 연구업적을 낸 학자를 포상, 연구 동기를 부여하는 등 차별화된 다학제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br/>　<br/> 비만학회 우정택 이사장은 “<span class='quot0'>최근 들어 국내에서는 비만인구가 급증해 30세 이상 성인의 30%가 대사증후군을 가지고 있고, 인구의 10%에 가까운 사람이 당뇨병 유병률을 보이고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이로 인해 각종 심뇌혈관질환과 암, 고혈압 등 치명적인 질환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 다양한 연구를 통한 해결책 모색이 절실한 상황</span>”이라고 연구 배경을 설명했다. 대한비만학회는 비만 관련 임상, 기초의학, 영양 및 운동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학술단체로, 1992년 출범 이후 비만 관련 연구와 홍보활동 등을 통해 학문 발전과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해오고 있다.<br/>　<br/> 심재억 의학전문기자 jeshim@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211.txt

제목: 통합의학의 힘… 암 덩어리와 함께 웃으며 사는 사람들  
날짜: 201401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11518854  
본문: 3명 가운데 1명. 한국인이 평균 연령인 81세까지 살았을 때 암으로 고통받을 확률이다. 연간 20여만명의 신규 암 환자가 발생하고 암 발생률이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저마다 효과적인 치료법을 찾아 나서는 가운데 의학의 새로운 물결인 양·한방 통합의학을 조명해 본다. 25일 오후 3시 KBS 1TV에서 방송되는 특집 다큐멘터리 ‘의학, 제3의 물결’에서다.<br/><br/>통합의학이 대두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span class='quot0'>놀이동산에 가고 싶고요, 햄버거도 먹고 싶어요.</span>” 16세 영민이는 또래들과 똑같은 꿈을 꾼다. 하지만 1년 전까지만 해도 그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영민이의 뇌를 40% 넘게 덮고 있던 종양이 영리하고 똘똘했던 영민이의 꿈을 앗아 갔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 영민이는 다시 꿈을 꾸기 시작한다. “이 정도만 유지돼도 좋아. 일상생활 하는 데는 지장 없으니까.”<br/><br/>57세 유상열씨는 한 집안의 가장이다. 택시 운전을 하며 열심히 살아온 그였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체중이 감소하고 황달 증세가 나타났다. 결국 그는 병원에서 간암과 담도암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 결과를 받았다. 병원에서 살 날이 3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선고를 받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그는 다시 택시 운전을 시작했다. 그리고 주말이면 집 뒷산을 오르내리며 등산을 한다. 이들은 암 덩어리를 몸에 지니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웃으며 다시 꿈을 꿀 수 있을까. <br/><br/>선진국 의학계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의사의 70% 이상이 통증 치료에 침을 사용하고 약초를 시내 일반 약국에서 판매하는 독일. 서양의학이 발달한 유럽 국가 사이에서 독일 사람들이 동양의학을 받아들인 이유는 무엇일까.<br/><br/>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통합의학의 중요성을 역설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동·서양 의료계의 결합을 촉구한다. 미국도 발 빠르게 통합의학을 받아들이고 있다. 하버드, 존스 홉킨스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미국 암센터들은 나라에서 지원되는 막대한 예산으로 통합의학을 연구한다. 병을 고치기 위해 사람을 죽이는 의학이 아닌 ‘환자의, 환자에 의한, 환자를 위한’ 의학을 해야 한다고 역설하는 통합의학. 미국, 중국, 독일 그리고 한국에서 어떻게 동·서양 의학이 결합되고 있는지 생생한 현장을 엿볼 수 있다.<br/><br/>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212.txt

제목: [김준의 바다 맛 기행] (2) 고성의 못난이 효자 도치  
날짜: 201401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10403731  
본문: 한때 대한민국의 겨울 밥상을 명태가 책임진 적이 있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0여년 전, 명태는 씨가 말랐다. 대를 잇기 위해 암수 한 쌍을 구한다는 현상 포스터를 동해안 포구마다 붙였지만 잡혔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다. 명태 새끼인 노가리를 그렇게 먹어 댔으니 씨가 마를 만하다. 그런데도 인간들은 남획보다는 기후변화만 탓한다. 그 사이 조용히 명태 자리를 넘보는 녀석이 있다. 지금은 강원 고성 일대에서 행세를 하고 있지만 점점 세력을 넓혀 장안에까지 진입했다. 최근에는 산 채로 택배로 보낸다고 하니 뚝심이 만만치 않다. 이름도 ‘뚝지’다. 내륙 사람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뚝지는 쏨뱅이목 도치과에 속하는 생선으로 생김새 탓에 심퉁이, 씬퉁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보통 ‘도치’라고 부른다.<br/><br/>강원도에서 가장 큰 거진항, 멀지 않은 바다에 하얀 부표와 깃발들이 떠 있다. 십중팔구 도치를 잡는 그물을 넣어 놓은 곳이다. 그물을 손질하던 어부의 아내가 막 건져 온 생선 몇 마리를 갈무리해 갯바람이 잘 드는 그늘에 걸었다. 도루묵과 가자미는 제 모습을 갖추고 있어 구별이 쉬웠지만 검은 껍질에 해맑은 살덩이는 도무지 무슨 고기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녀가 도치라고 일러줘서야 도치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공처럼 통통하고 귀엽고 앙증맞은 모습은 발견할 수 없었다. 도치는 모양새는 초라하지만 식감이 쫄깃하고 기름기가 없어 맛이 담백하며 비린내도 나지 않는다.<br/><br/>일찌감치 숙소를 정하고 주인에게 도치 요리를 잘해 주는 집을 물어 찾아갔다. 가게 입구에서 대구와 곰치를 갈무리해 말리고 있었고 수족관에는 오늘의 주인공 도치와 가자미가 가득했다. 다른 식당보다 2만원이 비싼 5만원을 달라고 했다. 도치의 크기도 다르고 음식 맛도 다르다는 말에 속는 셈 치고 자리를 잡았다. 친절한 식당 주인은 도치 한 쌍을 꺼내 오른쪽에 배가 통통한 녀석이 알밴 도치고 왼쪽 도치는 수컷이라고 알려줬다. 수컷은 숙회로, 암컷은 알탕으로 요리할 것이라고 했다. 자신의 운명을 예감한 것일까. 도치가 몸을 뒤척거리며 배를 부풀렸다. 녀석들은 위기다 싶으면 몸을 공처럼 부풀린다. 그리고 동동 떠다닌다. 마치 죽은 것처럼 보이려는 짓인지, 몸을 키워서 적을 위협하려는 것인지. <br/><br/>자리를 잡고 앉아 무심코 고개를 돌리다 수족관에서 좌우로 오가는 한 쌍의 도치와 눈이 마주쳤다. 서럽도록 눈이 크고 맑다. 얼른 고개를 돌렸다. 그때 김이 모락모락 나는 도치가 도착했다. 잠깐 흔들렸던 마음이 이내 사라졌다. 도치알탕이 준비되는 동안 소주를 한잔 들이켜고는 물컹하고 부드러운 도치를 입 안에 넣었다.<br/><br/>다음 날 새벽 4시, 50여 척의 배들이 항구를 빠져나갔다. 등대 근처로 가는 배는 도치나 숭어를 잡는 배들이다. 반대로 먼바다로 가는 배는 가자미나 대게를 잡는다. 도치를 잡은 배들은 동이 틀 무렵이면 귀항을 시작한다. 하지만 가자미를 잡는 배들은 낮에, 대게를 잡는 배들은 해가 지고 난 뒤 귀항한다. 동쪽 바다가 붉게 물들기 시작하자 배들이 한 척 두 척 불을 밝힌 채 항구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서둘러 수협 위판장으로 향했다. 벌써 십여명의 중개인이 좋은 물건을 사려고 생선들을 살펴보고 있었다. 옛날에는 잡히면 툭툭 발로 차 버렸다는 도치지만 지금은 함지박에 곱게 담겨 중매인을 유혹한다. 그래도 중매인들은 문어와 대게, 가자미에만 눈길을 줬다. 도치는 여전히 뒷전이다.<br/><br/>“바다 올챙이, 꼭 올챙이 모양이야. 도치라고 해.” 발길에 걸리자 함지박을 뒤로 쭉 밀며 한 중매인이 이름을 알려줬다. 그 옆에 어제 도치 요리를 해 주던 식당 주인도 보였다. 이른 아침 물 좋은 도치를 구하기 위해 나왔다고 했다.<br/><br/>아침을 먹고 거진등대에 올랐다. 거진항이 한눈에 들어왔고 등대 왼쪽 ‘명태축제비’ 너머로 바다가 끝없이 펼쳐졌다. 한 사내는 운동복 차림으로 시곗바늘처럼 그 주위를 맴돌았다. 그때 노란색 배 한 척이 등대 밑으로 다가오더니 배 위에서 해녀들이 하나둘 바다로 뛰어들었다. 급하게 왔던 길을 내려와 등대 밑으로 향했다. 갯바위에 하얗게 얼어붙어 있는 바다에서 해녀 십여명이 물질을 하고 있다. 두꺼운 장갑을 꼈지만 카메라를 쥔 손이 시려 왔다. 자맥질을 하면서 튀는 바닷물이 그대로 얼어 버릴 것 같았다. 뭘 잡는 걸까. 두어 시간이 지나자 해녀들을 내려줬던 배가 다시 돌아왔다. 하나둘 해녀들이 배에 오르자 뱃전에서는 모닥불이 피어올랐다. 혹시나 해서 선창으로 향했다. 배가 나타났다. 자연산 전복을 따기 위해 새벽에 나갔다가 빈손으로 들어오는 길이라고 했다. 그런데 바구니에는 모두 도치가 한 마리씩 들어 있지 않은가. 반가웠다. 품삯을 받기 때문에 전복은 선주 몫이지만 도치만큼은 물질을 한 할머니들 몫이다.<br/><br/>도치는 고성, 속초, 강릉, 동해, 삼척 등 동해 북부 전 해역에서 잡히지만 고성 도치가 제일이다. 보통 2월에 산란을 하기 때문에 설날 전후가 살도 찌고 알도 꽉 차 제철이다. 녀석들은 100~200m의 바다에서 살다 산란기가 되면 연안 바위로 이동한다. 해녀들에게 잡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더구나 뚝심이 대단해 한번 빨판을 이용해 바위에 붙으면 누가 잡아가도 꼼짝하지 않는다. 배에 붙은 빨판은 가슴지느러미가 변한 것이다. 동해의 거친 바다에서 휩쓸리지 않고 갯바위에 붙어 살아남기 위한 변화였다. 그런데 그 빨판이 문제다. 암컷이 바위에 알을 낳을 때나 수컷이 지느러미를 꼼지락거려 알에 산소를 공급해 줄 때 바위에 찰싹 붙어 적에게 잡혀 먹힐 때까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한다. 보통 도치는 삼중망을 가지고 잡는다. 물컹한 도치가 요리조리 몸을 뒤틀면 한 겹의 자망 정도는 쉽게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대개는 새벽에 미리 쳐 놓은 그물을 털어 와 아침에 위판을 한다. 대부분 인근 식당에서 소비되고 있다. 알이 많기로는 다른 어떤 물고기와 비교할 수 없어 주민들은 일찍부터 도치알탕으로 온 가족이 겨울을 났다.<br/><br/>글 사진 전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br/><br/><br/><br/>joonkim@jeri.re.kr <br/><br/>■어떻게 먹을까 <br/><br/>→요리 도치 요리엔 숙회, 알탕, 알찜이 있다. 이 중 고성 일대의 식당에서 쉽게 맛볼 수 있는 것은 숙회와 알탕이다. 숙회는 수컷, 알탕은 암컷으로 요리한다. 비슷비슷한 도치의 암수를 구별하는 데는 눈썰미가 있어야 한다. 암놈은 빨판이 작고 흐린 녹색이며 수놈은 빨판이 크고 돌기가 붉은 갈색이다. 식당 주인이 알려준 방법이다.<br/><br/>암컷 도치를 깨끗하게 씻은 다음 조심스럽게 알주머니를 꺼낸다. 이때 알주머니가 터지지 않게 해야 한다. 도치를 끓는 물에 살짝 데친 후 흐르는 물에 씻으면 겉에 붙어 있는 얇은 막이 깨끗하게 벗겨진다. 그다음 알맞은 크기로 썰어 둔다. 도치 알과 묵은 김치를 냄비에 넣고 알이 하얗게 변할 때까지 볶는다. 이때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를 두르면 좋다. 얼큰한 맛을 좋아하면 김치 국물을 더 넣고 담백한 맛을 좋아하면 물이나 육수를 넣는다. 살짝 데친 도치나 먹다 남은 숙회를 넣어 끓인다.<br/><br/>암컷은 커 보여도 알을 빼고 나면 실상 먹을 게 많지 않다. 배고픈 시절 고성 사람들은 도치 알과 김치를 넣고 한솥 끓여 겨울을 넘겼다. 이것이 도치알탕이다. 암컷이 수컷보다 비싸고 식당에서도 대접을 받는다. 도치숙회를 만들려면 우선 수컷 도치를 뜨거운 물에 넣어 살짝 데친 다음 찬물에 씻기를 두어 차례 반복해 하얀 각질을 제거한다. 그리고 먹기 좋은 크기로 썬 다음 따뜻한 물에 다시 한번 데쳐 입맛에 따라 초장, 기름소금, 겨자 등의 소스를 찍어 먹는다. 식당에서 맛보기는 어렵지만 성어기 때는 도치 알을 모아 두부처럼 굳힌다. 이것이 ‘도치알두부’다. 찜으로 먹는다. 알탕과 숙회를 요리해 주는데 3만~5만원 정도 한다. 식사 겸 안주로 3~4명이 먹을 양이다. 지금은 흔하게 볼 수 없는 모습이지만 막 잡아 온 도치를 두 마리씩 엮어서 열흘 정도 꾸덕꾸덕 말려 찜통에 쪄서 내놓으면 소고기보다 맛이 좋았다고 한다. 고성에서는 이런 도치찜을 제사상에 올렸다.<br/><br/>→음식궁합 도치가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된 계기는 묵은 김치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치의 얼큰함과 해물의 시원함이 만나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나 좋아하는 국물 요리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것이 과거 명성이 자자했던 고성 생태탕의 빈자리를 넘보는 이유다. 지방이 적고 담백해 다이어트 음식으로 제격이다.<br/><br/>→선별요령 도치 몸에서 미끌미끌한 것이 많이 나와 있거나 만졌을 때 탄력이 느껴지는 것은 신선도가 떨어지는 것이다. 일단 살아 있는 것은 믿을 수 있다. 바로 소비되기 때문이다.<br/><br/>→맛집 미화횟집 033-682-8807, 염광활어횟집 033-682-3131(이상 고성군 거진읍)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213.txt

제목: 건강검진을 받기 전에 꼭 알아둬야 할 것들  
날짜: 201401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05619887  
본문: 해가 바뀔 때면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살피겠다고 결심하지만 오래 가지 못한다. 바쁜 생활에다 기존 습관의 타성에 다시 빠지기 때문이다. 질병은 발병 후에 치료하기보다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다는 점을 알면서도 따로 예방책을 고민하지 않는 것도 현실이다. 특히 건강검진의 경우 많은 이들이 필요하다고 느끼면서도 선뜻 실행하지 못하고 산다. 건강검진에 대한 막연한 생각 탓이 크다. 건강검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br/>　<br/>■누가 건강검진 대상자일까.<br/>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건강진단, 암검진, 영유아 건강검진으로 나뉘며, 검진 대상에 해당되면 비용 부담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br/>　<br/> 일반건강검진은 기본적으로 매 2년마다 한번씩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되는데, 해당 연도는 출생연도의 짝수·홀수로 가른다. 2014년의 경우 지역가입자 중 세대주는 연령에 관계없이 짝수해 출생자가 검진대상이며, 지역세대원 및 직장피부양자는 만40세 이상 짝수해 출생자가 대상이 된다. 직장가입자 중 사무직은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2년 1회, 비사무직은 매년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만19~39세 세대주 중 짝수해 출생자, 만40~64세 짝수해 출생자 모두가 일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중 만 40세와 66세가 되는 사람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가 된다.<br/>　<br/> 암검진은 특정 암의 발병 위험이 높은 연령대별로 검진을 실시한다. 위암은 만40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2년에 1회, 대장암은 만50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한다. 간암은 만40세 이상 남녀 중 간경변증 환자나 간염바이러스 양성인 사람, 만성 간질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유방암과 자궁경부암은 각각 만40세 이상 여성, 만3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2년마다 실시한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국내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를 대상으로 생후 4~71개월에 걸쳐 모두 7차례의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해 검진 대상자에게 연초에 일괄적으로 검진표를 우편 발송하며,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으로 통보한다. 검진표를 못 받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보험공단(www.nhis.or.kr)에서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br/>　<br/>■건강검진으로 어떤 질환을 발견할 수 있을까.<br/> 일반건강검진 1차 검진 사항은 기본적인 진찰과 함께 시력·청력측정과 비만·고혈압·신장질환·빈혈·당뇨병·이상지혈증·간장질환·폐결핵·흉부질환 등의 검진을 시행한다. 만 70세와 74세는 치매선별검사도 실시한다. 1차 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고혈압·당뇨병 의심자 및 만 70세와 74세 중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은 관련 질병에 대한 2차 검진을 실시한다. <br/>　<br/>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은 암 및 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 발병률이 높아지는 만40대와 낙상·치매 등 노인성질환 위험이 증가하고 신체기능이 떨어지는 만66세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따라서 일반건강검진 1차 검진 사항과 함께 만40세에는 암검진과 간염검사, 만66세에는 암검진, 골밀도 검사(여성), 노인 신체기능검사가 추가로 적용된다. 또 1차 건강검진 결과와 관계없이 수검자 전체가 2차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br/>　<br/> 2차 건강검진은 1차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한 상담과 흡연·음주·운동·영양·비만 관련 생활습관검사, 고혈압 및 당뇨 2차 확진 검사, 1차 검진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자를 선별하여 우울증과 인지기능장애와 같은 정신건강검사를 실시한다. <br/>　<br/> 영유아 건강검진은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 상황을 추적 관리하여 보호자에게 알맞은 육아 가이드를 제시하기 위한 검사다. 검사는 영유아기에 문제가 되는 질환의 고위험군을 선별하기 위한 진찰과 건강교육, 상담 위주로 이뤄진다. 따라서 감염성 질환 등의 발견에는 취약할 수 있다. <br/>　<br/>■건강검진 비용은 모두 무료일까.<br/>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영유아 건강검진의 1, 2차 검진 및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의 암검진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한다. 따라서 건강검진 대상자라면 검진 시 별도로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 물론 정해진 횟수를 넘어서 검진받는다면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br/>　<br/> 자궁경부암검사를 제외한 다른 암검진은 공단에서 90%를, 본인이 10% 부담한다. 단, 국가 암 검진대상자인 경우 10%의 본인 부담을,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검진비용 전액을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한다. <br/>　<br/>■건강검진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br/>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2년 1차 일반 건강검진에서 질환의심 및 유질환자의 비율은 52.3%로 나타났다. 또 2차 검진에서 당뇨병, 고혈압검사를 받은 후 실제로 당뇨병과 고혈압 판정을 받은 비율은 각각 44.2%와 49.5%였다. 이처럼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발견하면 좀 더 빠른 조치를 취할 수 있어 치료율을 높일 수 있다. 청심국제병원 김종형 내과 과장은 “<span class='quot0'>특히 초기 증상이 거의 없고 이상 징후가 나타났을 때는 암이 상당부분 진행된 대장암이나 간암의 경우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조기 발견할 확률이 높다</span>”면서 “<span class='quot0'>특별한 질환이 발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의사와 상담을 통해 몸 상태를 점검하고 나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고치는 계기도 될 수 있다</span>”고 말했다. <br/>　<br/> 심재억 의학전문기자 jeshim@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214.txt

제목: 발효울금, 간 보호와 항암효과 탁월 입증  
날짜: 201401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04655416  
본문: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여러 종류의 건강기능식품의 개발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발효울금이 간보호 효과를 인정받으며 화제가 되고 있다.<br/><br/>울금은 생강과에 속하는 향신료로, 기원전 1500년경부터 인도에서 향신료로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우리나라에는 세종실록지리지에 전라도 구례, 순천에서 토산품으로 재배되었다는 사실이 남아 있다. 1997년부터는 전남 진도에서 대량재배가 시작되었으며, 기후가 온난한 제주도와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친환경 무농약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다.<br/><br/>특히 진도울금의 경우 타 지역에서 재배한 울금보다 수확시기가 늦어 알이 크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다면 진도 울금의 효능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간기능 개선 효과를 들 수 있다. 울금을 섭취하면 담즙 분비가 왕성해지면서 간이 해독되고 제기능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준다.<br/><br/>’인터그래이티브 캔서 테라피’에 따르면 동물실험에서 울금추출물을 복용시킨 결과, 울금이 간질환에 효과가 있다. 또한 울금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며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고혈압, 동맥경화와 같은 성인병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br/><br/>최근에는 전남대학교 전우진교수팀은 발효울금을 랫드에 투여하여, 간보호 효과와 항산화 효과를 확인하기도 했다. GLP 인증기관인 켐온에서 수행한 위탁 연구에서도 밀크씨슬추출물에 많이 들어 있는 간장약 원료인 실리마린과 비교실험한 결과 발효울금의 간보호 효과를 확인하였다.<br/><br/>동물실험뿐만 아니라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인체적용 임상시험에서도 전북대학교병원 건강기능성식품임상지원센터 연구진은 발효울금의 간기능개선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했다. 뿐만 아니라 혈중 중성지방 조절효과와 총콜레스테롤, LDL 감소 효과까지 확인되었다. 이 내용은 국내외 저명 학술지에 논문으로 발표되며 발효울금의 효능을 널리 알리는 데 일조했다.<br/><br/>울금의 항암 효과 또한 실제로 공인 받은 바다. 울금은 각종 암의 보조치료제로 쓰이고 있다. 울금은 항염작용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전립선에 영향을 주는 특정 호르몬 수용체에 직접 관여하므로 전립선염 예방과 위암, 전립선암에 특히 효과적이다.<br/><br/>이를 방증하듯 카레를 많이 먹는 인도는 인구 10만 명당 전립선암 환자가 110명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미국의 2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숫자다. 대한암예방학회 역시 울금을 항암식품 중의 하나로 발표하기도 했다. 각종 연구결과에 힘입어 진도 발효울금은 지난해 3월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획득했다.<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215.txt

제목: 장해율 50% 이상땐 암보험료 면제…비흡연자 사망보험료 6~8% 할인  
날짜: 201401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04043316  
본문: 암보험 가입자가 장해율 50% 이상이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생명보험사의 사망·종신보험의 보험료를 6~8% 할인받을 수 있다. <br/><br/><br/>금융감독원은 20일 “<span class='quot0'>보험 가입자가 해당 제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 보험료 할인 혜택과 납입 면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span>”며 보험료 할인과 납입 면제 내용을 소개했다.<br/><br/><br/>먼저 암보험 가입자가 장해율 50% 이상 또는 암이 발생하면 보험료 납입을 면제받는다. 보장성 보험도 장해율 50% 이상(일부 손보사 80% 이상), 건강 보험도 장해율 50% 이상, 연금 보험은 장해율 80% 이상(특약 추가 가입)이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br/><br/><br/>또 실버암보험은 가입 이후 6개월 동안 당뇨와 고혈압이 없으면 보험료의 5%를 깎아준다. 연금 보험은 보험계약을 5년 이상 유지하면 보험료의 1%를 할인해준다. 보장성 보험도 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납부하면 보험료 1%를 깎아주고, 어린이보험은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보험료 0.5~2%를 할인해준다. <br/><br/><br/>금감원 관계자는 “<span class='quot1'>보험 가입자는 가입 시점뿐 아니라 계약 유지 중에도 본인의 보험계약 내용과 할인 제도를 꼼꼼히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보험사에 신청할 필요가 있다</span>”고 말했다.<br/><br/><br/>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216.txt

제목: “여자, 초콜릿 먹으면 당뇨 막을 수 있다”  
날짜: 201401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34731570  
본문: 다크 초콜릿과 레드와인과 같은 식품에 많은 플라보노이드를 꾸준히 섭취한 여성은 제2형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이 발병할 확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br/>1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메트로에 따르면 이스트앵글리아대학과 킹스칼리지런던 공동 연구팀이 쌍둥이 여성 2000명을 대상으로, 안토시아닌과 플라본이 속한 플라보노이드를 정기적으로 섭취시킨 결과, 인슐린 저항성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br/>플라보노이드는 다크 초콜릿·레드와인·베리류에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이런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고 혈중 포도당을 조절하는 것을 수월하게 하며, 당뇨병·심장질환·암과 같은 질환과 연관되는 만성 염증의 발병을 낮춘다고 연구팀은 설명하고 있다.<br/>연구를 이끈 팀 스펙터 킹스칼리지런던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는 초콜릿이나 와인 같은 식품의 일부 성분이 우리 몸에 좋다는 놀라운 발견</span>”이라고 말했다.<br/>연구에 참여한 에딘 케시디 이스트앵글리아대학 교수도 “<span class='quot1'>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것은 제2형 당뇨병과 연관성이 크므로, 베리·허브·적포도·와인과 같은 식품에 풍부한 두 화합물(안토시아닌, 플라본)을 다량 섭취한 사람들은 그런 질환이 발병할 확률이 낮다</span>”고 설명했다.<br/>또한 교수는 “<span class='quot2'>다량의 안토시아닌을 섭취한 사람들에게서는 만성 염증이 적게 발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pan>”면서도 “<span class='quot2'>아직 얼마나 섭취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이런 화합물이 제2형 당뇨병(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져 혈당이 높아지는 경우) 발병을 낮추는 것으로 파악된다</span>”고 말했다.<br/>한편 이번 연구대상에 남자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결과는 ‘미국임상영양학저널’(journal Nutrition) 최근호에 실렸다.<br/>사진=포토리아<br/>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217.txt

제목: “이색커플 따로없네” 입맞추는 거대 곰-사람 포착  
날짜: 201401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34702541  
본문: 곰을 ‘영화배우’로 조련시키는 70대 남자가 네티즌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미국 유타주에 사는 덩 세우스(71)는 아내와 함께 곰 수 마리를 영화배우로 데뷔시켰다. <br/>그가 키운 곰 중 한 마리는 세계적인 배우인 모건 프리먼, 브래드 피트 등과 열연했으며, 아카데미시상식에서 수상의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br/>조련사 세우스는 대체로 생후 수개월 된 아기 곰들을 입양한 뒤 600㎏이 훌쩍 넘게 클 때까지 다양한 훈련을 시킨다. <br/>2000년 암으로 죽은 한 곰은 그가 배우 데뷔시킨 뒤 각종 작품에서 뛰어난 연기력을 선보였는데, 이 곰은 생후 1개월 때부터 40살까지 세우스의 ‘특별한 관리’를 받으며 성장했다. <br/>그 만의 특별한 관리란 곰에게 연기 기술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을 전달해 마음과 영혼을 불어넣는 것. <br/>덕분에 곰들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실감난 연기를 펼칠 수 있으며, 조련사 세우스에 대한 충성심과 애정 역시 남다르다.<br/>이번에 공개된 사진은 세우스와 거대한 곰이 얼굴과 입을 다정하게 맞댄 모습과, 마치 세우스의 목을 물어뜯는 듯한 아찔한 장난을 치는 둘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고 있다.<br/>세우스는 “곰이 위험해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으며 언제나 내게 장난치는 것을 좋아한다”면서 “꿈이 있다면 함께 살고 있는 이 곰들과 야생으로 나가 도보여행을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br/>사진=멀티비츠/바크로프트 <br/>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218.txt

제목: “하루 11시간 이상 앉아있는 여성, 조기 사망률 높아”  
날짜: 201401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34657220  
본문: 몸을 움직이지 않는 생활습관이 우리 건강에 얼마나 좋지 않은지 여실히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br/>미국 코넬대학 연구진은 12년간 폐경후 여성 9만3000여명(50~79세)을 추적 조사한 결과, 하루 11시간 이상 앉아서 생활한 그룹이 하루 4시간 이하 앉아서 생활한 그룹보다 12% 이상 조기 사망할 위험이 높고, 그중에서도 혈관질환, 관상동맥 심장질환(CAHD), 암으로 사망할 위험은 각각 13%, 27%, 21%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br/>조사 대상 중 가장 많이 앉아 있던 여성은 사무직으로 꾸준히 일하거나 집에서 TV를 시청하는 등 평범한 일상생활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br/>즉 앉아만 있더라도 대체로 건강하고 가끔 운동하면 건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기 쉽지만, 위와 같은 생활 습관이 우리 신체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br/>더욱이 여성은 35세부터 근육량이 줄어들기 시작하며, 폐경이 되면 그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므로 체력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 <br/>연구를 이끈 레베카 세귄 박사는 “<span class='quot0'>나이가 들어 하는 운동이 근육량의 저하를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지만, 이미 손실된 근육은 좀처럼 회복하기 힘들다</span>”고 설명했다. <br/>이는 뒤늦게 헬스장에 가서 운동하는 것보다 근육량이 많을 때 계단으로 다니거나 자주 일어서는 등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br/>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미국 예방의학저널’(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에 발표됐다.<br/>사진=포토리아<br/>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219.txt

제목: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서민들의 대비책은?  
날짜: 201401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03707701  
본문: 의료민영화 관련 이슈가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의료민영화’ 만약 실현된다면 일반 서민들에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br/><br/>영리를 목적으로 한 병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의료계도 서비스 경쟁이 심화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다. 서비스 경쟁이 심화되면? 의료의 본질 즉, 생명을 다루는 것보다 돈을 벌기 위한 의료마케팅이 성행하게 될 것이다. <br/><br/>이렇게 되면 병원비, 치료비도 돈을 많이 낼수록 좋은 서비스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의 건강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br/><br/>한탄만 하고 있는 것보다 대비책을 찾아서 실행하는 것이 현명하다. 서민들의 가장 뚜렷한 대비책은 의료비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 줄 수 있는 의료보험 가입이다. <br/><br/>현재 의료민영화와 관련해서 가입을 고려 해야 하는 보험은 암 보험과 의료 실손보험이다. 흔히들 실비보험이라고 불린다. 발병 시 큰돈이 들어가는(민영화 이후에는 더 큰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는) 암은 죽음에 대한 공포보다 치료비의 부담이 더 극심한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고, 실제로 암에 걸리면 드는 치료비와 치료기간 동안의 생활비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기 때문에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통원치료비, 약 값 등 실제 지출한 병원비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의료실비보험도 마찬가지로 의료민영화로 인해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 버렸다. <br/><br/>암 보험과 기타 의료실손보험만 비교, 가입해둔다면 사실상 의료민영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는 셈이다. <br/><br/>암 진단 즉시 암 진단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암 보험, 병이 있어도 가입 가능한 암 보험, 중복으로 가입할 경우에 비례보상 받을 수 있는 의료 실손보험이 때마침 출시 되 업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가입 전 간단하게 보험나이, 나 또는 가족이 내게 될 보험료를 온라인으로 모의 계산 해볼 수 있는 서비스를 진행중인 ㈜리치플래너가 가입자들 사이에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리치플래너 보험나이,보험료 계산 페이지(http://www.richplanner.co.kr)에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br/><br/><br/><br/>객관적으로 보험사별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본인에게 꼭 맞는 보험상품을 제안해주기 때문에 쓸데없는 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br/><br/>암 보험, 실손의료보험 가입 시 가장 주의 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br/><br/>1. 암 진단금 지급여부 및 종류별 한도 확인 <br/><br/>간암 같은 경우에는 1인당 치료비가 6천만 원이 넘어간다. (국립암센터. 2009) 암 진단 즉시 지급 받을 수 있는 암 진단금을 보장해주는지, 보장해준다면 암 종류 별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암 진단금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치료기간의 생활비, 수술비, 치료비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니, 꼭 확인 후 따져보아야 한다. <br/><br/>2. 본인에게 꼭 필요한 보장만 선택해서 가입해야 보험료를 덜 낸다. <br/><br/>듣기 좋은 보장내용들에 현혹되어 정작 본인에게 필요도 없는 보장까지 추가해서 가입하는 것 보다는 본인의 가족 중 병이 있거나 과거에 본인이 앓았던 질병 등을 고려해서 필요한 보장만을 선택해 가입하는 것이 보험료 절감에 도움 된다. <br/><br/>3. 갱신형 vs 비 갱신형 <br/><br/>일반적으로 한번 가입하면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보험이 좋다고들 한다. 하지만 보장내역이나 가입조건에 따라서는 갱신형 보험이 본인에게 더 유리하게 적용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숙지 해야 한다. 이 부분은 전문 상담원과 상담을 통해서 한번쯤 꼭 확인을 해두는 게 좋다. <br/><br/>열심히 돈을 모으는 것도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예상치 못한 큰 지출을 미연에 방지 하는 쪽이 좀 더 계획적인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암 보험 같은 경우는 현재 새로 출시되는 상품들이 시장에 많이 선을 보이고 있어, 가입을 고려할 시기로는 안성맞춤이다 <br/><br/>정보제공 ㈜리치플래너 (http://www.richplanner.co.kr) <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220.txt

제목: 미국, 한국 식약처 인증 받은 게르마늄 제품은?  
날짜: 201401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03556795  
본문: 성인병의 대부분은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여 발생한다. 최근 기적의 원소로 각광 받고 있는 ‘게르마늄’은 혈관벽에 침착하거나 손상을 입히는 과산화지질과 유해산소를 제거하여 혈관의 막힘과 굳어지는 것을 방지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시중에는 게르마늄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 보조제와 다양한 제품들이 인기를 얻고 있다.<br/><br/><br/><br/> <br/><br/> <br/><br/> <br/><br/> <br/><br/>SKW힐링푸드도 게란티제약㈜이 개발한 바이오게르마늄의 지정 매장으로 오프라인매장과 온라인쇼핑몰(www.avemar.kr)을 통해 전문판매 하고 있다.<br/><br/>게란티제약의 바이오게르마늄은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 일본 후생성 승인 및 미국 FDA의 신물질 인증 승인(FDA NDI)을 받은 제품이다. 기능성 신물질 승인제도(New dietary ingredient Notification)는 새로 개발된 건강식품 원료가 시장에 출시돼 사람이 복용하여도 안전성, 기능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사전에 승인하는 제도다.<br/><br/>바이오게르마늄은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개별인정 허가를 받은 ‘면역기능 증진(기타기능III급)’ 기능성원료인 게란티 바이오 게르마늄효모가 주 성분인 ‘면역기능 증진’ 개별 인정형 건강 기능식품이다.<br/><br/>또 게란티제약은 지난 2010 서울 국제발명대회에서 바이오게르마늄과 게르마늄 신물질로 각각 국제지적재산권기구 회장상과 금상을 수상하기도 했다.<br/><br/>SKW힐링푸드 관계자는 “<span class='quot0'>게르마늄을 먹는 산소 또는 면역 산소라고도 부르는데 구조에 따라 3, 4개의 산소를 결합하고 있어 우리 몸의 세포가 암이나 당뇨, 고혈압 같은 성인병에 걸리기 전에 산소를 공급해 세포가 공격을 받지 않도록 돕는다</span>”며 “<span class='quot0'>바이오게르마늄에 들어있는 산소농도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산소함유량이 39.5%에 이른다</span>”고 전했다.<br/><br/> <br/><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221.txt

제목: 농경목축시대엔 왜 비만이 없었을까  
날짜: 201401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01631486  
본문: 질병의 탄생/홍윤철 지음/사이/376쪽/1만 8000원 <br/><br/>수렵 채집이나 농경목축 시대의 사람들에게선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는 비만, 당뇨 등 만성질환은 찾아보기 어렵다. 왜 그럴까. 우선 그들은 많이 움직였다. 열매나 과일을 채집하고 사냥을 하려면 활동량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또 농사를 짓고 유목을 하는 데도 상당한 노동량이 필요했다. 그때의 먹을거리는 가공식품 없이 모두 자연식이었다. 지금처럼 고칼로리 음식과 당분이 많은 음료가 넘치지도 않았다.<br/><br/>특히 수렵시대에는 식량 조달이 일정하지 않았고 음식 저장 수단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음식이 있을 때 많이 먹어 몸안에 비축해 두는 것이 생존에 유리했다. 틈틈이 음식이 있을 때만 많이 먹어두는 것은 성인병을 유발하지 않았다.<br/><br/>현대인들은 과거 수렵시대의 생물학적 기전(메커니즘)에 따라 마치 지금도 식량자원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것처럼 배부르게 먹고 포만감을 느낄 때까지 과도하게 먹는 습관을 갖고 있다.<br/><br/>일례로 사무원 A씨의 일상 생활을 한번 살펴보자. 아파트에 사는 그는 출근할 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지하철 역까지 걷는다. 사무실에 도착하면 의자에 앉아 손가락만 움직여 일하며 집에 돌아와선 높은 칼로리의 음식을 먹고 소파에 앉아 TV를 시청한다. <br/><br/>이런 편리함과 안락함은 에너지를 덜 쓰게 하면서 영양 공급은 산업혁명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늘려 만성적 에너지 공급과잉을 초래해 비만, 당뇨 등의 질환을 가져왔다. 또 1년에 2000개씩 만들어지는 새로운 화학물질은 인류가 과거 전혀 노출된 적이 없는 것이어서 자연선택에 의한 유전자 적응 과정을 겪지 않았다. 인체 방어체계는 새 화학물질을 외부 이물질의 공격으로 받아들이게 돼 알레르기나 염증 등을 초래했고 천식이나 암 등의 질환을 일으켰다. 사실 비만, 당뇨, 암, 천식, 고혈압 같은 현대 질병의 증가는 오늘날 인류가 처한 환경을 대변하는 질병 현상이다.<br/><br/>서울대 의대 예방의학 교실 교수인 저자는 유전자가 농업혁명과 산업혁명이라는 엄청난 환경변화에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질병이 출현하게 됐다고 주장한다. 수백만년 동안 지속된 수렵환경에 적응해 온 인류 유전자가 최근의 급격한 환경변화 속도를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다.<br/><br/>우리 몸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질병은 문명의 발전과 함께 등장한 것이다. 인류 스스로 만들어 낸 것이므로 예방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저자는 주장한다.<br/><br/>유상덕 선임기자 youni@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222.txt

제목: [커버스토리] 고객님, 신상 털려 당황하셨어요~이름·전화번호 나오면 50원 대출 기록 나오면 최고 2만원  
날짜: 201401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01606615  
본문: “<span class='quot0'>내 개인 정보는 단돈 500원짜리….</span>” 허술한 보안을 틈타 개인정보를 사고파는 정보 유통시장이 날로 커지고 있다. 대출중개업체나 무등록 대부업자 등은 물론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이나 불법 도박사이트 업체 등 개인정보를 토대로 장사를 하는 곳에서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기 때문이다. 금융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고객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출모집인이나 금융사의 정보보안을 담당하는 외주업체 직원들이 이들의 주요 표적이다. <br/><br/>대출모집인 이모(41·여)씨는 “대출모집법인(에이전시)을 상대로 고객 데이터베이스(DB)를 사거나, 다른 데서 사온 DB를 파는 브로커들이 개인정보 유통시장의 중심에 있다”고 말했다.<br/><br/>개인정보가 거래되는 시장에서는 고객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나와 있는 정보는 단순 DB, 대출이력이나 신용등급이 나와 있는 정보는 고급 DB로 분류돼 가격이 매겨진다. 업계 관계자는 “<span class='quot1'>전화번호만 있으면 텔레마케팅(TM)을 할 수 있는 대리운전업체나 도박 사이트가 건당 10~50원에 단순 DB를 사가고, 보통 얼마나 최신 정보인가에 따라 100~500원의 가격이 매겨진다</span>”면서 “<span class='quot1'>그중에서도 고급 DB는 주로 대부업체의 표적이 된다</span>”고 말했다. <br/><br/>업계에 따르면 대출 기록이 있거나 앞으로 대출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지는 집단의 DB는 건당 5000~2만원의 높은 가격에 거래되기도 한다. 주민등록번호와 자택, 직장 주소, 과거 대출을 받은 이력이나 신용등급 등이 포함된 정보는 ‘부르는 게 값’이다.<br/><br/>금융사들의 보안 장벽이 높아지면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방법도 진화하고 있다. 3~4년 전까지는 중국에 본거지를 둔 해킹 전문가들이 국내 금융사 DB를 해킹하는 수법이 주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금융사 내외부의 직원들에게 접근해 직접 정보를 빼오는 방식이 주로 사용된다. <br/><br/>최근 카드사 정보 유출 역시 외주업체 직원이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개인정보를 담아 대출광고업자와 대출모집인에게 돈을 받고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한국SC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의 고객정보 유출 역시 대출모집인이 저지른 일이었다. 한 은행의 정보보안 관계자는 “<span class='quot2'>‘열 포졸이 도둑 한명을 못 잡는다’는 말도 있듯이 아무리 보안 장치를 강화해도 작정하고 정보를 빼가는 직원들을 사전에 미리 파악해 차단하기란 쉽지 않다</span>”고 말했다.<br/><br/>잊을 만하면 반복되는 금융사 고객정보 유출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개인정보 보호에 둔감한 기업들의 무관심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사들의 정보 보호 불감증을 틈타 금융사 내부직원이나 외주업체 용역직원이 유출한 개인정보가 대출중개업계나 전화금융 시장에 팔리는 등 활발히 거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br/><br/>금융권 관계자는 “<span class='quot3'>CEO부터가 정보 보안을 비용만 발생하는 것으로 봐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전문성 등을 키울 생각이 없는 데다가 직원들도 정보 보안 부서를 한직으로 여겨 가고 싶어 하지 않고 외주업체에 맡기면 된다고 여기는 게 현실</span>”이라고 지적했다. <br/><br/>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span class='quot4'>정보 보안과 관련해 각 사마다 그럴듯한 규정은 정해져 있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게 문제</span>”라면서 “<span class='quot4'>CEO들이 이번 사태처럼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회사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손해배상 비용이 생기는 등 사태 해결에 더 큰 비용이 든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br/><br/>특히 이번에 사상 최대인 1억건 이상의 정보유출이 발생했던 NH농협카드 등 3개사는 정보가 이미 새어 나갔는데도 7~14개월이 되도록 유출사실조차 모르고 있던 것으로 드러나 평소 고객 개인정보 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br/><br/>금융감독원이 지난해 8월 만든 금융 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사는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지 5일 이내에 피해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사실을 알리고 홈페이지에 밝혀야 한다. 정보 유출 카드사의 한 관계자는 “<span class='quot5'>이번 사건은 내부직원이 아니라 전산 위탁을 맡은 외주업체 직원이 계획적으로 벌인 일이라 사전에 유출 사실을 간파하기가 쉽지 않았다</span>”고 말했다.<br/><br/>해당 카드사들은 다음 주부터 정보 유출 고객에게 피해 사실을 통보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정보가 새어 나간 지 오래라 전화금융사기 등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른 카드사의 한 관계자는 “<span class='quot5'>대규모 정보유출 사건이 있을 때마다 기승을 부리는 게 카드사를 사칭해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니 주민번호를 대고 확인하라’는 전화사기</span>”라면서 “<span class='quot5'>이 같은 2차 사기에 각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span>”고 말했다.<br/><br/>이번 유출사건을 피해 간 다른 금융사들도 정보 보안에 대한 민감도가 낮은 것은 마찬가지다. 몇몇 카드사들은 소비자들의 불안심리를 틈타 슬그머니 유료 신용정보 보호서비스 판매를 재개해 비난을 받기도 했다. 신한, 삼성, 우리카드는 사고 직후 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라 해당 서비스 판매를 중단했다가 이틀 만에 재개했고 현대카드는 사고 이후 줄곧 유료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다.<br/><br/>이미 한 차례 뭇매를 맞았던 보험사는 그나마 사정이 조금 나은 편이다. 카드사와 외국계 은행에 앞서 지난해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건을 일으켰던 메리츠화재와 한화손해보험은 이후 고객 개인정보 보호 수위를 한 단계 강화했다. 메리츠화재는 각 영업지점에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일주일마다 암호화하도록 했다. <br/><br/>암호화 작업을 거치지 않은 고객의 개인정보는 자동으로 파기된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span class='quot6'>보안 강화로 예전보다 업무에 많은 제약이 있어 불편하긴 하지만 지난해 정보유출 사건 이후 고객 개인정보 관리가 워낙 중요하다는 데 직원들이 공감해 보안 강화를 받아들이고 있다</span>”고 말했다. 한화손해보험은 사내 정보보호위원회를 개인정보 보호, IT정보 보호, 일반 보안의 3개 영역별로 나눠 각 영역에 책임자를 두고 있다. 이 외에도 현재 카드사 정보유출의 원인이었던 위탁업체를 반기마다 점검하기로 했다.<br/><br/>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br/><br/>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223.txt

제목: 활성산소가 암·당뇨 유발하는 과정 밝혔다  
날짜: 201401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00704880  
본문: 김명희(47)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체방어시스템연구센터 박사팀은 스트레스 환경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활성산소가 암, 당뇨와 같은 염증성 질환을 어떻게 유발하는지를 규명했다고 16일 밝혔다. <br/><br/>세포의 증식과 분화를 조정하는 활성산소는 적외선, 바이러스 감염, 고혈당 등의 환경에서 과다하게 증가해 암과 당뇨를 유발하는 것으로 그동안 알려졌다. 하지만 어떤 과정으로 질환을 유발하는지에 대해서는 여태껏 알려지지 않았다.<br/><br/>연구팀은 염증을 조절하는 단백질 ‘TXNIP’와 항산화 작용을 하는 단백질 ‘TRX’의 결합체를 고해상도로 분석하고 활성산소에 따라 두 단백질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연구했다. <br/><br/>정상적인 세포 환경에서는 TXNIP 단백질이 TRX와 결합했지만 세포 내에 활성산소 농도가 급격히 증가하면 TXNIP가 분리됐다. 반대로 활성산소의 농도가 정상이 되면 다시 결합체가 형성됐다. 김 박사는 “<span class='quot0'>활성산소가 유발하는 염증성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했다</span>”며 “<span class='quot0'>항암치료제 개발을 위한 중요 타깃으로 연구되고 있는 TRX의 기능 억제 물질을 개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span>”이라고 밝혔다. 연구결과는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1월 6일자 온라인판에 게재됐다.<br/><br/>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224.txt

제목: [비만 늪에 빠진 약자들] 장애인, 그들에겐 너무 높은 다이어트 문턱  
날짜: 201401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00358625  
본문: 지체장애 2급 이모(40)씨는 불어나는 뱃살이 고민이다. 키 178㎝, 몸무게 104㎏인 이씨의 체질량지수(BMI)는 32.82로 고도비만에 해당한다. 이씨는 식사를 챙겨줄 사람이 없어 자장면, 치킨 등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한다. 운동을 하고 싶지만 휠체어를 탄 상태로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주변에 없는 데다 빠듯한 형편에 500만원이 넘는 운동용 휠체어는 꿈도 못 꾸고 있다.<br/><br/>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 비만 유병률은 2002년 35.7%에서 해마다 증가해 2008년 39.5%를 찍은 뒤 2011년(39.4%)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 지체장애(46%)와 정신장애(48.7%)를 겪는 장애인은 두명 중 한명꼴로 비만이었다. 반면 비장애인의 비만 유병률은 2002년 33.7%에서 2011년 30.9%로 하락하는 등 꾸준히 감소세를 보였다.<br/><br/>호승희 국립재활원 재활표준연구과 과장은 “<span class='quot0'>비장애인은 스스로 운동을 하고 음식 조절을 하는 등 관리에 적극적이지만 장애인은 운동 프로그램도 적고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런 추세가 나타나는 것</span>”이라고 설명했다.<br/><br/>장애인 비만이 심각한 까닭은 당뇨, 심혈관질환 등의 만성질환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면 이차적인 기능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음식을 준비하는 데 불편을 겪는 장애인이 간편식으로 끼니를 해결해 영양 과잉 상태에 빠지기 쉽다고 지적했다. 장애인에게 올바른 식생활 정보와 영양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역시 부족하다.<br/><br/>이문희 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차장은 “<span class='quot1'>복지시설에서조차 영양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비만 장애인과 그렇지 않은 장애인에게 똑같은 식단을 제공하는 일이 많다</span>”면서 “<span class='quot1'>비만 치료를 위해 영양 관리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span>”고 지적했다.<br/><br/>장애인 비만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지원 역시 부족하다. 지체 장애인인 이 사무차장은 “<span class='quot1'>내 키가 160㎝가 채 안 되는데 몸무게는 80㎏이 넘어 고도비만</span>”이라면서 “<span class='quot1'>다이어트를 하려고 집 근처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장애인 대상 수영 프로그램을 신청했지만 대기자가 많아 등록하는 데 1년이나 걸렸다</span>”고 말했다. <br/><br/>대한장애인체육회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2013년 12월 기준)은 전국에 31곳뿐이다. 그나마 서울(8곳)과 6대 광역시에 18곳이 몰려 있다. 등록 장애인이 251만 1159명(2012년 12월 기준)인 것을 감안하면 장애인 8만여명당 한곳꼴이다.<br/><br/>운동시설이나 의료기관을 방문해도 장애인을 돕는 전문 인력을 비롯해 전용 화장실·승강기·주차장 등이 없는 경우도 많다. 청각장애인은 수화 통역사가 없으면 의사와 상담을 할 수 없고 시각장애인은 건강검진 통보서가 와도 점자로 표시돼 있지 않으면 볼 수 없다.<br/><br/>박종혁 국립암센터 암정책지원과 과장은 “<span class='quot2'>의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환자에 대한 교육을 한 뒤 ‘장애인 주치의’로 배정하거나 상시적인 건강 관리를 위해 원격진료를 시행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span>”고 조언했다. <br/><br/>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225.txt

제목: 소아암 환자의 탈모예후를 살펴보니...  
날짜: 201401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235816285  
본문: 항암치료와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소아암 환아의 12%가 항암치료 종료 후에도 영구적인 탈모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암치료를 받는 나이가 어릴수록, 또 티오테파(thiotepa) 항암제를 사용할수록 탈모 위험률은 높았다. 조혈모세포 이식은 백혈병·악성 림프종·다발성 골수종 등 혈액종양 환자에게 항암 및 방사선치료와 병행해 암세포와 환자 자신의 조혈모세포를 제거한 뒤 새로운 조혈모세포를 이식하는 치료법이다.<br/> <br/><br/><br/> 서울대병원 강형진(소아청소년과)·권오상(피부과) 교수와 최미라 전임의 연구팀은 2011년 1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항암치료와 함께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환아 159명(비교군, 평균 12.1세)과 건강한 일반인 대조군 167명(평균 8.1세)을 대상으로 탈모 현황을 비교 분석했다.<br/> 그 결과, 비교군 환아 159명이 모두 항암치료 후 탈모를 겪었다. 탈모증은 항암치료 시작 후 평균 1.5개월이 지나서 발생했으며, 항암치료 종료 후 평균 2.2개월까지 지속됐다. 모발은 항암치료가 종료된지 평균 2.6개월 후부터 회복되기 시작해 항암치료 종료 후 평균 7개월까지 지속됐다. 전체 환아의 67%는 항암치료 전에 비해 모발 밀도가 줄었고, 58%는 색이, 78%는 질감이 변했다. 환아의 모발은 회복되더라도 밀도와 두께(198.3±47.4/㎠, 76.3±18.4㎛)가 건강한 어린이(229.6±34.5/㎠, 79.5±12.4㎛)에 비해 각각 15%, 5% 낮았다.<br/><br/><br/><br/> 또 전체 환아 중 12%(19명)는 항암치료 종료 후에도 탈모가 회복되지 않아 영구적인 탈모를 겪었다. 영구적인 탈모란 항암치료가 종료된지 6개월이 지났어도 기존 모발의 75% 이상이 손실돼 회복되지 않거나 미용을 위해 가발을 써야하는 상태를 말한다.<br/> <br/><br/><br/> 특히 항암치료를 동반한 조혈모세포 이식을 어린 나이에 받을수록, 티오테파 항암제를 사용할수록 영구적 탈모 발생 위험률이 높았다. 영구적인 탈모 환자군은 평균 5.2세, 비영구적인 탈모 환자군은 평균 7.6세에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았다. 티오테파 항암제를 사용한 환자군은 그렇지 않은 환자군에 비해 영구적인 탈모 위험률이 7.5배나 높았다. <br/><br/><br/><br/> 연구팀은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경위는 더 추적해봐야 하지만 나이가 어릴수록 모낭줄기세포가 손상에 취약한 데다 줄기세포를 보호하는 주변 ‘치밀이음’의 밀도가 낮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특히 티오테파는 DNA 복제를 억제, 세포분열을 방해하는 알킬화 항암제제여서 상대적으로 모낭줄기세포에 큰 손상을 준다”고 설명했다.<br/> <br/><br/><br/> 탈모증은 암 치료의 흔한 부작용으로, 환자의 자아와 사회성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 특히 소아의 경우 혈액암 등으로 고용량 항암치료가 동반되는 조혈모세포 이식 후에 흔히 발생하지만 특징이나 예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권오상 교수는 “<span class='quot0'>이 연구는 학령기를 앞둔 소아에서 조혈모세포 이식 후 장기적으로 환자가 큰 부담을 갖게 되는 항암 유발 탈모에 대해 시행한 가장 큰 규모의 연구로, 추후 항암 유발 탈모의 발생을 예측, 해결하는 기반을 마련한데 의의가 있다</span>” 고 말했다. 이 연구는 피부과 분야 권위지인 미국피부과학회지 최근호에 실렸다.<br/>　<br/>　심재억 의학전문기자 jeshim@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226.txt

제목: 유방암·폐암 유발 치료제 길 열려  
날짜: 201401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235409131  
본문: 영남대 생명공학부 박현호(40) 교수 연구팀이 15일 유방암과 폐암을 유발하는 ‘TRAF4’ 단백질의 3차 구조를 세계 최초로 밝혀냈다고 밝혀 학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br/><br/>TRAF 단백질 계열은 염증반응에서 세포 신호 전달의 매개 역할을 담당한다. TRAF1부터 TRAF7까지 7가지가 있는데 염증반응 조절 과정에서 잘못 작동하면 다양한 암이나 면역이상, 알레르기, 동맥경화, 신경퇴행성 질환, 당뇨, 비만 등 여러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 교수팀이 3차 구조를 밝힌 TRAF4 단백질은 태아의 신경 발생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염증반응 조절 과정에서 과다 발현하면 유방암이나 폐암을 유발한다고 보고돼 암 연구자들이 주목하는 단백질이다. <br/><br/>박 교수팀의 연구 결과는 생물리학분야 세계 최고 저널로 알려진 ‘악타 크리스탈로그라피카 섹션 D’ 이달 호에 실렸다. 또 연구를 주도한 박 교수와 윤종환(27·석사4기)씨가 교신저자와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고, 연구 결과는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가 제공하는 ‘한국을 빛내는 사람들’에 소개되기도 했다.<br/><br/>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227.txt

제목: “걷기와 산책이 마라톤보다 좋다”  
날짜: 201401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235400968  
본문: 제이 매독(하와이 주립대학 공중보건 연구소장) 교수는 15일 제주에서 열린 제4회 월드트레일스콘퍼런스에서 “<span class='quot0'>걷기와 산책이 마라톤보다 좋다</span>”며 트레일의 놀라운 효과를 강조했다.<br/><br/>2000년부터 만성질환을 줄이기 위한 미국 보건부 프로그램 ‘건강한 하와이 계획’ 연구를 이끌고 있는 매독 교수는 기조연설을 통해 “<span class='quot1'>전 세계 사망의 50% 이상이 심장혈관, 당뇨, 만성폐질환, 암 때문인데 이것의 원인이 되는 위험요소가 바로 담배, 영양실조, 신체적인 활동의 부재</span>”라며 “<span class='quot1'>굳이 마라톤을 하지 않더라도 산책만 잘하더라도 여러 가지 건강상의 혜택을 볼 수 있다</span>”고 주장했다. 그는 또 “<span class='quot1'>성인은 1주일에 150분만 산책해도 효과가 있고, 청소년들은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정도 해야 한다</span>”고 조언했다. 그는 자신의 연구를 제시하면서 “<span class='quot1'>매주 트레일을 활용한 사람은 그러지 않은 사람보다 2.3배 운동량이 많다는 미국의 연구 결과가 있다</span>”고 밝혔다.<br/><br/>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228.txt

제목: 갑상선 수술 후 목소리가 변하지 않으려면&#57747;  
날짜: 201401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234657991  
본문: 갑상선 관련 수술 후에 흔히 발생하는 합병증인 목소리 변화를 조기 발견, 치료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이에 따라 갑상선 수술 후 따로 음성 치료를 받아야 했던 지금까지와 달리 추가 치료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br/><br/><br/>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이비인후과 선동일∙박준욱 교수팀은 2012년 1~7월 중에 갑상선암이나 종양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 242명에게 ‘갑상선 수술 전·후 음성검사 프로토콜(PVST)’을 실행했다. 그 결과, 수술 전·후에 두번 음성검사를 받은 환자는 36.4%인 88명, 수술 후 한번만 검사를 받은 환자는 38.1%인 92명, 검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환자가 25.6%인 62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술 전·후에 모든 환자가 음성검사를 했던 이전에 비해 검사 건수는 43.8%,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줄인 것이다.<br/><br/><br/><br/> 또 PVST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특정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그 질병을 얼마나 잘 찾아내는가를 수치화한 민감도가 후두질환은 82.1%, 음높이가 낮아지는 음도저하는 66.7%, 악성이 아닌 폴립 등 일반 성대질환인 양성 성대질환과 갑상선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성대마비는 100%로 나타났다. 즉, PVST를 이용하면 수술 전에 미처 알지 못했던 음성질환을 보다 효과적으로 찾아낼 수 있다는 뜻이다.<br/><br/><br/><br/> 연구팀이 개발한 PVST는 갑상선 수술 전에 환자에게 설문지를 작성하게 해 점수가 5점 이상이거나, 현재 성대 질환으로 이비인후과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직업적으로 음성을 사용하는 가수나 ·배우·아나운서·뮤지컬 배우·성악가 등은 수술 전에 음성전문가의 상담과 함께 음성 관련 정밀검사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br/>　<br/><br/><br/> 이어 갑상선 수술이 끝난 후 2주째에 다시 같은 설문을 작성해 수술 시 후두신경이 손상됐다고 판단되거나 설문 점수가 25점 이상이면 수술 후 음성전문가와 상담하고 음성 관련 정밀검사를 시행해 목소리 변화 여부를 파악, 치료하게 된다. 선동일 교수는 “<span class='quot0'>목소리를 많이 사용하는 가수나 교사· 방송인 등은 음성변화가 큰 부담이 되므로 새로 개발한 프로토콜에 맞춰 갑상선 수술 환자를 치료하면 음성 변화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 이후의 치료 부담을 덜 수 있다</span>”고 설명했다. <br/><br/><br/><br/> 국가 암등록통계에 따르면, 2011년의 경우 갑상선암은 약 4만명이 진단돼 여성암 발생률 1위에 올랐으며, 갑상선 악성종양 제거수술은 2011~2012년 사이에 17%가 증가했다. 이런 갑상선 수술은 다른 수술에 비해 비교적 안전하지만 목에 섬세한 조직이 많아 이후 목소리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전 정밀검사가 필요하다.<br/><br/><br/><br/> 이처럼 발병률과 증가율이 높은 갑상선 수술 후 흔히 발생하는 음성질환을 예측하기 위해 간편하고 효과적인 ‘갑상선 절제술 관련 음성 설문지’를 개발한데 이어 PVST를 이용해 갑상선 수술 후 음성장애 환자를 선별, 관리하기로 한 것. 선동일 교수는 “<span class='quot0'>갑상선 수술 전후에 음성 전문가와의 상담과 음성 정밀검사가 필요하지만 시설과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병원도 많고, 환자들의 부담도 크기 때문에 음성 문제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개발했다</span>”고 말했다. 이 연구 결과는 미국 갑상선학회지(THYROID) 최근호에 실렸다. <br/>　<br/>　심재억 의학전문기자 jeshim@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229.txt

제목: 굴삭기 실은 트럭 고속 주행중 고가도로와 충돌 ‘아찔’  
날짜: 201401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233514608  
본문: 굴삭기를 싣고 가던 트럭이 고가 도로와 충돌하는 순간이 포착됐다.<br/><br/>지난 13일 월요일 이른 아침(현지시간) 스위스의 한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뒤 따르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고스란히 기록됐다.<br/><br/>공개된 20초 분량의 영상에는 달리는 차량들 사이에 굴삭기를 싣고 가는 트럭 한 대가 눈에 들어온다. 잠시 후 트럭이 고속도로 위를 가로지르는 고가도로 하단을 통과하는 순간, 트럭에 실려 있던 굴삭기의 암(Arm) 부분이 고가 상판에 충돌한다. <br/><br/>이 충돌로 인해 금세 뿌연 먼지와 함께 파편들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도로는 아수라장으로 변한다. 이때 뒤따르던 차량들이 잇따라 급정거하며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 연출된다.<br/><br/><br/><br/>또한 블랙박스에 기록된 차량의 속도가 115km에서 110km 사이를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는지를 설명해준다.<br/><br/>현지 언론에 따르면 높이 4m 이상의 차량은 고가 도로 밑을 지날 수 없음에도 불고하고, 굴삭기의 높이를 감지하지 못한 트럭운전사의 실수가 사고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사고 당일 현장 수습으로 인해, 일부 차선 통제로 극심한 교통 혼잡이 있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밝혔다.<br/><br/>영상팀 seoultv@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230.txt

제목: ‘토르’ 가볍게 따돌린 ‘어바웃 타임’ 인생 담은 로맨틱 코미디에 입소문  
날짜: 201401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232708763  
본문: 영화 ‘변호인’이 떠들썩하게 1000만 관객 돌파 행진을 하고 있는 한편에서 ‘소리 없이, 그러나 놀라운’ 성적을 올리는 화제작이 있다. 지난해 12월 5일 개봉한 ‘어바웃 타임’이다. 개봉 7주 차인 13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이 영화는 326만 8571명을 동원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다. ‘노팅힐’(1999), ‘러브 액츄얼리’(2003)에 이어 영국 워킹타이틀사의 로맨틱 코미디가 줄줄이 흥행하면서 리처드 커티스 감독의 영화는 흥행보증수표로 굳어진 분위기다.<br/><br/>온 가족이 볼 수 있는 잔잔한 로맨틱 코미디가 이 정도의 위력을 발휘하는 건 그야말로 이례적이다. 지난해 화려하게 개봉했던 할리우드 화제작 ‘토르:다크 월드’(303만 9868명), ‘그래비티’(319만 6732명) 등을 가볍게 따돌린 성적이다.<br/><br/>‘어바웃 타임’의 위력은 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영화는 초반부터 ‘연말에 뭘 볼까’ 고민했던 관객들의 시선을 모으는 데 성공했다. 개봉 첫째 주(지난해 12월 2~8일)에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며 화제몰이에 들어갔다. ‘러브 액츄얼리’의 리처드 커티스 감독이 만든 로맨틱 코미디라는 기대치 덕분에 연말 연인들의 데이트용 영화로 급부상했다. 최근 드라마에 자주 등장해 색다른 재미를 준 ‘시간 여행’이라는 소재도 눈길을 끌기에 적절했다. 이에 맞붙을 만한 화제작이 거의 없었다는 점도 한몫했다.<br/><br/>개봉 후 관객들의 반응과 입소문은 흥행에 가속을 붙였다. “<span class='quot0'>단순한 로맨틱 코미디인 줄 알았는데 가족과 인생에 관한 이야기</span>”였다는 것. 영화 초반에는 주인공 팀(돔놀 글리슨)이 시간 여행 능력을 이용해 메리(레이철 매캐덤스)의 마음을 얻는 과정을 그렸지만, 중반 이후로는 시간 여행으로도 돌려놓을 수 없는 인생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하나를 바꾸려 하면 또 다른 하나가 어긋나고, 교통사고를 당한 동생의 미래는 바꿨지만 암 선고를 받은 아버지를 돌려놓진 못한다. 결국 영화는 ‘시간을 되돌리기보다 주어진 하루를 행복하게 살아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애초 ‘러브 액츄얼리’를 잇는 로맨틱 코미디로 홍보됐지만 인터넷을 통해 회자된 건 “인생은 모두가 함께하는 여행이다”라는 대사였다.<br/><br/>‘어바웃 타임’은 연인과의 사랑뿐 아니라 가족과 인생, 성장 등 삶의 다양한 풍경이 한데 버무려졌다.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사회에서 최근 대중문화는 가족의 가치를 재조명하기 시작했다. 부모와 여동생, 삼촌 등 개성 만점의 캐릭터들이 정감 있게 그려지면서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낸 것도 이 같은 대중문화계 추세와 맞물렸다. 또 어리바리한 ‘모태 솔로’였던 21세의 팀이 한 여자의 남편으로, 두 아이의 아버지로 성장해 가는 과정도 2030 관객들의 공감대를 자극했다. ‘어바웃 타임’이 로맨틱 코미디를 넘어 청춘영화, 가족영화로 주목을 받고 있는 건 이 때문이다.<br/><br/>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231.txt

제목: 한방암치료 vs 양방암치료, 답은 환자 중심의 치료  
날짜: 201401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33957247  
본문: 바깥은 한파로 꽁꽁 얼어 있지만, 답답할 정도로 따뜻한 공기의 실내에서는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아이스크림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풍경이다. 이러한 역설적인 시대에 과거에는 없었던 현대인의 병이라고 불리는 ‘암’이라는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br/>그런데 이러한 암이 과거의 사람들에게는 흔치 않았던 병이며 현대인의 잘못된 생활습관과 환경오염 등이 원인이 된다는 결과가 2010년 10월 영국 맨체스터대학의 로잘리에 데이비드 교수와 마이클 짐머맨 교수에 의해 보고된 바가 있다. <br/>이들은 이집트와 남아메리카에서 발견된 최대 3000여 년 전의 미라를 포함해서 수백 구의 미라와 화석, 고대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암은 고대인에게 매우 드문 희귀병이었다”며 “산업혁명 이후 급작스럽게 생활 방식이 바뀌면서 현대인의 식습관과 생활방식이 암 발병에 큰 원인을 제공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br/>세계암연구협회의 레이첼 톰슨 박사 역시 “<span class='quot0'>이 연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span>”며 “<span class='quot0'>결국 암은 식단과 생활습관만의 변화로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질병임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됐다</span>”고 설명했다.<br/>암을 진단받게 되면 환자와 보호자 모두 두렵고 경황없는 마음이 앞서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 개인마다 다른 환자의 몸 상태와 병기를 고려한 치료방법으로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명연장에 중심을 잡고 투병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br/>우리나라 국가암정보센터에서 인정하는 암 치료방법으로는 양의학 치료라고 할 수 있는 수술, 항암 화학요법, 방사선치료 등과 한방암치료의 핵심인 면역치료가 있다. 한방암치료와 양방암치료의 가장 큰 차이는 양방에서의 치료가 ‘병’을 없애는 것이라면, 한방에서 치료는 ‘환자’가 건강해지는 것이다. 치료의 초점이 ‘병’과 ‘환자’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질병에 대한 접근 방법이 달라지는 것이다.<br/>중국은 수십 년 전부터 국가 중의약관리국에서 중의약 제반 정책 수립 집행뿐 아니라 중점 전문과로서 한방종양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2006년 후생노동성에서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임상시험을 하고 한약에 대한 항암효과에 대해 검증을 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서구 양방 의학의 중심인 미국, 독일, 호주 등지에서도 암 치료에 있어서 한방 치료가 주는 효과에 관하여 활발한 연구와 치료가 시행되고 있다.<br/>우리나라 한방암치료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부산 방선휘한의원의 방선휘 대표원장은 “한의학과 양의학이 극도로 대립하는 것은 한국이 거의 유일한 국가”라며, “양의학에 비해 한의학의 현대적인 근거의 양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대의학의 눈부신 발전은 19세기 말의 항생제 발명 이후 불과 200년의 역사를 가진 발전이며, 반면 한의학은 최소 2000년 이상의 경험과 지혜의 결과이고, 이미 전 세계적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는 환자 중심의 효과적인 암 치료의 추세는 양, 한방 통합암치료”라고 말했다. <br/>지난 10일, MBC QUEEN채널 “암과 나” 프로그램에서 양방과 한방 암치료 간의 열띤 토론 중 방선휘 박사는 2011년 경상대, 서울대 의료진에 의해 한방단독치료로 호전된 7례의 증례를 언급하며 한방 암치료의 잠재력을 제시하였고 결과적으로 과학적이고 근거 중심의 치료를 위해 한방 암치료에 대한 실험적, 임상적 연구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br/>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232.txt

제목: ‘너훈아 동생’ 김철민 “형의 마지막 무대는…” 감동  
날짜: 201401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231759355  
본문: 가수 나훈아를 빼닮은 외모와 무대매너로 인기몰이를 한 모창가수 너훈아(본명 김갑순)이 향년 57세로 별세한 가운데 고인의 친동생인 개그맨 김철민의 회고가 눈길을 끌고 있다.<br/>김철민은 KBS 2TV와의 인터뷰에서 “형은 암 투병 중에도 무대에 올랐다”면서 “복수가 차 튜브를 착용하고 있으면서도 지인들을 위해 노래를 불렀다. 그게 마지막 무대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고인은 투병 중에도 무대에 대한 열정을 이어갔던 것으로 알려졌다.<br/>특히 김철민은 “누구든 한번은 간다. 김광석 노래에 ‘우린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라는 가사처럼 형은 이별을 조금 빨리 한 것이다”면서 “부디 편한 곳에 가서도 무대에 대한 열정을 쭉 가져갔으면 좋겠다. 형, 사랑해”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br/>서울 순천향대병원에 따르면 너훈아는 지난 2년간 간암으로 투병해오다 최근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돼 이날 오전 12시 15분경 숨을 거뒀다. 향년 57세. 고인은 나훈아를 빼닮은 외모와 모창 솜씨로 인기를 끌며 20년 넘게 전국 각지에서 활발하게 활동했으며 방송을 통해서도 대중에 널리 알려졌다.<br/>고인은 빈소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서울 순천향대병원 장례식장 5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오는 14일 오전 6시다.<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233.txt

제목: [암을 말하다-방광암(하)] 머리염색 15년 이상 매달 하면 방광암 위험 2~3배 높아져  
날짜: 201401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231408976  
본문: 방광암으로 진단받은 환자는 중증환자로 분류돼 진료비를 지원받는다. 이 때문에 환자들은 큰 부담을 덜 수 있다. 그러나 한계가 있다. 진료비 지원 기간이 5년에 불과해 재발 때문에 주기적으로 추적검사를 해야 하는 방광암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 실제로 표재성 방광암은 내시경으로 쉽게 제거할 수 있지만 재발이 잦아 수차례나 수술을 받는 경우도 흔하다. 이대목동병원 비뇨기과 이동현 교수는 “<span class='quot0'>방광암의 경우 중증환자 혜택의 5년 제한 때문에 치료 4년째에 재발로 인한 수술을 받으면 마지막 수술일로부터 5년 동안 다시 암의 재발을 추적해야 하지만 중증환자 혜택은 그로부터 1년 후에 소멸돼 남은 4년 동안 진료비를 고스란히 환자가 부담하면서 치료 및 재발검사를 받아야 한다</span>”면서 “<span class='quot0'>따라서 중증환자 혜택기간을 최초 암 진단 후 5년으로 못 박을 게 아니라 암종과 재발 여부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span>”고 지적했다.<br/><br/><br/><br/><br/><br/><br/><br/>→방광암은 어떻게 진단하며, 확진은 어떻게 이뤄지나.<br/><br/>-혈뇨나 방광 자극증상이 지속되면 방광암을 염두에 두고 요세포검사와 방광경검사를 시행해 방광 내 종양 유무와 위치·모양·개수·크기 등을 확인한다. 이어 경요도 방광종양절제술로 방광 조직을 검사해 방광암을 확진한다. 이때 방광경검사에서 근침윤성으로 의심되거나 조직검사에서 근침윤성으로 진단되면, 주변 조직으로의 침범 정도 및 림프절 등 다른 장기로의 전이 여부를 알기 위해 흉부 X선 촬영과 CT·MRI·골스캔 등을 거치며 이를 통해 정확한 병기를 파악해 치료 방침을 정한다.<br/><br/>→치료 방법과 함께 각 치료법을 적용하는 기준과 상황도 짚어 달라.<br/><br/>-점막이나 점막 하층에만 국한된 비근침윤성(표재성)은 경요도 방광종양절제술로 종양의 완전 절제가 가능하다. 절제술 후에는 재발을 막기 위해 조직학적 징후나 종양의 개수·크기·재발 기간 등을 고려, 방광 내에 BCG나 항암제 등을 주입하는 치료를 시행하기도 한다. 경요도 절제술로 완전한 절제가 어렵거나 약물 치료에 반응하지 않으면 방광적출술 등을 고려한다.<br/><br/>근침윤성의 경우에는 근치적 방광적출술이 표준치료법이다. 근치적 방광적출술은 방광과 골반 림프절은 물론 남성은 전립선과 정낭까지 함께 적출하며, 전립선 인근 요도에 종양이 있거나 전립선을 침범한 경우에는 요도도 함께 절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자는 방광과 함께 요도·자궁·난소를 제거한다. 이 때문에 남성의 경우 수술 후 발기부전이 올 가능성이 높지만, 병의 진행 상태와 수술 방법에 따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다만, 전립선과 정낭을 제거하기 때문에 사정을 할 수는 없다. 이 밖에 림프절 또는 다른 장기로의 전이가 있는 전이성 방광암에는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며, 골 전이에 따른 동통이 있을 때는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기도 한다.<br/><br/>방광을 적출하면 소변 주머니가 없어져 요로의 변경이 불가피한데 이를 요로변경술이라 한다. 요로변경술에는 회장도관조성술, 비실금형요로조성술, 자연배뇨형 인공방광조성술 등이 있다. 물론 요로변경술은 어려운 수술이지만 인공 오줌주머니가 필요없는 자연배뇨형 인공방광조성술 등을 통해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br/><br/>→각 치료법의 유효성과 예후, 그리고 한계는 무엇인가.<br/><br/>-표재성은 잦은 재발이 문제다. 이 때문에 방광에 약물을 주입하기도 하지만 완전하지 않다. 문제는 표재성이 침윤성으로 발전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방광을 모두 적출한 뒤 복부 쪽에 따로 소변 통로를 만들어 평생 소변주머니를 차고 살아야 하는 불편이 따랐다. 그러나 10여년 전부터는 소장을 이용한 인공방광조성술이 적용돼 소변주머니 대신 자신의 요도로 소변을 볼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었다. 이 기술이 남성에서는 발기기능까지 보존할 수 있도록 발전되었으며, 요도가 짧아 수술이 어려웠던 여성에게도 적용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수술이 어려워 내시경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화학요법 등을 병행해 환자의 방광을 보존하려 하지만 예후에 있어서는 아직 수술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br/><br/>→치료 패턴의 변화 등 방광암 치료의 최근 흐름도 함께 짚어 달라.<br/><br/>-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근에는 근치적 방광적출술이 두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먼저, 장 조직으로 방광을 만들어 요도와 연결하는 자연배뇨형 인공 방광이 남성 환자는 물론 여성 환자들에게도 시도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근치적 방광적출술을 시도할 때 신경과 혈관을 보존해 남성의 발기력을 유지시키는 방법도 시도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근침윤성이라도 방광을 보존하면서 효과적으로 암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도 속속 제시되고 있다. 경요도적 방광종양절제술에 항암화학요법, 방사선 치료를 병행해 방광을 보전하면서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는 보존치료가 그것이다.<br/><br/>→방광암은 여전히 수술적 접근이 주된 치료법이며, 항암제의 효용 범위는 제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br/><br/>-항암제는 암세포를 제거하거나 증식을 억제하지만 정상 세포에도 영향을 미쳐 전신적인 합병증이 나타난다. 그렇지만 방광암의 경우, 항암제가 비교적 효과가 좋아 치료반응률이 40∼70%로 보고되고 있다. 최근에는 기존항암치료제인 ‘M-VAC’과 효과는 비슷하지만 부작용을 줄인 ‘젬시타빈’과 ‘시스플라틴’ 병합요법도 사용하는데, 치료반응률이 70% 정도여서 여전히 10명 중 3명에게서는 반응이 없다. 이 때문에 수술이 주된 치료법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최근에는 인공 방광 수술이 빠르게 발전해 환자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된 데다 노령층도 수술이 가능해 항암제의 사용 빈도가 줄어드는 추세인 것은 사실이다.<br/><br/>→방광암이 생활습관 등 일상적인 문화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된다고 보는가.<br/><br/>-방광암의 가장 주된 원인은 평균수명 증가와 흡연이다. 이 가운데 흡연의 경우 흡연 기간 및 흡연량이 방광암 발생 빈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데, 특히 유소년기에는 직접 흡연은 물론 간접 흡연만으로도 방광암 발생 빈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 머리염색약도 방광암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다. 머리염색약 성분 중 착색작용을 하는 아닐린계 염료는 방광암의 유력한 발암물질이어서 15년 이상 매달 염색약을 사용한 여성이 그러지 않은 여성보다 방광암에 걸릴 위험이 2∼3배나 높으며, 10년 이상 매일 염색약을 취급한 미용사도 그러지 않은 일반 여성에 비해 방광암에 걸릴 확률이 5배 정도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머리 염색 유행이 상당 기간 방광암의 발생 빈도를 높일 것이라는 게 학계의 판단이다.<br/><br/>심재억 의학전문기자 jeshim@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234.txt

제목: [탐사보도-공익제보 끝나지 않은 싸움] 배신자로 찍혀 일 뺏긴 남편 나쁜 맘 못 먹게 쫓아다녔죠  
날짜: 201401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231038585  
본문: 2007년 서울 시내버스 회사의 요금 횡령을 언론에 알린 권태교(54)씨는 “이 사람이 곁에 없었다면 나는 죽었을 것”이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12일 서울신문이 만난 권씨의 아내 강모(65)씨는 시종일관 권씨의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br/><br/>강씨는 “<span class='quot0'>철저한 준비 없이 돈도 많고 힘 있는 버스회사에 맞선 남편이 몸과 마음을 많이 다쳤다</span>”고 말했다. 그는 “<span class='quot0'>지금이야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비되고 제보자를 지원하는 단체도 많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는 체계도 잘 잡혀 있지만 당시엔 그렇지 못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당시에는 나도 남편도 너무 순수했던 것 같다</span>”고 회고했다.<br/><br/>강씨는 당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남편이 덜컥 언론사에 제보를 해서 깜짝 놀랐다. 시내버스 회사에 들어간 지 6개월 만에 회사의 요금 횡령을 목격하고 공익 제보를 결심한 권씨를 말리던 중이었다.<br/><br/>그러나 그의 바람과 달리 경찰과 서울시청, 감사원 등이 버스회사의 운임에 대한 횡령 증거를 충분히 밝혀내지 못했다. 강씨는 이로 인해 흐트러져 가는 남편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는 “<span class='quot0'>서울시의 담당 계장이 아내가 암에 걸렸다며 갑자기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확인해 보니 부인이 암에 걸리지도 않았더라</span>”면서 “<span class='quot0'>버스회사로부터 돈을 받고 모든 것을 뒤집어쓰고 물러난 것 같았다</span>”고 안타까워했다. 급기야 서울시가 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하고, 공익 제보를 했던 권씨는 그때부터 사회에서는 실업자, 회사에서는 배신자로 낙인찍힌 채 3년 6개월의 기간을 지내야 했다.<br/><br/>울화를 잘 참지 못하는 남편을 돌볼 사람은 아내뿐이었다. 그는 제보 직후부터 일을 할 수 없었던 남편을 대신해 두 사람의 생활비를 대는 한편 불 같은 성격의 남편이 행여 잘못된 생각이라도 할까 노심초사하며 지켜봤다. 강씨는 “<span class='quot0'>남편이 한 달 넘도록 매일 시청에 나가 1인 시위를 했다</span>”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씨는 “<span class='quot1'>시청 옥상에서 뛰어내리겠다고 달려가는데 아내가 붙잡으며 ‘죽지 말고 우리 끝까지 이 문제를 밝혀내자’고 설득했다</span>”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날 이후 강씨는 남편이 집 밖으로 나갈 때마다 몰래, 혹은 손을 잡고 따라다녔다. 남편이 산에 간다고 하면 몰래 따라 나가 그의 빠른 걸음을 따라잡으려 턱까지 찬 숨을 몰아쉬기도 했다. 남편이 술을 마시러 나간다고 하면 가급적 나가지 못하게 했다. 남편이 술자리에 나가면 강씨는 그가 돌아올 때까지 잠들지 못했다고 한다.<br/><br/>권씨는 현재 버스기사로 일하고 있다. 여론의 주목을 받아 공익 제보자로 인정돼 복직된 것이다. 하지만 강씨는 아직도 남편이 불안 증세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강씨는 “<span class='quot0'>남편이 가끔 당시로 돌아간 것처럼 큰 소리로 잠꼬대를 하거나 자다가 벌떡 일어나기도 한다</span>”고 토로했다.<br/><br/>권씨는 “<span class='quot1'>아직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속에서 천불이 난다</span>”면서도 “<span class='quot1'>그동안 옆에서 지켜본 아내가 더 힘들었을 것</span>”이라고 씁쓸해했다. 이어 “앞으로 남은 삶을 아내에게 보답하면서 살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씨는 남편이 자랑스럽다고 했다. 그는 “만일 그때로 돌아간다면 말리고 싶지만 말려도 안 되는 사람이니까 더 조심하고 준비 된 뒤에 공익 제보를 하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털어놨다.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235.txt

제목: 김영애 “해품달 촬영하면서도 암투병…몸무게 40kg으로 줄어”  
날짜: 201401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230902102  
본문: 배우 김영애가 MBC 드라마 ‘해를 품은 달’ 출연 당시 암투병 중이었다고 고백해 화제다.<br/><br/>김영애는 10일 SBS 좋은아침에서 “드라마가 끝난 뒤 9시간의 대수술을 받고 죽다 살아났다. 수술 뒤 몸무게가 40kg으로 줄었다”고 암투병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br/><br/>김영애는 ‘해를 품은 달’에서 배우 김수현이 맡은 이훤의 할머니인 대왕대비 윤씨 역을 맡아 활약했다. 김영애는 암투병과 관련해 “<span class='quot0'>언론에 철저하게 숨겼지만 당시 암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span>”고 고백했다.<br/><br/>김영애는 암투병 중임에도 불구하고 “<span class='quot0'>생방송에 가까운 촬영스케줄을 소화하는 제작팀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췌장암 초기라는 사실을 숨긴 채 두 달 동안 병원만 드나들며 버텼다</span>”면서 “<span class='quot0'>몸이 아파서 소리 지르고 악쓰는 연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허리에 칭칭 끈을 조여매고 촬영에 들어가야 했다</span>”고 고백했다.<br/><br/>네티즌들은 “김영애 암투병 너무 슬프다”, “김영애 씨 힘내세요”, “<span class='quot1'>김영애 암투병 지금도 계속 하고 있나</span>”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236.txt

제목: 죽음을 이해하면 삶의 의미가 다가옵니다  
날짜: 201401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230258868  
본문: 삶을 위한 죽음 오디세이리샤르 벨리보·드니 쟁그라 지음/양영란 옮김/궁리/272쪽/2만 5000원<br/><br/>프랑스의 시인이자 레지스탕스 문학의 주요 작가로 꼽히는 클로드 아블린은 이렇게 말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겪어야 할 재수 없는 순간이지.” 폴란드 시인이자 아포리즘 작가 스타니스와프 예지 레츠는 “그가 죽었다는 사실이 그가 살았음을 절대적으로 입증하지는 못한다”라는, 깊은 사색을 견인하는 말도 남겼다. ‘생의 철학’ 선두주자인 프리드리히 니체는 “<span class='quot0'>제일 큰 수수께끼는 죽음이 아니라 삶이다</span>”라고도 했다.<br/><br/>삶과 죽음은 분리될 수 없고, 둘은 항상 순환하면서 이어진다. 죽음으로써 삶의 의미와 물질의 덧없음을 깨닫게 한다. 세기의 철학자, 작가, 석학들이 죽음을 돌아보는 이유다.<br/><br/>캐나다 퀘벡대 몬트리올캠퍼스의 생화학과 교수이자 암 전문가인 리샤르 벨리보는 늘 죽음과 접촉한다. 함께 책을 쓴 드니 쟁그라도 퀘백대 종양과 연구원으로서 죽음을 마주하는 동시에 생존을 고민한다. 벨리보 교수는 현지에서 이 책을 출판한 뒤 가진 인터뷰에서 “성공이나 자기계발을 최고의 미덕으로 치는 우리 사회는 죽음을 일종의 최종적인 패배, 취약함의 고백으로 여긴다. 하지만 사실 죽음은 삶이라는 과정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삶을 충분히 향유하기 위해, 죽음을 이해하기 위해 책을 썼다”고 설명했다.<br/><br/>그 의도에 걸맞게 ‘삶을 위한 죽음 오디세이’는 그야말로 죽음의 ‘알파와 오메가’다. 생리적인 죽음의 징표를 심장 박동의 정지로 볼 것인지 뇌 기능의 상실로 따질 것인지 등 과학적인 물음에서부터 죽음을 일으키는 다양한 원인, 종교적인 관점, 죽음과 매장 풍습, 노화의 원인과 뇌의 퇴화, 죽음에 이르는 바이러스에 이르기까지 다각도로 살핀다.<br/><br/>언급하기 꺼려지고, 때론 금기가 되는 죽음에 대해 나열하지만 다양한 회화, 사진, 그래픽을 활용한 덕에 책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둡지 않다. 인간만이 지인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 있는’ 동물의 상당수도 동종 동물들의 사체 앞에서 망연자실한다거나, 죽음으로 향하는 시간을 늦추고 생명 에너지의 상실을 막기 위해 생겨난 식인 풍습, 복숭아씨에서 뽑아낸 독을 먹인 뒤 살아나면 무죄라고 판단했던 인간의 풍습 등 낯설고도 흥미로운 이야기가 곳곳에 담겨 있다.<br/><br/>뇌기능을 소개하는 책의 초반부는 이들을 잇는 시냅스, 신경전달물질, 노시보 효과와 플라시보 효과가 줄줄이 나열돼 의학서를 읽는 듯 난해하다. 곳곳에 잔인한 고문 장면을 묘사한 삽화나 해부 장면을 담은 명화, 교수형 사진 등이 튀어나와 독자를 당혹스럽게 만들기도 한다. 이런 지점들만 극복한다면 책의 메시지는 강렬하고도 유익하다. 과학과 철학, 인류학, 문화·종교사 등의 영역을 자유자재로 넘나들며 지적 호기심을 채워가는 사이 어느새 삶과 죽음의 의미를 되짚어보게 이끄는, 요령 있는 책이다.<br/><br/>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237.txt

제목: KBS 아침마당 목요특강, 한방암치료 전문가 김성수박사 출연  
날짜: 201401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33734251  
본문: 한방암치료, 면역암치료라는 개념은 알고 있지만 실제 그 원리와 효과를 궁금해하는 이들이 많다. <br/>이에 대전KBS 아침마당은 이 같은 암환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김성수 한의학 박사를 초빙하여 ‘내 몸을 다스리는 힘 면역’이라는 제목으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br/>이번 강연은 한방암치료의 원리인 부정거사법에 대한 해설, 암에 대한 양방과 한방의 시각 차이 등 한의학이 바라보는 암, 기존 면역치료의 방법과 그 효과에 대한 실제 사례로 설명됐다.<br/>강연을 진행한 김성수 박사는 현재 양한방협진을 통해 면역암치료를 시행하는 소람한방병원 대표원장으로 진료에 임하고 있으며, 한방암치료 원리와 효과, 치료 사례를 담은 저서 ‘12주한방면역요법’, ‘위암, 먹어야 산다’ 를 집필한 바 있다.<br/>김성수 박사의 이번 특강은 대전KBS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볼 수 있다.<br/>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238.txt

제목: ‘오로라공주’ 서하준 “‘암세포도 생명’ 대본에 나도 5분간 얼음” …임성한 데스노트 안 무섭나  
날짜: 201401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225601085  
본문: ‘오로라공주’에 출연했던 배우 서하준이 드라마 속에서 뜨거운 논란을 불러온 ‘암세포도 생명’이라는 대사에 대해 언급했다.<br/>서하준은 9일 방송된 KBS2 ‘해피투게더3’에 출연, “암세포도 생명인데 살아야죠”라는 대사를 재연했다.<br/>이는 극 중 남자 주인공 설설희가 암 치료를 거부하면서 말한 대사로 방송 직후 뜨거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br/>특히 매일매일 암세포와 싸워가며 생존의 의지를 다지고 있는 암환자들에게 불쾌하게 비칠 수 있는 대사인 셈.<br/>이날 서하준은 “<span class='quot0'>처음 대본을 받고 5분간 얼음이 됐다</span>”면서 자신도 당황했다고 고백했다.<br/>MC들이 “임성한 작가를 실제로 만나봤나. 어땠나”고 묻자 서하준은 “못 만났다. 난 드라마 중반에 투입돼 내가 리딩할 때는 안 왔다”고 말했다.<br/>유재석은 “<span class='quot1'>그 얘기를 왜 이렇게 조용히 하냐</span>”고 묻자 옆에 있던 정범균이 “언제 죽일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br/>서하준 암세포대사 언급에 대해 네티즌들은 “<span class='quot2'>서하준, 암세포 대사 얼마나 황당했을까</span>”, “<span class='quot2'>서하준, 암세포 대사 언급하고 임성한 작가에 미움받는 거 아니야?</span>”, “<span class='quot2'>서하준 암세포 대사 언급, 용감하다</span>” 등의 반응을 보였다. <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239.txt

제목: 서하준 “암세포 대사 보고 나도 5분간 얼음”…임성한 대노하려나  
날짜: 201401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225539414  
본문: ‘오로라공주’에 출연했던 배우 서하준이 드라마 속에서 뜨거운 논란을 불러온 ‘암세포도 생명’이라는 대사에 대해 언급했다.<br/>서하준은 9일 방송된 KBS2 ‘해피투게더3’에 출연, “암세포도 생명인데 살아야죠”라는 대사를 재연했다.<br/>이는 극 중 남자 주인공 설설희가 암 치료를 거부하면서 말한 대사로 방송 직후 뜨거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br/>이날 서하준은 “<span class='quot0'>처음 대본을 받고 5분간 얼음이 됐다</span>”면서 자신도 당황했다고 고백했다.<br/>MC들이 “임성한 작가를 실제로 만나봤나. 어땠나”고 묻자 서하준은 “못 만났다. 난 드라마 중반에 투입돼 내가 리딩할 때는 안 왔다”고 말했다.<br/>유재석은 “<span class='quot1'>그 얘기를 왜 이렇게 조용히 하냐</span>”고 묻자 옆에 있던 정범균이 “언제 죽일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240.txt

제목: 한국사는 이해가 중요…역사흐름 알면 답 찾는 데 도움  
날짜: 201401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224028867  
본문: 대입 수험생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한국사는 꼭 넘어야 할 벽이다. 암기해야 할 내용이 많아 어렵게 느껴지지만, 완벽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2% 부족’의 고배를 마셔야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자주 출제됐던 부분을 정리하고, 지난해 7급 필기시험 한국사 과목에서 100점 만점을 맞은 합격자의 조언을 듣는다. <br/><br/>우선 5급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응시 전까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고급) 성적을 미리 받아 놓아야 한다. 검정시험 성적표가 있어야 5급 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검정시험은 연중 네 차례 시행된다. 올해 첫 시험(제22회)은 오는 25일 전국 52개 지역에서 치러진다. 결과는 다음 달 11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누리집(historyexa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br/><br/>권용기 에듀윌 강사는 “<span class='quot0'>한국사 기출 문제를 분석했을 때 이번 시험에서도 수험생들에게 물어볼 주제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고급 문제의 경우 50문제 중 전·근대 시기 관련 문제는 30개, 근대 이후의 문제는 20개 정도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br/><br/><br/><br/>☞최신 뉴스 보러가기<br/><br/><br/><br/>권 강사는 선사시대 내용에서는 구석기·신석기·청동기·철기 시대 구분하기, 단군신화 및 8조법금 분석, 고조선 발달사 등이 주로 다뤄진다고 설명했다. 삼국시대는 6가야 연맹과 금관가야, 대가야 비교, 고구려·백제·신라 발전사, 임나일본부설 비판, 신라의 왕호 변천사, 수도·중심지 이동, 통일신라와 발해의 중앙행정 조직 등이 자주 등장한다.<br/><br/>고려시대의 경우 호족 정책, 지배세력의 변천사, 무신집권기 정치·경제·사회상, 공민왕의 개혁 정치, 대외 관계, 서경 천도 운동 등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삼국시대만큼이나 숙지해야 할 내용이 많은 조선시대에는 세종과 성종의 편찬사업, 고려와 조선의 지방행정 조직 비교, 성균관·서원·향교·서당 등의 구분, 붕당정치, 인조반정 이후 친명배금 정책과 광해군의 중립정치 비교, 영조와 정조의 개혁 정책, 세도정치 등이 수차례 활용됐다.<br/><br/>근대기에서는 흥선대원군의 개혁, 병인양요와 신미양요의 비교, 강화도 조약, 임오군란과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과정,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 등의 출제 빈도가 높다. 일제강점기는 시기별 일제 통치·경제 정책, 3·1운동과 6·10만세운동, 항일운동 간 비교, 임시정부 활동, 중일전쟁 이후 광복군·의용군 활동 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br/><br/>현대사에서는 모스크바 3상 회의, 정부 수립 과정, 6·25전쟁, 4·19혁명 및 5·16 군사정변, 유신 체제와 신군부 등장, 광주민주화운동과 더불어 6·10항쟁, 7·4 남북공동성명과 관련된 지식을 학습해야 한다는 것이다.<br/><br/>박아영(28·여·일반행정직)씨는 지난해 시험 한국사 과목에서 만점을 받았다. 하지만 그 전 시험에서는 15점을 받고 크게 낙심한 바 있다. 박씨는 “<span class='quot1'>2010년 생애 첫 공무원 시험에서 한국사 점수가 15점이었다</span>”면서 “<span class='quot1'>비록 시험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른 것이라고 하지만 성적이 너무 나빠서 내가 우리나라 국민이 맞나 하는 생각도 했다</span>”면서 웃었다.<br/><br/>“<span class='quot2'>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영어 다음으로 힘들었던 과목이었을 만큼 한국사가 번번이 발목을 잡았다</span>”고 말하는 그가 만점을 받은 비결은 ‘많이 푸는 것보다 제대로 이해하는 것’에 있었다.<br/><br/>박씨는 처음 한국사를 공부할 때 주변에서 추천하는 학습법을 그대로 따랐다. 요약 노트를 만들 시간에 기본서를 한 번이라도 더 읽고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 보라는 게 주위의 조언이었다. 2년 동안 같은 방법으로 공부했지만 점수는 늘 70~80점에 머물렀다. 변화가 필요했다. 그는 기본서를 바꾸는 일부터 시작했다.<br/><br/>박씨는 “<span class='quot1'>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으로 주제가 나뉜 가운데 역사적 사실이 시대별로 기술된 기본서를 골랐다</span>”면서 “<span class='quot1'>시간 순으로 적힌 책이 한국사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 데 도움이 됐다</span>”고 말했다. 시험을 앞두고 15차례 이상 반복해 기본서를 정독했다. 또 법원직·경찰직·소방직 공무원 시험 등에 출제된 한국사 기출 문제도 풀어 보면서 나름의 정리 작업을 병행했다.<br/><br/>“<span class='quot2'>문제를 풀면서 확실히 이해한 지문과 그렇지 않은 지문, 헷갈리기 쉬운 지문과 주의해야 할 지문을 따로 표시한 뒤 엑셀 파일로 정리했다</span>”는 박씨는 “<span class='quot2'>문제를 많이 푸는 일도 좋지만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푸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수험생활 3년차에 비로소 깨달았다</span>”고 덧붙였다.<br/><br/>암기가 필요한 내용을 골라 공책에 담았다. 또 암기 내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른바 ‘연표식 정리’를 활용했다. 그는 “<span class='quot2'>역사적 사건들을 먼저 세기별로 크게 분류한 뒤 몇몇 주요 사건이 발생한 연도를 외우면서 공부했다</span>”면서 “<span class='quot2'>역사 흐름을 알면 어떤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 정확히 몰라도 문제를 풀 수 있지만 제한된 시간 안에 답을 빨리 찾으려면 주요 사건의 발생 연도는 암기하는 게 편하다</span>”고 했다. 박씨는 네 차례 도전 끝에 공직에 진출했다. 그는 한국사 점수를 높이려 노력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span class='quot2'>제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방법을 찾아내는 공무원이 되겠다</span>”는 각오를 밝혔다.<br/><br/>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241.txt

제목: ‘엘리펀트 맨’ 유골로 암 치료제 만든다?  
날짜: 201401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33502634  
본문: 지난 1980년 당시 공개된 영화 한편이 세간에 큰 충격을 던졌다. 바로 지금도 ‘꼭 봐야하는 영화’로 평가받는 데이비드 린츠 감독의 수작 ‘엘리펀트 맨’(The Elephant Man)이다.<br/>영화에 등장하는 주인공 엘리펀트 맨은 다발성 신경섬유종증에 걸려 얼굴과 온몸에 커다란 혹이 붙어있는 기이한 외모를 갖고있다. 이 흉측한 외모 때문에 엘리펀트 맨은 다른 인간들에게 수난과 이용을 당한다.<br/>잘 알려진 것 처럼 영화 엘리펀트 맨은 지난 1862년 영국에서 태어나 27년을 살다 간 조셉 메릭의 이야기를 스크린에 담았다. <br/>영화로만 회자되던 메릭의 이야기가 최근 영국에서 다시 조명받고 있다. 그 이유는 메릭의 뼈가 암의 원인을 찾는 실마리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기 때문.<br/>최근 영국방송 BBC는 “<span class='quot0'>메릭의 유골을 보관 중인 런던 퀸메리 대학 연구팀이 그의 뼈를 통해 종양을 유발하는 비정상적인 세포 증식과 그 원인을 찾는 연구에 착수했다</span>”고 전했다.<br/>과거에도 메릭의 뼈를 이용한 이같은 연구가 시도된 바 있으나 뼈가 표백돼 있어 실패했다. 그러나 새로 개발된 기술을 통해 DNA를 추출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br/>퀸메리 대학 리처드 크램배스 교수는 “<span class='quot1'>메릭의 뼈를 통해 암 치료제를 만들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다</span>” 면서도 “<span class='quot1'>이 연구를 통해 정상적, 비정상적 상태에서의 세포의 움직임과 증식을 이해하는 좋은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span>”이라고 밝혔다. 　<br/>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242.txt

제목: ‘엘리펀트 맨’ 뼈로 암 치료법 찾아 나선다  
날짜: 201401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33409228  
본문: 지난 1980년 당시 공개된 영화 한편이 세간에 큰 충격을 던졌다. 바로 지금도 ‘꼭 봐야하는 영화’로 평가받는 데이비드 린츠 감독의 수작 ‘엘리펀트 맨’(The Elephant Man)이다.<br/>영화에 등장하는 주인공 엘리펀트 맨은 다발성 신경섬유종증에 걸려 얼굴과 온몸에 커다란 혹이 붙어있는 기이한 외모를 갖고있다. 이 흉측한 외모 때문에 엘리펀트 맨은 다른 인간들에게 수난과 이용을 당한다.<br/>잘 알려진 것 처럼 영화 엘리펀트 맨은 지난 1862년 영국에서 태어나 27년을 살다 간 조셉 메릭의 이야기를 스크린에 담았다. <br/>영화로만 회자되던 메릭의 이야기가 최근 영국에서 다시 조명받고 있다. 그 이유는 메릭의 뼈가 암의 원인을 찾는 실마리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기 때문.<br/>최근 영국방송 BBC는 “<span class='quot0'>메릭의 유골을 보관 중인 런던 퀸메리 대학 연구팀이 그의 뼈를 통해 종양을 유발하는 비정상적인 세포 증식과 그 원인을 찾는 연구에 착수했다</span>”고 전했다.<br/>과거에도 메릭의 뼈를 이용한 이같은 연구가 시도된 바 있으나 뼈가 표백돼 있어 실패했다. 그러나 새로 개발된 기술을 통해 DNA를 추출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br/>퀸메리 대학 리처드 크램배스 교수는 “<span class='quot1'>메릭의 뼈를 통해 암 치료제를 만들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다</span>” 면서도 “<span class='quot1'>이 연구를 통해 정상적, 비정상적 상태에서의 세포의 움직임과 증식을 이해하는 좋은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span>”이라고 밝혔다. 　<br/>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243.txt

제목: 20대女 시험 계속 떨어지자 택한 방법이…  
날짜: 201401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223618261  
본문: 대입 수험생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한국사는 꼭 넘어야 할 벽이다. 암기해야 할 내용이 많아 어렵게 느껴지지만, 완벽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2% 부족’의 고배를 마셔야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자주 출제됐던 부분을 정리하고, 지난해 7급 필기시험 한국사 과목에서 100점 만점을 맞은 합격자의 조언을 듣는다. <br/><br/><br/>우선 5급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응시 전까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고급) 성적을 미리 받아 놓아야 한다. 검정시험 성적표가 있어야 5급 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검정시험은 연중 네 차례 시행된다. 올해 첫 시험(제22회)은 오는 25일 전국 52개 지역에서 치러진다. 결과는 다음 달 11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누리집(historyexa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br/><br/><br/>권용기 에듀윌 강사는 “<span class='quot0'>한국사 기출 문제를 분석했을 때 이번 시험에서도 수험생들에게 물어볼 주제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고급 문제의 경우 50문제 중 전·근대 시기 관련 문제는 30개, 근대 이후의 문제는 20개 정도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 <br/><br/><br/>권 강사는 선사시대 내용에서는 구석기·신석기·청동기·철기 시대 구분하기, 단군신화 및 8조법금 분석, 고조선 발달사 등이 주로 다뤄진다고 설명했다. 삼국시대는 6가야 연맹과 금관가야, 대가야 비교, 고구려·백제·신라 발전사, 임나일본부설 비판, 신라의 왕호 변천사, 수도·중심지 이동, 통일신라와 발해의 중앙행정 조직 등이 자주 등장한다. <br/><br/><br/>고려시대의 경우 호족 정책, 지배세력의 변천사, 무신집권기 정치·경제·사회상, 공민왕의 개혁 정치, 대외 관계, 서경 천도 운동 등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삼국시대만큼이나 숙지해야 할 내용이 많은 조선시대에는 세종과 성종의 편찬사업, 고려와 조선의 지방행정 조직 비교, 성균관·서원·향교·서당 등의 구분, 붕당정치, 인조반정 이후 친명배금 정책과 광해군의 중립정치 비교, 영조와 정조의 개혁 정책, 세도정치 등이 수차례 활용됐다. <br/><br/><br/>근대기에서는 흥선대원군의 개혁, 병인양요와 신미양요의 비교, 강화도 조약, 임오군란과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과정,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 등의 출제 빈도가 높다. 일제강점기는 시기별 일제 통치·경제 정책, 3·1운동과 6·10만세운동, 항일운동 간 비교, 임시정부 활동, 중일전쟁 이후 광복군·의용군 활동 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br/><br/><br/>현대사에서는 모스크바 3상 회의, 정부 수립 과정, 6·25전쟁, 4·19혁명 및 5·16 군사정변, 유신 체제와 신군부 등장, 광주민주화운동과 더불어 6·10항쟁, 7·4 남북공동성명과 관련된 지식을 학습해야 한다는 것이다. <br/><br/><br/>박아영(28·여·일반행정직)씨는 지난해 시험 한국사 과목에서 만점을 받았다. 하지만 그 전 시험에서는 15점을 받고 크게 낙심한 바 있다. 박씨는 “<span class='quot1'>2010년 생애 첫 공무원 시험에서 한국사 점수가 15점이었다</span>”면서 “<span class='quot1'>비록 시험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른 것이라고 하지만 성적이 너무 나빠서 내가 우리나라 국민이 맞나 하는 생각도 했다</span>”면서 웃었다. <br/><br/><br/>“<span class='quot2'>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영어 다음으로 힘들었던 과목이었을 만큼 한국사가 번번이 발목을 잡았다</span>”고 말하는 그가 만점을 받은 비결은 ‘많는 푸는 것보다 제대로 이해하는 것’에 있었다. <br/><br/><br/>박씨는 처음 한국사를 공부할 때 주변에서 추천하는 학습법을 그대로 따랐다. 요약 노트를 만들 시간에 기본서를 한 번이라도 더 읽고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 보라는 게 주위의 조언이었다. 2년 동안 같은 방법으로 공부했지만 점수는 늘 70~80점에 머물렀다. 변화가 필요했다. 그는 기본서를 바꾸는 일부터 시작했다. <br/><br/><br/>박씨는 “<span class='quot1'>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으로 주제가 나뉜 가운데 역사적 사실이 시대별로 기술된 기본서를 골랐다</span>”면서 “<span class='quot1'>시간 순으로 적힌 책이 한국사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 데 도움이 됐다</span>”고 말했다. 시험을 앞두고 15차례 이상 반복해 기본서를 정독했다. 또 법원직·경찰직·소방직 공무원 시험 등에 출제된 한국사 기출 문제도 풀어 보면서 나름의 정리 작업을 병행했다. <br/><br/><br/>“<span class='quot2'>문제를 풀면서 확실히 이해한 지문과 그렇지 않은 지문, 헷갈리기 쉬운 지문과 주의해야 할 지문을 따로 표시한 뒤 엑셀 파일로 정리했다</span>”는 박씨는 “<span class='quot2'>문제를 많이 푸는 일도 좋지만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푸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수험생활 3년차에 비로소 깨달았다</span>”고 덧붙였다. <br/><br/><br/>암기가 필요한 내용을 골라 공책에 담았다. 또 암기 내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른바 ‘연표식 정리’를 활용했다. 그는 “<span class='quot2'>역사적 사건들을 먼저 세기별로 크게 분류한 뒤 몇몇 주요 사건이 발생한 연도를 외우면서 공부했다</span>”면서 “<span class='quot2'>역사 흐름을 알면 어떤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 정확히 몰라도 문제를 풀 수 있지만 제한된 시간 안에 답을 빨리 찾으려면 주요 사건의 발생 연도는 암기하는 게 편하다</span>”고 했다. 박씨는 네 차례 도전 끝에 공직에 진출했다. 그는 한국사 점수를 높이려 노력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span class='quot2'>제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방법을 찾아내는 공무원이 되겠다</span>”는 각오를 밝혔다. <br/><br/><br/>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244.txt

제목: “고소득층이 의료 더 많이 이용” 의료 이용 양극화  
날짜: 201401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223158365  
본문: 고소득층이 의료를 더 많이 이용하는 등 의료 이용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br/>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임승지·김승희·백종환·김나영 연구원은 8일 ‘저소득층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이란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br/>연구팀은 2008년과 2011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등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른 의료이용 형평성을 행위 측면(외래이용량, 입원이용량, 약국이용량)과 비용 측면(총진료비, 건강보험부담금, 본인부담금 지출)으로 나눠 측정했다.<br/>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의료이용이 고소득층에 집중된 불균형 상태를 보였다.<br/>특히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의료필요에 상관없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외래이용량과 약국이용량, 총진료비 지출, 건강보험 부담금 지출, 본인부담금 지출이 많았다. <br/>의료필요가 같은 상태에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외래이용량과 약국이용량에서 소득수준별로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입원이용량은 고소득층에 매우 치우진 ‘불형평성’을 보였다.<br/>연구팀은 또 한 해 동안 본인부담의료비로 지출한 금액이 연간소득의 10%를 초과한 저소득층 가구를 재난적 의료비를 경험한 가구로 정의하고 이들 가구에 재난적 의료비를 유발한 질병의 순위를 파악했다.<br/>그 결과, 총진료비와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살펴보니 1위는 본태성(일차성) 고혈압(특별한 원인 없이 혈압이 높은 상태), 2위는 기타배병증, 3위는 당뇨병이었다.<br/>예상과는 달리 이른바 4대 중증질환(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 난치질환)중 하나인 암은 20위 안에도 들지 않았다.<br/><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245.txt

제목: 지긋지긋 류머티즘 관절염 완치 길 열렸다  
날짜: 201401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223008901  
본문: ‘불치병’으로 여겨져 온 류머티즘 관절염을 완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br/><br/><br/>보건복지부는 뼈와 연골을 파괴해 류머티즘 관절염을 일으키는 활막세포의 유전자를 국내 연구진이 학계 최초로 규명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유전자를 선택 제거하는 새로운 치료법이 개발될 경우 류머티즘 관절염의 근본적 치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br/><br/><br/>서울성모병원 선도형 면역질환융합연구사업단의 김완욱 교수팀과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황대희 교수팀이 찾아낸 류머티즘 관절염원인 유전자는 모두 13개로, 이 가운데 ‘페리오스틴’과 ‘트위스트’라는 유전자가 공격성을 일으키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동물실험을 통해 이 유전자를 활막세포에서 제거하자 공격성과 파괴성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br/><br/><br/>연구를 주도한 김완욱 교수는 “<span class='quot0'>암과 같이 공격적으로 변한 활막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법이 현재까지는 없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이번 연구를 통해 활막세포의 파괴적 성질을 선택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새로운 메커니즘이 밝혀짐에 따라 관절염 완치의 길이 열리기를 기대한다</span>”고 말했다. <br/><br/><br/>류머티즘 관절염은 인체 면역계가 이상을 일으켜 종양처럼 환자 자신을 공격하는 질환으로, 관절 주위를 둘러싼 ‘활막’이라는 조직의 염증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처음에는 활막에만 염증이 생기지만 점차 주위 뼈와 연골로 번져 관절 기형과 극심한 통증을 일으킨다. <br/><br/><br/>이 질환은 지금까지 자가면역현상이란 것 외에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증상 완화는 가능해도 완치는 어려웠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00명 중 1명이 앓고 있다. <br/><br/><br/>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246.txt

제목: [지상파 하이라이트]  
날짜: 201401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222936758  
본문: ■생로병사의 비밀(KBS1 밤 10시) 암을 이긴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제대로 먹고, 운동하고, 치료하며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다. 대장암 완치 판정을 받자마자 18년 만에 위암 판정을 받은 황병만씨. 그는 자신의 몸 상태를 건강일지에 기록하는 것은 물론이고 하루 운동량까지 꼼꼼히 체크한다. 병만씨는 자신의 몸에 관심을 가지고 치료의 주체가 돼 생활하고 있는데….<br/><br/><br/>■예쁜 남자(KBS2 밤 10시) 자신의 진심을 깨달은 마테는 예전과는 다른 태도로 보통이를 대하고, 보통이는 그런 마테를 보며 설렌다. 반면에 유라에게 마테가 찾던 암호가 보통이임을 들은 다비드는 고통스럽다. 한편 마테의 제안으로 재탄생시킨 SS홈쇼핑은 연일 완판을 기록하며 보통유통과 함께 승승장구하게 되고, 나홍란은 마테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라고 지시한다.<br/><br/><br/>■황금어장 라디오스타(MBC 밤 11시 15분) 연기력이 일취월장해 주위를 놀라게 하고 있는 SM 3대 미녀 이연희, 가로등도 갈아 준다는 만능 손재주꾼 한기범과 이기우. 드라마에서의 대사는 한마디지만 ‘라디오스타’에서는 주인공인 쥬얼리 예원과 빡구 친구 ‘허필버그’ 허태희가 떴다. 드라마 홍보에 모든 것을 던져 버린 ‘미스코리아’의 주역들을 지금 만나 본다.<br/><br/><br/>■내 마음의 크레파스(SBS 오후 5시 35분) 경남의 아름다운 항구 도시 통영에는 무예 실력이 뛰어나기로 소문난 남매, 누나 승희와 동생 승안이가 있다. 이 남매는 무예관을 운영하는 아빠 밑에서 어릴 적부터 실력을 갈고닦아 무예 신동이라 불릴 정도로 실력이 좋다. 그런데 늘 순탄하기만 했던 동생 승안이의 무예 인생에 시련이 찾아온다.<br/><br/><br/>■한국기행(EBS 밤 9시 30분) 유흥용씨는 중2 때부터 학교에서 돌아오면 아버지를 따라 한탄강에서 고기를 잡았다. 맑은 한탄강에 그물을 치면 그물 한가득 올라오는 민물고기들. 그 재미가 좋아서 회사에 다니면서도 주말이면 아버지를 대신해 한탄강으로 고기를 잡으러 나간다. 함께 둘러앉아 먹는 뜨끈한 매운탕 한 그릇처럼 정겨운 그들의 삶으로 들어가 본다.<br/><br/><br/>■인천아시안게임 성공의 조건은?(OBS 오후 3시 5분) 40억 아시아인의 스포츠 대제전인 인천아시안게임이 다가왔다. 아시아 45개국 선수, 임원, 취재진 등 1만 5000명이 오는 9월 19일부터 16일간 근대 개항의 역사가 서린 땅 미추홀에서 경쟁과 화합, 이해와 나눔의 시간을 갖는다. 한편 인천시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면서 성공적 개최의 조건은 무엇인지 모색해 본다.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247.txt

제목: [경제 블로그] 영화 ‘변호인’은 웃고… 정기예금 ‘변호인’은 울고  
날짜: 201401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222845294  
본문: 영화 ‘변호인’을 두고 영화계와 금융계에 명과 암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개봉 19일 만에 80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흥행 대박을 터뜨리고 있는 것과 달리 이 영화를 마케팅 소재로 내건 은행의 예금 실적은 사상 최악을 기록했으니 말입니다.<br/><br/>우리은행은 지난달 출시한 ‘시네마 정기예금 12호-변호인’의 상품 가입자가 7일 현재 4094명, 가입금액 473억원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우리은행이 판매한 12개 종류의 시네마 정기예금 가운데 가장 많은 관객을 모았지만 정작 예금 가입자 수는 역대 시네마 정기예금을 통틀어 가장 적은 겁니다.<br/><br/>2011년 8월 출시한 ‘시네마 정기예금 5호-7광구’는 가입자 1만 6023명(가입금액 1969억원)으로 역대 가장 많은 고객을 모았지만 영화 흥행성적은 224만 2510명으로 ‘변호인’ 관객에 크게 못미쳤습니다. 또 역대 상품 가운데 관객수가 가장 적었던 ‘시네마 정기예금 3호-마이 블랙 미니드레스’(관객수 31만 3953명) 역시 가입자수는 1만 585명(가입금액 1525억원)으로 ‘변호인’을 훌쩍 앞섰습니다.<br/><br/>우리은행 측은 ‘변호인’ 상품의 흥행 실패 원인을 낮은 금리로 돌렸습니다. 관객수 300만명을 넘겨 최고 우대금리를 적용했지만 연 2.75%로 여전히 낮아 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은행 내부에서는 “경쟁은행들이 ‘우리은행은 곧 팔릴 은행’이라며 고객 빼앗기를 하는 통에 실적이 부진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br/><br/>반면 다른 은행들은 입장이 좀 다릅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span class='quot0'>민영화를 앞두고 있는 뒤숭숭한 내부 분위기 때문에 우리은행 창구에서 마케팅에 상대적으로 힘을 쏟지 않았을 것</span>”이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br/><br/>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248.txt

제목: 줄기세포를 이용한 퇴행성관절염 치료 가능성은?  
날짜: 201401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222201438  
본문: 의학의 미래에 대한 관심이 ‘줄기세포’에 모아지고 있다. 줄기세포는 기존의 약물이나 수술적 치료와 달리 질환의 근본적인 문제를 치료한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일단, 몸에 줄기세포가 주입되면 즉시 손상된 기관으로 이동해 세포를 재생시키는 방식이다. 즉, 줄기세포는 우리 몸의 손상 부위를 직접 치료하는 치료제 역할을 하는 셈이다. 현재 줄기세포는 백혈병·심장병·당뇨병·파킨슨병 등 많은 질환 치료에 적용되고 있으며, 암 등 악성 종양 치료에도 응용돼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줄기세포를 이용한 퇴행성 관절염 치료는 어디까지 가능한 것일까.<br/><br/><br/>●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가 희망이다<br/>노화로 인한 퇴행성 관절염 치료에 줄기세포가 유용하다는 사실은 다양한 연구에서 입증됐다. 노화로 손상된 연골에 줄기세포를 주입해 연골을 재생시키는 원리로, 기존의 대표적 퇴행성관절염 치료법인 인공관절 수술과는 확연히 다른 접근이다. 기존의 관절염 치료는 손상된 부위를 인공적으로 개조하는 방식이었다. 인공관절 수술은 무릎 연골이 모두 닳아 없는 관절염 말기 상태에 시행하는 유일한 치료법으로, 무릎 관절에 외부에서 만든 인공관절을 이식하는 방법이다. 인공관절은 환자의 신체 상태와 활동량, 수술 정확성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수명이 15~20년 정도이다. 따라서 인공관절 자체의 수명이 다 되면 재수술을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가급적이면 수술 시기를 늦추기 위해 65세 이상의 고령층에게 주로 시행한다. <br/>이에 비해 줄기세포 치료는 기존의 치료법처럼 손상된 부위를 고치는 개념과는 전혀 다르다. 손상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재생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 무릎의 관절 병변에 줄기세포를 주입, 연골 재생을 촉진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사용하는 줄기세포는 골수와 지방, 제대혈 등에서 추출한다. 특히 자신의 골수나 지방을 이용하는 자가 줄기세포 치료는 부작용이 거의 없으면서, 본래 연골 기능의 70~80%까지 회복되는 것이 특징이다. 또 대부분 관절경으로 치료가 가능해 고령자도 부담없이 치료할 수 있다. <br/><br/><br/>●국내외 의료시장, ‘줄기세포 치료’에 주목<br/>줄기세포 치료가 각광을 받으면서, 세계적으로 이와 관련한 연구와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세계 굴지의 유명 병원과 기업, 연구소에서는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 연구에 골몰하고 있으며,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과 글로벌 마케팅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br/>물론 국내에서도 줄기세포 치료와 관련된 연구와 개발에 나서는 곳이 많다. 척추·관절 전문 연세사랑병원(대표원장 고용곤)의 경우 관절 전문병원 중 유일하게 자체 세포치료연구소를 설립해 관절염의 줄기세포 치료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br/>이 병원 세포치료연구소에는 연구소장을 비롯해 박사·석사급 연구원 8명이 투입하고 있으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 전문병원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데 이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로 선정되기도 했다. IRB란 의료기관에 설치된 상설위원회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에서 피시험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다. 이처럼 줄기세포 연구에 주력하는 것은 그만큼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br/><br/><br/>●가시화되는 줄기세포 치료 가능성<br/>줄기세포 치료의 가능성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줄기세포 연구의 동향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 병원의 경우, 지난 해에 지방줄기세포가 손상된 무릎연골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권위있는 국제 학술지 ‘더 니(The Knee)’와 ‘아스로스코피(Arthroscopy)’에 발표했다. 특히 아스로스코피에 게재된 논문은 무릎 관절염에 대한 지방줄기세포와 PRP 치료의 임상결과를 입증한 세계 최초의 연구 논문으로 주목을 받았다. 또 지방 줄기세포를 이용해 발목 관절연골의 재생 효과를 규명한 연구논문도 지난해 5월 미국의 ‘더 아메리칸 저널 오브 스포츠 메디슨(The American Journal of Sports Medicine)’에 실렸다. 이런 연구 성과가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아 지난해 2월에는 근골격계 의학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매년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학술전시회 ‘AAOS(American Academy of Orthopaedic Surgeons)’에서 자가 줄기세포 치료의 무릎연골 재생 효능을 입증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국내 전문병원으로는 처음으로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열린 ‘2013 국제연골재생학회(ICRS)’ 중점회의에 초청돼 특별강연도 했다.<br/>고용곤 병원장은 “<span class='quot0'>지금까지는 손상된 곳에 직접 약물을 주입하거나 수술적 방법으로 퇴행성 관절염을 치료했다면, 이제는 손상된 연골에 줄기세포를 주입해 실제 환자 자신이 가졌던 연골과 비슷한 강도와 내구성을 가진 세포로 분화하게 하는 재생 중심의 줄기세포 치료가 대세를 이룰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지금의 추이로 본다면 향후 2~3년, 빠르면 1년여 정도만 지나면 모든 관절 치료에 있어 줄기세포의 상용화가 이루어지고 더욱 진전된 줄기세포 치료법들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 그는 “<span class='quot0'>현재도 줄기세포 치료는 가능하지만 연골 기능을 더욱 완벽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면 이는 퇴행성 관절염 치료의 신기원이 될 것이며, 그런 성과가 곧 나올 것</span>”이라고 전망했다.<br/><br/><br/><br/>심재억 의학전문기자 jeshim@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249.txt

제목: ‘여우’가 세계 일주를? 이색 인증샷 화제  
날짜: 201401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33238273  
본문: 미국 라스베이거스, 뉴욕부터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이탈리아 로마까지 30년 동안 세계여행을 쉬지 않은 ‘여우 인형’이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br/>영국 일간지 메트로 등 해외 언론에 소개된 이 독특한 여행자는 제시카 존슨이라는 여성과 함께하는 인형으로, 제시카는 3살 때 선물로 받은 여우 인형인 ‘미스터 폭스’(Mr. Fox)와 30년 동안 세계 방방곡곡을 누볐다.<br/>그녀는 세계 유명 관광지에서 ‘미스터 폭스’를 주인공으로 세운 기념사진을 찍어 왔으며, 이 사진들을 한데 모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여행 사이트를 개설했다. <br/>독일 뉘른베르크의 한 성당에서 찍은 사진은 조용히 앉아 기도를 하는 듯한 ‘미스터 폭스’의 뒷모습을, 영국 런던의 타워브릿지 앞에서 찍은 사진은 감격스러운 듯 이를 바라보는 모습 등을 담고 있어 색다른 느낌을 준다. <br/>또 콜롬비아의 검문소에서는 이곳 경비를 맡은 군인들과 함께 사진을 찍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가 기념사진을 찍은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br/>미국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는 제시카는 “<span class='quot0'>미국 플로리다에서는 ‘미스터 폭스’ 안에 마약이 들어있다는 의심 때문에 강제로 검사를 받은 적도 있다</span>”고 에피소드를 소개했다. <br/>또 “이 인형은 내가 아기였던 때부터 사춘기 시절을 거쳐 현재까지 언제나 함께 해왔다”면서 “내게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친구”라고 소개했다.<br/>한편 그녀는 어렸을 적 자신에게 이 선물을 준 지인이 암 투병중인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그가 ‘버킷 리스트’에 있는 세계 일주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모금활동을 벌이고 있다.<br/>웹사이트 ‘thetravelingmrfox.com’ 에서는 그녀와 오랜 친구 ‘미스터 폭스’의 여행사진 감상 및 기부 캠페인 참여가 가능하다. <br/>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250.txt

제목: 30년간 방방곡곡 세계일주 한 ‘여우’ 인증샷  
날짜: 201401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33204829  
본문: 미국 라스베이거스, 뉴욕부터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이탈리아 로마까지 30년 동안 세계여행을 쉬지 않은 ‘여우 인형’이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br/>영국 일간지 메트로 등 해외 언론에 소개된 이 독특한 여행자는 제시카 존슨이라는 여성과 함께하는 인형으로, 제시카는 3살 때 선물로 받은 여우 인형인 ‘미스터 폭스’(Mr. Fox)와 30년 동안 세계 방방곡곡을 누볐다.<br/>그녀는 세계 유명 관광지에서 ‘미스터 폭스’를 주인공으로 세운 기념사진을 찍어 왔으며, 이 사진들을 한데 모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여행 사이트를 개설했다. <br/>독일 뉘른베르크의 한 성당에서 찍은 사진은 조용히 앉아 기도를 하는 듯한 ‘미스터 폭스’의 뒷모습을, 영국 런던의 타워브릿지 앞에서 찍은 사진은 감격스러운 듯 이를 바라보는 모습 등을 담고 있어 색다른 느낌을 준다. <br/>또 콜롬비아의 검문소에서는 이곳 경비를 맡은 군인들과 함께 사진을 찍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가 기념사진을 찍은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br/>미국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는 제시카는 “<span class='quot0'>미국 플로리다에서는 ‘미스터 폭스’ 안에 마약이 들어있다는 의심 때문에 강제로 검사를 받은 적도 있다</span>”고 에피소드를 소개했다. <br/>또 “이 인형은 내가 아기였던 때부터 사춘기 시절을 거쳐 현재까지 언제나 함께 해왔다”면서 “내게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친구”라고 소개했다.<br/>한편 그녀는 어렸을 적 자신에게 이 선물을 준 지인이 암 투병중인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그가 ‘버킷 리스트’에 있는 세계 일주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모금활동을 벌이고 있다.<br/>웹사이트 ‘thetravelingmrfox.com’ 에서는 그녀와 오랜 친구 ‘미스터 폭스’의 여행사진 감상 및 기부 캠페인 참여가 가능하다. <br/>나우뉴스부 nowenews@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251.txt

제목: [암을 말하다-방광암(상)] 35세 이후 통증 없이 피 섞인 오줌 나오면 방광암 의심해 봐야  
날짜: 201401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220542959  
본문: 방광은 간이나 폐, 위 등과 달리 암에 대한 일상적인 우려에서 한 걸음 비켜서 있는 듯 보이기 쉽다. 중요하지만 덜 중요하게 여기는 탓이다. 그러나 여기에 암이 생기면 문제가 달라진다. 발생 건수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오줌을 모아 배설하는 방광은 각종 오염물질이 배설되기 전에 반드시 경유한다는 점에서 암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신체 기관이다. 피에 섞였다가 콩팥을 거쳐 소변으로 배설되는 체내 노폐물에는 생각보다 많은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런 발암물질이 방광 벽의 세포조직을 변화시켜 암을 만든다. 이런 방광암에 대해 이동현 이대목동병원 비뇨기과 교수와 얘기를 나눴다.<br/><br/>→방광암을 정의해 달라.<br/><br/>-흔히 오줌보라고 하는 방광은 소변을 저장·배출하는 근육 기관으로, 아래로는 요도, 위로는 요관과 연결되며, 정상 성인은 400∼500㏄ 정도의 소변을 저장할 수 있다. 이런 방광에 생기는 악성 종양을 방광암이라고 한다.<br/><br/>→방광암의 유형은 어떻게 구분하는가.<br/><br/>-방광암은 주변 조직에 침입한 정도, 즉 침윤 상태에 따라 방광 점막과 점막 하층에만 나타나는 표재성, 근육층까지 침범한 근침윤성으로 구분하며, 전이성 방광암도 따로 구분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런 유형에 따라 치료 방법과 경과 및 결과가 크게 다르다. 전체 방광암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표재성은 비교적 쉬운 경요도절제술로 종양의 완전 절제가 가능하다. 또 쉽게 전이되지는 않지만 수술 후 재발이 흔하며, 근침윤성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근침윤성은 주변 조직으로 쉽게 침윤하며 잘 전이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런 경우 경요도절제술만으로는 부족해 방광적출술로 종양을 완전히 들어내는 치료를 한다.<br/><br/>→우리나라에서의 발생 추이는 어떤가.<br/><br/>-중앙암등록본부에 따르면 2011년 국내에서 발생한 암 21만 8017건 중 방광암은 3549건으로, 조사가 시작된 1999년 2180건이었던 데 비해 매년 증가하고 있다. 발생건수는 남자가 2847건으로 남성암 중 7위에 올랐으며, 여자는 연 702건으로 남자가 4대 1 정도로 많다. 또 연령이 높을수록 발생률이 높으며, 남자의 경우 2007∼2011년 사이의 5년 생존율은 77.4%였다.<br/><br/>→발생 원인은 무엇인지 상세히 짚어 달라.<br/><br/>-방광암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연령·흡연·화학약품 노출·진통제·항암제·감염 및 방광 결석과 방사선 치료 등이 위험인자로 간주되고 있다. 특히 흡연은 가장 중요한 단일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으며, 보통은 연령에 비례해 발생률이 증가하는 추이를 보인다. 흡연자가 방광암에 걸릴 확률은 비흡연자의 2∼7배이며, 남자는 방광암의 50∼65%, 여자는 20∼30%가 흡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방광암 발생 빈도는 흡연 기간 및 흡연량, 흡연을 시작한 시점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 유소년기에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에 노출되면 발생 빈도가 증가한다. 그러나 이런 발생 빈도는 금연과 동시에 감소해 금연 후 1∼4년 내에 방광암 발생 빈도의 40%가량이, 25년 후에는 60%가량이 감소한다.<br/><br/>→앞서 거론한 원인이 방광암 발병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가.<br/><br/>-담배의 발암물질은 폐를 통해 피로 유입되며, 신장에서 걸러져 소변에 포함되는데, 이때 발암물질이 소변이 직접 접촉하는 방광 속 점막세포에 손상을 가해 암세포를 만든다. 사업장에서 노출되는 각종 화학물질도 흔한 방광암 발병인자로 알려져 있는데, 전체 방광암의 20∼25%가 직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방향족 아민이라는 화학물질을 취급할 경우 방광암에 걸릴 위험성이 더 높은데, 고무·가죽·직물·인쇄재료·페인트 제품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2-나프틸아민, 4-아미노바이페닐, 벤지딘 등이 대표적인 화학물질이다.<br/><br/>→최근의 국내 발병률 추이와 관련된 특정 원인이 따로 있나.<br/><br/>-방광암은 남성 암 중에서 위암·대장암·폐암·간암·전립선암·갑상선암 다음으로 흔하다. 60∼70대에서 주로 발병하고, 남성이 여성보다 3∼4배 많이 생기며, 발생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는 평균수명의 증가와 암 진단율 향상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br/><br/>→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병기별로 구분해 설명해 달라.<br/><br/>-방광암의 초기 증상이자 가장 주요한 증상은 통증 없이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것이다. 소변 색깔은 간장색에서 선홍색까지 다양하나, 혈뇨의 양과 빈도가 방광암의 병기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다른 증상으로는 소변을 자주 보는 빈뇨, 배뇨 시 통증, 소변이 급하게 마려운 급박성 요실금 등이 있는데, 상피 내암에서 이런 증상이 흔하다. 특히 통상적인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는 방광염·전립선염이나 요배양검사에서 균이 검출되지 않는데 방광 자극 증상이 계속되면 방광암일 가능성이 높다. 병이 진행되면 체중이 줄고, 골 전이에 따른 뼈의 통증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아랫배에 덩어리가 만져지기도 한다. 또 암이 요관을 막아 신장에서 소변이 내려오지 못하면 수신증으로 옆구리 통증이 생기며, 이 상태가 만성화되면 신장이 손상돼 요독증이 발생하기도 한다.<br/><br/>→환자가 느낄 수 있는 특징적인 자각 증상은 무엇인가.<br/><br/>-초기엔 별다른 증상이 없는 대부분의 암과 달리 방광암은 초기에 통증 없이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가 흔하다. 물론 혈뇨가 있다고 반드시 방광암인 것은 아니지만 35세 이후 혈뇨가 나온다면 방광암을 의심해 봐야 한다.<br/><br/>→검사는 어떻게 하는가.<br/><br/>-먼저 요검사를 통해 적혈구와 염증세포가 보이는지, 또 요세포검사를 통해 소변에 암세포가 섞여 있는지를 확인한다. 여기에서 방광암이 의심되거나 육안으로 혈뇨가 확인되면 방광경검사를 시행한다. 방광경검사는 국소 마취 후 요도를 통해 내시경을 방광에 삽입, 종양 유무와 위치·모양·개수·크기를 확인하는 중요한 검사다. 방사선검사는 방광암 진단 후 암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행하며, 방광에 암이 생긴 경우 요로상피로 덮여 있는 신우와 요관에도 2∼3% 정도에서 암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배설성 요로조영술을 시행한다. 또 전산화 단층촬영(CT)과 자기공명영상(MRI)·골스캔·흉부 촬영 등을 통해 다른 기관으로의 전이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된다.<br/><br/>심재억 전문기자 jeshim@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252.txt

제목: [암을 말하다-방광암(상)] 약물치료해도 배뇨장애 개선 안 되면 방광내시경검사·요세포검사 받도록  
날짜: 201401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220548792  
본문: 흔한 비뇨기계의 이상을 배뇨장애 증상이라고 여겨 방광암을 키우는 사람이 적지 않다. 소변을 자주 보거나 소변을 보고 난 후에도 시원한 느낌이 들지 않는 증세가 일반적으로 배뇨장애에서 나타나는 증상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이런 탓에 평소 전립선비대증 등 배뇨장애라고 믿고 약물치료를 받다가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물론, 급기야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올 때에야 병원을 찾았다가 방광암 진단을 받는 사례도 드물지 않다. 안타깝게도 이런 경우라면 방광을 모두 제거하는 수술을 받아야 할 만큼 암세포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쉽다. 실제로 전체 방광암 환자의 10%는 이런 전이성 방광암 상태에서 발견된다.<br/><br/><br/><br/><br/>문제는 몸의 이상을 ‘나이 탓’으로 치부하는 안일함이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기 쉬운 남성의 전립선비대증이나 여성의 요실금 등 배뇨장애를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여겨 방광암일 때도 나타날 수 있는 빈뇨·급박뇨·배뇨통 등 방광 자극 증상에 무심해지는 것. <br/><br/><br/>그러나 이런 증상은 방광암에서도 흔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 배뇨장애 증상이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전문의를 찾아 방광내시경검사와 요세포검사를 받아 보는 것이 현명하다.<br/><br/><br/>이동현 교수는 배뇨장애 증상을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span class='quot0'>특히 오랫동안 흡연을 해 온 남성이 35세를 넘겼고, 배뇨장애 증상이 있다면 평소 소변 색깔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span>”면서 “<span class='quot0'>만약 특별한 통증 없이 소변에 피가 비친다면 혈뇨의 양에 상관없이 방광암을 의심해 검사를 받아 봐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span class='quot0'>특히 겨울철이면 빈뇨 증상이 더 심해지지만 한사코 진료를 기피한 채 약만 복용할 경우 방광암의 중요한 신호를 놓치기 쉽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span>”고 덧붙였다.<br/><br/><br/>심재억 전문기자 jeshim@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253.txt

제목: 태어나기도 전 ‘엄마 뱃속’서 수술받은 아기 ‘기적’  
날짜: 201401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33113085  
본문: 세상 밖으로 나오기도 전, 엄마의 자궁 안에서 수술을 받고 목숨을 건진 영아의 사연이 알려져 놀라움을 주고 있다. <br/>영국 레스터셔주에 사는 시에나 스미스는 출생 전 호흡곤란으로 생명을 잃을 뻔 했지만, 의료진의 과감한 선택과 의술 덕분에 무사히 세상에 눈뜰 수 있게 됐다.<br/>시에나의 엄마는 임신 20주 경 초음파 검사에서 태아의 목이 점차 부어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의료진에게 듣고 충격을 감출 수 없었다. <br/>의료진은 당시 태아의 증상이 기관지 뿐 아니라 다른 장기까지도 짓누를 것으로 예상했고, 만약 이것이 암 종양이라면 결국 출생 이후에도 호흡곤란으로 목숨을 잃을 것을 염려했다.<br/>의료진은 곧장 제왕절개수술을 시작했지만 이는 일반적인 수술과 달랐다. 우선 의료진은 태아를 자궁에서 꺼내 탯줄을 자르기 전, 태아가 아직 자궁 내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호흡기를 이용해 산소를 공급했다. <br/>태아는 여전히 탯줄로 산모와 연결된 상태였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이었고, 완전히 자궁 밖으로 나오기 전부터 인위적인 방법으로 기도를 확보했기 때문에 호흡불가능의 상황을 피할 수 있었다. <br/>태아의 생명을 위태롭게 한 증상은 암이 아닌 갑상선종으로 알려졌으며, 현재는 위기를 넘기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br/>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이전 케이스를 살펴보면 같은 상황에서 태아의 사망률이 매우 높았다. 나 역시 이런 수술을 처음이었지만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 매우 다행”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br/>이어 “수술 후 신생아가 엄마의 팔 안에 안기는 모습은 의사로서도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밝혔다. <br/>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254.txt

제목: 자궁 안에서 수술받은 태아, 건강하게 탄생 ‘기적’  
날짜: 201401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33102810  
본문: 세상 밖으로 나오기도 전, 엄마의 자궁 안에서 수술을 받고 목숨을 건진 영아의 사연이 알려져 놀라움을 주고 있다. <br/>영국 레스터셔주에 사는 시에나 스미스는 출생 전 호흡곤란으로 생명을 잃을 뻔 했지만, 의료진의 과감한 선택과 의술 덕분에 무사히 세상에 눈뜰 수 있게 됐다.<br/>시에나의 엄마는 임신 20주 경 초음파 검사에서 태아의 목이 점차 부어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의료진에게 듣고 충격을 감출 수 없었다. <br/>의료진은 당시 태아의 증상이 기관지 뿐 아니라 다른 장기까지도 짓누를 것으로 예상했고, 만약 이것이 암 종양이라면 결국 출생 이후에도 호흡곤란으로 목숨을 잃을 것을 염려했다.<br/>의료진은 곧장 제왕절개수술을 시작했지만 이는 일반적인 수술과 달랐다. 우선 의료진은 태아를 자궁에서 꺼내 탯줄을 자르기 전, 태아가 아직 자궁 내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호흡기를 이용해 산소를 공급했다. <br/>태아는 여전히 탯줄로 산모와 연결된 상태였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이었고, 완전히 자궁 밖으로 나오기 전부터 인위적인 방법으로 기도를 확보했기 때문에 호흡불가능의 상황을 피할 수 있었다. <br/>태아의 생명을 위태롭게 한 증상은 암이 아닌 갑상선종으로 알려졌으며, 현재는 위기를 넘기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br/>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이전 케이스를 살펴보면 같은 상황에서 태아의 사망률이 매우 높았다. 나 역시 이런 수술을 처음이었지만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 매우 다행”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br/>이어 “수술 후 신생아가 엄마의 팔 안에 안기는 모습은 의사로서도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밝혔다. <br/>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255.txt

제목: “지구의 질량, 생각보다 더 크다”(美연구)  
날짜: 201401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33058154  
본문: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지구의 질량은 얼마나 될까?<br/>최근 해외 연구팀이 지구의 질량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보다 더 크다는 내용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br/>미국 텍사스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지구 주위로 암흑 물질(우주에 존재하는 물질 중 아무런 빛을 내지 않는 물질)이 존재하며 이것이 애초 이론보다 지구의 질량을 훨씬 증가케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br/>연구를 이끈 벤 해리스 교수는 미국의 위성 GPS와 러시아의 글로나스(Glonass·인공위성네트워크를 이용해 지상에 있는 목표물의 위치를 정확히 추적해내는 위성항법시스템) 등의 장비를 이용해 지구가 느끼는 중력을 측정한 뒤 이 정보를 이용해 지구의 질량을 계산했다. <br/>그 결과 국제천문연맹(international astronomical union)이 공식 인정한 지구의 질량인 5.9746×10²⁴㎏보다 0,005~0.008% 더 크며, 이는 지구 주위의 암흑 물질과 중력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br/>지구의 질량에 영향을 주는 암흑물질은 적도를 중심으로 펼쳐져 있으며 두께는 191㎞, 길이는 7만 ㎞에 달한다. <br/>암흑물질은 우주가 어떻게 팽창하고 은하계가 상호작용을 하는지 이해하는데 매우 중대한 이론 중 하나다. <br/>이것은 우주의 27%가량을 차지하고 있지만 엄청난 양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존재를 확인하기 어려워 알려진 바가 많지 않다.<br/>그는 과학전문매거진인 뉴사이언티스트와 한 인터뷰에서 “태양과 달의 중력 때문에 위성들의 궤도가 곧 변할 것”이라면서 “지구의 질량과 관련한 이번 이론이 사실로 판명된다면 오랫동안 미스터리로 남겨진 암흑물질의 비밀을 푸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br/>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256.txt

제목: 365일 마라톤으로 암 극복한 60대 노부부 ‘감동’  
날짜: 201401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33030162  
본문: 365일 간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마라톤을 하며 호주 전역을 일주한 60대 노부부의 사연이 네티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br/>미국 온라인매체 허핑턴 포스트의 2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연의 주인공은 호주 멜버른에 거주 중인 앨런 머레이(68)와 자네트 머레이 웨이클린(64) 부부다. <br/>본래 뉴질랜드 출신인 머레이 부부는 지난 43년간 행복한 결혼생활을 이어왔으나 지난 2001년 자네트가 악성 유방암으로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으며 고난이 찾아왔다.<br/>하지만 슬픔은 오래가지 않았다. 가만히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삶을 개척해보기로 부부가 뜻을 모은 것. 머레이 부부는 함께 식단을 완전한 채식으로 구성하고 달리기를 비롯한 운동을 병행했다.<br/>기적은 찾아왔다.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던 자네트는 현재까지 10여년이 넘도록 건강을 유지하고 있어 의료진을 놀라게 했다. 그동안 부부는 호주와 뉴질랜드의 크고 작은 마라톤 대회 50여개에 참가했고 2013년 한 해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호주 전역을 마라톤으로 일주했다. 총 거리는 무려 15,500km에 이른다.<br/>부부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우리는 60대가 넘어서 더욱 건강해졌다”며 “라이프스타일 변화로 건강한 삶을 찾고자하는 사람들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br/>한편 부부의 365일 마라톤 호주 일주는 세계 환경 보호와 건강 증진을 위한 캠페인 행사와 함께 진행됐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http://runningrawaroundaustralia.com)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br/>사진=머레이 부부 공식 홈페이지(http://runningrawaroundaustralia.com)　<br/>조우상 기자 wscho@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257.txt

제목: 뇌종양 생존율, 통계 숫자에 가려진 진실은  
날짜: 201401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33025379  
본문: 폐암, 위암, 간암, 유방암, 대장암 등 각종 암의 생존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 가운데 뇌종양의 5년 생존율은 65% 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한다. 특히 뇌수막종, 뇌하수체선종, 신경초종 같은 양성 뇌종양의 5년 생존율은 무려 95%를 상회한다. <br/>하지만 전문가들은 생존율을 나타내는 숫자가 뇌종양 환자들이 겪는 고통을 대변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양성 뇌종양 환자 100명 중 95명이 산다고 해도 재발 위험이나 뇌 손상 정도에 따라 치명적인 후유증에 시달리기도 하기 때문이다.<br/>뇌는 감각, 운동, 언어, 감정, 인지, 기억, 호흡, 체온 등 인체의 모든 기능을 주관하는 사령탑이다. 기본적인 생명활동은 물론 인간의 존엄성 및 자기 정체성과 직결된 영역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을 만큼 중요한 기관이다. <br/>하지만 한번 손상된 뇌는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침습적인 치료를 받기 전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br/>최근에는 뇌손상에 의한 전이, 재발, 후유증을 막기 위한 치료로 한방면역치료를 선택하는 환자가 늘고 있다. 이는 직접적인 뇌 손상 없이 종양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br/>한방면역치료는 면역력 증강을 위한 면역약침, 혈뇌장벽을 뚫고 약물을 투과시키는 비강훈증법을 진행하며, 뇌부종과 스테로이드 부작용 감소 효과가 있는 유향 약재, 감각 및 신경마비 증상을 완화시키는 침 치료 등을 통해 뇌종양의 주요 증상을 개선하고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br/>소람한방병원 성신 한의학 박사는 “<span class='quot0'>12주 한방면역요법 프로그램을 통해 암 환자를 진료한다</span>”며 “<span class='quot0'>수술로 종양을 제거했다고 해도 후유증을 다스리고 전이, 재발을 막고 남은 삶의 질을 위해 면역치료가 꼭 필요하다</span>”라고 밝혔다. <br/>한편 성신 박사는 뇌종양환자를 위한 책 ‘뇌종양, 독한 치료에 자신을 내주지 마라’를 통해 “뇌종양 환자들은 몸과 마음 회복을 강조한 바 있다. <br/><br/>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258.txt

제목: [열린세상] 의료의 공공성과 선택권/허대석 서울대 의대 내과학교실 교수  
날짜: 201401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214615355  
본문: 갑오년 새해 처음으로 공표될 정부의 보건복지 관련 정책은 이른바 3대 비급여문제, 간병비, 선택 진료비와 상급 병실료에 대한 개혁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발표된 바에 따르면 병원 접근성이 떨어지는 사회취약계층에 가장 절실한 자택 거주 환자의 간병 지원 문제를 방치한 채, 수도권의 대형 병원을 적극 이용하는 사람들의 선택 진료비와 상급 병실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보면서 대체 정부가 생각하는 의료의 ‘공공성’은 무엇인가 궁금해진다.<br/><br/>의료의 공공성을 중시하는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는 환자가 의료기관이나 의사를 선택할 수 없다. 암과 같은 중병으로 진단되면 1차로 진료한 의사가 적합한 의사를 추천하게 되고, 환자는 건강보험이 지정한 병원에서의 진료 순서를 기다려야 한다. 이들 나라에서는 의료서비스가 공공재로 인식되기 때문에 의료비 역시 사회복지비용의 일환으로 세금에 포함해서 납부하고, 의료문제가 발생하면 별도의 비용 지불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는 있으나, 이 또한 배급의 개념으로 분배된다.<br/><br/>유럽과 달리 의료제도가 시장논리에 의해 작동되는 미국의 상황은 다르다. 같은 수술일지라도 병원이나 의사에 따라 수가가 다르다. 따라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 원하는 병원에서 전문의에게 진료받는 것이 가능하다. 민간보험 중심 의료체계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한 오바마 대통령의 의료개혁 방안조차도 대부분의 환자는 의료기관이나 의사에 대한 선택권이 없고 보험회사가 배정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추진되고 있다. 물론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선택권이 생기지만 미국의 유명 대학병원은 사보험만 받는 병원이 많아 이들 환자가 가기는 어렵다.<br/><br/>유럽국가들은 의료의 공공성, 보장성을 충족시키는 데 중점을 둔 제도를 운영하면서 개인의 의료기관 선택권은 제한하고 있는 반면, 개인이 낸 의료보험료에 비례하여 환자의 선택권이 부여되는 미국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의료기능이 부족하여 많은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민 소득이 우리나라의 몇 배인 선진국에서도 의료의 공공성과 의료서비스의 선택권은 양립하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br/><br/>이들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환자 본인이 의료기관이나 의사를 선택할 수 있다.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구성돼 있는 의료전달체계를 갖고 있으나, 이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 수가도 약간의 차등 적용하고 있으나, 암과 같은 중증질환의 경우 본인 부담이 5%이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어느 의료기관을 이용하더라도 비용 부담의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br/><br/>의료기관 선택에 실질적인 장애요인이 있다면 선택 진료비, 상급 병실료와 같은 비급여진료비 문제인데, 대형병원을 선택할수록 본인부담 의료비가 증가한다. 자신이 내는 건강보험료의 액수에 상관없이 의료기관 선택에 제한을 받지 않는 제도하에서, 대형병원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급여 의료비 부담은 불필요한 대형병원 이용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왔던 것이다.<br/><br/>우리나라에 가장 흔한 암인 위암을 예로 들면, 해마다 3만여명이 새로 진단되는데 이 중 전이가 있는 4기 환자 12.6%를 제외한 약 2만 6000명 정도가 수술이 필요하다. 이들 환자 대부분은 수도권 대학병원의 경험 많은 소수의 외과의사에게 수술을 받고 싶어 하지만 일부 환자에게만 가능하다. 이러한 현실에서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은 대형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일부 환자의 비급여 진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보다 많은 수의 환자가 표준화된 양질의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의 질을 균형있게 향상시켜 나가는 것이다.<br/><br/>대형병원의 다인실 병상 부족도 의료기관 선택의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도덕적 해이와 무관하지 않은 문제이다. 의료서비스 선택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은 마련하지 않고 선택 진료비와 상급 병실료만 경감하면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더욱 심화시켜 의료의 진정한 공공성 확립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3-2259.txt

제목: [케이블 하이라이트]  
날짜: 201401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214525097  
본문: ■꽃보다 누나(tvN 밤 10시) 2014년 새해 첫날부터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짐꾼’ 이승기. 그의 열애설만큼이나 로맨틱한 ‘꽃’누나들과의 여행이 계속된다. 어느덧 여행 6일째 접어든 ‘꽃’누나와 ‘짐’승기의 배낭여행. 드라마 촬영보다 힘든 배낭여행 일정에 ‘꽃’누나들은 점점 지쳐가고, 누나들의 기분 전환을 위해 새싹 짐꾼 승기가 나섰다.<br/><br/><br/>■둠스데이 프레퍼스 2(내셔널지오그래픽 밤 12시) 다양한 인류 멸망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는 3명의 프레퍼족(준비족)을 만나본다. 워싱턴 주 밴쿠버에 거주하고 있는 제프 부쇼는 갑자기 찾아올 종말에 대비하며 살고 있다. 그는 옐로스톤 초대형 화산이 분출할까봐 두려워하면서 자신이 계획한 장소에 가족과 함께 대피하기 위해 비행 훈련까지 받고 있는데…. <br/><br/><br/>■뷰티플 크리처스(캐치온 밤 11시) 마녀의 운명을 타고난 열여섯 살 소녀의 선택이 세상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리나는 열여섯 번째 생일을 맞으면 선과 악 중 한 가지 힘을 선택해야만 하는 저주받은 소녀다. 누구보다 강력한 힘을 지닌 그녀는 세상을 끝낼 수도, 새롭게 시작할 수도 있기에 세상의 모든 능력자들이 그녀의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한다. <br/><br/><br/>■크리미널 인텐트 2(AXN 밤 10시 50분) 우연찮게 한 여성의 실종 사건을 맡게 된 고렌과 임스. 실종된 레슬리는 사라지기 직전 모로코인 남자친구와 결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두 사람은 모로코인 남자친구인 알리 알자바드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한다. 곧 이어 알자바드에게서 수상한 점이 발견되고 두 사람은 테러 용의자로 그를 의심하기 시작한다. <br/><br/><br/>■마이 트루 셀프(더 무비 오전 7시 30분) 벤은 의학 공부를 마무리하려고 그의 고향인 루이스빌로 돌아온다. 레지던트를 끝내면 이집트에서 의료 봉사를 하기로 결심을 한 벤이지만 그에게 4기 암 진단이 떨어졌다.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벤은 자신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남길 수 없다는 사실에 미쳐가지만, 곧 남은 삶을 다르게 살아보기로 한다.<br/><br/><br/>■명탐정 코난(애니맥스 오후 6시) 흡혈귀 소설로 유명한 공포소설작가인 드라큘라의 의뢰로 유명한과 유미란 그리고 코난은 드라큘라 성에 간다. 이들은 폭설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드라큘라 성에서 하룻밤 묵게 된다. 그날 밤 서재에서 혼자 소설 집필 중이던 드라큘라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채 발견되고, 유명한은 범인을 찾으려고 추리를 시작한다.